

발 간 등 록 번 호

11-1550000-000957-01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 보고서

2009



목 차

[원색화보]

1. 서 언

1. 수리 개요	35
1-1. 수리 과정	35
1-2. 수리 개요	35
2. 수리 지침	36
2-1. 사업 지침	36
2-2. 공사 개요	36
2-3. 공사 변경내용	41
2-4. 실측 조사	41
3. 수리 공사일지	43
4. 수리 관계자	45
5. 자문회의	46
6. 공사 내역	54
6-1. 내역 총괄	54
6-2. 공종별 내역	54

2. 연 혁

1. 대한제국 또 하나의 현장	67
1-1. 서론	67
1-2. 본론	68
1-3. 결론	84
2. <조선국왕 폐하의 건축가> 사바찐(1860~1921)	86
2-1. 머리말	86
2-2. 사바찐 연구의 발전과정	87
2-3. 가족 소장(所藏) 사료에 나타난 사바찐의 생애	89
2-4. 사바찐이 남긴 유산의 건축학적 특성	97
2-5. 사바찐의 말년	101
2-6. 맺는말	103

3. 실측 조사

1. 중명전의 구법적 특징	131
1-1. 중명전의 구법 개요	131

1-2. 중명전의 구법 특징	132
1-3. 소결(중명전의 기술사적 의의)	141
2. 실측 조사	144
2-1. 평면 조사	144
2-2. 단면 조사	166
2-3. 입면 조사	175
3. 한 장의 사진과 원형조사	182
3-1. 한 장의 사진	182
3-2. 1층 회랑 원형 조사	186
3-3. 1층 현관 원형 조사	195
3-4. 회랑 난간	199
4. 유구 조사	200
4-1. 지하 1층 배면 지하출입구 유구조사	200
4-2. 1층 중앙통로 바닥 타일	201
4-3. 외부 굴뚝과 벽난로	203
4-4. 목재판벽	208
4-5. 창호	209
 4. 보수·복원공사	
1. 보수·복원 개요	215
2. 가설공사	216
2-1. 공사준비	216
2-2. 가설공사	216
3. 해체 및 철거공사	218
3-1. 트렌치 조사	218
3-2. 증축부분 철거	219
3-3. 벽마감 해체공사	219
4. 조적공사	220
4-1. 벽돌 구입	220
4-2. 벽돌 가공	220
4-3. 지하 1층 조적공사	222
4-4. 1층 조적공사	224
4-5. 2층 조적공사	226
4-6. 몰탈	227
4-7. 구조보강공사	228
5. 마루공사	230
5-1. 장선설치공사	230
5-2. 마루공사	231

5-3. 콘크리트 슬라브공사	232
6. 마감공사	233
6-1. 외벽세척공사	233
6-2. 바닥마감공사	239
6-3. 벽마감공사	243
6-4. 천정마감공사	244
7. 창호공사	248
8. 기타공사	249
8-1. 난간공사	249
8-2. 벽난로공사	249
8-3. 기타공사	250
5. 도면	253
1. 도면	253

사진 목차

[사진 1-1] 각종 실측 도구	42
[사진 1-2] 각종 사진 촬영 도구	42
[사진 1-3] 1차 자문회의	46
[사진 1-4] 1차 자문회의	46
[사진 1-5] 2차 자문회의	47
[사진 1-6] 2차 자문회의	47
[사진 1-7] 3차 자문회의	49
[사진 1-8] 3차 자문회의	49
[사진 1-9] 5차 자문회의	50
[사진 1-10] 5차 자문회의	50
[사진 1-11] 6차 자문회의	50
[사진 1-12] 6차 자문회의	50
[사진 1-13] 7차 자문회의	52
[사진 1-14] 7차 자문회의	52
[사진 1-15] 8차 자문회의	53
[사진 1-16] 8차 자문회의	53
[사진 2-1] 1891년의 정동 여학당 당사	65
[사진 2-2] 수옥헌의 입구	68
[사진 2-3] 중명전 현판	68
[사진 2-4] 돈덕전	68
[사진 2-5] 수옥헌이 된 만희당	71
[사진 2-6] 경복궁의 집옥재	71
[사진 2-7] 수옥헌의 정전, 중명전	72
[사진 2-8] 서울 미국공사관에서 기념사진	75
[사진 2-9] 국내 최초로 공개된 사바뽀 측면상	75
[사진 2-10] 중명전	81
[사진 2-11] 아파나시이 이바노비치 세레진~사바뽀의 초상사진	87
[사진 2-12] 사바뽀의 부인 리지야 흐리스토파노브나 초상사진	89
[사진 2-13] 사바뽀의 아들 뽀뜨르뽀뜨르 아파나시예비치의 초상사진	90

[사진 2-14] 서울에 있는 러시아공사관 정면의 단면	95
[사진 2-15] 뽀뜨르가 1885년에 태어난 제물포 집	98
[사진 2-16] 고종과 왕세자 척	100
[사진 3-1] 1907년경 중명전의 모습	127
[사진 3-2] 중명전의 바닥구조	130
[사진 3-3] 승동교회의 바닥구조	130
[사진 3-4] 중명전의 2매쌓기 벽체구성의 시공현황사진	134
[사진 3-5] 중명전의 2매쌓기 벽체구성의 시공현황사진	134
[사진 3-6] 근대기 궁궐 내 타일마감	135
[사진 3-7] 프랑스공사관의 전경	136
[사진 3-8] 중명전의 기초부 벽난로 위치	137
[사진 3-9] 동쪽에 생긴 지하 출입구	141
[사진 3-10] 동쪽 지하출입구 내부	141
[사진 3-11] 조적기동위에 철골빔으로 장선을 받고 있다. ..	143
[사진 3-12] 보강보 크기 표시	143
[사진 3-13] 지하 1층 ① 방향 모습	144
[사진 3-14] 지하 1층 ② 방향 모습	144
[사진 3-15] 지하 1층 ③ 방향 모습	144
[사진 3-16] 지하 1층 ④ 방향 모습	144
[사진 3-17] 지하 1층 ⑤ 방향 모습	144
[사진 3-18] 지하 1층 ⑥ 방향 모습	144
[사진 3-19] 지하 1층 ⑦ 방향 모습	145
[사진 3-20] 지하 1층 ⑧ 방향 모습	145
[사진 3-21] 지하 1층 ⑨ 방향 모습	145
[사진 3-22] 지하 1층 ⑩ 방향 모습	145
[사진 3-23] 지하 1층 ⑪ 방향 모습	145
[사진 3-24] 지하 1층 ⑫ 방향 모습	145
[사진 3-25] 지하 1층 ⑬ 방향 모습	145
[사진 3-26] 지하 1층 ⑭ 방향 모습	145
[사진 3-27] 지하 1층 ⑮ 방향 모습	145
[사진 3-28] 지하 1층 ⑯ 방향 모습	146
[사진 3-29] 지하 1층 ⑰ 방향 모습	146

[사진 3-30] 지하 1층 ⑮ 방향 모습	146	[사진 3-84] 1층 ⑳ 방향 모습	157
[사진 3-31] 지하 1층 ⑯ 방향 모습	146	[사진 3-85] 2층 ① 방향 모습	159
[사진 3-32] 지하 1층 ⑰ 방향 모습	146	[사진 3-86] 2층 ② 방향 모습	159
[사진 3-33] 지하 1층 ⑱ 방향 모습	146	[사진 3-87] 2층 ③ 방향 모습	160
[사진 3-34] 지하 1층 ㉑ 방향 모습	146	[사진 3-88] 2층 ④ 방향 모습	160
[사진 3-35] 지하 1층 ㉒ 방향 모습	147	[사진 3-89] 2층 ⑤ 방향 모습	160
[사진 3-36] 지하 1층 ㉓ 방향 모습	147	[사진 3-90] 2층 ⑥ 방향 모습	160
[사진 3-37] 지하 1층 ㉔ 방향 모습	147	[사진 3-91] 2층 ⑦ 방향 모습	160
[사진 3-38] 지하 1층 ㉕ 방향 모습	147	[사진 3-92] 2층 ⑧ 방향 모습	160
[사진 3-39] 지하 1층 ㉖ 방향 모습	147	[사진 3-93] 2층 ⑨ 방향 모습	160
[사진 3-40] 지하 1층 ㉗ 방향 모습	147	[사진 3-94] 2층 ⑩ 방향 모습	160
[사진 3-41] 지하 1층 ㉘ 방향 모습	147	[사진 3-95] 2층 ⑪ 방향 모습	160
[사진 3-42] 지하 1층 ㉙ 방향 모습	147	[사진 3-96] 2층 ⑫ 방향 모습	160
[사진 3-43] 지하 1층 ㉚ 방향 모습	148	[사진 3-97] 2층 ⑬ 방향 모습	161
[사진 3-44] 지하 1층 ㉛ 방향 모습	148	[사진 3-98] 2층 ⑭ 방향 모습	161
[사진 3-45] 지하 1층 ㉜ 방향 모습	148	[사진 3-99] 2층 ⑮ 방향 모습	161
[사진 3-46] 지하 1층 ㉝ 방향 모습	148	[사진 3-100] 2층 ⑯ 방향 모습	161
[사진 3-47] 지하 1층 ㉞ 방향 모습	148	[사진 3-101] 2층 ⑰ 방향 모습	161
[사진 3-48] 지하 1층 ㉟ 방향 모습	148	[사진 3-102] 2층 ⑱ 방향 모습	161
[사진 3-49] 지하 1층 ㊱ 방향 모습	149	[사진 3-103] 2층 ㉑ 방향 모습	161
[사진 3-50] 지하 1층 ㊲ 방향 모습	149	[사진 3-104] 2층 ㉒ 방향 모습	161
[사진 3-51] 지하 1층 ㊳ 방향 모습	149	[사진 3-105] 2층 ㉓ 방향 모습	162
[사진 3-52] 지하 1층 ㊴ 방향 모습	149	[사진 3-106] 2층 ㉔ 방향 모습	162
[사진 3-53] 지하 1층 ㊵ 방향 모습	149	[사진 3-107] 해체된 장선	163
[사진 3-54] 지하 1층 ㊶ 방향 모습	149	[사진 3-108] 해체된 장선	163
[사진 3-55] 지하 1층 ㊷ 방향 모습	150	[사진 3-109] '실 6'의 버팀기둥과 버팀명에	164
[사진 3-56] 지하 1층 ㊸ 방향 모습	150	[사진 3-110] '실 5'의 버팀명에	164
[사진 3-57] 1층 ① 방향 모습	153	[사진 3-111] 1층 마루 장선의 구성	165
[사진 3-58] 1층 ② 방향 모습	153	[사진 3-112] 1층 마루 장선의 구성	165
[사진 3-59] 1층 ③ 방향 모습	154	[사진 3-113] 1층 마루의 각재형 장선	166
[사진 3-60] 1층 ④ 방향 모습	154	[사진 3-114] 1층 마루의 각재형 장선	166
[사진 3-61] 1층 ⑤ 방향 모습	154	[사진 3-115] 2층 마루 장선과 가새	166
[사진 3-62] 1층 ⑥ 방향 모습	154	[사진 3-116] 2층 마루 장선과 가새	166
[사진 3-63] 1층 ⑦ 방향 모습	154	[사진 3-117] 1층 바닥 슬라브 철근	167
[사진 3-64] 1층 ⑧ 방향 모습	154	[사진 3-118] 1층 바닥 슬라브 철근	167
[사진 3-65] 1층 ⑨ 방향 모습	154	[사진 3-119] 1층 마루바닥 마감(실 5부분)	169
[사진 3-66] 1층 ⑩ 방향 모습	154	[사진 3-120] 2층 마루바닥 마감(실 5부분)	169
[사진 3-67] 1층 ⑪ 방향 모습	155	[사진 3-121] 벽돌벽 바탕 회벽마감(현황)	170
[사진 3-68] 1층 ⑫ 방향 모습	155	[사진 3-122] 줄대 바탕 회벽마감(현황)	170
[사진 3-69] 1층 ⑬ 방향 모습	155	[사진 3-123] 2층 벽지 마감 부분	170
[사진 3-70] 1층 ⑭ 방향 모습	155	[사진 3-124] 2층 중앙 홀 뇌록 마감(추정)	170
[사진 3-71] 1층 ⑮ 방향 모습	155	[사진 3-125] 1층 실 3의 천정 마감	171
[사진 3-72] 1층 ⑯ 방향 모습	155	[사진 3-126] 1층 실 2의 천정 마감	171
[사진 3-73] 1층 ⑰ 방향 모습	155	[사진 3-127] 2층 '실 5'의 천정 마감	171
[사진 3-74] 1층 ⑱ 방향 모습	155	[사진 3-128] 2층 '실 5'의 천정 마감	171
[사진 3-75] 1층 ㉑ 방향 모습	156	[사진 3-129] 중명전 정면	172
[사진 3-76] 1층 ㉒ 방향 모습	156	[사진 3-130] 중명전 배면	172
[사진 3-77] 1층 ㉓ 방향 모습	156	[사진 3-131] 중명전 측면	172
[사진 3-78] 1층 ㉔ 방향 모습	156	[사진 3-132] 중명전 입구(보수 전)	172
[사진 3-79] 1층 ㉕ 방향 모습	156	[사진 3-133] 1층 외벽에 남아 있는 아치 모양	173
[사진 3-80] 1층 ㉖ 방향 모습	156	[사진 3-134] 1층 아치가 만나는 부분의 주두 모양	173
[사진 3-81] 1층 ㉗ 방향 모습	157	[사진 3-135] 2층 외벽에 남아 있는 아치 모양	173
[사진 3-82] 1층 ㉘ 방향 모습	157	[사진 3-136] 외벽 벽돌 내쌓기 상세	173
[사진 3-83] 1층 ㉙ 방향 모습	157	[사진 3-137] 아치에 쓰인 이형벽돌 3종류	175

[사진 3-138] 기둥상부에 쓰인 이형벽돌(보수 전)	175	[사진 3-192] 증축된 부분 평면상태	197
[사진 3-139] 기둥상부에 쓰인 이형벽돌(보수 후)	175	[사진 3-193]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197
[사진 3-140] 층 사이 내쌓기용 이형벽돌	176	[사진 3-194]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197
[사진 3-141] 기둥하부 주좌에 사용된 이형벽돌	176	[사진 3-195]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197
[사진 3-142] 배면 1층 하부벽에 사용된 이형벽돌	176	[사진 3-196] 1층 정면 출입구 바닥에 깔린 타일	198
[사진 3-143] 명문 벽돌 1	177	[사진 3-197] 1층 중앙통로 바닥에 깔린 타일	198
[사진 3-144] 명문 벽돌 2	177	[사진 3-198] 바닥타일 각종 문양	199
[사진 3-145] 명문 벽돌 3	177	[사진 3-199] 꽃문양 타일 조합	199
[사진 3-146] 명문 벽돌 4	177	[사진 3-200] A부분 연도 솟검댕이	200
[사진 3-147] 중명전으로 추정되는 사진	178	[사진 3-201] 연도의 벽돌	200
[사진 3-148] 현재(2008년)의 중명전 입구	179	[사진 3-202] A부분 연도 청소용 개구부	200
[사진 3-149] 옛 사진에 있는 아치와 주두 모양	180	[사진 3-203] 연도 청소용 개구부 철제 주물 뚜껑	200
[사진 3-150] 2008년 중명전의 아치	180	[사진 3-204] B 부분 벽난로 기초	200
[사진 3-151] 2008년 중명전의 벽돌기둥 주두	180	[사진 3-205] A 부분 연도	200
[사진 3-152] 옛 사진에 보이는 석재 줄눈 위치	180	[사진 3-206] 1층 ① 벽난로	201
[사진 3-153] 현재 중명전의 환기구 위치와 줄눈 위치	180	[사진 3-207] 1층 ② 벽난로	201
[사진 3-154] 옛 사진에서 보이는 벽돌쌓기 단수	181	[사진 3-208] 1층 ③ 벽난로	201
[사진 3-155] 현재 중명전의 벽돌쌓기 단수	181	[사진 3-209] 1층 ② 벽난로 바닥	201
[사진 3-156] 좌·우에 환기구	181	[사진 3-210] 2층 벽난로	202
[사진 3-157] 현재 중명전에도 같은 위치에 환기구	182	[사진 3-211] 2층 벽난로에 새겨진 문구	202
[사진 3-158] 입구에서 본 [A] 부분	183	[사진 3-212] 2층 벽난로에 새겨진 문구	202
[사진 3-159] 입구에서 본 [B] 부분	183	[사진 3-213] 2층 벽난로에 새겨진 문구	202
[사진 3-160] [A], [B] 부분의 통줄눈	183	[사진 3-214] 윤현궁 양관	202
[사진 3-161] 내부에서 본 [B] 부분	183	[사진 3-215] 석조전	202
[사진 3-162] 내부에서 본 [A] 부분	183	[사진 3-216] 지붕위로 나온 굴뚝	203
[사진 3-163] 1층 회랑이었던 서쪽에 있는 창고실	184	[사진 3-217] 우측면에 있는 외부 굴뚝	203
[사진 3-164] 1층 창고실 창문에 있는 창대석	184	[사진 3-218] 1층 '나' 굴뚝	204
[사진 3-165] 회랑벽을 잘라낸 흔적	185	[사진 3-219] 1층 '가' 굴뚝	204
[사진 3-166] 회랑을 막은 흔적	185	[사진 3-220] 1층 목재 판벽	205
[사진 3-167] 벽돌조적기둥 위의 주두	185	[사진 3-221] 1층 목재 판벽	205
[사진 3-168] 내부에서 본 남쪽벽	185	[사진 3-222] 2층 목재 판벽	205
[사진 3-169] 아치 아래부분을 벽돌로 막은 흔적과 벽난로	186	[사진 3-223] 줄대에 박은 못이 두 개인 경우와 한 개인 경우	205
[사진 3-170] [I] 부분 모습	187	[사진 3-224] 2층 '실 2'에 있던 오르내리창	206
[사진 3-171] [I] 부분 중앙 개구부 좌측 모습	188	[사진 3-225] 2층 '실 2'에 있던 문틀	206
[사진 3-172] [I] 부분 중앙 개구부 우측 모습	188	[사진 3-226] 2층 '실 1'에 있던 오르내리창 도드래	206
[사진 3-173] [J] 부분 모습	188	[사진 3-227] 2층 '실 2'에 있던 오르내리창 도드래	206
[사진 3-174] [I]와 [J] 부분 사이 외벽	188	[사진 3-228] 2층 '실 2'에 있던 창틀 상세	206
[사진 3-175] 1층 북서쪽 [K] 부분의 외부 모습	189	[사진 3-229] 2층 '실 2'에 있던 창틀 상세	206
[사진 3-176] 1층 [L] 부분의 내부	189	[사진 3-230] 2층 에 있던 창고리 상세	207
[사진 3-177] [M] 부분 모습(남→북)	190	[사진 3-231] 조적벽에 끼운 문틀 고정용 나무벽돌	207
[사진 3-178] [M] 부분 모습(북→남)	190	[사진 4-1] 가설회의장과 가설사무소	213
[사진 3-179] 벽돌 난간	190	[사진 4-2] 가설 숙소	213
[사진 3-180] [M] 부분 외부 모습	190	[사진 4-3] 가설비계와 그래픽 휘장막	214
[사진 3-181] 중명전 정면	191	[사진 4-4] 공사안내판	214
[사진 3-182] 중명전 배면	191	[사진 4-5] 트렌치 단면	214
[사진 3-183] 1907년경 입구 모습	191	[사진 4-6] 트렌치 파기	214
[사진 3-184] 현재(2008년)의 입구 모습	191	[사진 4-7] 트렌치 파기	214
[사진 3-185] 현관 상부 처리	194	[사진 4-8] 지하 1층 출입구 원형모습	215
[사진 3-186] 전동성당	194	[사진 4-9] 1층 출입 계단 원형모습	215
[사진 3-187] 수도박물관	194	[사진 4-10] 석회물탈을 해체한 후의 벽 모습 1	215
[사진 3-188] 중명전 난간 상세	195	[사진 4-11] 석회물탈을 해체한 후의 벽 모습 2	215
[사진 3-189] 현재 난간 부분	195	[사진 4-12] 현척도 이용	217
[사진 3-190] 배면 증축된 부분 철거 전 상태	196	[사진 4-13] 현척도	217
[사진 3-191] 배면 증축된 부분 철거 후 상태	196	[사진 4-14] 글라인더 가공	217

[사진 4-15]	절단기 가공	217
[사진 4-16]	가공된 이형벽돌	217
[사진 4-17]	가공된 이형벽돌	217
[사진 4-18]	지하 1층 남쪽통로 1과 '실 3' 부분 모습	218
[사진 4-19]	지하 1층 '실 3' 부분 모습	218
[사진 4-20]	지하 1층 '실 2' 부분 모습	218
[사진 4-21]	지하 1층 '실 3', '실 2'부분 전경	218
[사진 4-22]	지하 1층 '실 4' 부분 모습	219
[사진 4-23]	지하 1층 '실 4' 부분 모습	219
[사진 4-24]	지하 1층 '실 5' 부분 모습	219
[사진 4-25]	지하 1층 남쪽통로 2 부분 모습	219
[사진 4-26]	지하 1층 조적벽 쌓기	219
[사진 4-27]	지하 1층 조적벽 쌓기	219
[사진 4-28]	조적벽과 장선의 맞물림	219
[사진 4-29]	1층 조적벽 쌓기	219
[사진 4-30]	1층 조적벽 위 창대석 설치	220
[사진 4-31]	1층 조적벽 쌓기	220
[사진 4-32]	1층 창 상부 아치틀과 벽돌쌓기(쌓기 중)	220
[사진 4-33]	1층 창 상부 아치틀과 벽돌쌓기(쌓기 후)	220
[사진 4-34]	지하 1층 아치 쌓기	221
[사진 4-35]	기존 벽돌 재사용재 가공	221
[사진 4-36]	정면 현관 상부 아치쌓기	221
[사진 4-37]	정면 현관 상부 아치쌓기(완료 후)	221
[사진 4-38]	1층 외벽 해체공사	221
[사진 4-39]	1층 외벽 해체공사	221
[사진 4-40]	2층 회랑 내벽 조적공사	222
[사진 4-41]	2층 회랑 내벽 창대석 설치	222
[사진 4-42]	2층 회랑 내벽 창틀 및 조적공사	222
[사진 4-43]	2층 회랑 내벽 조적공사 완료	222
[사진 4-44]	2층 외벽 일부 헐어내기	223
[사진 4-45]	일부 헐어낸 부분에 조적기둥 세우기	223
[사진 4-46]	아치틀을 받치고 아치 설치하기	223
[사진 4-47]	완성된 아치에서 아치를 제거하기	223
[사진 4-48]	벽돌쌓기	223
[사진 4-49]	줄눈공사	223
[사진 4-50]	콘크리트 보강 보 거푸집 설치	225
[사진 4-51]	콘크리트 보강 보 거푸집 설치	225
[사진 4-52]	콘크리트 보강 보 완성	225
[사진 4-53]	콘크리트 보강 보 완성	225
[사진 4-54]	철골 보강보	225
[사진 4-55]	철골 보강보	225
[사진 4-56]	1층 마루 장선 설치	226
[사진 4-57]	2층 마루 장선 설치	226
[사진 4-58]	2층 마루 장선 설치	227
[사진 4-59]	장선과 벽돌의 결구	227
[사진 4-60]	1층 마루 설치공사	228
[사진 4-61]	1층 마루 설치공사	228
[사진 4-62]	1층 마루 설치공사	228
[사진 4-63]	1층 마루 설치공사	228
[사진 4-64]	철근 배근	228
[사진 4-65]	콘크리트 타설	228
[사진 4-66]	세척 전 외벽 도장상태	234
[사진 4-67]	세척 전 테라스 복도 도장상태	234
[사진 4-68]	1차 페인트 도막제거	234

[사진 4-69]	1차 페인트 도막제거 상태	234
[사진 4-70]	2차 페인트 도막제거	234
[사진 4-71]	3차 페인트 도막제거	234
[사진 4-72]	4차 시멘트 줄눈부위 세척	234
[사진 4-73]	페인트 제거 후 발수경화제 도포	234
[사진 4-74]	모터틀에 의한 요철부위 및 페인트 잔재물 연마	235
[사진 4-75]	페인트 제거 후 발수경화제 도포	235
[사진 4-76]	샌딩작업을 위한 분진 가림막 및 집진기 설치	235
[사진 4-77]	석조전 바닥마감(목재타일)	235
[사진 4-78]	회정당 바닥마감(목재타일)	235
[사진 4-79]	목재타일 깔기	236
[사진 4-80]	완료된 바닥	236
[사진 4-81]	회랑 설치물탈 깔기	236
[사진 4-82]	설치물탈위 타일 깔기	236
[사진 4-83]	설치물탈 위 타일 깔기	237
[사진 4-84]	완성된 회랑 바닥	237
[사진 4-85]	기존 문양 타일(무시무중 문양)	237
[사진 4-86]	기존 문양 타일(별 문양)	237
[사진 4-87]	주문 제작된 문양타일	239
[사진 4-88]	문양타일 보호 강화유리 설치	239
[사진 4-89]	초벌 미장하기	239
[사진 4-90]	재벌 미장하기	239
[사진 4-91]	재벌 미장하기	239
[사진 4-92]	정벌 미장하기	239
[사진 4-93]	목재벽 위 초벌바르기	240
[사진 4-94]	목재벽 위 재벌바르기	240
[사진 4-95]	걸레받이 바탕 설치	240
[사진 4-96]	걸레받이 도장하기	240
[사진 4-97]	천정틀 설치	241
[사진 4-98]	천정 마감하기	241
[사진 4-99]	석조전 천정 몰딩	242
[사진 4-100]	구 벨기에 영사관 천정 몰딩	242
[사진 4-101]	운현궁 양관 천정 몰딩	242
[사진 4-102]	회정당 신관 천정 몰딩	242
[사진 4-103]	걸레받이 몰딩	243
[사진 4-104]	1층 실 1의 천정몰딩	243
[사진 4-105]	화장실 천정 몰딩	243
[사진 4-106]	1층 '실 1' 천정몰딩	243
[사진 4-107]	설치된 천정 몰딩	243
[사진 4-108]	설치된 걸레받이 몰딩	243
[사진 4-109]	등기구 받침 장식물 1	244
[사진 4-110]	등기구 받침 장식물 1	244
[사진 4-111]	창 하대석	244
[사진 4-112]	복원된 창문	244
[사진 4-113]	복원된 문	244
[사진 4-114]	난간 동자석 설치	245
[사진 4-115]	난간 동자석 설치	245
[사진 4-116]	난간 동자석 설치 완료	245
[사진 4-117]	발견된 청자 동자석	245
[사진 4-118]	석재 벽난로	246
[사진 4-119]	벽돌 벽난로	246

도면 목차

[도면 3-1] 중명전 화강석 줄기초 평면과 사진	128
[도면 3-2] 근대기 중층바닥 유형, 『工業大辭書』(1910) ..	129
[도면 3-3] 중명전의 쌓기방식	132
[도면 3-4] 20세기 초 벽돌쌓기법, 『大建築學』, 1904	133
[도면 3-5] 중명전 목조트러스의 단면도와 사진	134
[도면 3-6] 프랑스공사관의 1층 평면 『朝鮮と建築』	136
[도면 3-7] 중명전의 기초부 평면	137
[도면 3-8] 지하 1층 현황 평면도	140
[도면 3-9] 지하 1층 추가설치 추정 조적벽	142
[도면 3-10] 지하 1층 출입구를 막은 부분	142
[도면 3-11] 지하 1층 창문을 막은 부분	142
[도면 3-12] 지하 1층 기존벽을 철거한 부분	142
[도면 3-13] 지하 1층 구조보강을 위한 기둥설치 부분	143
[도면 3-14] 지하 1층 구조보강을 위해 설치한 각종 보강재	143
[도면 3-15] 지하 1층 사진 안내도	144
[도면 3-16] 지상 1층 현황 평면도	151
[도면 3-17] 지상 1층 추가설치 추정 조적벽	152
[도면 3-18] 지상 1층 출입구를 막은 부분	152
[도면 3-19] 지상 1층 창문을 막은 부분	152
[도면 3-20] 지상 1층 기존벽을 철거한 부분	152
[도면 3-21] 지상 1층 목재 칸막이벽 부분	153
[도면 3-22] 지상 1층 사진안내도	153
[도면 3-23] 2층 현황 평면도	157
[도면 3-24] 지상 2층 추가설치 추정 조적벽	158
[도면 3-25] 지상 2층 기존벽을 철거한 부분	158
[도면 3-26] 지상 2층 목재 칸막이벽 부분	159
[도면 3-27] 2층 사진안내도	159
[도면 3-28] 1층 장선 유형 안내도	162
[도면 3-29] 2층 장선 유형 안내도	162
[도면 3-30] 장선 구조 형식	163
[도면 3-31] 2층 장선 평면도	164
[도면 3-32] 2층 장선 간격 안내도	164
[도면 3-33] 1층 장선 설치 평면도	165
[도면 3-34] 1층 장선 간격 안내도	165
[도면 3-35] 1층 바닥 구조 형식	167
[도면 3-36] 2층 바닥 구조 형식	167
[도면 3-37] 1층 마루 평면도(현황)	168
[도면 3-38] 2층 마루 평면도(현황)	168
[도면 3-39] 전벽돌 사용위치	173
[도면 3-40] 중명전 벽돌쌓기 모양	174
[도면 3-41] 아치에 쓰인 이형벽돌 3종류	175
[도면 3-42] 조적기둥 상부에 쓰인 이형벽돌	175
[도면 3-43] 층 사이 내쌓기용 이형벽돌	176
[도면 3-44] 기둥하부 주좌에 사용된 이형벽돌	176
[도면 3-45] 배면 1층 하부벽에 사용된 이형벽돌	176
[도면 3-46] 입구 부분 원형 조사	183
[도면 3-47] 1층 남서쪽 벽의 회랑 흔적 조사	184
[도면 3-48] 1층 남동쪽 벽의 회랑 흔적 조사	186
[도면 3-49] 북서쪽 회랑 흔적 조사	187
[도면 3-50] 북서쪽 회랑 흔적 조사	189
[도면 3-51] 북서쪽 회랑 흔적 조사	190

[도면 3-52] 투시도법을 이용하여 돌출기둥 위치분석	192
[도면 3-53] 지하층벽을 고려한 돌출기둥 위치	193
[도면 3-54] 현재 중명전 현관	193
[도면 3-55] 복원 중명전 현관	193
[도면 3-56] 현재 중명전 현관, 복원 현관 정면, 복원 현관 측면 ·	194
[도면 3-57] 난간 복원 상세	195
[도면 3-58] 철거전 북서쪽 1층평면도와 철거후 북서쪽 1층평면도 ·	196
[도면 3-59] 배면 계단 단면도와 평면도	197
[도면 3-60] 바닥타일 문양	198
[도면 3-61] 벽난로, 굴뚝 위치 안내도	199
[도면 3-62] 중명전 복원 벽난로 디자인	203
[도면 3-63] 지상 1층 목재 칸막이벽 부분	204
[도면 3-64] 지상 2층 목재 칸막이벽 부분	204
[도면 3-65] 목재판벽 구성	205
[도면 4-1] 구조보강 설치위치 안내도	224
[도면 4-2] 콘크리트 구조보강부 상세도	224
[도면 4-3] 1층 바닥 장선설치 평면도	226
[도면 4-4] 2층 바닥 장선설치 평면도	226
[도면 4-5] 1층 마루설치 평면도	227
[도면 4-6] 2층 마루설치 평면도	227
[도면 4-7] 중앙통로 문양타일 전개도	238
[도면 4-8] 천정 몰딩 상세	241
[도면 4-9] 천정과 걸레받이 몰딩 상세	242

그림 목차

[그림 2-1] 정동 일대의 선교사 거류지.	65
[그림 2-2] 또 하나의 약도	65
[그림 2-3] 수옥헌 지역	69
[그림 2-5] 수옥헌 권역	70
[그림 2-6] 미국공사관 약도	71
[그림 2-7] 정동 조계지(Settlement) 안내도	77
[그림 2-8] 한국 황궁경위 배치도	78

표 목차

[표 1-1] 주요 공사 변경내용	41
[표 1-2] 수리공사 일지	43
[표 2-1] 사바짚의 건축관계 년표	76
[표 3-1] 궁궐 내 근대식 구법건물들	128
[표 3-2] 벽돌표준규격	131
[표 3-3] 중명전 및 당시 건물의 벽돌 쌓기법 및 크기상세	131
[표 3-4] 중명전의 구법적 특징과 의의	138
[표 3-5] 중명전 석화물탈 구성	169
[표 3-6] 중명전 벽돌 크기 통계표	174
[표 4-1] 사용 유기용제의 끓는점 비교표	232
[표 4-2] 작업일지	233



(주) 하나월드시스템



중명전 정면(보수 전)



중명전 정면(보수 후)



중명전 우측면(보수 전)



중명전 우측면(보수 후)



중명전 배면(보수 전)



중명전 배면(보수 후)



중명전 배면(보수 전)



중명전 배면(보수 후)



중명전 정면 2층 입면(보수 전)



중명전 정면 2층 입면(보수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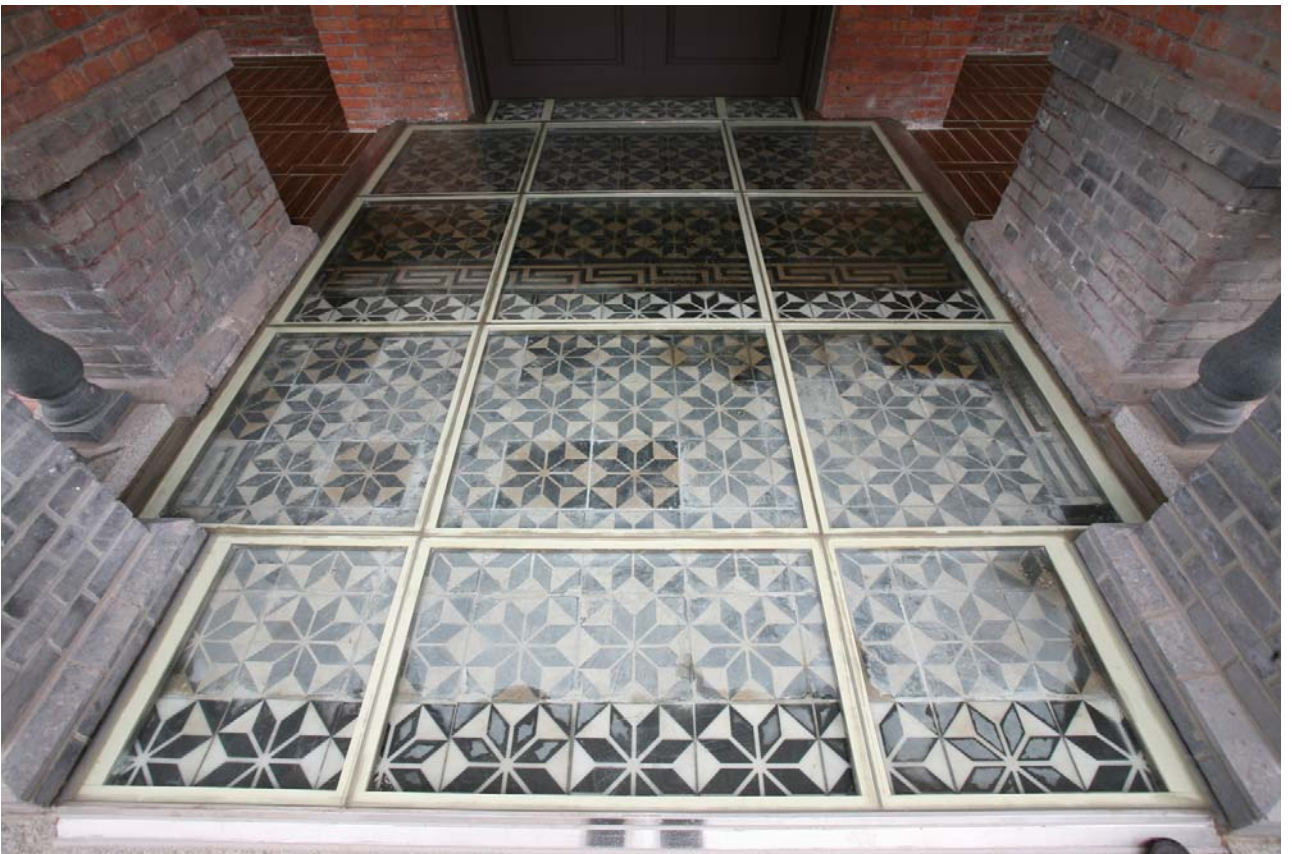
중명전 정면 현관(보수 전)



중명전 정면 현관(보수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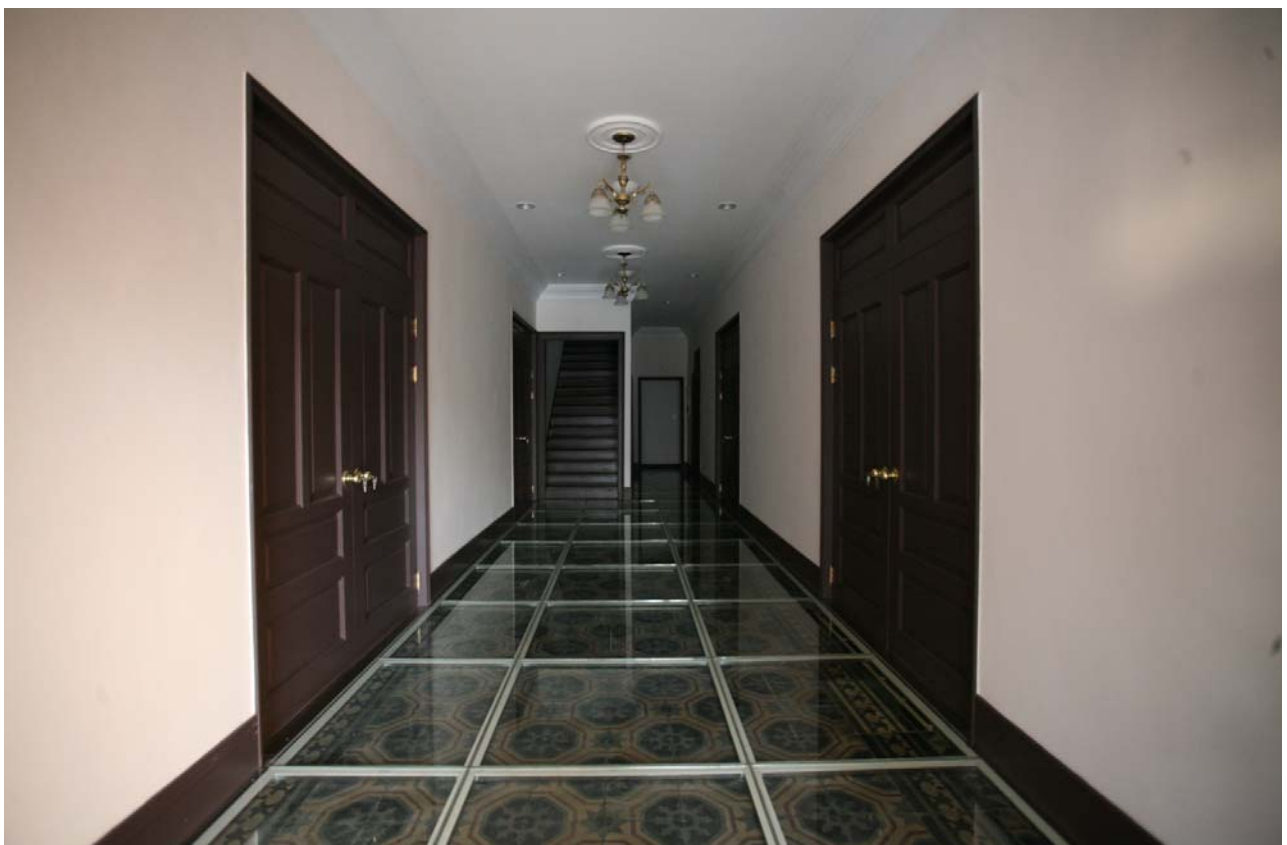
중명전 정면 입구 바닥(보수 전)



중명전 정면 입구 바닥(보수 후)



중명전 1층 복도 바닥(보수 전)



중명전 1층 복도 바닥(보수 후)



중명전 1층 동쪽방 내부(보수 전)



중명전 1층 동쪽방 내부(보수 후)



중명전 1층 동쪽방 내부(보수 전)



중명전 1층 동쪽방 내부(보수 후)



중명전 1층 서쪽방 내부(보수 전)



중명전 1층 서쪽방 내부(보수 후)



중명전 1층 서쪽방 내부(보수 전)



중명전 1층 서쪽방 내부(보수 후)



중명전 2층 남쪽방 내부(보수 전)



중명전 2층 남쪽방 내부(보수 후)



중명전 2층 남쪽방 내부(보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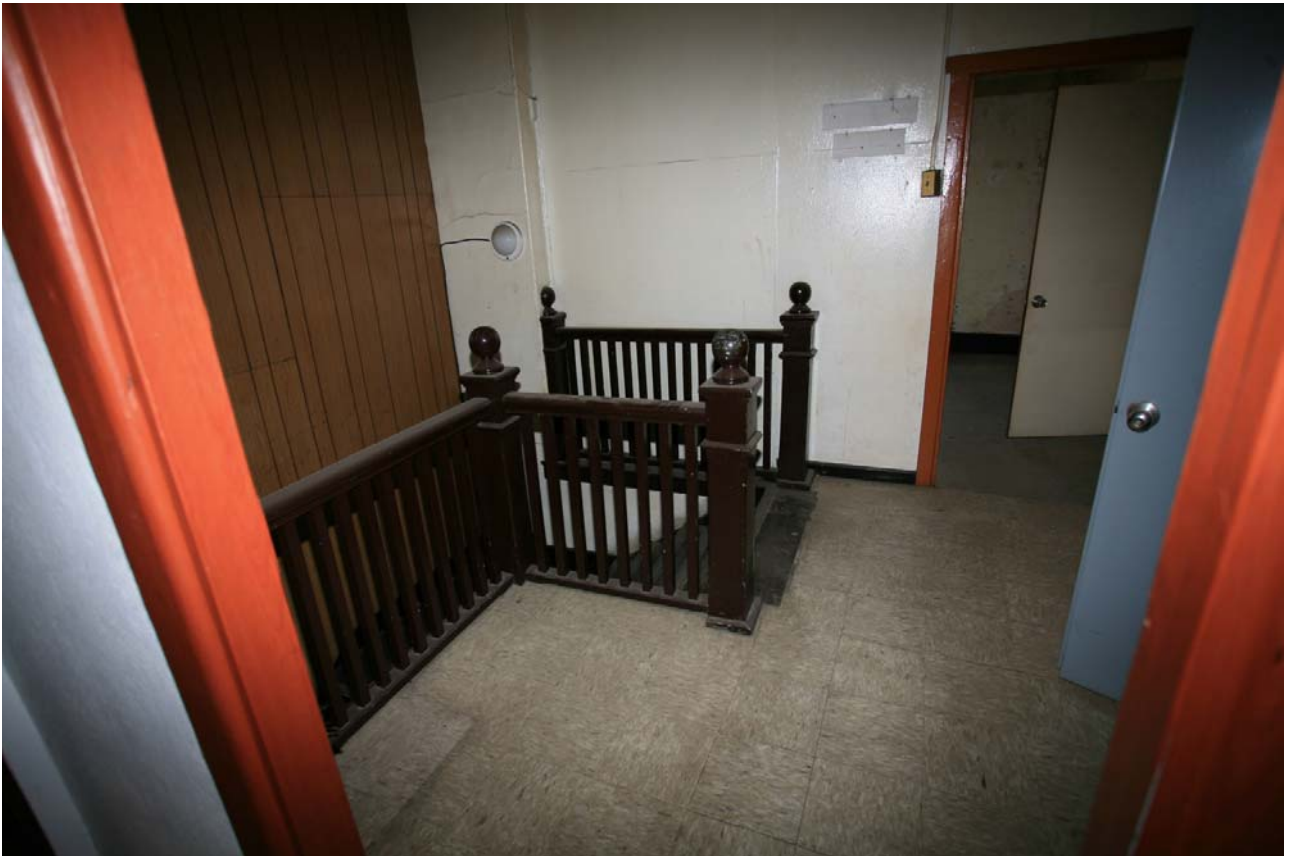
중명전 2층 남쪽방 내부(보수 후)



중명전 2층 남쪽방 벽난로(보수 전)



중명전 2층 남쪽방 벽난로(보수 후)



중명전 2층 계단(보수 전)



중명전 2층 계단(보수 후)



중명전 2층 북쪽 우측방 내부(보수 전)



중명전 2층 북쪽 우측방 내부(보수 후)



중명전 2층 북쪽 좌측방 내부(보수 전)



중명전 2층 북쪽 좌측방 내부(보수 후)



중명전 2층 북쪽 좌측방 내부(보수 전)



중명전 2층 북쪽 좌측방 내부(보수 후)



중명전 지하층 동쪽 중앙부분(보수 전)



그림 51 중명전 지하층 동쪽 중앙부분(보수 후)



중명전 1층 남측 회랑(보수 후)



중명전 1층 동측 회랑(보수 후)



중명전 2층 남측 회랑(보수 후)



중명전 2층 서측 회랑(보수 후)



중명전 2층 서측 회랑(보수 후)



중명전 배면 지하출입구(보수 후)



중명전 창문(보수 후)



중명전 문(보수 후)

1. 서 언



1. 수리 개요
2. 수리 지침
3. 수리 공사일지
4. 수리 관계자
5. 자문회의

1. 서 언

1. 수리 개요

1-1. 수리 과정

1897년 건립된 덕수궁 중명전은 황실도서관으로 출발한 이후 1904년 4월부터 한국 근대사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25년 3월 12일 화재로 인하여 전부 타버린 것을 다시 짓고 여러 차례 고치기도 하였다. 고종황제가 1904년 경운궁의 화재로 거처를 옮기면서 역사의 파란만장한 장소가 된 중명전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벽돌조로 된 근대건축물로서 건축면적(복원기준)은 약 420.09㎡(127.07평)이고 연면적은 1,260.27㎡(381.23평)이다.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진 중명전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보수의 필요성이 생겼고 더불어 원형복원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2007년 10월 보수·복원설계가 완료되었고 2007년 12월 보수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보수를 하면서 부분 해체를 통해 발견된 흔적을 추적하여 원형 일부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실측하여 기록하였다. 실측조사는 건물을 부분해체하면서 발견된 벽돌벽의 보수흔적, 베란다의 구조 및 흔적, 천장구조의 옛 흔적, 창호의 구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알려진 사진 한 장이 중명전 사진임이 확인되어 베란다의 구성과 정면 입구의 모양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외국에 있을만한 자료를 찾기 위하여 러시아와 일본에 가서 관련 문헌과 건물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보수·복원공사를 하면서 부분해체 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총 8차례의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았다.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보수·복원공사는 2009년 12월 완료되었으며 공사과정과 실측조사된 자료를 이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보수공사를 할 시공회사는 문화재청이 조달청에 의뢰하여 전자입찰하여 문화재 보수업체인 (주)한성건설이 낙찰되었다. 실측과 수리보고서는 (주)한성건설이 (주)아름터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조사 및 작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시행자인 문화재청과 시공자인 (주)한성건설, 실측조사 및 보고서 작성자인 (주)아름터 건축사사무소가 삼위일체되어 이루어졌다.

1-2. 수리 개요

- 사 업 명 : 중명전 보수 · 복원공사
- 수리대상 : 덕수궁 중명전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1
- 지 정 별 : 사적 제 124호 (덕수궁/ 2007년 2월 추가지정)
- 규 모 : 건축면적 420.09㎡(127.07평), 지하 1층 420.09㎡, 1층 420.09㎡, 2층 420.09㎡,
- 구 조 : 벽돌조 / 근대 서양식 건축
- 사 업 비 : 일금이십삼억사천육백구십삼만오천팔백육십원정(₩2,346,935,860-건축공사)

■ 공사기간 : 2007. 12. 24 ~ 2009. 12. 13.

구 분	계 약 일	착 공 일	준 공 일	공사기간
공 사 기 간	2007. 12. 24	2007. 12. 26	2009. 12. 13	720일간

2. 수리 지침(공사시방서에서 발췌)

2-1. 사업 지침

- 해체시 현황 실측도 작성(수리보고서 기록)
 - 건물현황 실측
 - 현황 사진 촬영 및 기록
- 원형 복원설계도(지하층 전시관으로 용도변경)
- 부분 해체 및 철거
- 보수 원형(복원)공사
- 준공도 작성(시공자, 공사내용 포함)

2-2. 공사 개요

~ (앞 부분 생략) ~

나. 철거작업

- 외부 원형 훼손부분 철거
- 내부 이동식 칸막이 철거
- 내부 원형 훼손부분 철거
- 각층 바닥(마감재 및 바탕 포함) 철거
- 각층 벽면(마감재 및 바탕 포함) 철거
- 각층 천장(마감재 및 바탕 포함) 철거
- 1층 정면 및 양 측면 베란다 생성에 의한 벽돌 해체
- 2층 정면 및 양 측면 베란다 생성에 의한 벽돌 해체
- 배면의 증축부분 철거
- 등나무 널쿨 굴취 후 캐노피(Steel Pipe truss)철거
- 출입문 및 창호 철거
- 화장실 철거(칸막이, 타일 및 위생기구 포함)
- 설비 및 전기배관. 배선 철거
- 기타 훼손부분 철거
- 건물주위(좌, 우측 및 배면) 콘크리트 철거

다. 보수(복원) 공사

- 외벽(적벽돌, 전벽돌)세척 및 훼손 부위 보수
- 내부구조 변경 : 칸막이벽 복원 설치(베란다)
- 내부 수장부분 (바닥, 벽, 천장, 물딩) 원형복원
- 기존 창호, 원형대로 복원

- 출입문 및 창호 복원 설치
- 외부 석공사 부분 세척 및 보수
- 1층 화장실 설치(남, 여)
- 기타부대공사(배수시설(화강석) 및 진입로 보수, 복원)
- 청소 및 정리
- 중명전 뒤 주차장 후면 담장 앞 조경공사
- 중명전 건물주위 콘크리트 철거 후 잔디식재

1-3-3 세부사업내용

~ (중 략) ~

다. 바닥공사

- 지하층의 기존 바닥을 300mm 긁어낸다.
- 지하층 공사는 기계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공정은 인력으로 한다.
- 각 실에 세워져 있는 벽돌 기둥을 철거한다.
- 변형된 내부 칸막이 벽체를 철거한다.
- 바닥 철거 후 지반 원형을 확인 뒤 잡석다짐(THK.150mm)위 무근 콘크리트(THK.200mm)를 타설한다.
- 무근 콘크리트 타설 후 바닥 전체에 시멘트액체 방수한다.
- 지하층 바닥 : 기존 무근콘크리트 및 방수층(THK300)을 철거하고, 기초부분이 되는 화강석 통석 쌓기가 보일 때까지 굴토를 한 후 바닥 정리를 하고 PE필름 2겹 위 무근콘크리트(THK200)위 방수층을 두고 쇠쭉손 마감으로 시공한다.
- 1,2층 바닥 : 장판지 2겹 및 디럭스 타일을 제거한 후 훼손 및 부식된 마루널(THK30), 장선, 멩에를 차례대로 철거한 후 신재를 역순으로 교체한다.
- 장선 설치(60*300@300) 후 밑창널(THK27)을 깐 다음 THK18의 목재널(후로링널)을 설치한다.

라. PIT공사

- 새로 설치될 지하층 화장실 하부에 위생 배관의 점검 및 설치를 위하여 PIT를 설치한다.
- 터파기는 건물의 훼손 및 안전을 위하여 인력으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 절대로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터파기 후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마. 계단공사

- 중명전 배면 지하에서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한다.
- 계단은 화강석으로 설치하고 측면에는 적벽돌치장 쌓기한다.
- 중명전 우측 부분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신재사용하여 계단을 재설치한다.
- 배면쪽 계단과 우측면 계단의 상부에는 스텐레스 각관(100*100)으로 기둥을 세우고 THK6 강화유리로 캐노피를 설치한다.

바. 미장 및 조적공사

- 기존 적벽돌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내,외부 전체를 세척 후 줄눈 및 훼손된 벽돌을 보수 및 교체한다.
- 기존 화강석으로 시공된 부분을 세척한다.(각층 창대석, 1층 기단석, 정면 현관 계단, 2층 좌측 베란다 난간)
- 내부 합판 칸막이벽(THK50) 및 합판(THK3), 석고보드(THK9)를 철거하고, 벽 시멘트몰탈을 제거한 후 새로 설치되는 벽돌부위에 단열재(아이소핑크 T20)를 붙인 후 합판붙이기한 후 메탈라스 설치 후 다시 회반죽 바르기 한다.
- 실내계단 : 기존 PVC 논슬립을 제거한 후 디딤판 및 철판부분 목재를 사포 등으로 세척한 뒤 바니쉬칠 마감을 한다. 2층의 엄지기둥 및 난간두껍대도 같은 방법으로 보수한다. (금회공사제외 : 단, 낙찰차액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외부 원형 발코니 부분의 적벽돌을 빼어내기 한 후 도면에 의거 아치 쌓기 및 적벽돌치장 쌓기한다.

- 내부 1,2층의 발코니 부분의 창호 상부는 아치 쌓기하고 적벽돌치장 쌓기한다.
- 천장 : 원형 천장을 밑으로 1겹 및 2겹으로 덧달아(합판 및 텍스)사용된 부분을 철거한 후 원형 천장을 위 메탈라스를 설치하고 회반죽 바름으로 마감한다.
- 내부 벽난로 : 기존 훼손된 건물 내부 벽난로를 원형을 찾아 복원한다.

사. 창호공사

- 알루미늄 및 목재창을 철거하고 기존 목재 원형대로 제작하여 오르내리기창 여닫이창을 설치한다.
- 외부는 오르내리창과 여닫이창을 설치하고, 현관 및 내부는 목재창호를 설치한다.

아. 조경공사

- 중명전 주위(좌, 우측 및 배면) 콘크리트 철거 후 잔디를 식재 한다.
- 기존 후면 주차장 주위 담장 앞에 화개를 조성하고 조경수를 식재한다.

자. 정화조 설치공사

- 중명전 정면 우측부분의 기존 정화조 철거 후 5500*3000의 콘크리트 각형 3단 부패조의 정화조를 설치한다.

2-1 공통사항

2-1-1 작업 유의사항

가. 철거 및 해체

- 대상문화재의 원형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철거·멸실하는 작업을 「철거」라 하고, 문화재의 일부로서 보수·교체 혹은 실측조사를 위하여 해체하는 것을 「해체」라 한다.

~ (중 략) ~

다. 작업 유의사항

- 일반 건축물의 「철거」 혹은 「멸실」과 달리, 문화재 건물에 대한 「철거」 혹은 「해체」작업은 그 기대효과가 「발굴조사」 혹은 「해체 실측조사」에 준하는 것이므로,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 1) 대상문화재의 원형이 훼손되거나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작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 2) 문양, 물딩, 장식, 철물 등 원형복원에 필요한 부위는 특히 신중하게 작업하고 부품의 원위치, 방향 등 복원 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공사 도중 멸실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분류·보관하도록 한다.
 - 3) 특정부재의 「철거」 혹은 「해체」로 인하여 건물 구조내력 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4) 외부관측에 의한 실측조사에서 누락되거나 파악되지 못한 부위는 「철거」 혹은 「해체」작업과정에서 조사·규명될 수 있도록, 감독관 혹은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5) 마감재가 중복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마감재를 종류별로 철거하고 기록하여 건물의 변형과정을 추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칠(페인트 등)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칠의 종류를 총별로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 6) 「철거」 혹은 「해체」후 원형 복원이 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 7)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는 자재, 부품 등은 부품의 원위치, 방향 등 복원 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공사 도중 멸실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분류·보관하도록 한다.
 - 8) 복원 혹은 재사용을 전제로 한 「해체」작업 시는 해체부재의 원위치, 결구방법, 조립순서, 방향 등 복원 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공사 도중 멸실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분류·보관하도록 한다.
 - 9) 교체가 필요한 부재일지라도 대체 부재의 마름질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체부재의 원위치, 결구방법, 조립순서, 방향 등 복원 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공사 도중 멸실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분류·보관하도록 한다.

2-2 철거공사

2-2-1 건물외부 철거공사

- 가. 주현관 주위에 설치된 캐노피 일체
- 다. 배면에 면한 화장실 및 증축부분
- 라. 좌측 외부 철재계단

2-2-2 건물내부 칸막이 철거공사

- 가. 건물 내부에 설치된 일체의 이동형 칸막이를 철거한다.
- 나. 「철거」 작업 중 원형부위가 노출되면 즉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형상을 기록 보존하여 복원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 다. 칸막이 「철거」로 인하여 건물 구조내력 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2-3 건물내부 바닥 마감재 철거공사

- 가. 바닥마감재의 원형을 「목재 후로링」으로 추정하고, 이후에 추가 설치된 모르터, 비닐 타일 등 마감재는 모두 철거한다.
- 나. 마감재의 철거가 완료되면, 「목재 후로링」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 후 「목재 후로링」을 철거하도록 한다.
- 다. 「목재 후로링」의 재질, 규격, 마감정도, 부착방법, 맞춤방법, 설치방향, 훼손 및 노후상태 등 필요한 자료를 기록하고 견본을 채취하여 보관한다.
- 라. 「철거」로 인하여 구조체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마. 마감재가 중복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마감재를 종류별로 철거하고 기록하여 건물의 변형과정을 추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바. 「철거」 작업 중 원형부위가 노출되면 즉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형상을 기록 보존하여 복원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 사. 계단부위는 「해체」에 준하는 신중한 작업으로 계단판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아. 철거 작업과 병행하여 원형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칸막이벽」의 위치와 구조방식(내력벽 여부, 조적벽 혹은 목구조벽 여부, 벽두께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2-4 건물내부 벽 마감재 철거공사

- 가. 벽 마감재의 원형을 「회반죽 바르기」로 추정하고, 바탕이 들어날 때까지 철거한다.
- 나. 「라스 위 회반죽 바르기」 부위는 원형으로 추정되므로 특히 신중히 철거하고 현황을 기록한다.
- 다. 마감재가 중복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마감재를 종류별로 철거하고 기록하여 건물의 변형과정을 추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칠(페인트 등)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칠의 종류를 총별로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 라. 원형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징두리 벽」 및 「걸레받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마. 「철거」 작업 중 원형부위가 노출되면 즉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형상을 기록 보존하여 복원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 바. 벽체에 매립된 철물, 배선기구 등은 복원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신중하게 수거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사. 철거 작업과 병행하여 원형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칸막이벽」의 위치와 구조방식(내력벽 여부, 조적벽 혹은 목구조벽 여부, 벽두께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2-5 건물내부 천장 마감재 철거공사

- 가. 천장 마감재의 원형을 「회반죽 바르기」로 추정하고 이후에 시공된 마감재는 모두 철거한다.
- 나. 「라스 위 회반죽 바르기」 부위는 원형으로 추정되므로 특히 신중히 철거하고 시공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을 기록한다.
- 다. 철거도중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양, 반자돌림몰딩, 조명기구, 철물, 배선기구 등은 복원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신중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한다.
- 나. 마감재의 철거가 완료되면, 「바탕널」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 후 「바탕널」을 철거하도록 한다.
- 다. 「바탕널」의 재질, 규격, 마감정도, 부착방법, 맞춤방법, 설치방향, 훼손 및 노후상태 등 필요한 자료를 기록하고 견본

을 채취하여 보관한다.

- 아. 철거 작업과 병행하여 원형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칸막이벽」의 위치와 구조방식(내력벽 여부, 조적벽 혹은 목구조벽 여부, 벽두께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2-6 각층 마루를 해체공사

- 가. 원형대로의 복원이 가능하도록 사진과 도면으로 기록하되, 중요한 결구부분은 부분 상세도를 첨부하도록 한다.
- 나. 부재의 상태를 관찰하여 원형의 변경여부 혹은 보수여부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다. 철거도중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철물 등은 복원에 중요한 참고가 되므로 신중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라. 복원 혹은 재사용을 전제로 한 「해체」작업 시는 해체부재별로 명칭, 규격, 위치, 결구방법, 조립순서, 방향 등 복원 시 필요한 사항을 기록·부착하고, 공사 도중 멸실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분류·보관하도록 한다. 이때 명칭, 번호, 기호 등을 기록함에 있어 직접 부재에 기록하여서는 안되며, 꼬리표, 접착지 등을 활용하여 부재가 오염·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마. 부재 상태를 조사하여 재사용 여부를 감독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 바. 특히 마루들과 조적벽간의 연결방법 및 사용 철물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
- 사. 건물의 연혁과 외부 관찰결과로 미루어 보아, 당초의 건물 내부에 있었던 내력벽을 철거하고, H-빔 등으로 보강한 흔적이 발견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과 원형 규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2-7 출입문 및 창호 철거공사

- 가. 기 설치된 출입문 및 창호 일체를 철거한다.
- 나. 철거 시, 고정철물 등의 철거로 인하여 조적벽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 다. 기존 출입문 및 창호의 설치방법, 충진재의 종류, 창대부분의 물감기 등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 라. 문틀 외에도 울거미 몰딩, 창대 등의 재질, 형태, 규격 등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 마. 특히 오르내리창과 여단이창은 현재 시공사례가 희소하므로, 원형이 보존된 창호는 수거하여 보관한다.
- 바. 철거도중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철물 등은 복원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신중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한다.

2-2-8 외부 석재 계단 해체공사

- 가. 기존의 정면 석조계단의 좌, 우측으로 석조계단을 복원한다.
- 나. 원형대로의 복원이 가능하도록 사진과 도면으로 기록하되, 중요한 부분은 부분 상세도를 첨부하도록 한다.
- 다. 부재의 상태를 관찰하여 원형의 변경여부 혹은 보수여부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3 설계변경 조정

- 가. 고증 및 해체 시공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공정 사항에 대하여 지도 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시공 전반에 걸쳐 공사 내용 변경 시공 등 감독관의 작업 지시를 받아 증감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은 설계 변경 한다.

3. 해체 실측·수리보고서

(1) 일반사항

- 연혁 및 각종자료를 취합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해체실측도면을 작성한 후 보고서에 수록토록 한다.
- 전경사진 및 세부사진을 촬영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 보고서는 200쪽 이상으로 500부 작성토록 한다.
- 해체실측조사는 일일단위로 일지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 조사시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세부사항

- 건축물에 남아있는 상량문이나 창건, 수리시의 기록(낙서포함) 등 모든 문서명을 빠짐없이 옮겨 적어야 한다
- 관련된 역사기록은 원문을 옮겨 적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해체 실측 수리보고서는 CAD로 작성하여 CD · ROM(5매)으로 제출토록 한다.
- 보고서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건 명 : 덕수궁 중명전 수리보고서
 2. 크 기 : A4
 3. 수 량 : 500부
 4. 예상면수 : 300면 내외

~ (하 락) ~

2-3. 공사 변경내용

- 건물해체 결과 전반적으로 조적부분의 부식이 심하여 추가 교체가 이루어졌고 내부칸막이공사도 추가되었다. 지하층 화장실은 공사에서 제외되었고 각층 마루공사에서 기존 부재를 재사용하면서 교체물량이 감소하였다. 수장공사의 경우 공법이 바뀌어 물량이 조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애초 공사내용에 변동이 생겼다. 주요 공사 변경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주요 공사 변경내용

구 분	애초 공사 내용(주요 내용만 정리)	설계변경 후 내용
1. 해체공사	• 몰탈 철거 • 벽돌벽철거 •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 텍스 및 합판 철거 • 벽돌벽 빼내기 • 창호 철거	• 벽돌벽 해체 물량 증가 • 지하층 바닥 몰탈 철거 공사 제외 • 그 외 공사 변경사항 없음
2. 지하 PIT공사	• 지하층 화장실 피트설치	• 지하층 화장실 피트설치 공사 제외
3. 지하층 바닥공사	• 지하층 바닥 철거 후 무근CONC 타설	• 몰탈미장마감으로 변경되어 물량 감소
4. 1층 바닥공사	• 기존 슬라브 철거 후 CONC 타설	• 화장실 부분만 CONC 타설(물량 감소)
5. 마루공사	• 기존 마루틀 해체 후 장선 100% 신재 교체 • 기존 반자틀 해체후 재설치	• 기존 마루틀 해체 후 장선 60% 신재 교체 40% 기존 장선 재활용 • 마루판 설치 추가 • 반자틀 줄대 위 회반죽 마감
6. 조적 및 미장공사	• 조적공사 • 지하 화장실 조적공사	• 1층 일부 칸막이벽과 화장실벽 증가 • 지하 화장실 제외로 타일 및 천장틀 물량 감소 • 복도바닥 타일 교체 및 탄소섬유 보강 추가
7. 조경공사	• 주변 조경공사	• 조경공사 제외
8. 벽난로 설치공사	• 2기 설치	• 3기 설치
9. 건물주위 토공사	• 마사토 포장	• 황토 포장
10. 장비 및 위생기구공사		
11. 냉난방기기설치	• 냉난방 설치	• 냉난방 기기설치 제외
12. 소화기 설치공사		

2-4. 실측 조사

가. 실측 조사의 원칙

- ※ 중명전 실측은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존의 외형만을 정밀실측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측원칙을 가지고 실측하였다.
- 현장조사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항시 주변상황을 살피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 실측을 하면서 해당 문화재에 해가 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정한다.
- 철저한 실측조사와 분석을 통해 원형고증을 도출해낸다.
- 전통기법과 법식의 연구 및 보존을 위해 모든 형상을 있는 그대로 조사한다.
- 조사시 발견되는 묵서는 빠짐없이 기록한다.
- 실측값은 미터법을 준수하고 측정범위는 일단위까지의 mm 단위로 한다.
- 실측 야장 작성은 실측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보아도 확인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실측항목, 실측위치, 좌표, 작성자, 기록자를 빠짐없이 기록한다.

나. 실측 도구

- 줄자는 형질 줄자와 철제 줄자가 있는데 형질 재질 줄자는 실측 오차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범랑 입힌 철제 줄자를 사용하였고 같은 회사 제품으로 사용하였다. 크기는 실측자마다 휴대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7.5m 짜리를 사용하고 긴거리는 50m 줄자를 사용하였다.
- 벽돌의 쌓기방법과 두께 등을 조사하였고, 벽돌벽의 보수흔적, 이음흔적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다. 사진 촬영

- 사진은 그 자체가 자료로서 실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사진 촬영은 매우 실질적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사진촬영의 목적을 작업용과 기록용으로 구분하여 촬영하였다. 기록용은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촬영하였고 작업용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 기록용 사진을 찍기 위해 캐논 EOS 5D(28~105mm, 17~40mm)카메라를 사용하였고 사진 촬영 순서는 찍고자 하는 목적물의 순서를 정하고 각 순서마다 원경, 전경, 근경, 상세의 순서로 찍어 단 순 작업으로 인한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 작업용 사진은 설계도서 작성시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디지털 캐논 EOS 20D와 EOS 50D를 사용하여 원경, 전경, 근경, 상세의 순서로 찍는 것과 함께 날날이 찍어 작업에 활용하였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 자유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재를 컴퓨터 그래픽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정한 후 도면 작업에 임했다.



[사진 1-1] 각종 실측 도구



[사진 1-2] 각종 사진 촬영 도구

3. 수리 공사일지

[표 1-2] 수리공사 일지

구 분		기 간	내 용
계약 및 행사	2007년	• 2007년 12월 24일 • 2007년 12월 24일	공사 계약 체결 공사 착수계 제출
	2009년	• 2009년 12월 13일	준공계 제출
자문 회의	2008년	• 2008년 04월 11일 • 2008년 07월 18일 • 2008년 10월 16일 • 2008년 11월 21일	1차 기술자문회의(보수범위 및 방향) 2차 기술자문회의(보수범위 및 방향) 3차 기술자문회의(보수범위 및 방향) 4차 기술자문회의(보수범위 및 방향)
	2009년	• 2009년 01월 30일 • 2009년 05월 28일 • 2009년 07월 23일 • 2009년 10월 14일	5차 기술자문회의(보수범위 및 방향) 6차 기술자문회의(보수범위 및 방향) 7차 기술자문회의(보수범위 및 방향) 8차 기술자문회의(보수범위 및 방향)
실측 및 보고서	2008년	• 2008년 01월 05일 ~ 12월 24일	지속적인 실측 및 조사, 보고서
	2009년	• 2009년 01월 01일 ~ 12월 13일	지속적인 실측 및 조사, 보고서
가설공사	2008년	• 2008년 01월 10일 ~ 04월 24일 • 2008년 11월 05일 ~ 11월 06일	외부 비계 설치 지하층 내부 비계 설치
	2009년	• 2009년 04월 07일 • 2009년 05월 05일 ~ 06월 26일 • 2009년 07월 10일 ~ 07월 24일 • 2009년 08월 24일 ~ 07월 24일 • 2009년 08월 31일 ~ 08월 01일 • 2009년 09월 15일 ~ 09월 17일 • 2009년 10월 10일 ~ 10월 11일 • 2009년 12월 08일 ~ 12월 11일	정면 가림막 설치 1층 내부 말비계 설치 1층 내부 말비계 해체 2층 내부 비계 설치 1층 내부 수평비계 설치 2층 내부 수평비계 설치 좌측면 외부 비계 설치 외부 비계 해체
해체 및 철거공사	2008년	• 2008년 04월 24일 ~ 05월 17일 • 2008년 05월 18일 • 2008년 04월 29일 ~ 05월 14일 • 2008년 04월 30일 ~ 05월 05일 • 2008년 05월 01일 ~ 05월 17일 • 2008년 05월 06일 ~ 05월 10일 • 2008년 05월 10일 ~ 05월 11일 • 2008년 05월 13일 ~ 05월 17일 • 2008년 10월 08일 ~ 10월 19일 • 2008년 10월 14일 • 2008년 10월 16일 • 2008년 10월 24일 ~ 10월 28일 • 2008년 12월 18일 ~ 12월 31일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 회벽 마감재 철거 배면 1층 사무실, 화장실 철거(추가된 공간 부분) 배면 계단 유구 조사, 전면 우물 유구 조사 배면벽 타일 철거 지하 일부 트렌치 파기 내부 전선 철거 2층 바닥 콘크리트 철거 1층 마루 해체 1층 복도타일 해체 전면 화단 해체 지하층 구 배관 철거 측면 베란다 하부 콘크리트 해체
	2009년	• 2009년 01월 01일 ~ 01월 06일 • 2009년 01월 05일 • 2009년 03월 12일 ~ 03월 12일 • 2009년 06월 09일 ~ 06월 16일 • 2009년 06월 09일 ~ 06월 22일 • 2009년 09월 12일	측면 베란다 하부 콘크리트 해체 1층 복도 벽체 철거 지하층 배관 철거 2층 내부 반자 해체 2층 바닥 해체 굴뚝 철거
마루공사	2008년	• 2008년 12월 18일 ~ 12월 31일	1층 장선 설치
	2009년	• 2009년 01월 01일 ~ 02월 15일 • 2009년 06월 25일 ~ 06월 26일 • 2009년 06월 30일 ~ 07월 25일 • 2009년 07월 07일 • 2009년 07월 26일 ~ 07월 30일 • 2009년 11월 17일 ~ 11월 24일 • 2009년 12월 05일 • 2009년 12월 12일 ~ 12월 14일	1층 장선 설치 2층 장선 기준선 설치, 보거무집 설치 장선 치목 및 조립 콘크리트 타설 내부 마루 조립 1층 바닥 슬라브 보강 지하층 몰탈 타설 및 방수공사 2층 바닥 후로링 마루 설치

구 분	기 간	내 용
석공사	2009년	• 2009년 11월 24일 ~ 12월 11일 석재난간 설치
조적공사	2008년	• 2008년 10월 21일 ~ 11월 23일 지하층 조적 해체 및 보수
	2009년	• 2009년 01월 06일 ~ 01월 10일 지하층 조적 해체 및 보수
		• 2009년 03월 12일 ~ 03월 28일 지하층 조적 해체 및 보수
		• 2009년 03월 16일 ~ 04월 11일 1층 벽돌 조적
		• 2009년 06월 02일 ~ 06월 19일 1층 벽돌 조적
		• 2009년 06월 23일 ~ 06월 29일 내부 조적공사
		• 2009년 07월 14일 ~ 08월 08일 내부 조적공사
		• 2009년 08월 10일 ~ 09월 07일 2층 내부 조적공사
		• 2009년 08월 28일 ~ 08월 30일 1층 내부 줄눈 설치
		• 2009년 09월 08일 ~ 09월 19일 1층 외부 조적 보수
		• 2009년 09월 09일 ~ 09월 12일 1층 내부 화장실 조적공사
		• 2009년 09월 17일 ~ 09월 20일 2층 내부 줄눈 설치
		• 2009년 09월 22일 ~ 09월 26일 2층 외부 조적 보수
		• 2009년 10월 06일 ~ 10월 10일 2층 외부 조적 보수
		• 2009년 10월 12일 ~ 11월 14일 1층 및 2층 외부 조적공사
		• 2009년 10월 16일 ~ 11월 14일 조적 줄눈 설치
		• 2009년 11월 19일 ~ 11월 25일 1층 내벽 조적공사
		• 2009년 11월 25일 2층 내벽 조적공사
		• 2009년 11월 26일 ~ 11월 28일 1층 외벽 조적공사
		• 2009년 12월 01일 ~ 12월 02일 내벽 조적 및 줄눈 설치
		• 2009년 12월 07일 ~ 12월 12일 1층 외부 조적 보수
		• 2009년 12월 13일 배면 하부 조적 보수
창호공사	2009년	• 2009년 06월 01일 1층 문틀 설치
		• 2009년 08월 21일 2층 창틀 설치
		• 2009년 11월 15일 ~ 11월 18일 1층 창호 설치
		• 2009년 11월 26일 문틀 설치
		• 2009년 12월 04일 ~ 12월 08일 2층 창호 설치
		• 2009년 12월 14일 2층 창호 설치
		• 2009년 12월 06일 ~ 12월 08일 2층 계단 난간 설치
마감공사	2009년	• 2009년 09월 14일 ~ 09월 17일 천장공사
		• 2009년 10월 06일 ~ 10월 07일 수장공사
		• 2009년 11월 07일 ~ 11월 13일 반자돌림 도장공사
		• 2009년 11월 09일 ~ 11월 21일 수장공사
		• 2009년 11월 15일 ~ 11월 17일 반자돌림 및 천장 도장공사
		• 2009년 11월 19일 ~ 11월 28일 도장공사
		• 2009년 11월 23일 ~ 11월 24일 수장공사
		• 2009년 11월 24일 ~ 11월 30일 미장공사
		• 2009년 11월 27일 ~ 11월 29일 수장공사
		• 2009년 11월 30일 ~ 12월 14일 도장공사
		• 2009년 12월 01일 ~ 12월 11일 미장공사
		• 2009년 12월 09일 ~ 12월 11일 수장공사
기타공사	2008년	• 2008년 05월 27일 적벽돌면 수성페인트 시험세척
	2009년	• 2009년 10월 29일 ~ 12월 10일 조적벽 페인트 제거
		• 2009년 11월 17일 ~ 11월 24일 화장실 배관 설비
		• 2009년 12월 06일 외부 선풍통 설치
		• 2009년 12월 11일 ~ 12월 12일 배면 토사 절토
		• 2009년 12월 11일 정화조 설치
		• 2009년 12월 13일 ~ 12월 14일 우측면 토사 절토
		• 2009년 12월 09일 ~ 12월 10일 화장실 타일공사
		• 2009년 12월 10일 ~ 12월 14일 베란다 타일공사

4. 수리 관계자

■ 자문위원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급
• 문화재위원	김정동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근대건축사
	김정신	단국대학교 교수, 근대건축사
• 문화재전문위원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근대건축사
	이강근	경주대학교 교수, 궁궐건축
	김종현	배재대학교 교수, 근대건축
	권기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 전문가	이민원	전 정신문화연구원 연구위원

■ 문화재청

구 분	성 명
• 문화재청장	이건무
• 문화재청차장	김찬
• 문화재활용국장	서영애
• 궁능문화재과장	최병선
• 궁능문화재과 사무관	이재서
• 궁능문화재과 공사감독	최길섭

■ 덕수궁관리소

구 분	성 명
• 관리소장	박기화

■ 시공자

구 분	성 명
• (주)한성	
• 대표이사	이동심
• 현장대리인	류상수(보수기술자 469호)
• 현장관리	박성현(주식회사 한성 상무이사)

■ 공종별 기능인 및 공급처

구 분	성 명
• 조적공사, 바닥타일 제작 및 시공	(주)대신고벽돌. 대표이사 한경수. 한태수(작업반장), 장명환, 황규남, 김상덕, 강영남
• 고벽돌 수집운반	수집운반자 : (주)대신고벽돌. 대표이사 한경수
• 목공사	변경식(목공기능자 제 1,064호), 권낙준(목공기능자 제 755호). 김진근(목공기능자 제 756호).
• 몰딩 및 걸레받이	몰딩 제작 : (주) 삼양팀버 대표 이정주. 몰딩 설치 : 대신건축 대표 강병수
• 내부마루 제작 및 시공	(주)창성우드. 대표 강병창
• 석공사	석재 제작 : 선우석재. 대표 배철수. 석재 설치 : 아라석재. 대표 안민수
• 창호제작 및 시공	평화 목공소. 대표 최석호(한식 소목공 제 2,835호)
• 벽돌세척공사	한국방역주식회사. 대표 이갑우. 이용기(보존과학기술자 제 295호), 최선규, 이진홍, 최준홍(보존과학기능자 제 4,350호), 김선만(보존과학기능자 제 4,019호), 김재규
• 복도 유리공사	서인천건업. 대표 유병만
• 조명기구 받침대 제작	성진 지엔지. 대표 김영태
• 조명기구 제작 및 시공	제작 : 세전사. 시공 : 대성전기건설공사. 대표 김대용
• 전기공사	대성전기건설공사. 대표 김대용
• 훈증처리	엔가드

■ 보수·복원 설계

구 분	성 명
• 한민건축사무소	이관영

■ 실측 및 보고서

구 분	성 명
• (주)아름더 건축사사무소	
• 조사책임자	김석순(대표이사, 실측·설계 제 367호)
• 실측 및 도면작성	진익학(실측·설계기능자 제 5,196호), 심현희(실측·설계기능자 제 3,644호) 이상은(실측·설계기능자 제 4,829호), 박창범(실측·설계기능자 제 5,565호) 이지영(실측·설계기능자 제 5,568호)
• 원고작성	김석순(1장, 3장, 4장.) 김정동(2장 연혁/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문화재위원) 따지아나 심비르제바(2장 사바친/ 러시아 국립인문과학대학교 교수) 강성원(3장 중명전 구법/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근대건축전공)
• 사진 촬영	김석순, 강성원, 심현희

5. 자문회의

5-1. 1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안 건	• 중명전 복원공사 과정에 대한 자문 - 공사 착수 전 일정계획 보고 및 세부 시공과정 검토 - 건물 내·외부의 변형되어진 부분에 대한 현장검토								
■ 일 자	2008년 4월 11일 11:00								
■ 장 소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공사 현장								
■ 참석자	<table border="1"> <tr> <td>자문위원</td><td>김정동(문화재위원,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인석(문화재전문위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강근(문화재전문위원, 경주대학교 교수) 이민원(전 정신문화연구원 연구위원)</td></tr> <tr> <td>문화재청</td><td>최길섭(궁능문화재과 공사감독)</td></tr> <tr> <td>시공사</td><td>류상수(한성건설 현장대리인)</td></tr> <tr> <td>실측보고서</td><td>김석순(주, 아름더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강성원</td></tr> </table>	자문위원	김정동(문화재위원,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인석(문화재전문위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강근(문화재전문위원, 경주대학교 교수) 이민원(전 정신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재청	최길섭(궁능문화재과 공사감독)	시공사	류상수(한성건설 현장대리인)	실측보고서	김석순(주, 아름더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강성원
자문위원	김정동(문화재위원,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인석(문화재전문위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강근(문화재전문위원, 경주대학교 교수) 이민원(전 정신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재청	최길섭(궁능문화재과 공사감독)								
시공사	류상수(한성건설 현장대리인)								
실측보고서	김석순(주, 아름더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강성원								
■ 회의결과	• 원 기반선을 찾기 위해 지하층의 바닥을 60cm이상 표층을 제거하여 지하유구 조사를 실시함이 좋겠음. • 내부 벽난로, 창호 등의 정확한 원형 고증을 위해 건립 당시 관계되는 외국나라(러시아, 중국, 일본)의 자료를 조사, 수집함이 좋겠음. • 건물 내·외부의 덧단부분과 전면 마당의 우물을 해체하여 변형여부를 정밀 검토함이 좋겠음(차기 자문회의 시에 검토사항) • 복원설계 내용과 해체과정 시 조사현황을 세밀히 비교 검토하여 원형 복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함이 좋겠음(차기 자문회의 시 검토사항)								



[사진 1-3] 1차 자문회의



[사진 1-4] 1차 자문회의

5-2. 2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안 건		• 중명전 복원공사 과정에 대한 자문 - 현재 변형되어진 부분에 대한 복원, 보수 현장검토 - 해체 과정 중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형복원 설계변경(안)검토 - 기타 공사관련 지도 자문
■ 일 자		2008년 7월 18일 11:00
■ 장 소		덕수궁 중명전 보수 · 복원공사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윤인석(문화재전문위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종현(문화재전문위원, 배재대학교 교수) 이민원(전 정신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재청	김지성(궁능문화재과 사무관) 최길섭(궁능문화재과 공사감독)
	덕수궁관리소	박기화(덕수궁관리소장)
	시공사	류상수(한성건설 현장대리인)
	실측보고서	김석순(주, 아름터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강성원
■ 회의결과		• 해체 과정 중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설계변경안을 반영하여 시공토록 함이 좋겠음. - 각 실별 벽면 구획 및 창호 위치 확인, 1 · 2층 베란다 형태 확인 - 세부적인 창호 형태와 내부 벽면 난로, 조명등 형태 등은 국내 · 외 동일 건립년대 건축물들의 내부 시설 자료들을 수집, 조사하고 차기 회의 시 결정 - 건물 지반 바닥선은 해체 과정 중 조사된 내용과 주변 지형 상황을 설계도면과 비교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기 회의 시 결정



[사진 1-5] 2차 자문회의



[사진 1-6] 2차 자문회의

5-3. 3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안 건		• 중명전 복원공사 과정에 대한 자문 - 건물 구조관련 구조전문가(권기혁교수) 현장검토 결과 보고 - 국외(일본, 러시아)자료 조사결과 보고 - 기타 공사관련 지도 자문
■ 일 자		2008년 10월 16일 16:00
■ 장 소		덕수궁 중명전 보수 · 복원공사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신(문화재위원, 단국대학교 교수), 김종현(문화재전문위원, 배재대학교 교수) 이민원(전 정신문화연구원 연구위원), 권기혁(문화재전문위원, 서울시립대 교수→개별자문)
	문화재청	최길섭(궁능문화재과 공사감독)
	시공사	류상수(한성건설 현장대리인)
	실측보고서	김석순(주, 아름터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강성원

■ 회의결과	• 구조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 내부 벽체부터 신축하고 외부벽체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복원함이 좋겠음 • 국외(러시아, 일본) 조사결과를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하여 차기회의 시 검토함 • 복원되는 일부 건물 구간(벽체 등)을 복원 전의 형태 그대로 남겨두어 일반 국민들에게 건물의 훼손되고 변화된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방안도 강구함이 좋겠음 • 각 실별 벽면 구획 및 창호 위치 확인 •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1층 우측방의 2개소의 폐치카는 복원함이 좋겠으며 상세도면 작성하여 차기 회의 시 논의토록 함 • 세부적인 창호 형태와 내부 벽면 난로, 조명등 형태 등은 국내·외 동일 건립연대 건축물들의 내부 시설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차기 회의 시 논의토록 함이 좋겠음. • 건물 지반 바닥선은 해체 과정 중 조사된 내용과 주변 지형 상황을 설계도면과 비교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좋겠음 ■ 권기획위원 사전 개별 자문 내용(2008년 10월 10일) • 현 장선 중 부식 훼손된 것을 보완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 같음. • 조적벽체 쌓기는 장선을 둔 채 쌓아 올려도 벽체 두께가 충분하여 무난할 것 같음. • 조적 벽체 신축 후 충분한 강도가 확인될 때까지 기존 기둥 등 구조체를 철거하지 말 것 • 장선 중 후대에 시공된 부분 중 이음이 붙어 있는 부분은 온도 변형에 대한 이격거리(2cm 내외)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추가 의견 중명전 보존공사 현장을 육안으로 관찰한 후 공사방향에 대한 구조전문가로서의 자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지하 1층부에 설치된 배관설비보강 혹은 노후 장선보강용으로 설치된 기둥들은 바닥 장선이 보수되면 구조적으로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보수 후 철거하여 원형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상 1층부의 왼쪽(현관을 바라보았을 때)부위와 중앙부의 콘크리트 바닥은 철거하고 마루바닥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현관 앞부분은 구조적 노후화가 심하고 철재보강재도 노후되어 철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단, 화장실이 설치되는 부분은 슬래브를 철거하지 않아도 됨.(현재 기술로는 화장실 바닥을 목재로 하기는 어려움) • 지하층의 기존 출입구는 폐쇄하고 옛날 출입구를 복원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수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우기시 지하층이 침수될 위험성이 높음으로 충분한 대비 후 복원하여야 함. 후대의 공사로 인해 G.L이 높아져 원출입구를 사용하려면 복도층을 걷어내야 하고 트랜치 등의 우수대비시설 및 직접적인 우수유입방지를 위한 지붕과 같은 덮개 구조가 필요 함. • 1, 2층 외벽체 철거는 내부벽체를 시공한 후 신축벽체가 적절한 강도를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1,2층 피어는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2층 바닥 장선은 건전한 부재는 재사용하여도 구조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에 따라 일부 부재는 보강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후대에 사용된 벽돌량이 많아 전부를 교체하는 것은 시공 도중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구조적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물 왼쪽 후대의 손상된 아치부위 등 손상이 심한 부위는 우선적으로 보수되어야 함. •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신벽돌과 모르타르는 재료실험 등을 통해 재료적 특성을 기록하고 샘플을 보관하여 후대에 또 다른 보수를 위한 자료로 남겨야 함.
---------------	--



[사진 1-7] 3차 자문회의



[사진 1-8] 3차 자문회의

5-4. 4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안 건		• 중명전 복원공사 과정에 대한 자문 - 일본, 러시아 건축물 조사결과 보고(폐치카, 실내인테리어자료 조사)및 검토 - 유사 근대건축물 베란다 마감 조사결과 설명 및 검토 (배재학당, 명동성당주교관, 전주전동성당) - 폐치카 설치갯수 설명 및 검토/ 소방설비 시공방법 검토
■ 일 자		2008년 11월 21일 16:00
■ 장 소		덕수궁 중명전 보수 · 복원공사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문화재위원, 목원대학교 교수) 김종현(문화재전문위원, 배재대학교 교수) 이민원(전 정신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재청	김지성(궁능문화재과 사무관), 최길섭(궁능문화재과 공사감독)
	시공사	류상수(한성건설 현장대리인)
	실측보고서	김석순(주, 아를터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강성원
■ 회의결과		• 설계변경 최종 정리안 검토(주요변경 내용) - 냉난방은 패키지 난방식으로 조정(화장실은 별도) - 지하층의 전시설 설치를 위한 조명은 기본 조명만으로 변경 - 지하층의 전시설 설치공사는 제외하고 원형복원만 실시 - 건물 배수공사는 다발관 형식으로 설치함 - 조적벽 추가(1층 우측방 벽난로 유구 발견으로 2개실로 조정) - 아치 치장벽돌 제작 비용 반영 - 1층 복도 테라조 타일 존치로 해체, 설치 물량 조정 - 합판 위 회반죽 천장 마감을 목재 줄대 위 회반죽 마감으로 변경 - 기존 지하층 콘크리트 바닥은 해체하지 말고 재사용 - 지하층 벽체 방수 몰탈 추가 설치 - 1층과 2층의 내부 벽 마감을 회벽 마감에서 왕골 벽지로 변경

5-5. 5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안 건		- 중명전 복원공사 과정에 대한 공정 보고 - 공사 공정 보고 - 벽난로 제작방법 검토 - 바닥타일 시공 방법 검토
■ 일 자		2009년 01월 30일 10:30
■ 장 소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공사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문화재위원, 목원대학교 교수) 김정신(문화재위원, 단국대학교 교수) 김종현(문화재전문위원, 배재대학교 교수) 이민원(전 정신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재청	김지성(궁능문화재과 사무관) 최길섭(궁능문화재과 공사감독)
	시공사	류상수(한성건설 현장대리인)
	실측보고서	김석순(주, 아람더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강성원, 심현희
■ 회의결과		- 벽난로는 석조전과 운형궁양관을 참조하여 디자인하면 좋겠음 - 중명전은 운형궁보다는 격조있게 하되 석조전 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하면 좋겠음. - 문양은 석조전을 참고하면 좋겠음. - 실제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 - 부족한 바닥타일은 기존과 같은 문양으로 주문제작하여 사용하면 좋겠음.



[사진 1-9] 5차 자문회의



[사진 1-10] 5차 자문회의

5-6. 6차 자문회의



[사진 1-11] 6차 자문회의



[사진 1-12] 6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안 건		• 중명전 보수 · 복원공사 과정에 대한 자문 - 해체 과정 시 조사된 설계변경 사항 정리내용 보고 및 자문 - 내부마감(조명기구, 천장마감, 창호손잡이, 바닥마감 등) 고증자료 수집 조사결과 보고 및 자문 - 훼손된 내벽 복원에 따른 현장 시공방법 구조안전 검토
■ 일 자		2009년 05월 28일 13:30
■ 장 소		덕수궁 중명전 보수 · 복원공사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문화재위원, 목원대학교 교수) 이민원(전 정신문화연구원 연구위원) 권기혁(문화재전문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화재청	이재서(궁능문화재과 사무관) 최길섭(궁능문화재과 공사감독)
	시공사	류상수(한성건설 현장대리인)
	실측보고서	김석순(주, 아름더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심현희
■ 회의결과		• 아래 검토건에 대해 현장 해체 과정 시 조사된 내용과 고증자료 수집 결과를 토대로 검증된 자문회의안을 공사과정에 반영하되, 창호손잡이와 조명기구는 시공 시 별도 자문 후 시행함이 좋겠음. - 입구 포치형태 결정 : 자문회의안과 같이 결정 - 1층, 2층 배면쪽 실 구획 변경 : 자문회의안과 같이 결정 - 전면 난간동자 상세 변경 : 자문회의안과 같이 결정 - 내부 벽난로 상세 결정 : 자문회의안과 같이 결정 - 건물 배면 배수 방안(절토 범위) 검토 : 흙관 배수로 매입 - 내벽마감 : 자문회의안과 같이 결정 - 천장마감 : 자문회의안과 같이 결정 - 바닥마감 : 자문회의안과 같이 결정 - 창호형태 : 자문회의안과 같이 결정 - 등기구 : 창호손잡이, 등기구 세부형태는 별도 검토 후 추진 - 우물복원 : 뚜껑부분을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는 재질로 변경 - 건물구조보강 : 내·외벽을 일체화 할 수 있도록 2층 베란다 바닥을 콘크리트로 보강 ■ 권기혁위원 사전 개별 자문 내용(2009년 05월 19일) • 신설되는 내부벽체와 기존 외부벽체와의 일체성이 현재 상태로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불의의 외력에 의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음(기존 외부 벽체가) • 내·외부 벽체의 일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방식이 있음 ㉠. 내·외부 벽체 사이에 아치를 설치하는 방법. 최소 4곳 이상 ㉡. 베란다에 기존 콘크리트 바닥을 존치시키고 우측바닥에 시설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하는 방식 • ㉠ 방법은 외관이나 벽돌사용, 목재바닥설치에 잇점이 있으나 외부의 기존 아치 손상, 벽체의 돌출 등이 문제가 있음. • ㉡ 방법은 신재의 사용과 목재바닥 마감이 어려운 단점은 있으나 구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 방법임. • 구조전문가로서 바닥마감을 목재마루로 하지 않는다면 노출되지 않는 바닥을 콘크리트로 시공하여 내·외부 벽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안은 구조적 손상을 일부 감수하여야 함으로 ㉡안이 구조적 측면에서는 유리 함.)

5-7. 7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안 건		• 중명전 보수 · 복원공사 과정에 대한 자문 - 우물 복원 방법 검토 - 마당 포장 방법 검토 - 대문 및 주변 담장 복원 방법 검토
■ 일 자		2009년 07월 23일 14:00
■ 장 소		덕수궁 중명전 보수 · 복원공사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문화재위원, 목원대학교 교수)
		김종현(문화재전문위원, 배재대학교 교수)
		권기혁(문화재전문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 개별 자문
	문화재청	최길섭(궁능문화재과 공사감독)
	시공자	류상수(한성건설 현장대리인)
실측보고서		심현희(주, 아름터건축사사무소)
■ 회의결과		• 마당 앞 옛 우물은 정동 내 예원학교 부지 내에 복원된 우물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복원함이 좋겠음 • 앞마당 포장은 마사토로 함이 좋겠음 • 대문 및 주변담장 복원은 금번 복원공사에서 다루지 말고 향후 건물 활용계획에 맞추어 정비토록 함이 좋겠음. • 기타 세부적인 복원 추진에 대해서는 개별자문(김정동, 권기혁)을 받아 추진토록 함이 좋겠음. • 구조 개별자문 검토의견(권기혁) - 설치된 콘크리트보를無理하게 주변 벽체에 앵커하는 것은 보 거동에 따른 균열을 유발할 수 있음 - 현재 상태로 주변을 정리하고 상부에 조적 기둥이 시공되면 하중(자중)만으로 적절한 고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와 벽돌 사이는 강회로 메꾸는 것이 바람직 함.



[사진 1-13] 7차 자문회의



[사진 1-14] 7차 자문회의

5-8. 8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안 건		• 중명전 보수·복원공사 과정에 대한 자문 - 등기구 형태 검토 - 주변 배수로 검토
■ 일 자		2009년 10월 14일 11:00
■ 장 소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공사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문화재위원, 목원대학교 교수)
	문화재청	최길섭(궁능문화재과 공사감독)
	시공사	류상수(한성건설 현장대리인)
	실측보고서	심현희(주, 아람터건축사사무소)
■ 회의결과		• 등기구 형태는 제시된 자료 중 택한 것으로 함이 좋겠음(첨부) • 주변 배수로 정비는 건물구조에 영향이 없도록 배수로 신설 필요 • 기타 마무리 공정에 대해서는 기존 자문회의에 보고된 내용대로 시행토록 함이 좋겠음



[사진 1-15] 8차 자문회의



[사진 1-16] 8차 자문회의

6. 공사 내역

6-1. 내역 총괄

■ 원가계산서

원가계산표	
구분	금액
직접재료비	822,770,312
직접노무비	682,339,999
간접노무비(9.5%)	64,822,299
기계경비	24,422,533
산재보험료(3.8%)	28,392,167
고용보험료(0.67%)	5,005,987
국민건강보험료	11,612,747
국민연금보험료	19,990,515
퇴직공제부금비(1.99%)	13,578,565
산업안전보건관리비(1.81%)	30,536,496
환경보전비(0.3%)	4,588,598
기타경비(5.4%)	84,776,360
일반관리비(4.7%)	84,263,319
이윤(14.71%)	155,114,158
수리보고서작성비	101,364,000
공급가액	2,133,578,055
부가가치세(10%)	213,357,805
총공사비	2,346,935,860

■ 내역 총괄 집계표

공정 내역 집계표	
구분	금액
1 공통가설공사	23,724,429
2 가설공사	27,184,885
3 해체공사	52,891,128
4 지하 피트공사	0
5 지하층 바닥공사	6,678,725
6 1층바닥공사	1,568,204
7 석공사	118,066,538
8 계단(1)공사	8,638,447
9 계단(2)공사	13,613,032
10 마루공사	214,795,284
11 조적및미장공사	812,239,764
12 창호공사	61,832,040
13 정화조 설치공사	13,564,968
14 조경공사	673,346
15 방염제 도포공사	20,405,877
16 벽난로 설치공사	42,235,000
17 건물주위 토공사	51,226,622
18 내부 유리공사	27,494,224
19 운반공사	5,254,526
20 기계설비공사	27,445,805
201 장비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13,173,286
202 옥외배관공사	7,324,661
203 냉난방(EHP)배관공사	0
204 급수, 급탕 배관공사	4,276,415
205 오.배수배관 배관공사	1,676,719
206 통기 배관공사	735,724
207 소화기 설치공사	259,000
총계	1,529,532,844

6-2. 공종별 내역

■ 공통가설공사

명칭	규격	단위	수량	공사비
조립식가설사무소	36개월	M2	20	1,813,000
조립식가설창고	36개월	M2	24	1,508,376
공사안내판		개소	1	129,773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36개월, H=2.4m	M	80	4,055,040
파나후렉스 휘장막 설치		식	1	16,218,240
[합계]				23,724,429

■ 가설공사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공사비
강관비계매기	18개월	M2	864.3	12,881,527
이동식강관말비계	12개월,3단(6m)	1대	5	595,210
강관비계다리	18개월	M2	87.37	3,760,578
건축물현장정리	조적조	M2	662.75	2,307,032
보호막설치	PVC코팅 #420	M2	864.3	2,349,167
강관동바리(라멘구조)	6개월,4.2m이하	M2	618.24	3,543,751
쓰레기슈트설치	18개월,Φ450mm	M	18	1,747,620
[합 계]				27,184,885

■ 해체공사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공사비
모르타르철거	바닥	M2	1.88	16,829
벽돌벽 철거	인력	M3	121.68	10,993,544
스레이트 철거		M2	34.88	96,896
마루틀및마루널 철거		M2	743.98	5,826,850
타일 철거	바닥및벽체	M2	709.93	10,592,155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천정	M2	709.93	10,101,593
텍스및 합판 철거(벽)		M2	187	416,262
벽돌벽 빼내기	인력	1000매	52.09	11,891,834
목재창 철거		M2	14.54	391,169
철재창 철거		M2	55.97	1,414,360
알미늄창 철거		M2	35.97	1,149,636
[합 계]				52,891,128

■ 지하층 바닥공사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공사비
레미콘	서울,25-18-8	M3	26.92	1,003,012
펌프카배관타설(무근,25/20)	50㎡미만,슬럼프8-12cm	M3	26.92	483,051
쇠흄손마감		M2	308.94	1,157,289
시멘트액체방수	1종	M2	308.94	4,035,373
[합 계]				6,678,725

■ 1층 바닥공사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공사비
레미콘	서울,25-21-12	M3	5.25	211,664
펌프카배관타설(무근,25/20)	50㎡미만,슬럼프8-12cm	M3	5.25	94,205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이형철근)	HD-10,SD35,40,하치장상	톤	0.51	220,154
철근가공조립	보통(미할증)	톤	0.54	235,126
합판거꾸집	4회	M2	43.75	807,055
[합 계]				1,568,204

■ 석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공사비
석재설치	(1개:0.3㎡ 미만)마름돌	M3	19.47	3,830,683
화강석(포천석)	원석	M3	25.32	4,234,770
경석다듬기	정다듬/고운다듬	M2	253.45	50,741,703
경석다듬기(운두)	도드락다듬/64눈	M2	84.57	59,259,382
[합 계]				118,066,538

■ 계단(1)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공사비
인력터파기	보통토사0-1m	M3	2.84	28,249
되메우고다지기	토사,다짐두께 15cm	M3	0.62	7,400
잔토처리	인력	M3	2.22	22,082
잡석깎기지정	떨공이다지기	M3	0.42	32,484
레미콘	서울,25-18-8	M3	1.8	67,066
펌프카배관타설(무근25/20)	50㎡미만,슬럼프8-12cm	M3	1.8	32,298
모르타르바름	바닥24mm	M2	2.79	25,087
시멘트액체방수	1종	M2	2.79	36,442
석재설치	(1개:0.3㎡ 미만)마름돌	M3	1.29	253,804
화강석(포천석)	원석	M3	1.68	280,980
경석다듬기(운두)	정다듬/고운다듬	M2	9.47	3,791,863
1.0B한면치장쌓기	5,000매미만	천매	0.93	345,131
구조용 스테인리스사각판	STS304 100*100*2.0t	M	37	1,340,510
구조용 스테인리스사각판	STS304 100*50*1.5t	M	12	261,924
잡철물제작설치(스텐)	간단	톤	0.26	683,794
유리끼우기및닦기	10mm미만	M2	19.95	534,978
강화유리	투명,6mm	M2	19.95	245,005
적벽돌	고파벽,수집품(230*110*6)	매	962	649,350
[합 계]				8,638,447

■ 계단(2)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공사비
잡석깎기지정	떨공이다지기	M3	0.64	49,500
레미콘	서울,25-18-8	M3	2.93	109,168
펌프카배관타설(무근25/20)	50㎡미만,슬럼프8-12cm	M3	2.93	52,575
모르타르바름	바닥24mm	M2	3.75	33,719
시멘트액체방수	1종	M2	3.75	48,981
석재설치	(1개:0.3㎡ 미만)마름돌	M3	2.23	438,747
화강석(포천석)	원석	M3	2.9	485,025
경석다듬기(운두)	정다듬/고운다듬	M2	21.18	8,480,641
1.0B한면치장쌓기	5,000매미만	천매	0.58	215,243
적벽돌	고파벽,수집품(230*110*60)	매	593	400,275
구조용 스테인리스사각판	STS304 100*100*2.0t	M	38	1,376,740
구조용 스테인리스사각판	STS304 100*50*1.5t	M	14	305,578
잡철물제작설치(스텐)	간단	톤	0.27	710,094
유리끼우기및닦기	10mm미만	M2	23.12	619,985
강화유리	투명,6mm	M2	23.35	286,761
[합 계]				13,613,032

■ 마루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공사비
해체		100재	85.65	4,286,868
조립		100재	121.17	9,009,353
치목		100재	101.08	19,593,852
육송	각재	재	4751	16,048,878
육송	판재	재	10281	104,208,216
마루널깔기		M2	714.47	7,401,194
플로어링보드	경질단풍나무,20	M2	714.47	32,589,120
반자틀설치	합판,텍스천정	M2		
쫄대 설치		M2	714.47	17,971,063
노무비	도편수	인	29.21	3,686,740
[합 계]				214,795,284

■ 조적 및 미장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공사비
적벽돌	고파벽,수집품(230*110*60)	매	87546	59,093,550
전벽돌	220*100*50	매	8240	10,786,160
시멘트벽돌	서울.190*57*90(C종2급)	매	8482	322,316
1.5B한면치장아치쌓기		천매	7.48	3,772,611
1.5B한면치장쌓기	10,000매이상	천매	77.52	20,373,263
1.5B벽돌쌓기	10,000매이상	천매	3.99	729,507
1.0B벽돌쌓기	5,000매미만	천매	4.09	919,947
자기질타일	시유,200*200*7-11	M2	43.75	221,725
도기질타일	일반색,200*200	M2	125.04	633,702
타일압착붙임.200*200(일반C)	벽,바탕18mm+압6mm	M2	125.04	4,533,199
타일압착붙임.200*200(타일C)	바닥,바탕24mm+압5mm	M2	43.75	1,310,837
벽체합판붙임(경비)	4.8mm	M2	320.19	3,127,294
압축단열재	아이스핑크	M2	320.19	1,658,583
시멘트액체방수	1종	M2	137.03	1,789,885
화장실 칸막이	뉴큐비클,20mm(POP)	M2	41.4	3,846,763
경량철골천정틀	M-BAR H:1m미만,인서트	M2	43.75	890,837
회반죽바름(석고플라스터)		M2	1764.01	41,207,273
메탈라스붙임	SUS EX메탈	M2	1764.01	66,649,588
적벽돌 교체		매	36987	443,807,013
벽체 세척및보존처리		식	1	127,626,791
테라조 타일 해체보수	250*250	매	47	5,288,628
복도 보수및 보강공사		식	1	13,650,292
[합 계]				812,239,764

■ 창호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공사비
창호공사		식	1	61,832,040
[합 계]				61,832,040

■ 정화조 설치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공사비
정화조 설치공사		식	1	13,564,968
[합 계]				13,564,968

■ 조경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공사비
조경공사		식	1	673,346
[합 계]				673,346

■ 방염제 도포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공사비
목부재 방염제 도포		식	1	20,405,877
[합 계]				20,405,877

■ 벽난로 설치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공사비
벽난로 설치	화구 신형	개소	2	42,235,000
[합 계]				42,235,000

■ 건물주위 토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공사비
건물주위 토공사		식	1	51,226,622
[합 계]				51,226,622

■ 내부 유리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공사비
복도및 베란다 유리설치		식	1	27,494,224
[합 계]				27,494,224

■ 운반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공사비
운반공사		식	1	5,254,526
[합 계]				5,254,526

■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공사비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식	1	13,173,286
[합 계]				13,173,286

■ 옥외 배관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공사비
옥외 배관공사		식	1	7,324,661
[합 계]				7,324,661

■ 급수 급탕 배관공사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공사비
급수 급탕 배관공사		식	1	4,276,415
[합 계]				4,276,415

■ 오배수 배관공사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공사비
오배수 배관공사		식	1	1,676,719
[합 계]				1,676,719

■ 통기 배관공사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공사비
통기 배관공사		식	1	735,724
[합 계]				735,724

■ 소화기 설치공사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공사비
소화기	분말소화기(ABC)4단위,3.3KG	EA	14	222,614
소화기받침대	소화기 받침대 3.3KG	EA	14	36,386
[합 계]				259,000

2. 연 혁



한미사진미술관 제공

1. 중명전 역사
2. <조선국왕 폐하의 건축가> 사바쥘(1860~1921)
3. 주요 연혁자료

2. 연 혁

1. 대한제국 또 하나의 현장, 경운궁 수옥헌 정전, 중명전을 복원하며

김정동
목원대학교 교수

1-1. 서론

1882년 4월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조인된 이후 미국공사관이 정동(貞洞)에 들어서며 정동 일대는 ‘미국인의 권역’이 된다. 1895년 8월 건청궁(乾淸宮)에서 일본인들에 의한 을미사변(乙未事變)이 일어난다. 고종은 1897년 2월 20일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끝내고 새 궁궐 경운궁(慶運宮)으로 들어온다. 이후 경운궁과 미국공사관, 러시아공사관이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919)의 중심무대가 된다.¹⁾

경운궁 경역에는 수옥헌(漱玉軒)이란 궁궐구역, 즉 궐역(闕域)이 있었다. 수옥헌은 1897년 정동에 경운궁 돌담이 생기면서 궁 밖에 위치하게 된다.

1919년 1월 고종이 덕수궁 함녕전(咸寧殿)에서 붕어하자, 수옥헌은 황실로 부터도 완전히 잊혀 버린다. 순종은 창덕궁에 재어(在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수옥헌은 덕수궁 궁역이란 인식조차 못하게 된다. 구(舊) 경기여고 터의 영성문(永成門) 대궐 궐역도 마찬가지였다. 수옥헌과 영성문 궐역의 건물군은 근·현대사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진다.²⁾ 그리고 지금은 그 이름조차 잊혀 있다.

그 수옥헌 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 1897년 세워진 수옥헌 정전 즉, 중명전(重明殿)이다. 이제 110년의 역사를 갖게 된다.

중명전은 근래까지 관심권 밖에 있었다. 정동거리에서도 보이지 않고, 건물은 쇠락해 있기 때문이다. 임대 사무실로 쓰이며 그 건물에 근무하던 사람조차 그 건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우리 근대사의 현장이 몰가치적으로 폄하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대한제국시기의 흔적과 일제(日帝)의 현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명전의 옛 모습을 살리고, 수옥헌 전체를 복원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다. 덕수궁 복원은 수옥헌과 영성문 대궐을 복원하여야 완성될 일이다.

최근 중명전 건물은 그 역사적 증거로서 가치 인식이 제고되었고, 문화재청으로 소유권이 옮겨가며,³⁾ 학문적 연구 성과물에 의해, 또한 그 시대적 요구에 의해, 복원 차원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중명전에 대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재록하고자 한다.

1) 출처, 『고종 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참고, 『대한제국 1907 헤이그 특사』(특별기획전 도록), 2007.7.14, 참조

2) ‘영성문대궐의 운명’, 매일신보, 1920.5.11

3) 문화재청은 정부예산 49억 300만원으로 중명전을 매입했다(2003.5.30).

1-2. 본론

가. 미국 선교사들의 집으로

1873년 이래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 감리사인 맥클레이(Robert Samuel Maclay, 1824-1907)가 1884년 6월 24일 내한한다. 그는 곧 정동의 미국공사관을 찾았다. 1883년 5월 초대 주한공사로 부임해 온 바 있는 푸트 공사는 맥클레이를 공사관 옆에 미리 준비해 놓은 한옥에 머물게 한다.

김옥균은 7월 3일 맥클레이의 숙소를 방문한다. 맥클레이는 푸트 공사, 김옥균, 통역 윤치호와 함께 외아문(外衙門)을 방문하고, 창덕궁으로 가 고종을 배알한다. 그리고 정동 일대를 집중적으로 답사한다. 아직 이곳에 오늘의 덕수궁은 없었다. 훌륭한 한옥의 양반가가 들어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김옥균을 통해 경복궁, 창덕궁과 멀지 않은 미국공사관 근처에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를 위한 사유지 매입을 부탁했다.⁴⁾ 병원과 학교를 짓겠다고 한 것이다. 그는 자기가 머물던 집을 선교부지로 구입해 줄 것을 푸트 공사에게 부탁해 놓고 일본으로 돌아간다.⁵⁾ 맥클레이가 원한 집은 호군(護軍) 민창식(閔昌植, 1841-82)이 살던 집이었는데 이 집은 1882년 7월 임오군란 때 그가 살해되고 그 후 흉가(凶家)라 하여 아무도 들지 않았던 집이었다. 그 집 주변이 이후 수옥헌 지역이 된 것이다.

장로교 의료 선교사 알렌(H. N. Allen)은 1884년 9월 내한하여 미국공사관과 러시아공사관 사이에 대지를 얻었다. 푸트가 알렌에게 맥클레이가 예약해 놓았던 땅을 제공한 것이다. 알렌은 중국인 건축가 이태(怡泰)를 시켜 붉은 벽돌집을 세워 정동 외국인 거주지의 디딤돌을 놓았다. 이곳이 중명전 이전의 집터였다. 알렌은 1890년부터 1905년까지 미국공사관 서기관공사 등을 역임하며 미국공사관과 외국인 선교사 사택들의 조정자 역할을 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미국공사관 주변에 몰려 함께 살도록 했다. 정동 외의 지역은 아직 위험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종은 창덕궁에 재어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겪었다. 이후 경복궁으로 이어(移御)했다.

갑신정변 2년 후인 1886년 7월 미국인 여의사 애니 엘러스(J. Anne Ellers)가 내한했다. 그는 알렌의 집에 숙소를 정하고 광혜원(제중원)에 나가 일한다. 따라서 이 집은 ‘제중원 사택’이라고도 불렸다. 엘러스는 1887년 6월부터 이곳에서 ‘여학당(Girls School)’을 시작했다. 사택의 마당 뜰에 있던 3개의 방이 있는 ‘一자 기와집’을 교사로 쓴 것이다. 여학당은 ‘방 높이가 9척 약간 넘는 기둥으로 지어진 한식 기와집인바 한 방의 넓이가 폭 10자, 길이가 13자 되는 방이 세 개가 함께 붙어 있었다’고 하고 있다.⁶⁾ 이 집을 ‘고아원’이라고도 했다. 여학당은 1895년 10월 20일 연지동(蓮池洞)으로 옮겨갔다.⁷⁾ 정동여학당은 1887년부터 1895년까지 8년간 정동에 있었던 것이다.

1895년 10월 20일까지 이 집은 알렌의 집, 엘러스의 숙소, 제중원 사택, 여학당, 고아원 등으로 역

4) 김옥균은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을 일으킨다.

5) 윤춘병, 『맥클레이 박사의 생애와 사업』, 23-24쪽, 한국기독교문화원, 1984

6) 『정신75년사』, 69쪽, 정신여교,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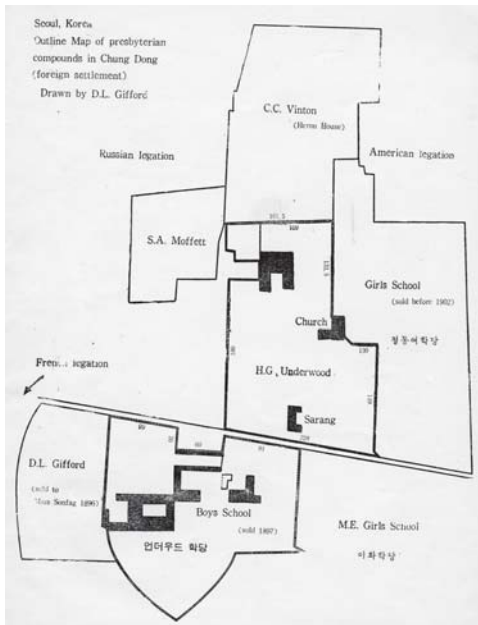
7) 연지동으로 옮겨 가며 학교 이름도 연동여학교(蓮洞女學校)라고 불리게 된다. 여학당이 여학교로 바뀐 것이다. 즉, 이곳이 정신여교의 산실인 것이다.

할 한 것이다. 그 후 1897년 이 자리에 있던 한옥들이 헐리고 중명전이 세워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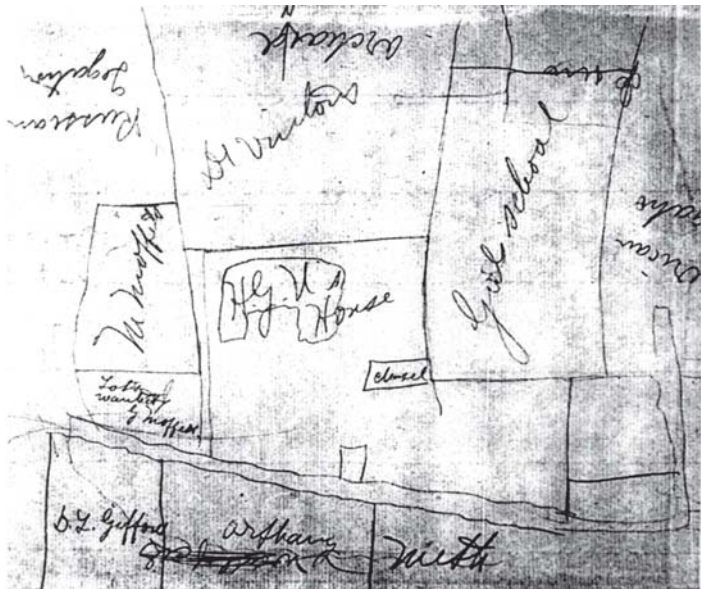
1885년 4월 5일 내한한 언더우드는 1890년 미국공사관 왼쪽 주변 지역으로 들어왔다. 만희당과 알렌의 주택 부근 정동 13번지에 있는 정승 강노(姜魯)의 저택 세 채를 포함해 ‘ㄴ’ 자형 토지를 사들인 것이다. 그 터는 1천 평이 넘는 큰 집이었다. 이 집은 ‘H.G.U’s House’라고 불렸다.



[사진 2-1] 1891년의 정동 여학당 당사. 중명전이 들어 서기 전의 한옥이다. 집은 크고 아름답다.(자료; 『정신백년사』)



[그림 2-1] 정동 일대의 선교사 거류지. ‘Girls School(정동여학당)’ 자리에 중명전이 들어선다.(자료; 『경신80년약사』)



[그림 2-2] 또 하나의 약도. ‘걸 스쿨’ 자리가 중명전이다

왼쪽 위에 러시아 공사관 그리고 오른쪽 위로 미국공사관이 있다. 그 사이에 언더우드의 집과 첫 새문안교회(당시에는 정동교회) 그리고 언더우드 학당도 있었다. 소위 정동 언더우드 기지(Underwood Place in Chong Dong)이다.

언더우드는 그의 저택 옆 정동 32번지에 있던 토지와 한옥을 사들여 1886년 5월 11일 고아원을 만들었다. 보이 스쿨(Boys School) 즉, 경신학교(敬新學校)의 전신이 되는 것이다.

이듬해인 1887년 9월 27일 화요일 저녁에는 정동 13번지 한옥 한 채의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 날 예배에 참석했던 존 로스(John Ross)목사는 1890년 서울 거리와 정동 골목길 그리

고 교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⁸⁾ 그는 신약성서 일로 만주에서 배를 타고 서울로 온 길에 새문 안교회(당시 정동교회)에 들른 것이다.

“조그만 등을 든 조선인의 안내를 받아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작고 빈 인월에 들어섰다. 우리가 대문을 두드리자 그 문이 열렸다. 종이를 바른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들기자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옷을 정제하고 학식이 있어 보이는 남자 14명이 거기 있었다.”

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이 정동 언더우드 저택 사랑방에서의 새문안교회(정동교회)의 시작이었다. 이 사랑방 교회는 1895년 겨울 경희궁 맞은 편 피어선 성경학교 옆에 새 한옥 ‘一’ 자 12칸짜리 교당을 지으며 문을 닫는다. 그 후 사랑방 교회는 그레이스 하우스(Grey’s House)가 되었고 감리교 여선교부의 소유가 되었다(정동 13번지). 그들은 이곳에 있던 감리교 선교사의 사택을 헐고 감리교 여선교부 숙사를 다시 지었다. 해방 이후에도 그레이스 하우스는 남아 있었다. 이 자리 주위 건물을 모두 헐고 들어선 것이 서울예고였다. 현재는 예원학교가 되어 있다.

존 헤론(惠蘭, John W. Heron)의 한옥 집은 환벽정으로, 모펏(S. A. Moffett)의 집은 흙문각으로 각각 변했다.

헤론의 집은 매우 큰 한옥으로 ‘ㄱ’ 자 집이다. 헤론 박사 부부는 1885년 5월부터 92년까지 이 한옥 집에서 살았다. 이후 이 집은 수옥헌이 되며 헐리고 환벽정이 세워진다. 미국대사관 서쪽이다. 모펏의 집이었던 흙문각은 이화학당의 음악관이 들어서며 헐렸다.

1886년 7월 4일 육영공원(育英公院, Royal English School) 교사로 내한했던 미국인 선교사 길모어(吉毛, George W. Gilmore, 1857-?)는 1892년 그의 책에서 ‘외국인 주거지’에 대해,⁹⁾

“서울에 있는 외국인 조계는 쉽고, 친숙하고 불편 없이 상호 교제를 할 만큼 딱 맞는 크기이다. 일본인을 제외한 숫자가 약 50명에 달해서 외국인들 사이에는 감정의 일체감과 이익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조선에서의 생활에 큰 기쁨을 준다.”

라고 쓰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 조계는 수옥헌이 되기 전 그 일대를 말하며 1890년 전후 50명 서양인의 천국이었다. 그는 이어 외국인들의 집 구하기에 대해서,¹⁰⁾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상류 계층으로부터 집을 구입했고 이 집들은 넓은 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비를 얼마 들이지 않고서도 부속으로 잔디밭과 화원, 그리고 때로는 테니스 코트를 가진 쾌적한 주거지로 변형시킬 수 있다.”

8) J. Ross, 「Christian Dawn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1890.4, 247쪽

9) 길모어, 신복룡 역주, 『서울풍물지』, 215쪽, 집문당, 1999

10) 길모어, 앞책, 205쪽

고 시술하고 있다.

영국의 신문기자였던 해밀톤(A. Hamilton)은,

“미국 선교사들은 서울에서도 굉장한 저택을 마련하고 큰 식구들을 거느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라고 적고,

“고종마저도 언더우드의 집터가 마음에 들어 그것을 사고 싶어 한 일이 있었다.”

고 할 정도였다.¹¹⁾ 즉, 선교사들 중 일부는 한 나라의 왕조차 갖고 싶을 정도의 부를 누리고 있었다. 선교사들의 집은 이제 치외법권지역으로 특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선교사들의 글에 살기에 불편하다고 한 대목이 많은데, 이는 그들의 조선전통건축에 대한 무지와 사치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조선건축을 서양화시키며 태도도 권위적으로 변모해 갔다.

고종은 아관파천 후 1897년 2월 20일 경운궁으로 들어오면서 언더우드에게 그의 집을 내 놓으라고 명했다. 1902년에도 고종은 장로교 선교사들의 땅도 필요해져 선교사들에게 그 땅을 팔라고 명했다. 그 후 선교사들은 그 땅을 떠나 연동 일대로 옮겨갔다. 여학당은 보다 먼저인 1895년 10월 20일 정동을 떠나 연못골, 즉 연지동(蓮池洞)로 옮기고 있다. 언더우드 학당 남학당(Boys School)은 1897년, 여학당(Girls School)은 1902년에 각각 매각된 것으로 적혀있다. 언더우드는 1905년 경 남대문 밖 쪽으로 집을 옮겨간다.¹²⁾ 1905-10년경 일제의 침략에 의해 정동의 장소성은 떨어졌다.¹³⁾ 이후 언더우드 주택도 왕궁에 포함되었다. 수옥헌이 되었다.

고종은 1904년 4월 덕수궁에 화재가 나자 이쪽으로 옮겨와 한동안 머물렀다. 그 후 일본인들이 들어온 후에 왕실은 이 지역에 있는 이 대지와 다른 대지를 남에게 넘기게 되었다. 그레이 하우스 가까이에 줄리 하우스(Jolly House)가 지어졌고 조선정부의 고문관들이 여기에서 살았다.

나. 수옥헌 구역

덕수궁 즉, 경운궁의 서문인 평성문(平成門) 밖 권역을 수옥헌이라 했다. 수옥헌은 미국대사관 관저 서쪽과 남쪽 방향에 있었는데 열 채의 건물이 있었다. 따라서 수옥헌은 오궁궐(五宮闕)이라고도 불렸다. 또한 수옥헌 주변은 조선조 이래 왕가(王家), 반가(班家)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수옥헌은 정전인 중명전(重明殿) 그리고 경효전(景孝殿), 만희당(晩喜堂)¹⁴⁾, 장기당(長夔堂), 양복당(養福堂)¹⁵⁾, 수풍당(綏豊堂), 정이당(貞頤堂), 흠문각(欽文閣), 강태실(康泰室), 환벽정(環碧亭) 등을 총

11) 민경배(閔庚培), 『서울 YMCA 운동사(1903-1993)』, 183쪽, 로출판, 1993

12) 그 집의 위치는 현재의 도큐빌딩(국제화재해상보험 건물)과 대한생명보험 건물 사이이다. 언더우드 일가는 1923년까지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H. G. 언더우드, 앞책, 29쪽)

13) 줄저,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130쪽, 대원사, 2000

14) 1930년대 전후해서 창덕궁 낙선재로 옮겨갔다.

15) 순종의 계비 윤 씨가 황태자비일 때 살던 곳이다.

칭하는 것이었다. 전(殿)이 두 채, 당(堂)이 다섯 채, 각실정(閣室亭) 각 한 채씩 열 채를 총칭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던 경효전은 원래 명성황후(明成皇后)의 빈전(嬪殿)이었다가 그가 죽은 뒤 혼전(魂殿)으로 사용되었다.¹⁶⁾ 빈전은 시신을 모시는 곳이고 혼전은 혼백을 모시는 곳이다. 빈전혼전도감(嬪殿魂殿都監)에서 관리했다. 경효전은 원래 1911년 이전까지는 함녕전 서쪽에 있었으나 수옥헌 내 중명전 북쪽으로 옮겨 재건되었다. 경효전 자리에는 1911년 덕홍전(德弘殿)이 새로 지어졌다. 함녕전은 고종의 침전이었고,¹⁷⁾ 덕홍전은 외국인 외교관이나 선교사 등을 만나는 알현 장소였다. 따라서 덕홍전에는 서양풍 실내장식이 많이 들어 가게 된 것이다. 창덕궁의 회정당과 유사한 것이다.

수옥헌의 건물들은 미국대사관과 러시아 대사관 사이, 동서남북 500미터 거리 안팎에 모두 모여 있었다. 현 중명전 주소지인 정동 1-11번지 일대이다.

수옥헌에는 1897년 전후 두 채의 이양관(異樣館)이 세워졌다. 정전인 중명전과 환벽정이다. 중명전은 수옥헌 중 가장 핵심적 건물인 정전으로 만회당 앞터에 새로 세워진 이양관이다.



[사진 2-2] 가운데 솟을대문이 수옥헌의 입구이다. 좌우로 난 길이 지금의 정동길이다. 오른쪽에 미국대사관과 성조기 깃대가 보인다. 1895년의 사진이다. 아직 이양관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오른쪽이 정동제일교회 터이고 교회 언덕 쪽에서 찍은 사진이다.(자료; 『알렌의 일기』)



[사진 2-3] 중명전. 현판이 아치 벽돌에 걸려 있다.(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2-4] 돈덕전, 현재는 현판만 남아있다.

16) 김순일, 『덕수궁』, 43쪽, 대원사, 1991

17) 함녕전은 1904년 화재로 전소된 것을 1908년 복원한 것이다. 이제 100년이 되는 건물이다.

환벽정은 그 북쪽 미국대사관 서쪽에 세워졌다. 또 하나 이양관으로 세워진 돈덕전(惇德殿)은 수옥헌 구역은 아니었으나 현 덕수궁과 연결되는 건물이었다. 돈덕전은 덕수궁 쪽 회극문(會極門) 밖에 세워졌다. 환벽정과 돈덕전 사이에 미국공사관이 있다. 1905년 이후는 ‘미국영사관(米國領事館)’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

덕수궁 담장 안팎으로 이양관이 들어섰는데 중명전, 돈덕전 외에 정관헌(靜觀軒), 구성헌(九成軒) 그리고 환벽정이 들어선 것이다. 이중 현존하는 것이 궁 안의 정관헌과 궁 밖의 중명전이다.



[그림 2-3] 수옥헌 지역. 중명전에서 평성문으로 길이 나 있다. 검게 칠한 3개의 건물은 이양관이다(1910년 2월 현재의 ‘덕수궁 평면도’에서, 자료 : 小田省吾, 『德壽宮史』, 1938, 李王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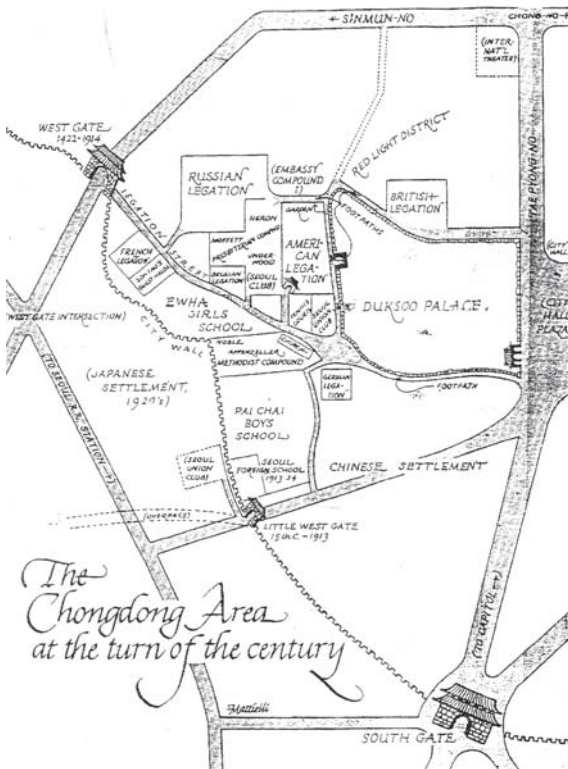
[그림 2-4] 경운궁중간배치도. 미국, 영국, 러시아공사관이 경운궁의 사이사이에 포진되어 있다. 미국공사관 왼쪽이 수옥헌 구역이다. 그 주위로 이양관, 중명전, 환벽정, 돈덕전이 들어서 있다.(자료; 규장각)>



[그림 2-5] 수옥헌 권역, 한옥과 이양관이 공존하고 있다. 그 한가운데 미국인가가 영국인가로 넘어가고 있다. 오른쪽에 중명전과 만희당이 있다. 중명전을 가려면 한옥을 통과해야 했다. 경운궁 중건 배치도(부분).

이 지역 주변은 이미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서양 열강들의 공사관과 주거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등이 포진하며 외세(外勢)의 거점이 되었다. 1890년 전후부터는 미국장로교(PCUSA) 지역이 되고 있다. 지금 수옥헌 지역에는 정동극장(정동 8번지, 구 알렌 저택), 신아일보사 별관(반지하, 지상 4층), 풍전빌딩 10층 건물 그리고 예원학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원래 수옥헌의 흔적은 중명전 외에는 남아 있지 않다.

1897년 10월 3일 미국공사관의 약도를 보면 이 일대가 서양인의 기지(基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6] 미국공사관 약도. 정동 일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도이다.



[사진 2-5] 1890년의 언더우드 집. 수옥헌이 된 만희당

다. 러시아인 건축가 사바쎈의 건축

경복궁으로부터 경운궁으로 이어해 온 고종은 경운궁에도 경복궁의 집옥재(集玉齋)와 같은 도서관이 필요했다.

집옥재는 현, 청와대 쪽 신무문(神武門)과 건청궁(乾淸宮) 사이에 있는데 궁궐 북측 담장과 행각으로 둘러쳐져 있다. 왼쪽으로는 연못이 있다.

집옥재는 8각형 2층의 정자 건물 팔우정(八隅亭), 다섯칸 ‘一’자형 맞배집 고종의 서재인 집옥재 그리고 ‘ㄱ’자형 거실 용도의 협길당(協吉堂) 등 세 채의 건물로 이뤄져 있는데 집옥



[사진 2-6] 경복궁의 집옥재, 왕의 도서관이었다. 집옥재는 가운데의 집옥재와 왼쪽의 팔우정, 오른쪽의 협길당 세 채로 이루어져 있다.(자료; 關野貞 파일)

재의 이름을 대표로 해 집옥재라 한다.

집옥재는 원래 창경궁에서 1891년 옮겨온 건축물이었다. 을미사변 4년 전이다. 고종은 을미사변 직후, 잠시 이 집옥재에 연금 상태로 있었다. 이곳에서 아관파천을 한 것이다. 집옥재는 1915년 소위 시정(施政)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때는 회장 밖에 위치했기 때문에 철거되지 않았고, 1917년 창덕궁 화재 때도 철거되지 않고 남았다.

1897년 집옥재와 같이 새 궁전 경운궁에 왕을 위해 세워진 도서관이 ‘왕의 도서관(King's Library)’, 즉 중명전이었다.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이 되면서 호칭은 ‘제국도서관(帝國圖書館, Imperial Library)’으로 바뀐다.¹⁸⁾ 1901년의 지도에도 이 이름이 나온다. 이 도서관은 서양식 건물로 지어진 것이다. 근대사 최초의 국립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중명전은 사바짚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지상 2층 지하 1층의 붉은 벽돌조 건물이었다. 연면적 237.30평으로 727.08평의 터에 세워졌다.

지하 1층은 돌로 벽을 채웠다. 이 돌들은 아마도 서대문과 서소문 사이의 성벽 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상은 붉은 벽돌조로 조적했다. 중앙 현관은 포치형태를 띠고 있으며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3개씩 대칭으로 아치창을 냈고 지붕에는 다락창(도머 창)을 두었다. 실내에는 용도에 따른 실별 나누기를 했다. 현관과 복도는 타일 바름을 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손잡이는 목조 조각을 정교하게 했다. 2층 후면 좌측에는 넓은 옥상 쉼 공간인 베란다를 만들고 벽돌 치장 쌓기로 둘러쌌다. 좌측 거실 쪽에는 벽난로를 두었다. 러시아형 빼치카였는데 난방을 스팀난방으로 시공한 것이다. 굴뚝은 지상으로 돌출 의장성을 가미했다. 건물 정면에는 연못을 조성 건물이 물에 비치게 했다. 아울러 화재에도 대비하게 한 것이다.



[사진 2-7] 수옥헌의 정전, 중명전. 1954년의 사진이다. 외인구락부로 쓰일 때이다.(자료: 이철원)

미국인 고문관 샌즈는 그의 저서 『조선의 마지막 날(1896-1904)』¹⁹⁾에서 1900년 경 중명전을 기록하며,

“왕비가 살해된 뒤 조선 황제는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모여 있는 이 공사관 구역의 서부로 피신해서 미국 공사관과 영국 총영사관 곁에 있는 빈 땅에 급조된 새 건물에 들었었다.

그 건물은 왕실의 권위도 우아함도 풍겨 나오지 않는 조악한 건물로서, 러시아 공사관과 연결되었고 러시아 공사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 건물의 유일한 특징은 그것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거대한 화강암 담벽이었다.”

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미국인의 편견이 보이는데, 중명전이 미국공사관과 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인이 설계한 건물에 대한 폄하도 보인다. 물

18) 졸저, 『고종 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의 부록

19) 샌즈, 김훈 역, 『조선의 마지막 날(1896-1904)』, 44쪽, 미완, 1986

론 1900년대 당시 워싱턴과 뉴욕에 비하면 틀린 의견도 아닐 것이다.

1883년 한 러시아인 건축가가 서울에 왔다. 그는 이바나시이 이바노비치 세레진 사바찐(薩巴丁 혹은 薩巴玲, 土巴津, Afanasij Ivanovich Screadin Sabatin, 1860년 경 ?-?)이었다. 그는 1860년경 러시아에서 스위스계로 출생했다. 영어식 표기로는 사바틴 혹은 사파진이라 부르는데 러시아식은 ‘사바찐’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외국인 건축가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 근대건축 초기사에서 그만큼 중요한 인물도 없다. 그의 재한 기간은 무려 23년이였다.²⁰⁾ 그러나 그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고 조각난 단편(短片)들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제정 러시아 대장성에서 발행한 『한국지』²¹⁾가 있다. 이 책에 사바찐의 이름이 단 한 번 나온다. 1900년 간행본이므로 집필시기로 볼 때, 사바찐의 한국에서의 활동을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게 된 이유는, 1800년대 말한 때의 정치적 상황인 인아거청(引俄拒淸), 인아거일(引俄拒日)에도 기인(起因)하지만 러일전쟁(1904-05)에서의 패배, 일제 식민시대 그리고 6.25동란 이후의 동서냉전체제가 연유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²²⁾

몇 년 전 <사바찐의 수기>가 발굴되어 사바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도 했다.²³⁾ 그 수기에서 보면 러시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건축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그는 특별한 전문교육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디에서 수학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서신 하나에 ‘2급 자격증을 주는 학교의 증명서를 갖고 있다’고 썼다. 보통 그런 종류의 증명서는 육군 유년(幼年)학교들이 발급했다. 그런데 이 육군학교는 귀족 자제들이 주로 입학하게 됨으로서 그는 귀족(드보리닌)의 한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은 이 유년학교를 졸업하면 육군이나,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는 사관학교를 졸업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의 예술학자, <끄라세이 느이쉬코프 아 에프>는 10여 년 전(1990.6.5) 필자에게 사바찐의 <전기적 정보>라는 서한을 보내 주었는데 이를 보면,

“1883년 여름 사바찐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조선 국왕으로부터 유럽식 정주지(定住地)의 설계와 관청건물의 건축을 맡아 달라는 초빙을 받았다. 그해 9월 그는 이미 조선에 도착해서 이듬해인 1884년 초에 왕궁의 축조설계와 저렴한 벽돌공장, 불연소성의 이영지붕 설비안 및 서울의 전차 선로 설비안 등의 몇 가지 안을 마련했다.”

고 적고 있다. 조선의 왕궁 신축이라든가 서울 개조에 공헌한 기록으로는 이것이 처음이다.²⁴⁾

20) 그의 조선에서의 체류 시기는 러일전쟁 선전 포고 후 그들이 철수할 때까지인 23년간이었다.

21) 1900년판이다. 일본에서는 농상무국(1905)에서 번역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4)이 번역본을 낸 바 있다.

22)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소관계의 재정립을 이룬 원년이 되었다.

23) 조선일보, 1995.5.10. (일본) 《AERA》, 1995.7.10

24) 최근 사바찐의 출신과 활동 그리고 사진 등 귀한 자료가 공개되었다. 2009년 10월 24일, 국제한국사학회 제 4회 월례발표회에서, 러시아 국립인문과학대학교에서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는 따찌아나 심비르짜바(Simbirtseva Tatiana Mikhailovna) 교수가 공개했다.

파울 게오르크 폰 뮐렌도르프(穆麟德, Paul Georg von Möllendorff, 1847-1901)는 청나라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 1823-1901)의 추천으로 조선에 왔다. 그는 외부법률고문으로 온 것이다. 따라서 이후 목참판(穆參判)으로 불렸다.

그는 1882년 12월 4일 중국 텐진(天津)을 떠나 12월 13일 서울 박동에 들어온다.²⁵⁾ 임오군란 때 살해된 선혜청 당상 민겸호의 집에 들었다. 그는 보좌관과 세무사, 기타 관리를 대동하고 입국했는데 이때 사바전도 동행해 온 것이다.²⁶⁾ 사바전의 직명은 기타 관리의 한 사람으로 나온다. 당시 건축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약했을 때이므로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뮐렌도르프는 중국의 텐진에서 활동했었다. 따라서 사바전도 상하이보다는 오히려 텐진에서 활동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사바전의 건축은 서울의 한복판 경복궁과 경운궁, 정동 일대 그리고 인천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입국 3년 후인 1884년부터는 개항장 제물포 해관(海關)²⁷⁾에 소속된 기사(技師)였다.²⁸⁾

그는 해관장, 항장(港長) 다음으로 높은 지위였었는데, 항구의 제반 시설에 있어서 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 제물포 각국조계장정의 지도(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地圖, Plan of the General Foreign Settlement at Chemulpo, 1884.10.3, 제정 조인)」는 그가 해관에 관여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바전의 첫 번째 건축은 정동 언덕의 러시아 지역(Russian Legation)에서 이뤄졌다. 러시아 공사관과 러시아 아치(아문; 俄門)는 그의 설계로 세워졌다. 제정(帝政) 러시아 르네상스 스타일의 이 건물들은 1885년 준공되었다.

사바전은 왕실 직속 시위대(侍衛隊) 교관으로 있던 미 육군 퇴역소장 다이(William Mce Dye, 茶伊)와 함께 건청궁 안 옥호루(玉壺樓) 뒤쪽의 이양관인 관문각(觀文閣)²⁹⁾에 거처했는데(1898.9까지) 그들은 1895년 8월 20일 시해사건(弑害事件)의 목격자가 되기도 했다.

시해사건 이후 고종 황제는 일본에 더욱 불신을 갖게 되었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 버렸다. 이 아관파천 시기(1896.2.11-97.2.20)는 우리와 러시아가 가장 가까웠던 때였고³⁰⁾, 아울러 건축면에서도 그러했다. 사바전은 그 과정의 주역이었다. 사바전은 시해사건 이후 신변안전을 위해 중국으로 도피한다. 천진에 잠시 머무르다 다시 조선으로 온다. 친러정부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종 황제는 아관파천 때 러시아 풍의 여러 이양관을 덕수궁 내에 세울 수 있게 배려해 주었고, <독립문>도 이때 세웠다(1896.11.21-97.11.20). 독립문의 건축은 서재필이 당시 서울에 살고 있던 사바전의 도움으로 계획한 것이다(공사는 심의석이 했다). 서재필이 그의 회고록에서 독립문 설계자를 스위스인 이라고 한 것³¹⁾은 사바전이 스위스 계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재필이 반러 입장에

25) 현재의 수송동으로 그는 이 저택에서 1885년 9월 5일까지 3년간 생활했다.

26) 『알렌의 일기』는 사바전은 1883년 ‘봄’에 착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27) 해관은 중국식 표현으로 지금도 그들은 해관이라고 쓴다. 우리나라는 세관이라고 쓴다.

28) 1885년이라는 설도 있다.

29) 관문각은 관문당이라고도 한다. 원래 왕의 서재로 건청궁안에 별도로 지어진 건물이다. 관문각은 1888년 2월 3일 착공하여 1891년 8월 13일 준공한다. 비교적 오래인 3년 반이나 걸린 건축물이다. 그런데 1885년 5월 사바전이 신축공사에 참여하였고, 1891년 9월 21일 고종에서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관문각은 부분적인 사진만 한 장 남아 있을 뿐이다. 1901년 6월에 철거된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는 한일합방 후 러시아, 프랑스 등 적대국의 건축물들은 모두 헐어 버리려 했던 흔적이 있다.

30) 당시 러시아 공사는 Kalr Ivanovich Waber(韋貝)였다. 그는 주(駐)천진(天津) 영사였다.

있었고, 해방 후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 때문이기도 했다. 반러 친일, 친미, 냉전의 산물인 것이다.

황제는 황실 전용 호텔을 세운다. 그러나 준공 후에는 궁중 출입이 자유로웠던 손탁에게는 호텔을 운영하게 해 주었다. 사바쩐이 설계한, 손탁 호텔이 그것이다.(1902-03). 기록에 의하면 프랑스 공사관도 역시 그가 설계한 것으로 나온다.

이 일련의 양관들 역시 사바쩐에 의해 세워졌다. 사바쩐의 건축 스타일은 ‘천진식(天津式) 러시아 양관풍’이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사바쩐이 북한 쪽에서 일한 흔적은 없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다른 러시아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 한국을 떠난다.

그는 상하이의 프랑스 순양함에 실려 거기서부터 해로를 따라서 포트사이드(수에즈 운하 옆의 항구도시)를 경유, 오데사로 소개(疏開)되었다. 그 후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갔다. 그곳 역시 조선과 가장 가까운 러시아 땅이었다. 조선을 떠난 사바쩐은 지구를 거의 한 바퀴나 돌아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온 것이다. 조선이 그리워서였을까?

1908년 제물포에 남겨진 그의 재산은 경매에 붙여지고 그 대금은 사바쩐의 요청에 따라 일본 나가사키(長崎, Holme Ringer 회사)에서 일하던 그의 아들 뽀뜨르 사바쩐에게 양도되었다. 사바쩐의 그 이후 족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여하간 그 후 그는 러시아에서 건축가로서 진가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는 위에서 언급한 아들 외에 베라(Vera), 예보게니아(Evgenija), 류드밀라(Ljudmila), 리디아(Lidija) 등 네 딸을 두었다.³²⁾ 그가 조선에 남긴 건축물들은 대략 표와 같다.



[사진 2-8] 서울 미국공사관에서 기념사진(1890.6.5). 뒷줄 중앙에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사바쩐이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사진이다.(자료; 『서울의 추억』, 2006)



[사진 2-9] 국내 최초로 공개된 사바쩐 측면상(자료; 따찌아나 심비르짜바 교수 제공)

31) 『한국지(韓國誌)』, 49쪽. 서재필은 그의 회고록(金道泰, 1948)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떤 사유에서건 틀린 회고이다.

32) ‘고라세이 느이쉬꼬프 아 에프’의 <전기적 정보>

[표 2-1] 사바짚의 건축관계 년표

년도	건축과 관계된 이력	건축 외적 사건
1860	러시아에서 출생	스위스계, 출생지 미상
?	육군유년학교 졸업	학교명 미상
1883	중국(上海, 天津)에서 활동	
1882.12.13	입경(월렌도르프와 그의 보좌관, 기타 관리 28명과 함께 입국)	
1884 초	왕궁의 축조 설계, 저렴한 벽돌공장 불연소성의 이영자붕 설비안 서울의 전차선로 설비안(제출)	
1884.7		조러수호통상조약 체결
1884	러시아 공사관 설계 러시아 아치(俄門) 설계 제물포 조선세관 판정, 감독관 피임	1885년 준공, 1950년 헐림 (상동)
1884.10	인천 제물포각국조계장정의 지도 작성	
1885. 7		인천해관 청사 소실
1885.10		러시아 웨베르 주한 고문 대리공사(총영사)
1888	새서울 궁전계획(덕수궁 조영) 인천 만국공원 조성	현, 중구 송학동(松鶴洞), 자유공원
1891	경복궁 뒤편에 목조 시계탑 세움	
1893.10	명동성당 신축공사 때 건축기술 구조자문	
1895	러시아 공사관 본관 수리	
		경복궁에서 명성황후 시해사건, 현장목격 (1895년 10월 8일)
	러시아 어학교 교사 신청	러시아 영사관이 거부함 고종황제, 아관파천 (1896.2.11-97.2.20)
1896		
1897	중명전 환벽정	환벽정은 1910년 헐림
	독립문 설계 및 준공(1897)	현존
1901. 6	제물포구락부 준공	인천박물관
1902	정관헌 제물포 러시아 부영사관 건물 설계 러시아 공사관 부설교회 설계 러시아 정교회(Orthodox) 구성헌(九成軒) 돈덕전 독일영사관(관저) 손탁호텔(1902-1903)	
1904	제물포, 청국 동철(東鐵)의 해양기선회사	1904년 헐림 1910년 헐림 1970년 헐림 1912년 헐림
1904. 2		대리인 취업 러일전쟁(1905.9 종전) 러시아 영사관을 프랑스 공사에게 인계 2.12 인천에서 철수
1904. 5		조러조약 폐기

경운궁과 그 주변에 몇 채의 서양식 건축물이 세워진 것은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896년에는 몇 개 건물이 수리되는데 이것은 보수를 하기에 아주 나쁜 상태에 있는 몇 개의 건물들과 담장에 행해진 것이다. 일단의 공사가 준공된 것은 1896년 9월 말경이었다.³³⁾

중명전, 정관헌, 환벽정, 구성헌, 돈덕전 등 5개 이양관도 1902년 전후 세워졌다. 이 이양관 대부분

33) <구한국관보>, 건양 원년(1896년) 9월 30일(호외). 『고종실록』, 건양 원년 9월 28일

분은 서울 성벽을 부순 돌과 중국산 붉은 벽돌을 수입해 지은 것이다.

수옥헌에 불이 난 것은 1901년 10월 16일이었다. 화재 원인을 법부(法部)에서 조사하지 않고 내사한 일이 있다.³⁴⁾

중명전은 1897년 대한제국기에 들면서 곧 독립구락부(클럽)가 된다. 중명전이 도서관의 역할은 별로 하지 못했으나 여기에 국가의 귀중한 도서들이 있었음은 확실하다. 한일합방이 되며 독립구락부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순종이 창덕궁으로 옮긴 후인 1915년부터는 정동구락부로 이름이 바뀐다.

경운궁의 치명적 화재는 1904년 4월 14일 밤 9시 30분에 일어났다. 화인(火因)이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양관인 중명전과 구성헌, 정관헌, 돈덕전 등은 불타지 않았다. 황제는 화재가 나자 거처를 중명전으로 옮긴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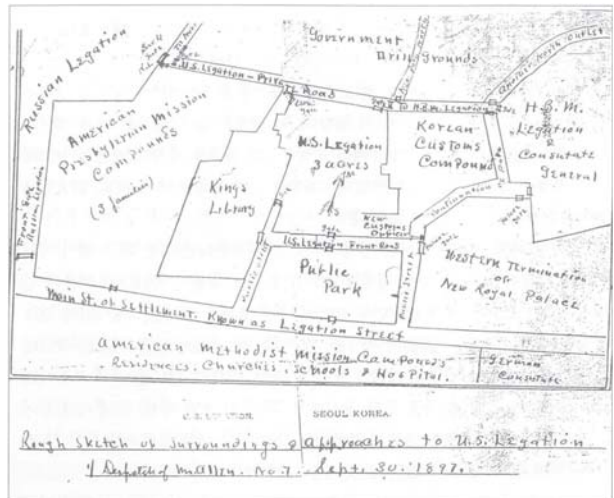
1901년부터 1905년까지 고종의 시의(侍醫)로 있었던 독일인 리하르트 분쉬 박사³⁶⁾는 이 불을 기록하고 있다. 그의 1904년 4월 15일자 일기를 보면,³⁷⁾

“어젯밤 이 곳 상황은 조금 불안했습니다. 황궁이 뭇땅 불에 타 내려 앉았습니다. 그 건물은 목조건물인 데다 바람이 불자 웅장한 건물 덩어리가 온통 딱딱딱 소리를 내며 타올라 불바다가 돼버렸습니다. 황제는 일본군과 한국군의 보호를 받으며 이른바 도서관이라는 육중한 건물로 피신했습니다. 불은 어젯밤 9시 30분에 났습니다.”

고 쓰고 있다.

경운궁을 황궁이라 하고 있다. 이미 신궁이란 말도 쓰이지 않았다. 여기서 도서관이란 건물이 중명전인 것이다. 육중(?)한 건물이었던 중명전은 고종의 피난처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중명전은 고종이 외국인들을 접견하고 연회를 베푸는 장이 되었다.

최근 ‘중명전 복원공사’ 자문위원단에 의해 일본 도쿄 황거(皇居) 안 구나이초(宮內廳) 쇼료부(書陵部)에서 발견된, 배치도를 보면, 덕수궁과 수옥헌 구역이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명전이 수옥헌(漱玉軒) 정전(正殿)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 미국대사관이 ‘미국총영사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05년 이후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7] 알렌 공사가 1897년 9월 30일 작성하여 본국에 보낸 정동 조계지(Settlement) 안내도. '킹스 라이브러리'(중명전)가 보인다.

34) 김순일, 앞책, 36쪽

35) 리하르트 분쉬(Richard Wunsch, 1869-1911), 김중대 옮김,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111쪽, 학고재, 1999

36) 분쉬는 러일전쟁 후 조선을 떠나 일본에 잠시 체류한 후 중국 칭다오(靑島)로 간다. 그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다 1911년 장질부사로 죽는다.(김영자, 앞책, 143-144쪽)

37) 리하르트 분쉬, 앞책, 111쪽



[그림 2-8] 한국 황궁경위 배치도(韓國皇宮警衛配置圖) 네모칸 안에 수옥헌 정전, 중명전이 보인다.(자료: 일본, 구나이초(宮內廳) 쇼료부(書陵部))

라. 중명전, 비극의 장소가 되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의 한국임시파견대 기고시 야수쓰나(木越安綱, 1854-1932) 사령관의 부대가 서울에 들어왔다. 2월 9일부터 18일 사이 서울은 그들에게 점령되었다. 기고시 사령관은 궁궐 주변과 각 성문, 서울의 요소 등을 점령했다. 2월 23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 權助)는 강압적으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시킨다.

이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조선에서 헤게모니를 잡았다. 힘을 잃은 고종은 ‘미국 소유지에 아주 에워싸이는 것’에 흡족해 해야만 했다. 고종은 미국공사관 사유지가 된 중명전 뒤의 소로를 매일 걸었다.

이듬해인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된다. 일본 측 자료를 보면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특파대사 추밀원 의장 정 2위 대훈위 후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가 필본(筆本)으로 남긴 『일한신협약(日韓新協約) 봉사기사적요(奉使記事摘要)』(1905년 12월 8일자)라는 것에 그 사실이 적혀 있다.

그는 1905년 11월 1일 소위 대명(大命)을 받고 11월 3일 일본을 출발, 11월 9일 경성에 도착, 궁궐에서 가까운 정동 고갯길 손탁호텔에 숙소를 정했다. 그는 그곳으로 참정대신(參政大臣) 한규설(韓

圭高, 1856-1930)³⁸⁾을 초청, 조약 체결을 회유강요한다. 이토는 한규설 보다 열다섯 살이나 연상이 고 오랜 정치 생활로 노회한 정치꾼이었다. 10일 정오 이토는 수옥헌에서 황제를 알현했다. 15일 오후 2시 다시 알현했는데 그는 ‘대좌(對坐)했다’고 쓰고 있다. 오후 7시까지 4시간 넘게 수옥헌 별관 식당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했다. 이토는 그날 저녁 조선의 대신들을 자신의 여관에 초대했다. 즉, 손탁호텔이다. 16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손탁호텔에서 대신들을 회유·강요했다. 17일 오전 11시에는 일본공사관에서 회견을 했다.

11월 17일 새벽 일본군이 남대문을 통해 들어 왔다. 헌병들이 대안문(大安門)을 지키고 담장 주변을 둘러쌌다. 10여칸씩 띄어서였다.

참정대신을 비롯하여 8명의 대신이 경운궁 내 수옥헌 내 증명전 서측 휴게실에 모였다. 이토 히로부미가 나타났다. 오후 3시 고종이 참석한 어전회의가 열렸다. 협상 같지 않은 협상이 시작되었다. 도중 고종은 함녕전으로 돌아갔다. 조약에 반대하는 한규설은 수옥헌 서측 휴게실에 구류되었다.

한규설은 이 날의 사정을 상소문³⁹⁾에 남겼다. “그때 신은 다른 곳에 억류되어 참견치 못하였나이다(爲狹人所執 拘在他所)”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오후 8시 협약은 증명전 2층에서 5적에 의해 이뤄졌다. 이토는 『일한신협약 봉사기사적요』에서 ‘오후 11시 반 별실에서 한규설이 격앙했다’고 하고 있다.⁴⁰⁾

18일 오전 0시 20분 이토 대사는 궁중을 퇴출, 오전 1시 하야시 공사와 박제순 외상 간에 조인이 이뤄졌다고 했다. 을사늑약이 맺어진 것이다. 증명전이 그 치욕의 장소가 된 것이다.

미국공사관 관리들은 그날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담 너머로 볼 수 있었다. 서울 주재 미국 부영사 윌라드 스트레이트(Willard Straight)는 늑약에 서명하는 1905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시 반(오전)에, 나는 (미국공사관)구내 주위를 산책하러 나갔다. 인력거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나는 아래로 가서 담 너머를 바라보았고, 일본인들이 가는 것을 보았다. 하세가와(長谷川)의 마차는 이미 떠났다... 생울타리 뒤에서 달빛에 내가 서 있을 때 한 나라의 운명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50야드 안쪽에서 결정되었고 1,200만 명의 독립 제국이 투쟁도 없이 작위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다. 하지만 (조선의)각료들은 서명을 끝마쳤다.”

38) 한규설은 청계천 주변 장교동(長橋洞) 63-1 대추나무골에 살아 ‘조동(棗洞)대감’으로 불렸다. 그는 여기서 태어나고 죽었다. 75년을 산 것이다. 그 후 그 집은 쇠락되어 재개발 대상 구역에 들었고 국민대학교에서 인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55-2번지 대학 구내로 옮겨졌다. 지금 ‘한규설 대감 저택’이라 칭하는데 이는 한규설 대신 저택이 맞다.(서울 민속자료 제7호, 1977년 3월 17일)

39) 황호근(黃泓根), 『참정대신 강석 한규설 선생 소전(參政大臣 江石 韓圭堯 先生 小傳)』, 65-66쪽, 보진재(寶晉齋), 1971

40) 한규설의 집안은 당대 무관의 집이었다. 그도 무과에 급제 무인으로 출발, 1890년대 초에는 ‘한규설 장군’이라 불렸다. 한규설의 형은 어영대장(御營大將) 한규직(韓圭稷)이었는데 1884년 갑신정변 때 우정국 낙성식에 참석 참살 당하였다. 수구파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사위(甥姪)는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인데 그는 5적 중 하나가 되었다. 한규설은 을사조약 체결 시 참정대신이었다. 오늘날의 국무총리급이다. 그는 군권의 힘이 있었으나 을사조약 체결 시 나약하게 대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황성신문, 1905.11.20)에서 이를 지탄하고 있다. ‘저들 개돼지만도 못한 외부대신 박제순 및 각 대신은 죽게 나무랄 것도 없거니와 명색이 참정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우두머리라, 다만 부(否)자로 책임을 면하여 이름을 남기는 밀천이나 궤하였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토는 그해 12월 21일 초대 한국통감으로 임명된다.

경운궁은 화재 후 중건되기 시작하여 1906년 5월에 대부분 중건되었다. 1907년 서울의 인구는 20만 명이었다.

마. 중명전과 헤이그 사건

1907년 3월 24일 밤 고종 황제는 중명전에서 이준(一醒 李儁, 1859-1907)을 만난다. 이준 등 3인을 헤이그⁴¹⁾에 파견하는 일에 대한 지시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7월 19일 고종은 이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하는 일제의 강압에 의해 퇴위 당하고 중명전에 유배 당한다. 순종(純宗, 1874-1926, 재위 1907-10)은 황태자 때부터 1907년 황제가 될 때까지 중명전에서 살았다.

여기 더하여 다시 1907년 7월 23일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남산 통감 관저에서 친일파 이완용 내각총리대신과 송병준 농상공부 대신을 회유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송병준의 집(남산정 3정목)에서 내각회의를 열어 일본의 강압을 받아들이게 했다. 그 조약 즉, ‘한일협약(丁未七條約)’을 체결한 곳 역시 중명전이었다.

1-3. 결론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강결(強結)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의 국내외 외교 공관들을 폐쇄시키고 서류 및 재산 일체를 일본공사관에게 이관토록 했다.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열흘 후인 11월 28일 재한 공사관의 문을 닫게 하고 조선과의 국교를 단절했다. 정동의 공사관과 관저도 이제 그 기능을 다한 것이다. 이후 미국공사관의 연동 이전계획도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이제 외교적 대표권의 행사가 끝나고 그 멋있던 공사관 건물들 중의 하나가 공사의 철수와 동시에 팔리고 보니 새 건물을 짓지 않은 것이 잘한 일 같았다. 1940년 10월 9일 미국 대통령은 일본제국 영토 내에 있는 미국 시민의 본국으로의 철수령을 내렸다. 그 해 말까지 조선 땅에 있던 미국인들은 대부분 철수했다. 이후 영사관 건물은 조선총독부가 압류했다.

중명전은 1925년 3월 12일 일어난 화재로 외벽과 속 낭하만 남기고 대부분 타버렸다. 그 후 재건되어 다시 외국인구락부(外國人俱樂部)로 쓰였고, 해방 후에는 서울 클럽, 아메리칸 클럽으로 계속 이름을 바꾸며 클럽 건물로 사용된다. 주한 외교관, 선교사들이 주 이용객이었다.

해방 후 자유당 정부가 들어서며 1963년 왕실재산은 모두 국유재산으로 몰수되었다. 1963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은 이은 왕세자의 귀국에 맞춰 클럽의 대지와 건물을 구왕가(舊王家)에 돌려주는 데

41) 네덜란드(和蘭) 행정수도, 덴 하그(헤이그, 영어로는 The Hague) 시

42) 이 건물의 조치에 대해 한국일보 창업자, 장기영(張基榮)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다. “내가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 시대에 정동에 있는 본시 덕수궁의 일부였던 ‘아메리칸 클럽’의 대지와 건물을 우선 구왕가에 돌려 보내준 것도 박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고 영친왕의 유지를 실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김을한, 『인간 이은』, 14쪽, 한국일보사, 1971)

의친왕 후손 이수길과 영친왕의 아들 이구(李玖)는 함께 사업을 했다. 당시 중명전은 레스토랑 서울 클럽으로 쓰이고 있었다. 중명전은 은행에 저당되고 자금은 분산되었다. 중명전은 1977년 4월 개인에게 팔렸고 그 판매 대금 일부가 방자 여사에게 넘어 갔다. 일부는 명휘원(明暉園) 기금이 되었다.



[사진 2-10] 중명전. 현존하고 있으나 변형이 너무 심했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있었다. 2층 베란다와 포치(현관), 포치 앞의 정원과 우물, 석물 등은 모두 없어졌다.

중명전은 1983년 11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나마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정 이후에도

건물에 무관심, 관리를 등한시 해 왔다. 때문에 건물은 계속 변형되었고 더구나 화재도 몇 번 일어났다.

정동 길로부터의 진입부는 엉망이어서 건물이 그곳에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곳에 임대사무실과 주차장이 들어서며 주차장 부속건물같은 상태가 되었다. 주변 훼손과 함께 최악의 상황까지 몰린 것이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우리 모두 반성해 봐야 할 일이다. 문화재관리국 시절 문화재 위원들이 이 건물의 중요성을 간과한 탓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건물 관리권은 서울시에, 소유권은 문화관광부에 있었다. 2006년 9월 관리권은 문화재청으로 넘어갔고 2007년 2월 7일자로 사적 제 124호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소유관리권 모두 문화재청으로 이관된 것이다. 4월부터는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제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국유화되었으므로 문화재청은 역사성 있는 이 문화재 건물을 역사의 현장으로 원상 복구해야 할 것이며, 사라진 포치(현관) 앞의 정원과 석물도 되찾아 놔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 전면을 가리고 있는 수목은 제거해야 할 것이다.

수옥헌 지역을 복원하는 것과 중명전을 수리 보존하는 일은 정동동역 재편성과 덕수궁 구역 확장 그리고 미국대사관 대지 활용계획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이제 중명전은 대한제국시대의 도서실, 전시실 그리고 연구실을 두루 갖춘 <대한제국 사료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기대한다.(김정동, 목원대 건축학부 교수, ‘중명전 복원공사’ 자문위원)

2. <조선국왕 폐하의 건축가> 사바쥔(1860~1921)⁴³⁾

따찌아나 심비르제바
러시아국립인문과학대학교(모스크바)

스베틀라나 레보쉬코, 건축학 박사
건축 및 도시계획 연구소(상트 페테르부르크)
김홍준 역

※ 본 논문은 동아역사연구소(소장: 이민원 박사, 원광대학교 초빙교수)의 기획과 (주) 아를터 건축사무소(소장: 김석순)의 재정지원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여기에서 소개되는 정보자료와 사진들은 영영 빛을 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사장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1. 머리말

본 논문은 한국 최초의 서양인 건축가 아파나시이 이바노비치 세레진-사바쥔 (Афанасий Иванович Середин-Сабатин, 한국명: 살파정(薩巴丁), 살파진(薩巴珍), 살파령(薩巴玲), 1860~1921) 생애와 건축활동에 대한 것이다. 러시아 제국의 신민(臣民)이고 우크라이나족인 그는 1883년부터 1904년까지 조선에 거주하면서 약 20개의 건축 설계안을 작성했고 그 중 최소한 14개를 완수하였다. 사바쥔은 자신의 서신왕래에서 스스로를 <조선국왕 폐하의 건축가>로 칭하고 있었는데 조선국왕이 그를 몹시 총애하여 궁정으로 불러들여 일을 시킨 만큼 그럴 만도 했다. 사바쥔이 설계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축물은 1896년 서울에 세워진 기념비적인 독립문이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독립문이 전세계에 이 나라를 알리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 한국을 소개하는 많은 그림엽서에는 독립문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가 있었다.

사바쥔이 설계한 건축물들 가운데 몇몇은 한국 역사상 매우 중대한 사건들의 무대가 되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왕실도서관으로 건축되고 1904~1905년간 고종황제의 편전으로 사용된 중명전(重明殿)은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1910년 한일합병을 향한 공작의 시발점이 된 일본의 보호권 확립에 관한 한일간 협정(을사조약)이 1905년 11월 체결된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다. 오늘날 ‘신세대들이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간주되고 있는 중명전은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모두 복구하여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대규모 한국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중명전 복원사업은 한국에서 사바쥔과 그가 남긴 유산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3) 2009년 10월 24일 국제한국사학회 4회 월례회에서 발표된 따찌아나 교수의 사바쥔에 관한 발표문은 본 보고서의 이 글을 요약 정리하여 미리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따찌아나 교수의 원고 내용은 그대로 실었으며 다만, 부호 표기방법 등은 한국의 일반적인 상황에 맞게 편집하였음을 밝힌다.

2-2. 사바찐 연구의 발전과정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바찐의 삶과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하여 최초로 글을 쓴 학자는 한국의 건축사학자인 김정동 교수로서 그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1990년)에서 사바찐을 소개하는데 몇 페이지를 할애했다.⁴⁴⁾ 김정동 교수는 한국의 여러 사료들⁴⁵⁾과, 러시아 간행본 ‘한국지(韓國誌)’ (1900)⁴⁶⁾에 언급된 내용 및 러시아 예술학자 아. 페. 크라세닌니코프(А.Ф. Крашенинников)로부터 입수한 러시아 고문서 인용 자료를 근거로, 사바찐의 출생연도와 그의 학력 및 고용환경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편적인 정보들, 한국을 떠난 날짜 및 자녀들의 이름을 밝혀냈다. 그는 사바찐의 건축활동을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알고 있는 13건의 그의 완공설계안과 3건의 미완설계안을 정리한 목록을 연별로 제시하고, 그의 건축양식이 “천진식(天津式) 러시아 양관풍(洋館風)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했다(201쪽). 김교수는 사바찐이 서울에서 활동한 최초의 대표적인 외국인 건축가이며, 따라서 “한국 근대건축사에서 사바찐만큼 중요한 인물이 없다”고 강조했다(196쪽).

이 학술자료는 1996년 경남대학교 김태중 교수에 의해 보완되었다.⁴⁷⁾ 그는 사바찐이 한국의 관직에 등용된 최초의 서양인 건축가라는 사실을 문헌에 의거하여 확증하고 김정동 교수가 작성한 사바찐의 건축활동 목록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그가 산정한 바에 의하면, 준공된 건축물 기준으로 사바찐의 건축활동은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중 교수는, 김정동 교수가 언급한 서울의 ‘러시아 아치’ (俄門, 1884)와 독일영사관 관저(獨逸 領事館 - 官邸) 및 인천의 러시아 부영사관 건물 대신, 해관청사(1883), 최초의 부두(1884), 2개 동(棟)의 외국회사 지점 건물 [세창양행 사택(1884)과 홈링거양행 사옥(1898)] 등 제물포에 소재한 4개의 건조물을 사바찐의 건축활동 연표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두 목록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바찐이 한국에서 수행한 모든 사업이 아직도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김태중 교수는 사바찐의 조선에서의 생활에 관한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1888년부터 사바찐이 지휘감독의 전권을 갖고 시행한 친군영(親軍營)의 관아 건물인 관문각(觀文閣) 건축공사 기간 중인 1891~1892 년간에 일어난 분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분규는 사바찐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던 조선인 집사가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불량자재를 구매하는 등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데서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 사업 전반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건물은 완공되지 않았는데 사바찐에게 심각한 정신적,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다. 김태중 교수는 그로 인해 사바찐이 “조선 관원의 업무처리와 공장(工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깊은 불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김태중 교수는 “사바찐이 지은 건축물 중에서 조선인이 건축주가 된 것은 오직 독립문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들이 사바찐의 건축주였다”고 강조했다.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바찐은 시종 조선인들과는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그들에게 전수(傳授)할 수 없었고”, 그래

44) 金晶東. 韓國近代建築에 있어서 西洋建築의 轉移와 그 影響에 관한 研究. 홍대, 박론, 1990년, pp.196~202.

45) 高宗實錄, 高宗時代史, 舊韓國外交文書, 仁川府史 (1933), 京城府史 (1934) 등.

46) 《韓國誌》 (《Описание Кореи》). 러시아 제국 財政省 편. 3권. 상트 페테르부르크, 1900. 1984년 韓國精神 文化研究院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 축약본으로 간행되었다.

47) 金泰中. <開化期 宮廷建築家 사바찐에 관한 研究 (雇傭經緯와 經歷 및 活動環境을 중심으로)> <<大韓 建築學盒論 文集 >> 12卷 7號, 通卷 93號 1996年 7月. Pp. 107~119.

서 “그가 한국 근대건축의 형성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의 건축 활동은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남게 되었다” (119쪽).

그러나,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모순적이지만, 사바찐은 한국 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가 작성한 팜플렛⁴⁸⁾에서는 그를 대조선 인천제물포 각국 조계지(租界地) 지도를 작성한 “역사상 인천에서 활동한 최초의 정규 건축가”로 지칭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해외 문화홍보원이 운영하는 공식관광 사이트에서는 그를 한국 최초의 서구식 휴식공원(현재 인천의 자유공원)을 조성한 “러시아 엔지니어, 건축가, 상인 및 모험가”라고 소개하고 있다.⁴⁹⁾

러시아 사료에는 현재까지 거의 왕후 민비의 서거와 관련해서만 사바찐에 대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1985년 그는 경복궁에서 “고매한 목격자”(《noble witness》)로 근무하던 중 명성황후 시해 현장을 목격했다. 러시아 고문서 보관소에 있고 그 동안 공개되지 않고 있던 이 사건에 대한 그의 증언 기록이 1995년 영어로 번역되어 인터넷을 통해 발표되었다.⁵⁰⁾ 비록 인터넷에서는 아파나시이 사바찐의 이름이 아렉세이로 잘못 소개되기는 했지만, 오늘날 전세계의 역사학자들이 그 증언을 알고 있다. 일련의 러시아 저서들에서 사바찐의 증언 내용이 인용되고 있으나, 거기서는 사바찐의 생애에 대한 어떤 정보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⁵¹⁾ 다만 모스크바의 일본학 연구자이자 문예학자인 김려호의 논문(1998)은 예외적인 경우이다.⁵²⁾ 그는 서울 주재 러시아 영사관 문서들과 서울의 프랑스 어학교 초대(初代) 교장인 에밀 마르텔의 회고록(일본어로 기술)⁵³⁾에 근거하여 사바찐이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항해 전문학교를 졸업하여 항해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23년간 한국에 살면서 그 기간 동안에 러시아 영사관과 프랑스 영사관을 설계했다고 짧게 소개했다.

그런데 사바찐의 이름은 정작 건축가들에게는 오히려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소련 붕괴 후 그 전까지 《베일에 가려 있던》 외국에 있는 러시아의 건축유산이 현실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최근 15년간 이 분야에서는 수십 명의 새로운 이름과 잊혀진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비중에 있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활발한 연구의 대상이 된 지역은 1898년 최초의 러시아 기술자들과 건축가들이 모습을 드러낸 중국의 동북부 지방(만주)이었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이곳에는 그들이 부설한 중국동부철도를 따라 규모를 보아서 전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건축 환경이 그들에 의해 조성되었다. 여기에는 하얼빈, 파렌, 뤼순, 만주리(滿洲里) 등의 도시들과 수십 개의 촌락이 포함되어 있었다.⁵⁴⁾ 그러나 인접국인 한국은 러시아 건축사학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 나라에는 으레 찾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으려니 지레짐작했던 것이다.

48) 《근대문화 교류의 현장 제물포구락부》. 한국문화연구소 편. 박문관의 팜플렛. 인천: 출판연대 없음.

49) http://www.korea.net/news/news/newsView.asp?serial_no=20090204007

50) Testimony of the Russian citizen Seredin-Sabatin, in the service of the Korean court, who was on duty the night of September 26, 1895. Published in the Internet by Gary Ledyard, Center for Korean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From the archives of the Foreign Ministry, Russian Federation, <fond> Yaponskiy stol, <opis> 487, <delo> 6, <list> 73~75. <http://koreaweb.ws/ks/ksr/queenmin.txt>

51) 박 보리스. <<러시아와 한국>>. 모스크바, 1979. Pp. 118, 263; 제2판: 2004. P. 224; 심비르제바 T.M. <경복궁에서 일어난 민비시해 사건> <<동양 컬렉션>> (러시아 국립도서관, 모스크바). 2004, 4호. Pp. 127~142.

52) 김려호. <새로 보는 민비 시해> <<한국. 박 미하일 교수의 80 생신을 맞이하여>>. 논문집. 모스크바 대학교 국제한국학 센터, 1998. Pp. 123~136.

53) 外国人の見た朝鮮外交秘史(외국인이 본 조선외교 비사). 케이조 (서울), 1934.

54) 레보쉬코 S.S. <<만주에서의 러시아 건축. 19세기말 ~ 20세기 초>>. 하바로프스크, 2003

이러한 고정관념을 깬 러시아 최초의 보도는 모스크바의 예술학자 아. 페. 그라세닌니코프 박사⁵⁵⁾가 2000년 하바로프스크에서 발표한 사바쩨에 대한 소논문이었다.⁵⁶⁾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바로 이 학자가 김정동 교수에게 러시아 옛문서에서 나온 사바쩨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공급해주었다. 그라세닌니코프 박사는 러시아 건축사(建築史)에 정통한 인물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연구활동을 하면서 모아 적은 인명록에는 11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활동한 약 5만 명의 러시아 건축가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 우리는 그가 김정동 교수로부터 사바쩨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고 러시아 제국 대외정책고문서보관소에서 그에 관한 자료 발굴에 착수한 때로부터 10여 년이 지나서야 그에 대한 최초의 논문을 발표하게 된 연유에 대해 그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논문 발표가 늦어진 원인은 사바쩨의 건축활동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설계도면, 그림)가 전무하다는데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발굴된 고문서들의 내용 가운데 사바쩨가 독학으로 공부했다는 사실도 극도의 당혹감을 감출 수 없게 하는 부분이다. 아. 페. 그라세닌니코프가 그에 대한 논문을 쓰는 데는 한국에 있는 전문연구자들의 관심이 큰 자극제가 되었다. 비록 그가 인용한 자료가 내용이 짧고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그 무엇으로 판단해도 극동아시아에서 최초의 러시아인 건축가로 활동했음에 틀림없는 인물의 이름이 러시아 건축 전문가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그의 공로가 아닐 수 없다.

2-3. 가족 소장(所藏) 사료에 나타난 사바쩨의 생애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활용된 주요 문헌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바쩨 후손들의 가족 문서들이다. 필자에게 이 문서들을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 준 것은 저명한 역사학자 에스. 베. 볼코프(С.В. Волков)였다. 그가 모은 러시아 제국 후기 민간인 관료 및 군 관료의 목록은 이 10만개 이상 이름과 이력서가 들어 있다. 필자는 그로부터 ‘세레진-사바쩨’ 이 귀족가문의 성씨일 뿐만 아니라 희귀한 성씨로서 러시아에는 그런 성씨를 가진 가문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세레진-사바쩨’ 이라는 성씨를 가진 가족의 일원은 누구든지 《서울 건축가》의 혈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런 성씨를 가진 두 사람을 찾아냈다. 한 사람(빠. 빠. 세레진-사바쩨)은 『공작기계. 공구』라는 잡지에 글을 실은 기고자로, 또 다른 한 사람(엔. 빠. 세레지나-사바찌나)은 우랄산 지역의 꾸르간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주인으로 각각 나타나 있었다. 음식점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 필자가 그 번호로 전화를 했다. “네, 서울 건축가라면 그건 제 증조부예요” 필자가 전화한 목적을 알려 주자마자 나탈리아 빠프로브나라는 음식점의 여주인이 선뜻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사바쩨가 아니라 사바쩨이예요. 발음의 역점이 끝 음절에 있어요” 곧 뒤이어 『공작기계. 공구』라는 잡지에 글을 실은 기고자 빠. 빠. 세레진-사바쩨가 그녀의 부친이고 ‘서울 건축가’의 친손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름이 뽀뜨르 빠프로비치인 친손자는 1928년에 태어나 꾸르간 기계제작공장에서 공구강(工具鋼)연구실장으로 오랫동안 근무

55) 아. 페. 그라세닌니코프는 모스크바에 있는 슈세프 명칭 건축박물관 소속 국립연구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научный институт Музея архитектуры им. А. В. Щусева) 상급 연구원이다.

56) 그라세닌니코프 아. 페. <한국에서 활동한 러시아 독학건축가> <<극동 건축 복합 발전의 제문제>>. 학술 토론회 자료집. 하바로프스크 국립 기술 대학교, 2000. Pp. 81~83. 제2판: 그라세닌니코프 아. 페. <<망각 속의 발굴. 20세기에 대한 추억>>. 모스크바, 2008. Pp. 255~258.

한 전문기술자였다고 했다.

손자와의 전화 접촉에서는 얻은 정보가 별로 없었다. 그는 연초에 뇌졸중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일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딸이 필자를 도와주려고 7월 12일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날”에 자기를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그날은 뽀뜨르(한국어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러시아의 모든 남성신자들에게 ‘수호천사의 날’로 불리우며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두 번째 생일로 기념되고 있다. 그리하여 꾸르간시로 가서 세레진-사바쥬 일가의 여름별장에서 사흘간을 보냈다. 뽀뜨르 뽀뜨로비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가문의 배경을 잘 알게 되었지만 아파나시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거의 얻지 못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이유는 일찍 별세한 조부를 본 적이 없고 부모와 일찍 헤어졌기 때문이다.

손자 뽀뜨르는 1928년 10월 23일 중국 항코우(汉口)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의 부친(아파나시이 사바쥬의 아들 뽀뜨르)은 현지에서 차(茶)를 가공, 판매하는 러시아기업 《에스. 베. 리트비노프 & 코》(С.В.Литвинов и Ко)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외아들이자 막내였다. 그에게는 베라(1915~2004), 올가(1919~1949), 나탈리아(1924~현재 생존), 이렇게 손위 누이 세 명이 있었다. 1930년 부친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그의 가족은 랴오둥 반도 남단부로 이주했다. 이주 초기에는 1898~1904년간 러시아인들이 건설한 다롄(大連)시와 뤼순항(旅順港[여순항]) 중간쯤에 위치한 곳에 상당히 넓은 토지를 확보, 번듯한 가옥이 딸린 농장을 조성하여, 사과나무 900주와 포도나무 2,400주가 자라는 대규모 과수원을 경작했다. 뽀뜨르 아파나시예비치(아들)는 열정적인 과수원 경작자가 되었고, 그의 기록적인 과일 수확으로 랴오둥 반도 전역에 걸쳐 그의 명성을 크게 떨쳤다. 1930년대 말 그의 가족은 다롄으로 이사를 해서 시내에 있는 저택에 거주했다. 1941~1945년간 손자 뽀뜨르는 주로 텐진(天津)에 살면서 그곳에 있는 성(聖) 루이 중학교에서 공부했다. 이 학교는 프랑스 카톨릭수도원 부속 중학교였으나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손자 뽀뜨르는 지금도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한다.

1945년 봄 학교를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17세였다. 두 달 후 그곳에 소련군이 입성하자 젊은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적으로 환영했다. 곧 소련군 중국어통역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 후에는 다롄기중기제작공장에 취업해서 화학실험실에서 일을 했다. 어려서부터 화학에 흥미를 갖고 있던 터라 거기서 천직을 찾았다고 느꼈다. 1952년 소련의 소유였던 그 공장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간 후에도 그곳에서 계속 근무했다. 뽀뜨르 손자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그 때는 중국 전역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러시아 거류민들은 반드시 중국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나는 의문의 여지없이 소련 말고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다고 믿었다.” 그는 1948년 다롄 주재 소련총영사관을 통해 소련 국적을 취득했다. 아들과 달리 신앙심이 깊은 독실한 러시아 정교 신자인 그의 모친은 소련의 ‘무신론자들’에게 가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1953년 양친은 딸 나탈리아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손자 뽀뜨르는 1954년 소련으로 떠나기에 앞서 다롄 주재 소련총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미국으로 간 가족들이 보내는 편지의 수령을 거절하겠으며, 그들의 서신왕래 제의도 일절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했다. 당시 소련정부가 자본주의국가로 이주한 러시아인들을 적대세력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 서약서의 사본은 지금까지도 조부의 유품으로 손자가 집에 소장하고 있다. 1953년 이후 뽀뜨르는 부모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부친은 캘리포니아에서 1964년 별세하고, 모친은 1980년 세상을 떠났다. 1989년에는 미소 양국관계에 있어서의 이른바 ‘고르바초프 해빙기’를 맞아 미국에 사는 손위 누이 나탈리야 뻬뜨로브나가 꾸르간으로 동생 뽀뜨르를 찾아왔다. 중국 사회의 격변으로 생이별한지 36년 만에 이루어진 혈육의 상봉이었다.



[사진 2-11] 최초로 공개된다. 아파나시이 이바노비치 세레진~사바쨌의 초상사진 (1890년대의 것으로 추정됨): 사바쨌의 손녀 나탈리야 뻬뜨로브나 로저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이 사진을 공개하는데 흔쾌히 동의했다.

꾸르간시에 가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미국에 있는 아파나시이의 손녀인 나탈리야 뻬뜨로브나 로

저⁵⁷⁾ (1924년생)의 전화번호를 입수한 것이다. 손자 뽀뜨르는 우리가 직접 만날 때만 그 전화번호를 내게 알려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나팔리야 로저와 그녀의 아들 조지 도리안은 친절하게도 아주 희귀한 자료들을 필자에게 제공했다. 이 자료들에는 옛 사진 몇 장과 1950년 4월 다렌시(중국)에서 쓴 그의 아들 뽀뜨르(1885~1964)의 자서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자서전에는 부모를 포함한 자신의 가족이 살아온 내력이 기술되어 있었다.

가. 아파나시이 사바쨌의 출신

『뽀뜨르 아파나시예비치 세레진~사바쨌(아들)의 자서전』에서 발췌.

“나의 부친의 부친인 조부 ‘이반 바실리예비치 세레진~사바쨌’⁵⁸⁾은 양반가문 ‘뽀따바현(縣)의 몰락한 지주’ 출신으로 루브니시(市)⁵⁹⁾에서 부동산을 갖고 살았다. 우리 집안은 심지어 가문을 상징하는, 창인지 화살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9개 들어가 있는 방패 모형의, 문장(紋章)까지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즉 나의 부친인 아파나시이 이바노비치의 모친은 자뽀로쨌예⁶⁰⁾ 까자끄인 출신의 평범한 우크라이나 여자였다.

나의 모친 ‘리지야 흐리스찌아노브나’는 샬리치(Шалич)라는 성을 갖고 러시아에 동화된 독일 여자였다(이 성은 독일인의 성이 아니므로, 필시 독일에 동화된 폴란드인 집안 출신일 가능성이 있음). 나는 모친에게서 폴란드인다운 면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독일인의 기질을 많이 발견했다. 모친은 러시아정교로 개종한 7세 때까지 루터교 신자였으나, 1936년 상하에서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그러니까, 내 몸 속에는 우크라이나, 독일, 폴란드 등 서로 다른 세 나라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음에 틀림없다. 우크라이나는 나의 부친의 조국이니 나는 민족적으로 우크라이나인이며, 내 기억으로는 부친이 모든 면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다운 면모를 강하게 풍겼다. 생김새, 말씨, 성격의 특징에 있어서 그는 전형적인 까자끄인을 판에 박은 모습이었다.”

모든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자기 가문이 어느 민족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뽀뜨르 아파나시예비치에게는 큰 관심사였다. 그는 자서전 말미에 기입 날짜를 1950년 4월 26일로 표시한 부기(附記)를 달아 놓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누이 릴리야가 써 보낸 41년 11월 1일자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다. 누이가 쓴 것처럼, 우리 몸에 우크라이나인, 독일인, 폴란드인의 피(폴란드인의 피가 정말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의구심이 든다)이외에도 대러시아인과 스위스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을 덧붙여야 하는데, 나는 그것을 잊고 있었다. 과연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든다면 또 뭔가 헝가리인의 것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나라에는 그런 성(姓)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두 번째

57) Roger는 그녀의 두 번째 남편 성이다.

58) 각(角)괄호 안에는 뽀뜨르의 만딸 베라(Vera)가 아버지가 별세한 후 입력한 추가 정보가 포함된다.

59) 루브니(Лубны)시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약 200km동남쪽으로 떨어져 위치하는 작은 도시이다.

60) 우크라이나 드네프르강 여울목 아래 쪽 지역.

성(姓)의 어머니가 「~이」(사바찌니)로 끝나도록 한다면, 우리 집안에서도 이탈리아인들이 나오겠지!”

가족의 뿌리가 이탈리아인이라고 보는 빼. 아. 사바전의 관념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로마에서 북서 쪽으로 32킬로미터 가면 사바티니 화산(Monti Sabatini)이 나온다. 이 화산의 분화구에는 고대(古代)에 ‘사바티니 호수’라고 불렸던 「라고 디 브라치아노」(LacusSabatinus)라는 큰 호수가 자리잡고 있다. 유럽에는 이탈리아 태생의 영국 작가인 라파엘 사바티니(1875~1950)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러시아에서 그런 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의 가족의 선대(先代)가 외국 출신임을 방증(傍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문의 선조들 중 한 사람이 취업 목적으로 외국에서 러시아에 초청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한 관행은 알렉세이 미하일로 비치 치세(治世, 1689~1725)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의 아들 뽀뜨르 1세(1689~1725) 때부터는 대규모로 폭 넓게 시행되었다.

사바전 가족의 몸 속에 「스위스인의 피가 흐른다」는 언급에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최근 서울의 독립문 앞에 세워진 기념게시판에는 설계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독일공사관의 직원인 어느 스위스인 기사』가 설계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는 세레진~사바전의 이름이 그 게시판에 들어 있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게시판의 문안이 변경된 사유가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는 「서재필(徐載弼)의 자서전에는 독일공사관의 스위스인 기사가 설계하고 한국인 목수가 시공했다고 되어 있으나, 『경성부사(京城府史)』에는 러시아인 사바틴의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다.⁶¹⁾ 필자들의 견해로는 서재필이 언급한 익명의 ‘스위스인’과 사바전이 동일한 인물이라고 여겨진다. 그것은 당시 사바전과 러시아공사관 사이에 극도의 긴장관계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사바전은 독립문 건립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자신의 뿌리가 스위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에게 누차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국적이 러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재필이 사바전을 스위스인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사진 2-12] 최초로 공개된다. 아파나시이 세레진~사바전의 부인 리지야 흐리스찌아노브나 초상사진 (1890년대의 것으로 추정됨). 손녀 N.P. 로저 소장 가족앨범에 들어 있는 사진.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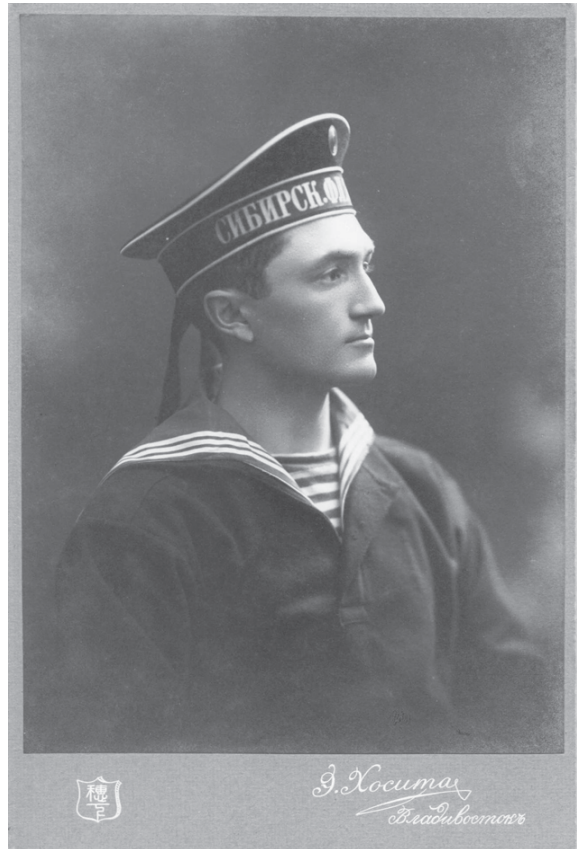
<http://kr.dictionary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pk=12655800&p=%B5%B6%B8%B3%B9%AE&field=id&type=enc&subtype=enc>

나. 사바쩐의 학력

사바쩐의 학력이 그가 남긴 건축유산을 공식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라세 넌니코프와 김태중을 비롯한 학자들은 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한국에서 사바쩐이 ‘육군 유년학교 공병과를 나왔다’⁶²⁾고 알려져 있으나, 이 주장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고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사바쩐의 교육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그가 1895년 9월 서울 주재 러시아 공사관으로 보낸 서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그는 신설되는 러시아어학교의 교사로 자신을 천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공사관에 제출하였으나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귀하를 천거하기가 곤란하다.... 최소한 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인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신으로 사바쩐은 “본인은 본인에게 2급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갖고 있습니다”⁶³⁾라고 썼다. ‘2급 자격’이라는 말은 일종의 기술직 용어로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처음에는 분명치 않았다. 아. 페.

그라세넌니코프는 그 말이 「중등군사학교 (кадетский корпус, cadet corps)」의 자격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사바쩐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여타 학과목 이외에 「축성학(築城學)」 과목도 공부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저자들은 그 학교를 「육군유년학교」로 표기했으나, 유년기의 나이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유년」 학교에 공병과가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시기부터 육군장교후보 양성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이센왕국의 군사교육 제도를 본떠 만든 일본제국의 「육군유년학교」와 이를 모방하여 설립한 구한말 대한제국의 「육군유년학교」는 15~19세의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유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것도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Cadet corp라고 하는 러시아의 「중등군사학교」들은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지 않았다. 그것은 병과(兵科)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는 사관학교(военные училища)에 진학하려는 예비사관생도들을 양성하는 일반교육기관이었다. 그 특징은 9~16세의 학생들 대다수가 장교의 자제들이었고 국가의 지원 하에 학교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군대식 규율을 익히는데 있었다.⁶⁴⁾ 사바쩐은 장교의 자제가 아닌 이상 중등군사학



[사진 2-13] 아파나시이 세레진~사바쩐의 아들 뽀뜨르 뽀뜨르 아파나시예비치의 초상사진. 블라디보스톡 함대에 근무하던 시기(1916년 말~1918년)의 모습. N.P. 로저 소장 가족앨범에 들어 있는 사진.

62) 김태중. P. 110.

63) 러시아 제국 대외정책고문서보관소. <fond> 191 (서울 영사관. 1881~1917), <opis> 768, <delo> 22, <list> 27, 29.

교를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처했던 불우한 가정환경에 비추어 7년 동안이나 한 곳에서 학교에 다닐 여건도 되지 못했다. 그의 아들 뽀뜨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부친 나이가 14세가 되었을 때, 그의 삼촌은 그의 계모가 그를 너무 심하게 냉대하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가 니콜라예프스키 해양전문학교(Николаевское морское училище)에 보냈다. 나의 부친은 원양항해사가 되면서 학교를 끝마쳤다. 그는 원양항해사로 극동에 가게 되었는데 현지에서 24세에 바다를 떠나 인생의 대부분을 한국, 중국 및 연해주에서 살았다.”

그 다음 기술한 내용은 이러했다:

“부친은 원래 중등교육과정조차도 제대로 다 마치지 못한 모양이니까 독학으로 공부했다; 그는 항해사 양성 과정(課程)만 수료한 것 같다; 뽀제르부르크 예술아카데미에 1년간 다녔다...”

뽀뜨르는 부친이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곳으로 니콜라예프스키 해양전문학교, 항해사양성 과정(課程) 등 두 교육기관의 이름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도 사바전의 학력을 밝혀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성(聖) 니콜라이는 러시아 함대의 수호신으로 간주되고 있어 제정러시아의 수많은 해군교육기관들의 명칭이 그의 이름을 따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상트-뽀제르부르크에 있는 니콜라이 해양아카데미(Николаевская морская академия)가 가장 유명했다. 또한 니콜라이 항해사전문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는 아무르강(흑룡강)에 있는 니콜라예프스키-나-아무르시에 소재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불렸다. 그래서 당시 이미 백 년 이상 러시아 흑해함대의 중심지였던 우크라이나의 니콜라예프시에 있는 어떤 전문학교도 사람들이 도시 이름에 맞게 ‘니콜라예프스키 학교’라고 부를 수 있었다. 필자는 사바전이 어느 해양전문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사바전이 교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던 서울 러시아어학교의 최초 교사로 1895년 11월 13일 임용된 비류코프(Н.Н. Бирюков, 1861~1916)에 대한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종효교수가 밝힌 바와 같이 비류코프는 기병학교를 졸업했다.⁶⁵⁾ 사바전 또한 군사학교를 졸업했다면, 필시 그의 교사임용 신청이 ‘학력 미달’ 사유로 거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들은 사바전이 학교 서열상 다소 수준이 낮은 항해사양성강습소(maritime classes)를 수료했다고 생각한다. 그의 청소년기는 1861년 농노제 폐지 후 급속한 발전을 이룬 러시아 산업의 고도성장기였다. 숙련된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용인력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수많은 전문교육기관이 신설되었다.⁶⁶⁾ 항해사양성강습소는 무역선의 항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1867년 최초로 러시아 교육부 관할로 설치되었다. 그것은 교육내용 규모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1급 과정(초급)은 근해항해사 자격시험을, 2급 과정(중급)은 근거리항행 상선 선장 및 원양항해사 자격시험을, 그리고 3급 과정(고급)은 원거리항행 상선 선장 자격시험을 각각 준비하는 선박요원들을 교육했다.⁶⁷⁾ 이로써 사바전이 자신의 서한에

64) 구르코프스키 V.A. <러시아의Cadet corp (18~20세기 초)> <<교육과 사회>>. 2002, # 1, 2. ~ <http://www.ruscadet.ru/history/comm/01.htm>; 또는: 구토로비치 G. <Cadet Corps이란 무엇인가?> <<Cadet 점검>>. 1975, № 14. http://xxl3.ru/kadeti/gutorovich_kk.htm

65) 박종효. <구한말 최초의 러시아어 학교와 교사 비류코프의 교육 및 군사 활동 연구> <<한국 근.현대사 연구>>. 2008, 10월호.

66) 데류진스키 V.F. <제정러시아의 전문학교들> <<법학 교과서>>. 상트.뽀제르부르크, 1903. <http://www.allpravo.ru/library/doc76p0/instrum3732/item3916.html>

67) 국제군사역사학회 사이트: http://www.imha.ru/knowledge_base/base-12/1144524190-morekhodnye-klassy-uchilishha.html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썼을 때 그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자명해 진다. 항해사양성강습소는 수강생들에게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 무상교육을 제공했기 때문에 몰락한 지주의 아들인 아파나시이가 다니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 과정(課程)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러시아어 능력(읽기, 쓰기) 증명서 및 상선승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했다.

우랄 지역에 사는 ‘서울 건축가’의 손자인 뽀뜨르 뽀뜨로비치는 조부가 14세가 되던 해에 삼촌과 살기 위해 뽀제르부르그로 가지 않고 혼자 가출해서 상선단의 소년수부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집안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상선단에서는 어느 간부가 그의 실습교육을 돌봐주었다고 했다. 항해사양성강습소에 입학하는데 상선승무 경력증명서가 요구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소년시절부터 손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러한 정보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 아파나시이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항해사양성강습소에서는 건축과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지 않았으나, 그의 아들이 자서전에서 쓴 바와 같이, 아파나시이는 거기서 습득한 전문지식 덕택에 극동으로 가게 되었다. 그가 기선회사인 「도브로볼니 플로트」(Добровольный Флот, 의용함대)에 항해사로 취업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해운회사는 1878년 수도에 설립되었다. 즉 사바잔이 공부하던 바로 그 시기에 직원을 모집했다. 1880년 초에 이 회사는 흑해 항구인 오데사(Одесса)에서 러시아의 태평양 항구로 나가는 정규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하는 해운사업을 개시했다. 이 항로를 운항하면서 선박들은 포트-사이드, 콜롬보, 싱가포르, 나가사키, 상하이, 한코우에 기항했다.⁶⁸⁾ 이 선박들의 승무원으로 일을 하는 동안 아파나시이는 극동의 여러 나라들과 도시들의 건축문화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파나시이 사바잔이 공부한 항해사양성강습소는 과연 어디에 개설되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의 후손들은 그것이 수도인 상뜨-뽀제르부르그에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그 도시 최초의 항해사양성강습소가 아파나시이가 그의 생가를 떠난 해인 1874년 황실요트클럽 산하에 개설되었기 때문이다.⁶⁹⁾ 그가 수도에 살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이 자서전에 적은 「뽀제르부르그 예술아카데미에 1년간 다녔다」라는 문구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 예술아카데미는 1757년 이래 조형예술 분야에서 러시아제국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1859년부터는 거기에 두 개의 학과가 존재했다. 그 하나는 회화·조각학과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예술가 양성에 중점을 둔 건축학과였다. 이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예술에 대한 일정한 예비지식이 요구되었는데 아파나시이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말하자면 그는 정규 수강생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1870년대에 들어와서 이 아카데미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야간미술강좌가 개설되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⁷⁰⁾ 아파나시이는 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었다. 독학, 통찰력, 개인적 재능, 그리고 선원으로서의 생활 체험과 여러 민족에 뿌리를 둔 자신의 혈통에 의해 이루어진 ‘세계인’의 자각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68) 셀류티나 G. <‘의용함대’는 어떻게 창설되었나?> <<오데사시의 석간신문>>. 2008.XI.04 <http://vo.od.ua/article/9375>

69) 《요트》(잡지). 상뜨-뽀제르부르그, 1908, № 54 // http://sea-wolfs.ru/01/1_1.html

70) 러시아 예술아카데미 사이트 참고 :

http://www.rah.ru/content/ru/main_menu_ru/section-academy_history/section-chronicle.html?showContentPart=6

‘건축가’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시기가 러시아에서는 뽀뜨르 1세 때(18세기 초)이고, 일본에서는 1947년이다.⁷¹⁾ 그러나 건축활동은 먼 옛날부터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전의 수많은 문화기념물들은 공식적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건립되었다. 사바쩨는 그런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그에 상응하는 건축양식에 대한 입장을 가까운 장래에 정립(定立)해야 했던 시기에 그는 이 나라 최초의 유럽인 건축가였다. 그의 창작활동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작품들의 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들이 전혀 다른 전통 내부에 모습을 나타냈다는 데 있다. 유럽과 아시아 건축양식의 전통을 최초로 통합시킨 그의 선구적인 시도는 건축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2-4. 사바쩨이 남긴 유산의 건축학적 특성

아시아 국가들에서 유럽 건축가들이 지은 건축물에는 반드시 「식민지 양식」이라는 명칭이 붙어 다닌다. 식민지 건축양식을 시대별로 구분하면, 1873~1890년대의 「초기식민지 양식」(early colonial style)시대, 1900~1910년대의 「고전적 식민지 양식」(classic colonial style)시대, 1920~1940년대의 「이국풍 식민지 양식」(exotic colonial style)시대로 나뉜다.⁷²⁾ 경제적, 정치사회적 조건이 불충분했던 식민지화의 초기에는 주로 병영(兵營), 병원, 장교사택, 학교, 기차역, 부두 등과 같은 공공건물이 많이 세워졌다. 이런 건물들은 1~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의 특징은 설계가 단순하고(통상 장방형[長方形] 건물 주변부(週邊部)에 반드시 기둥이 있는 복도(gallery)가 있는 구조로 꾸몄다는 것이다. 건물 정면의 장식(décor)은 극히 질박(質樸)하고, 장식의 부재(部材)는 통상 고전주의(classicism) ‘저장고’에서 골라 사용되었다(벽기둥(벽주[壁柱], 필라스[pilaster]) 및 원주(圓柱), 흠이 나 있는 처마 돌림띠(코니스[cornice]), 삼각형의 박공(膊拱) 등).

우리의 견해로는, 시대를 보아서는 사바쩨의 건축물들이 전적으로 「초기식민지 양식」에 속하지만 그 특징을 보아서는 그가 「제 1 인천 시기(1883~1888)」⁷³⁾에 지은 것만이(부두, 해관청사, 「세창양행」 사택) 그 양식에 전적으로 속한다. 사바쩨는 이미 「제 1 한성(漢城) 시기(1888~1892)」에 「초기식민지 양식」에 고유한 금육주의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사례는 1890~1891년간 그가 건축한 러시아 공사관 건물로서 이는 조선 수도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 되었다. 러시아 고문헌들은 이 건물의 설계도가 1890년 7월 초에 작성되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⁷⁴⁾ 러시아공사관은 1885년 10월 한성(서울)에 설치되어 처음에는 업무수행이 불편한 임시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1886~1887년간에 공사관의 상주(常住)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일본인 건축가 쯔고(원문서에는 Чюго라고 쓰임)를 초빙해서 설계도를 작성했으나, 재원(財源) 부족으로 인해 공사 착공이 연기되었다. 1890년 4월 초 임시대리공사 베베르(K.И. Вебер)는 본국 외무성에 재원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새로 작성된 설계도에 대해 본부에 보고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계도는 러시아 청년

71) 《러시아 건축》. 04.III.2005 http://www.archi.ru/events/news/news_current_press.html?nid=1296&fl=1&sl=1

72) 호 하이남 (베트남). <<식민지 시대 베트남 건축과 도시건설에 대한 유럽의 영향 (Hue시를 중심으로)>>. 상뜨-뻬쎈르부르그, 박론, 2007. Pp. 54, 75~76. (러시아어)

73) 시기별로 사바쩨의 한국 활동을 구분하는 것은 김태중교수의 논문을 따른 것이다.

74) 러시아 제국 대외정책고문서보관소. <fond> 191, <opis> 768, <delo> 15, <list> 75~77.

세레진-사바찐씨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서울 왕궁(王宮)에서 조선 국왕을 위해 두 층으로 된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한 바 있습니다.⁷⁵⁾ 본인은 도쿄에서 초빙했던 일본인보다 그가 더 열성적으로 일을 수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게다가, 공사관을 러시아 사람이 건립한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관 건물의 설계도는 전에 보내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다른 건물들은 설계 도면을 다시 작성해서 구조를 단순화시켰습니다. 이 건물들의 구조가 우아하지 못하더라도 공사관의 온건한 기준대로 지을 예정입니다. 유일하게 소요되는 대경비는 접견실들에서 대리석 벽난로들을 설치하고 조각 나무로 마루를 까는 것입니다. 경비 총액은 51,442루블입니다.”⁷⁶⁾

그러나 외무성은 이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보았다. 결국, 사바찐의 공사관 신축계획은 거기에 32,500달러를 투입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다. 예산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규모에 있어서 예사롭지 않으며 외관에 있어서 깊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격조 높은 청사를 짓는데 성공했다. 1911~1914년간 한국에 살고 이 건물에서 근무했던 러시아 외교관 세르게이 치르킨(S. V. Чиркин)은 이 공관 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우리 총영사관은 경사가 완만한 큰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매우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다. 언덕 맨 꼭대기에는 이탈리아 빌라 건축양식으로 지은 본관 건물이 서 있었다. 이것은 1층짜리 건물이지만 천장이 높은 큰 방들이 한 줄로 이어져 있고 건물 오른쪽에는 사면체의 탑이 세워져 있어 굉장히 아름답다..... 총영사관 건물 앞마당과 예전의 공사관 거리(Legation Street) (현재, 정동길 - 필자 주)로 내려가는 언덕 경사면에는 백년은 묵었을 다양한 수종(樹種)의 갖가지 나무들로 뒤덮인 화려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⁷⁷⁾

필자들은 1920년대 초 러시아공사관 건물을 근거리에서 찍은 이 미공개 사진을 입수하는데 성공했다. 이 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건물의 주변부(週邊部)에는 아치형 회랑이 나 있고, 아케이드(arcade)의 지주(支柱)는 벽감(壁龕, 니치)으로, 그리고 아치는 자물쇠 모형의 돌이 달린 홍예(虹霓, It. archivolt)로 각각 장식된 것을 알 수 있다. 입구는 건물의 대칭축이 되도록 배치했다. 이 대칭축은 삼각형의 박공(博拱, pediment)과, 크지 않은 장식 아치로 우아하게 연결된, 이중으로 된 지주(支柱)에 의해 그 존재가 강조되었다. 지주들 사이 상층부에는 받침대와 그 위에 꽃병조형물들이 놓여있는 난간이 설치되었다. 이 꽃병조형물들은 얼굴조각상(사자얼굴)들로 장식되었다. 이 건물은 당시까지 한국에서 적게 사용된 벽돌로 지어졌고 매끄럽게 매질되어 있었다. 이 건물의 구조(twist-and-steer supporting wall)는 한국의 건축에서 채용되었던 전축구조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1층의 규모의 건물은 오늘날까지 보존된 사면체의 높은 3층 탑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유럽의 관행에 따라, 국가기관인 공사관의 건축양식은 고전주의적 성향의 범주 내에서 결정되었다. 이런 건축양식은 ‘르네상스 양식 틀 속의 역사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필자들이 러시아공사관 건물의 특성을 세밀히 고찰하는 이유는 고종이 1년 동안(1896. 2. 12~1897. 2. 20) 러시아공사관에 거처하였고, 그 후 황실도서관인 중명전(重明殿) 건립에 반영된 유럽식 건축양식을 조선 국왕

75) 관문각일 것 같다.

76) 러시아 제국 대외정책고문서보관소. <fond> 191, <opis> 768, <delo> 15, <list> 66~67.

77) 치르킨 S.V. <<동양에서의 20년간 근무. 차르 외교관의 수기>>. 모스크바, 2006. P. 204. 바로 이 저자가 《서울 건축가》라는 야. 이. 세레진-사바찐의 별칭을 최초로 사용했으며, 본 논문에서도 그의 별칭이 여러 번 원용되고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 이해하는데 그 건물이 주요 근거 자료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진 2-14] 서울에 있는 러시아공사관 정면의 단면. 가족앨범에서 나온 1923년 경의 사진으로 소유자인 키릴 치르킨(K. C. Чиркин, 캘리포니아 헤이워드 거주)씨의 흔쾌한 동의를 받아 공개한다.

사바쩨은 「제 2 한성시기(1896~1900)」를 맞아 창작활동의 성숙단계에 접어든다. 무엇보다도, 민족 차원에서 건립된 유럽·한국 혼합양식의 최초 건축물로 평가되는 독립문의 설계를 계기로 그는 세인(世人)의 주목을 받게 된다. 독립문 건립공사는 1896~1897년간에 시행되었다. 독립문이라는 말에 ‘문(門)’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는 해도 그것은 화강암으로 된 석재(石材)를 사용해서 축조한 다름아닌 아치였다. 이와 같은 아치형 건축물로 특별히 중요한 민족적 승리를 영구히 기리는 전통은 유럽에는 이미 고대 로마에서 생겼다. 독립문은 당시 한국 사회에 유럽과 유럽문화에 대한 지식이 보급되어 갔고 또한 중국식 모델을 표준으로 삼았던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19세기에 들어 유럽에서는 아치형 건축물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유행을 촉발시킨 것은 1806~1836년간에 건축되어 지금까지도 가장 웅대한 모습(높이 49.51미터, 폭 44.82미터)으로 남아 있는 파리의 개선문이다. 대략 같은 시기에 상뜨-뻬제르부르그에 아치형의 개선문이 건립되었다. 1890년대에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도시들(하바로프스크, 브라디보스토크, 블라고베센스크 등)에서 개선문들이 나타났다.⁷⁸⁾ 그러나 러시아의 개선문들은 사바쩨이 한성에 세운 것과의 공통점이 적

78) 레보쉬코 S.S. <러시아 정교회 성당들과 러시아식의 개선문들. 19세기 말~20세기 초 극동 지역> <<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신 생활>>. 하바로프스크, 2000. Pp. 269~272.

다. 독립문의 형태는 분명히 파리의 개선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 또 한국을 위해서는 파리의 개선문처럼 웅대한 것이었다. 균형미(均衡美)와 기념비적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신로만 건축 양식(New Roman style)’의 이 건축물은 파리 개선문의 전형(典型)과는 달리 장식이 최소화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 전통건축양식의 원칙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바전의 생애에서 1890년대 말은, 여러 전각(殿閣)들이 모여 있는 경운궁(1907년 이후: 덕수궁)에 들어설 유럽·아시아 혼합양식의 독특한 건물 다섯 동(棟)을 설계함으로써, 그의 건축활동이 크게 주목을 받던 시기였다. 그 이전까지는 조선 궁궐에 유럽식 전각이 들어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궁중 건축물들로 인해 경운궁은 이 나라 최초의 황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전통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이 결합된 경운궁의 건축양식은, 고종이 황제로 재위했던, 존속기간은 짧지만 의미가 매우 깊은 대한제국 시대(1897~1907)에, 개혁을 추진해 가면서 점차 세계공동체 안으로 진입하고 있던 새로운 한국의 상징이 되었다. 사바전의 경운궁에서의 건축활동은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으며, 이를 계기로 유럽의 건축양식이 한국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기 시작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중 오늘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은 회랑 건축물인 정관헌(靜觀軒)뿐이다. 이 궁중 건축물은 이 건축가가 그곳에서 현지의 건축전통과 유럽의 그것 그리고 시대적 요구조건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를 찾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이 건축물에서는 한국 전통이 강조되어 있다. 인도차이나에서 있었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도는 1920년대를 전후하여 현대적 건축양식이 급속하게 발전하던 시기에 전통가치의 보전에 목적을 둔 이른바 「인도차이나」 건축양식이 형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건축양식의 창시자는 프랑스의 건축가 Ernest Hebrard와 Arthur Kruse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처럼 혼합된 건축양식을 창조하려는 시도는 사바전의 건축물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19세기 말부터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사바전이 덕수궁 별채로 설계한 또 하나의 전각인 중명전(重明殿)은 현재 복원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설계도와 초기의 사진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실물에 대한 정밀조사가 큰 역할을 한다. 그들은 초기 건물구조의 원형을 규명할 수 있다는 남다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당시 벽돌공사의 특징을 통해 몇몇 구조의 절점(節點)과 세부분(細部分), 그리고 장식의 특성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랑의 아케이드가 사바전 건축물들의 입체공간적 특징인 만큼, 주주식(周柱式) 회랑의 아케이드 복원은 이 건축물을 초기의 외관에 접근시키는데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 벽면에서 바깥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현관계단 위쪽의 처마, 건물 정면의 수평형 세부분(水平形 細部分: 층간 연결판, 처마 돌림띠[cornice]), 개구부(開口部: 바구니형 아치)의 위치 및 형상, 당시의 장식, 프레임(frame) 및 출입문, 원래의 색 등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식 복제품」(modern replica)은 역사기념물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역사 속의 진품은, 그것을 잃는 경우, 성질상 가공(加工)에 의한 원형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은 이론보다 한층 복잡하기 때문에, 건축물 복원의 역사를 보면, 민족사에 각별한 의미가 있는 파괴된 건축물들을 문자 그대로 「타고 남은 재」에서 부활시킨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 있다. 실제로 그러한 예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교외의 페테르그로프(Петергоф)市 궁전, 푸쉬킨(Пушкин)市 궁전, 파블로프스크(Павловск)市 궁전이나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파괴된 폴란드 바

르사바 및 그다니스크의 중세역사 중심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명전도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사바전은 1901~1904년간 인천의 외교클럽과 서울의 손탁호텔(1901)을 설계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건축활동 마무리했다. 이것은 1883~1888년간의 기능 본위로 만든 건축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1896~1900년간 서울에서 설계한 독특하고 화려한 궁중 건축물도 아니었다. 이 두 건축물은 당시까지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서양의 화려함’을 일반대중 고객들에게 최초로 제공했다. 문헌 기록으로 판단할 때, 1902~1910년간에 외교클럽은 그때까지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테니스코트, 탁구장 및 공공도서관을 갖고 있었다. 지금까지 보전되어 온 손탁호텔의 옛 사진엽서 문구를 읽어보면 그것이 20세기 초기에 서울 ‘시내에서 유일한 1급 서양식 호텔’이었다.

상트-뻬쩨르부르크 잡지 『현대 세계』 1910년 11월호에는 익명으로 「오래된 직원」이라고 서명한 어떤 사람이 이 호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저녁 9시가 다 되어 우리가 탄 기차는 세차게 쏟아지는 장대비 속을 뚫고 서울에 도착했다. 나는 ‘내일 보자’라는 말을 남기고 함께 여행한 친구들과 헤어졌다. 반 시간이 지나, 한국 수도 유일의 유럽식 호텔로 명성이 자자한, 전깃불이 밝게 비치는 《손탁》 호텔 입구에서, 문을 꼭 잠그고 앉아 있던 인력거에서 즐거운 기분으로 내렸다.” 서울, 1910년 9월.⁷⁹⁾

아들 뽀뜨르는 이렇게 썼다:

“나의 부친은..... 좋은 건축가였다. 극동지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그의 설계로 지은 건물들은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에 있는 지금의 소비에트총영사관, 베이다이허⁸⁰⁾에 있는 별장들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와같이 사바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그의 건축활동은 널리 알려졌고 인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2-5. 사바전의 말년

“부친은 성격이 매우 느긋하고 늘 태평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무슨 일에도 능력이 비범하고 낙후된 극동지역에서 ‘개척자적인’ 생활을 하면서 노후보장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평생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했다.”

‘서울 건축가’의 아들 뽀뜨르는 이런 말로 자기 부친에 대한 회고를 마쳤다.

아파나시이 사바전은 한국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다. 여기서 번듯한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살았으며, 이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게다가 장남 뽀뜨르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첫 유럽인이 되었다(1885. 4. 12출생).⁸¹⁾ 이 시기에 부모들이 누렸던 삶의 모습을 뽀뜨르는 이렇게 회상한다.

“부친은 여러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분이였다. 일찍이 극동지역에 있을 때 영어를 습득하여, 그 수준이 영자지에 글을 쓸 정도였다... 사냥(항상 10구경 쌍발엽총 사용)과 스포츠를 즐겼는데, 수영

79) 오래된 직원. <극동에서의 편지. 한국 병합과 관하여>. 《현대 세계》 1910년 11월호. P. 48.

80) 베이다이허(北戴河) 중국 발해에 면한 고급 휴양지 (또는 Peitaiho). 1894년부터 서양식 빌라를 짓기 시작한 이 지역은 중국의 국제관광 비즈니스의 요람지로 여겨진다.

81) 사바전에게는 모두 여섯 명의 자녀가 있었다. 둘째 아들은 빠벨(유년기에 이질을 앓다가 사망하여 제물포에 매장)이고 그 다음은 딸 넷이 있었다: 리지아(가족들은 릴리아로 부름), 류드밀라, 베라, 예브게니아.

을 굉장히 잘 하고(몇 번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한 적이 있음) 테니스도 수준급이었다. 아무리 많이 걸어도 지칠 줄 모르는 타고난 보행자이기도 했다.

모친은 저음(contralto)에 아주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 동호인들의 아마추어 음악회에서 자주 출연하였다. 키는 작았지만 수영도 잘하고 걷는 것을 좋아했다. 활력이 넘치는 훌륭한 어머니로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늘 무슨 일이나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였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비록 학업을 다 끝마치지지는 못했지만(주된 원인은 가족이 유랑생활을 하였기 때문) 우리가 그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친 덕분이다.”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가족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사바쾰의 가족 일행은 다른 러시아인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순양함으로 인천에서 상하이로 철수한 다음, 거기서 다시 배편으로 포트-사이드를 거쳐 오데사로 귀환하였다. 당시에 딸 베라는 채 두 살도 되지 않았다. 수개월간 우크라이나의 친척집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살던 곳으로 되돌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러시아 유럽 지역의 생활환경과 사람들 자체가 우리에게 낯이 설었다..... 우리는 훨씬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극동지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 있었다.... ” — 이렇게 뽀뜨르는 쓰고 있다.



[사진 2-15] 아파나시이 사바쾰의 장남 뽀뜨르가 1885년에 태어난 제물포 집. 뽀뜨르는 한국에서 태어난 첫 서양 아이였다. 손녀 N.P. 로제 소장 가족앨범에 들어 있는 사진.

포츠머스 강화조약(1905. 9. 5)이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파나시이는 일이 잘 풀려 모종의 직책을 받아 1905년 말 전 가족이 나가사키로 떠났다. 그런데 1907년 ‘어떤 신경쇠약 증세’로 인해 아내와 자녀를 두고 그곳을 떠나, 처음에는 브라디보스토크로 갔다가 다시 러시아 유럽지역으로

가서 로스토프-나-다뉴(Ростов-на-Дону) 인지, 짜리쨌-나-볼게(Царицын-на-Волге)인지에서 1921년 사망했다. 손녀의 말에 따르면, 그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 뽀뜨르가 그를 찾아가서 함께 돌아가자고 설득했지만 허사였다.

‘서울 건축가’의 자손들로부터 입수한 정보는 더 이상 없었다.

러시아 대외정책고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재산목록에 의하면,⁸²⁾ 뽀뜨르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사냥총 한 자루, 제도용구(製圖用具), 사진기, 넥타이 몇 개, 판화(版畵) 컬렉션이 전부였다. 재산목록에는 사바쨌 가족들의 주요 재산으로서 그들이 제물포에 두고 떠나야 했던 가옥과 전후(戰後) 일본정부가 뽀뜨르 사바쨌에게 지불한 가옥보상에 대한 간략한 기록도 나타나 있다. 가옥의 구조는 현관, 거실, 식당, 서재, 침실 다섯 개, 욕실,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기 부친이 “결국은 평생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했다”고 뽀뜨르가 씁쓸하게 언급했던 점에 비추어 가옥보상금으로 그가 받은 금액은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을 떠나면서 그의 가족은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심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파탄도 겪게 되었다.

2-6. 맺는말

본 논문은 엔. 뻬. 로저의 가족앨범에 들어 있는 옛날 사진 한 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맺고자 한다. 그것은 널리 알려진 고종과 그의 아들인 왕세자 척(拓)(순종황제)의 사진이다. 이면에는 아들 뽀뜨르가 친필로 「1893년경에」라고 쓴 문구가 있다.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사진에 심취되어 있던 아파나시이 사바쨌이 촬영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사진이 시기적으로 그보다 다소 앞선 1888~1890년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기간은 사바쨌이 경복궁 경내에서 관문각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때와 일치하므로 그가 조선국왕을 자주 알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자손들은 이와 유사한 사진이 집에 한 장 더 있었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한다. 손자도, 손녀도 그 사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그 사진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지만 다만 이 사진과의 차이점은 사진 속에서 고종과 왕세자 사이에 어린 뽀뜨르 사바쨌이 서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그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고종은 어린이들을 끔찍이 좋아해서 자신이 알고 지내는 유럽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함께 대궐로 초대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특히 1890년 한국에서 아들을 출산한 바 있는 미국인 여선교사 릴리어스 호튼-언더우드의 회상록에 기록되어 있다.⁸³⁾

어린 뽀뜨르가 들어가 있는, 왕과 왕세자가 함께 찍은 사진은 1953년에 없어졌다. 이때 가족들은 중국 다롄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중국 세관당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떠나는 러시아인을 대할 때 크게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화물에 대한 검색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지만, 특히 사진에 대해서는 한층 더 철두철미하게 검색을 했다. 그래서 아들 뽀뜨르의 부인 마리야 세르게예브나가 그 사진을 찢어버렸다고 했다. 그것은 군왕과 같은 반동적인 인물들과 남편의 친분관계를 입증하는 사진이 세관에 노출되면 가족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떠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

82) 러시아 제국 대외정책고문서보관소. <fond> 305 (제물포 부영사관), <opis> 767, <delo> 31, <list> 7~8.

83) Horton-Underwood, L.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Seoul, 1987.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Reprint Series. P. 116.

있기 때문이다. 아. 이. 세레진-사바쨌에 관한 한 그는 어느 모로 보나 조선국왕과의 친분관계를 몹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개인 건축사업을 할 때 자신이 조선국왕폐하의 건축가라는 문구를 인쇄해 넣은 용지를 공식 서한을 작성할 때 사용했다》. 이런 내용의 기록물은 러시아 고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다.⁸⁴⁾



[사진 2-16] 고종과 왕세자 척(拓). 1893년경 촬영. 엔. 빼. 로저 소장 가족앨범에 들어 있고 원판사진으로 추측된다.

84) 1894년 8월 18(30)일. 웨베르의 보고서. 러시아 제국 대외정책고문서보관소. <fond> 191 (서울 영사관), <opis> 768, <delo> 22, <list> 21~22.

[인용 자료 목록]

원문서.

- 1950년 4월 다렌시(중국)에서 쓴 아파나시이 사바전의 아들 뽀뜨르(1885~1964)의 친필 자서전.
- 러시아 제국 대외정책고문서보관소 소장 문헌들. <fond> 191 (서울 영사관. 1881~1917), <fond> 305 (제물포 부영사관. 1897~1915). [Документы Архива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Фонды 191 (Миссия в Сеуле, 1881~1917) и 305 (Вице-консульство в Чемульпхо, 1897~1915)].

한국어 자료 (인용순서로)

- 金晶東. 韓國近代建築에 있어서 西洋建築의 轉移와 그 影響에 관한 研究. 홍대, 박론, 1990년, pp.196~202.
- 金泰中. <開化期 宮廷建築家 사바전에 관한 研究 (雇傭經緯와 經歷 및 活動環境을 중심으로)> <<大韓 建築學會論文集 >> 12卷 7號, 通卷 93號 1996年 7月. Pp. 107~119.
- 《근대문화 교류의 현장 제물포구락부》. 한국문화연구소 편. 박문관의 팜플렛. 인천: 출판연대 없음.
- 박종효 <구한말 최초의 라시아어학교와 교사 비류코프의 교육 및 군사활동 연구> <<한국 근. 현대사 연구>>. 2008년 10월호.

러시아어 자료

- 박 보리스 <<러시아와 한국>>. 모스크바, 1979; 제2판: 2004. (ПакБ.Д.РоссияиКорея.М: ГРВ Л, 1979. Изд. 2-е, доп.: 2004).
- 심비르제바 Т.М. <경복궁에서 일어난 민비시해 사건> <<동양 컬렉션>> (러시아 국립도서관, 모스크바). 2004, 4호. [СимбирцеваТ.М.УбийствоводворцеКёнбоккун//Восточнаяколлекция(РГБ, Москва). 2004. Вып. 4]. Pp. 127~142.
- 김려호 <새로 보는 민비 시해> <<한국. 박 미하일 교수의 80 생신을 맞이하여>>. 논문집. 모스크바 대학교 국제한국학 센터, 1998. (КимРехо.ГибелькоролевыМин.Новаяверсия//Корея.СборникстатейК80-летиюсоднярожденияпроф.М.Н.Пака.М:МЦКМГУ,1998).Pp.123~136.
- 레보쉬코 S.S. <<만주에서의 러시아 건축. 19세기 말 ~ 20세기 초>>. 하바로프스크 《개인 컬렉션》 출판사, 2003. (ЛевашкоС.С.РусскаяархитектуравМаньчжурии.КонецХХ - 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ХХ вв. Хабаровск: Частная коллекция, 2003).
- 그라세닌니코프 아. 페. <한국에서 활동한 러시아 독학건축가> <<극동 건축 복합 발전의 제문제>>. 학술 토론회 자료집. 하바로프스크 국립 기술 대학교, 2000. (КрашенинниковаА.Ф.Русскийархитектор-самоучкавКореи//ДальнийВосток:проблемыразвитияархитектурно-строительногокомплекса.Материалыконференции.Хабаровский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техническийуниверситет,2000).Pp.81~83.

- 그라세닌니코프 아. 페. <<망각 속의 발굴. 20세기에 대한 추억>>. 모스크바: 'Sovpadenie (일치)' 출판사, 2008. (Крашенинникова А. Ф. Раскопки в пропасти забвения. Воспоминания XX века. Москва: Совпадение, 2008). Pp. 255~258.
- 호 하이남 (베트남). <<식민지 시대 베트남 건축과 도시건설에 대한 유럽의 영향 (Hue시를 중심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박론, 2007. (러시아어) [Хо Хай Нам Черты европейского влияния в архитектуре и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е Вьетнама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ериода (на примере г. Хюэ).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архитектур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07].
- 치르킨 S.V. <<동양에서의 20년간 근무. 차르 외교관의 수기>>. 모스크바: 루스키 푸티 (러시아의 길), 2006. (Чиркин С. В. Двадцать лет службы на Востоке. Записки царского дипломата. Москва: Русский путь, 2006).
- 레보쉬코 S.S. <러시아 정교회 성당들과 러시아식의 개선문들. 19세기 말 ~ 20세기 초 극동 지역>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신생활>>. 하바로프스크: '개인컬렉션' 출판사, 2000. (Левашко С. Православные храмы и триумфальные арки в русском стил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 рубеже XX - XX вв. // Духовная жизнь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Хабаровск: Частная коллекция, 2000). Pp. 269~272.
- 오래된 직원. <극동에서의 편지. 한국 병합과 관하여>. 《현대 세계》 1910년 11월호 (Старый сотрудник. Письма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поводу аннексии Кореи // Современный мир, 1910, № 11). P. 48.

영어자료

- Horton-Underwood, L.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Seoul, 1987.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Reprint Series.

인터넷 자료

- Korea's Official Website -http://www.korea.net/news/news/newsView.asp?serial_no=20090204007
- 구르코프스키 V.A. <러시아의 Cadet corp (18~20세기초)> <<교육과 사회>>. 2002, # 1, 2. [Гурковский В. А. Кадетские корпуса в России (XVIII — начало XX вв.) // Журнал «Образование и общество». 2002 №1,2] <http://www.ruscadet.ru/history/comm/01.htm>];
- 구토로비치 G. <Cadet Corps이란 무엇인가?> <<Cadet 점검>>. (Гуторович Г. Что такое Кадетский корпус // «Кадетская переключка»). 1975, № 14. http://xxl3.ru/kadeti/gutorovich_kk.htm
- 데류진스키 V.F. <제정러시아의 전문학교들> <<법학 교과서>>. 상트·페테르부르크, 1903. [Дерюжинский В. Ф. Специаль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в царской России) // Полицейское право. Пособие для студентов. СПб. 1903].

<http://www.allpravo.ru/library/doc76p0/instrum3732/item3916.html>

- 국제군사역사학회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사이트:
http://www.imha.ru/knowledge_base/base-12/1144524190-morekhodnye-klassy-uchilishha.html
- 셀류티나 G. <‘의용함대’는 어떻게 창설되었나?> <<오데사시의 석간신문>>. 2008.XI.04 (Селют
ина Г. Как создавался Добровольный Флот // Вечерняя Одесса. 4XI.2008 г.)
<http://vo.od.ua/article/9375>
- 《요트》 (잡지). 상프-뵘페르부르그 [《Яхта》 (Журнал).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08, № 54 //
http://sea-wolfs.ru/01/1_1.html
- 러시아 예술아카데미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художеств) 사이트:
http://www.rah.ru/content/ru/main_menu_ru/section-academy_history/section-chronicle.html?showContentPart=6

«Архитектор Его Величества Короля Кореи» А.И. Середин-Сабатин (1860-1921)

Симбирцева Татьяна, к.и.н.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уманитар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Москва

Левониш Светлана, кандидат архитектуры

НИИ теории архитектуры и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Настоящая статья была написа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еул, директор –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иглашенный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Вонгван Ли Минвон) и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АО «Архитектурной фирмы "Арымтхо"» (г. Чхонан,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 господин Ким Соксун). Хочется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если бы не это своевремен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приведенные здесь сведения и фотографии могли навсегда остаться неизвестными.

Содержание:

- 1) Предисловие
- 2) Историографический обзор.
- 3). Биография А.И. Середина-Сабатина по семейным архивам
 - а) Происхождение
 - б) Образование
- 4). Архитектур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наследия А.И. Середина-Сабатина
- 5)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А.И. Середина-Сабатина
- 6) Заключение

1) Предисловие

Настоящ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первому в Корее европейскому архитектору Афанасию Ивановичу Середину-Сабатину (корейское имя Саль Пхаджон 薩巴丁, Саль Пхаджин 薩巴珍, Саль Пхарён 薩巴玲, 1860-1921). Русский подданный, украинец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он жил в Корее с 1883 по 1904 гг. и выполнил около двух десятков проектов, из которых по меньшей мере 14 были реализованы. В своей переписке Сабатин именвал себя «архитектор Его Величества короля Кореи», и тому были основания, поскольку корейский монарх к нему очень благоволил и пригласил для работы во дворце. Самый известный проект Сабатина – мемориальные Ворота независимости, построенные в Сеуле в 1896 г. Не найдется ни одного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ого издания, посвященного Корее той поры, где бы не было их изображения. В конце XIX – начале XX вв. они были символом этой страны для всего мира.

Некоторые из зданий Сабатина стали ареной очень значительных событий 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Э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оролев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Чунмёнджон (重明殿, «Дворец проникающего света»), которая в 1904-1905 гг. была главной резиденцией императора Коджона и где в ноябре 1905 г. был подписан договор о протекторате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Кореей (Бильса чояк), который лишил Корею права внешних сношений и стал предпосылкой к аннексии страны в 1910 г. Сегодня Чунмёнджон, который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место, где новые поколения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ажный историический урок»,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вместе с интерьером. Такой проект в Корее предпринимается впервые. На него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а РК ассигнованы большие средства. Работы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Чунмёнджона стали стимулом для поиска новых сведений о Сабатине и его наследии в Корее.

2). Историографический обзор

Насколько известно, первым к изучению жизни и наследия Сабатина обрати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историк архитектуры Ким Чондон, который в своей докторской диссертации (1990 г.) посвятил ему несколько страниц¹. Опираясь на корейские источник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фициальные хроники)², упоминание о Сабатине в русском труде «Описание Кореи» (1900)³, а также сведения из русских архивов, полученные от русского искусствоведа А.Ф. Крашенинникова, Ким Чондон сообщил год рождения Сабатина и краткие сведения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о его образовании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его найма, дату отъезда из Кореи и имена его детей. Не останавливаясь на подробностях, он привел список известных ему 13-ти реализованных проектов Середина в Корее и трех, оставшихся на бумаге, и дал определение его стилю, назвав его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тяньцзиньско-русским» (с. 201). Ким Чонд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он был «первым работавшим в Сеуле иностранным архитектором», и потому «для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й архитектуры Нового времени нет более важной фигуры» (с. 196).

В 1996 г. эти сведения были дополнены исследователем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Кённам Ким Тхэджун⁴. Он документально подтвердил тот факт, что Сабатин был первым нанятым на корейскую службу западным архитектором, и уточнил составленный Ким Чондоном список его реализованных проектов. По его подсчетам, их было 14. Вместо упомянутых его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м «Русской Арки» (1884) и дома немецкого дипломата в Сеуле и русского вице-консульства в Инчхоне, он включил в него 4 сооружения в Чемульпхо: главное здание таможни (1883), первые причалы (1884) и два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компаний (1884, 1898). Расхождение в списках указывало на то, что еще не все проекты, осуществленные Сабатиным в Корее, были выявлены. Видимо, не все они известны и сегодня. Также Ким Тхэджун восстановил некоторые факты жизни Сабатина в Корее. В частности, он рассказал о скандале, разразившемся в 1891-1892 гг. во врем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ванмунгака* (觀文閣)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здания военного ведомства *Чхунгунён*. Работы по его возведению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с 1888 г.) возглавлял Сабатин. Скандал был вызван действиями его корейского главного помощника, в целях «экономии» закупившего недоброкачественный материал. Это привело к срыву всего проекта. Здание не было построено, а у Сабатина возникли серьезные нравственные и матер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Ким Тхэджун сделал вывод, что это «привело к возникновению у него неприязнен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¹ Ким Чондон. Хангук кындэ кончхуг-е иссо соян кончхуг-ый чони-ва кы ёнхян-е кванхан ёнгу (Изучение проникновения западной архитектуры и его влияния на корейскую архитектуру нового времени). Докторская диссертация, рукопись. Сеул: Университет Хоник, 1990. С. 196-202.

² «Коджон силлок» (高宗實錄 «Истинные записи правления вана Коджона»), «Коджон сидэса» (高宗時代史 «История эпохи правления вана Коджона»), «Ку Ханмаль вэгё мунсо» (舊韓國外交文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документы позднего Чосона»), «Инчхонбу са» (仁川府史 «История города Инчхона, 1933), «Кёнсонбу са» (京城府史 «История Кёнсона», 1934) и др.

³ «Описание Кореи». В 3-х томах. СПб.: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1900. В Японии издан в переводе на японский язык в 1905 г. Этот труд был переведен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Академией корееведения (Соннам,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издан в Сеуле в 1984 г. в сокращенном виде под названием «Хангук чи» (韓國誌, «Описание Кореи»).

⁴ Ким Тхэджун. Кэхваги кунджон кончхукка Сабаччин-е кванхан ёнгу (Исследование о Сабатине – дворцовом архитекторе периода «открытия» Кореи) // Тэхан кончхук хакхве хап нонмунджи (Объединенный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Научного общества архитектуры периода Империи). Т. 12. № 7. (июль 1996 г.).

корейцам, из-за чего он не передавал им свои навыки и знания», и поэтому «трудно считать, что Сабатин оказал определенное влияние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архитектуры. Его строитель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Корее осталась лишь единичным случаем» (с. 119).

Но, несмотря на противоречивые точки зрения ученых, Сабатин имеет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признание. В буклете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нчхона⁵ он назван «первым в истории официальным архитектором, работавшим в Инчхоне», составителем первого Генерального плана застройки города.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н назван «русским инженером, архитектором, торговцем и искателем приключений», создавшим первый в Корее парк для отдыха западного типа (ныне *Чаю парк*) в Инчхоне⁶.

В рус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о Сабатине до сих пор упоминали почт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связи с гибелью королевы Мин. Осенью 1895 г. он служил во дворце Кёнбоккун сторожем и был очевидцем («благородным свидетелем») убийства государыни. Сохранилось его показание об этом событии, которое в 1995 г. было переведено на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и опубликовано в Интернете. Сегодня оно известно историкам всего мира⁷. Правда, Афанасий Сабатин там назван ошибочно Алексеем. Показания Сабатина цитируются в ряде русск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работ, но никаких биографических данных о Середине в них не приводится⁸. Исключение составляет только статья (1998 г.) московского япониста-литературоведа Ким Рехо⁹. Основываясь на документах Российск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в Сеуле и на воспоминаниях первого директора школы французского языка в Сеуле Эмиля Мартеля (в изложении на японском языке)¹⁰, он кратко сообщил, что Сабатин родился на Украине, окончил мореходное училище, имел диплом штурмана, прожил в Корее 23 года и спроектировал за это время здания русского и французского консульств.

Архитектором же имя Сабатина долгие годы было абсолютно неизвестным. После падения СССР тема русского архитек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за рубежом, которая ранее была «закрытой», стала актуальной. За последние 15 лет в этой области были открыты десятки новых или забытых имен, написаны серьезные труды. Самым изученным регионом оказался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й Китай (Маньчжурия), где первые русские инженеры и архитекторы появились в 1898 г. Там на рубеже XIX-XX вв. ими была создана уникальная по обширности архитектурная среда вдоль ими же проложенной Китайско-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Она включала города Харбин, Дальний, Порт-Артур, Маньчжурия и десятки

⁵ Киндэ мунхва кёрю-ый хёнджан Чемульпхо куракпу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клуб в Чемульпхо – место обмена культур в Новое время). Буклет музея. Сост. местным отделением Институт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нчхон, без даты.

⁶ http://www.korea.net/news/news/newsView.asp?serial_no=20090204007

⁷ Testimony of the Russian citizen Seredin-Sabatin, in the service of the Korean court, who was on duty the night of September 26, 1895. Published in the Internet by Gary Ledyard, Center for Korean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From the archives of the Foreign Ministry, Russian Federation, <fond> Yaponskiy stol, <opis> 487, <delo> 6, <list> 73-75. <http://koreaweb.ws/ks/ksr/queenmin.txt>

⁸ См., напр., Лак Б.Д.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 1979. С. 118, 263. 2-е издание, 2004. С. 224; Симбирцева Т.М. Убийство во дворце Кёнбоккун // Восточная коллекция. 2004, № 4. С. 127–142.

⁹ Ким Рехо. Гибель королевы Мин. Новая версия // Корея.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К 8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роф. М.Н. Пака. М.: МЦК МГУ, 1998. С. 123–136.

¹⁰ Косака Садао. Гайкокудзин-го мита Тёсэн гайко хиси (Неофициальная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глазами иностранцев). Кэйдзё (Сеул), 1934.

поселков¹¹. Соседняя Корея оказалась вне интереса российских историков архитектуры. Априори считалось, что там искать нечего.

Первым в России сообщением, разрушившим это представление, стала небольшая статья о Сабатине¹², опубликованная в Хабаровске в 2000 г. московским искусствоведом А.Ф. Крашенинниковым¹³ – тем самым, на сведения которого ссылался Ким Чондон. Этот человек является признанным знатоком истории русской архитектуры. Собранный им за многие десятилетия работы картотека включает сведения о примерно 50 тысячах русских зодчих – с XI века и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Мы спросили у него, почему он опубликовал свою первую статью о нем спустя более 10 лет с тех пор, как впервые узнал о Сабатине от Ким Чондона и предпринял поиски сведений о нем в Архив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Причина, как оказалось, заключалась в отсутствии у него каких-либо достоверных сведений об архитектурных работах Сабатина (чертежей, изображений). Обескураживало и содержавшееся в документах указание на то, что Сабатин был самоучкой. Интерес экспертов в Корее подтолкнул А.Ф. Крашениникова написать о нем статью. Хотя приведенные им сведения были краткими и фрагментарными, именно он открыл профессионалам в России имя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судя по всему, был самым первым русским зодчим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Азии.

3). Биография А.И. Середина-Сабатина по семейным архивам

Одним из источников для написания данной статьи явились до сих пор никому не известные семейные архивы потомков Сабатина. Идею разыскать их подал мне известный историк С.В. Волков, чья картотека русских гражданских и во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конца XIX-начала XX вв. насчитывает свыше 100 тысяч имен. От него я узнала, что фамилия «Середин-Сабатин» не только дворянская, но и редчайшая. В России только одна семья носит эту фамилию,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любой ее член является родственником «сеульского строителя» по мужской линии. Я обратилась к Интернету и обнаружила в нем двух людей с такой фамилией: Один (П.П. Середин-Сабатин) был указан как автор статьи в журнале «Станки. Инструмент», другая (Н.П. Середина-Сабатина) – как хозяйка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в г. Кургане. Тут же значился телефон предприятия, и я по нему позвонила. «Да, сеульский строитель – это мой прадед, – ответила Наталья Петровна, как только я сообщила ей о цели своего звонка. – Только мы не СабАтины, а СабатинЫ. Ударение на последний слог». Потом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П.П. Середин-Сабатин – ее отец. Зовут Петр Петрович, 1928 г.р., ветеран курганского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завода, долгое время работал там начальником лаборатории инструментальных сталей. Я попыталась общаться с ним по телефону, но Петр Петрович был нездоров (в начале года перенес инсульт) и не был расположен к воспоминаниям. И тогда, желая мне помочь, Наталья Петровна пригласила меня приехать в Курган 12

¹¹ *Левашко С. С.* Русская архитектура в Маньчжурии. Конец XIX – 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XX вв. Хабаровск: Частная коллекция, 2003.

¹² *Крашенинников А.Ф.* Русский архитектор-самоучка в Корее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архитектурн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Третьи чтения памяти проф. Даниловского / Хабаровский гос. техн. Ун-т. Хабаровск, 2000. С. 81-83. Содержание этой статьи с небольшими изменениями было включено в книгу: *А.Ф. Крашенинников.* Раскопки в пропасти забвения. Воспоминания о XX веке. Москва: Совпадение, 2008. С. 255-258.

¹³ Является сотрудни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нау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Музея архитектуры им. А. В. Щусева (Москва).

июля, на день св. Петра и Павла. Это день ангела ее отца, а дни ангела в семьях русских верующих до сих пор отмечают как второй день рождения. И я поехала в Курган.

Три дня я провела на даче у Серединых-Сабатиных. Мы много говорили с Петром Петровичем о его жизни и семье, но об Афанасии Ивановиче узнать мне почти ничего не удалось. Петр-внук почти ничего не помнил о своем деде, поскольку тот умер рано и он его никогда не видел, а также потому, что еще в далекой молодости навсегда расстался с родителями.

Петр-внук родился 23 октября 1928 г. в Китае, в Ханькоу, где отец его (Петр-сын) служил тогда уже шестнадцатый год в русской чайной фирме «С.В.Литвинов и Ко». Он был единственным сыном и последним ребенком в семье. У него были три старшие сестры: Вера (1915-2004), Ольга (1919-1949) и Наталия (1924-). С закрытием фирмы в 1930 г. семья переехала на Ляодун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Сначала жили на хуторе, который находился на полдороге между Дальним и Порт-Артуром. Здесь у них был огромный сад, в котором было 900 яблонь и 2400 виноградных лоз. Петр Афанасьевич был страстным садоводом, и слава о его рекордных урожаях гремела по всему Ляодунскому полуострову. В конце 1930-х годов переехали в Дальний (город, построенный русскими в 1898-1904 гг.), где у них был собственный дом. В 1941-1945 гг. Петр-внук жил в основном в г. Тяньцзине, где учился в Колледже Святого Луи. Хотя колледж и был при французском католическом монастыре, но преподавали в нем по-английски. На этом языке Петр Петрович и сегодня говорит блестяще, как впрочем и по-китайски.

Ему было 17, когда он закончил колледж и вернулся в Дальний. Через два месяца сюда пришла Советская армия, и юноша восторженно ее приветствовал. Сразу пошел работать армейским переводчиком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а, потом поступил на работу на Дальненский завод грузоподъемных машин, в химическую лабораторию. К химии он чувствовал интерес с детства, и тут почувствовал, что нашел свое призвание. Продолжал он там работать и после 1952 г., когда завод был передан КНР. «Весь Китай тогда был «красным», – вспоминает Петр Петрович. – Был «красным» и я. Русская колония должна была покинуть Китай, и для меня даже вопроса не было: куда ехать. Конечно только в СССР».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он получил в 1948 г. через Генконсульство СССР в Дальнем. Совсем иначе думала его мать, глубоко верующая женщина. Она наотрез отказалась ехать «к безбожникам». В 1953 г. родители с Натальей уехали в США. «Писем от них не имею и от всякой переписки с ними отказался», – это фраза из сохранившейся автобиографии, которая была написана Петром Петровичем в 1954 г. для советского генконсульства накануне его отъезда в СССР. После 1953 г. родителей Пётр больше никогда не видел. Отец скончался в Калифорнии в 1964 г., в 1980 г. ушла из жизни мать. В 1989 году,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горбачевской оттепелью» в совет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в Курган приехала из Америки сестра Наталья Петровна. Они встретились после 36 лет разлуки. Надо ли говорить, что это была за встреча. Глав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моей поездки в Курган был телефон Натальи Петровны в Америке. Петр Петрович согласился дать его мне только при личной встрече. Именно Наталья Петровна, по второму мужу Роджер (Roger, 1924 г.р.), и ее сын Джордж Дориан, живущие в Калифорнии, любезно предоставили мне уникальные материалы: фотографии Афанасия Сабатина и его жены, а также написанную в апреле 1950 г. в г. Дальнем (Китай) автобиографию их сына Петра (1885-1964), где он рассказывал об истории своей семьи, в том числе и о родителях.



Фотопортрет Афанасия Ивановича Середина-Сабатина (1890-е годы) из архива его внучки Натальи Петровны Роджер. Публикуется впервые с ее любезного согласия.

А) Происхождение

Из «Биографии Петра Афанасьевича Середина-Сабатина».

«Дед [Иван Васильевич Середин-Сабатин]*, отец отца моего, происходил из дворянского рода (разорившийся помещик Полтавской губернии), проживал в г. Лубны, где у него было недвижимое имущество. От кого-то слышал, что будто бы у нас был какой-то даже герб в виде щита с девятью пиками или стрелами. Первая жена его, т.е. мать моего отца, Афанасия Ивановича, была простой украинской женщиной, родом из запорожских казаков.

Мать моя [Лидия Христиановна], была обрусевшей немкой по фамилии Шалич (вероятно из рода онемеченных поляков, т.к. фамилия эта не немецкая). Хотя польского я в ней ничего не замечал, а, наоборот, много немецкого и была она до 7-ми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лютеранкой, когда её перевели в православие; перед смертью своей в Шанхае, 69 лет [в 1936 г.], перешла в католичество.

Следовательно, во мне должно быть три разных крови, – украинская, немецкая и польская. Считаю же я себя украинцем по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т.к. Украина была родина моего отца и, как я помню, в нем доминировало все украинское: видом, говором и чертами своего характера он был типичным вылитым казаком».

* В биографии Петра Афанасьевича Сабатина в квадратных скобках приведены дополнения, которые внесла в текст уже после смерти отца его дочь Вера.



Фотопортрет Лидии Христиановны, супруги Середина-Сабатина. Из семейного архива Н. П. Роджер.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1890-е годы.

Судя по всему, вопрос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своего рода очень интересовал Петра Афанасьевича. В конце документа он сделал приписку, датированную 26 апреля 1950 г., где говорится:

«Прочел снова последнее письмо от сестры Лилии из Чехословакии от 1/11/41. Должен добавить, что у нас помимо украинской, немецкой и польской (о последней сомневаюсь, в конце концов, есть ли вообще) крови, есть еще великорусская и швейцарская, как она пишет, о чем я забыл. Да если в этом вопросе покопаться, то еще, пожалуй, можно найти и кое-что венгерского у нас, так как такая фамилия там существует. А закончить если нашу вторую фамилия на «-и» (Сабатини), и из нас получатся итальянцы!».

Предположения П.А. Сабатина об итальянских корнях семьи, думается, не лишены основания. В 32 км к северо-западу от Рима находится потухший вулкан Сабатини (*Monti Sabatini*). В его кратере располагается крупное озеро Lago di Bracciano, которое в древности называлось Сабатинским (лат. *Lacus Sabatinus*). В Европе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имя английского писателя итальян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Рафаэля Сабатини (1875-1950). Иностранным происхождением семьи и объясняется то, почему в России эта фамилия не встречается. Скорее всего, один из предков рода был приглашен на работу в нашу страну из-за границы. Эта практика началась в царствование Алексея Михайловича (1645-1676) и приобрела широкие масштабы, начиная с его сына Петра I (1689-1725).

Заслуживает внимания и упоминание о «швейцарской крови» семьи Сабатиных. На памятной доске, установленной недавно перед Воротами независимости в Сеуле, автором проекта указан некий безымянный «швейцарец, сотрудник немец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В середине 1990-х годов здесь значилось имя Середина-Сабатина. Причину разночтений объясняет Интернет, где указано: «В биографии Со Джэпхилиа написано, что проект составил швейцарец, техник из немец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а в «Истории

Кёнсона» – что русский Сабатин»¹⁴. По мнению автора, упомянутый Со Джэпхилем безымянный швейцарец и Сабатин – одно и то же лицо. Думается, что, Сабатин, строя Ворота Независимости, не раз упоминал в разговорах с корейцами о своих швейцарских корнях и не афишировал свое русское подданство, тем более что отношения его с русск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миссией в этот период были весьма натянутым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у Со Джэпхила могло сложиться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Сабатине как о швейцарце.



Фотопортрет Петра Афанасьевича, сына Середина-Сабатина. Сделан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период его службы на флоте (конец 1916 г. - 1918 г.). Из семейного архива Н. П. Роджер.

Б) Образование

Вопрос об образовании Сабатин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вязан с официальным признанием оставленного им наследия, и специалисты, например, А.Ф. Крашенинников и Ким Тхэджун, придают ему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 Корее считается, что он окончил «инженерное отделение пехотного кадетского корпуса»¹⁵.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необходимым подробно рассмотреть, на чем основано это мнение и насколько оно достоверно.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известно только одно документально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б образовании Сабатина. Это его переписка с русск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миссией в Сеуле в связи с прошением, которое он подал туда в сентябре 1895 г. с просьбой рекомендовать его учителем в открывающуюся школу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з миссии ответили отказом: «Рекомендовать Вас неудобно... Требуется лицо, окончившее по меньшей мере полный гимназический курс». В ответ на Сабатин написал: «Я имею

¹⁴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p?pk=12655800&p=%B5%B6%B8%B3%B9%AE&field=id&type=enc&subtype=enc>

¹⁵ Ким Тхэджун. Указ. соч. С. 110.

свидетельство из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дающее мне право 2-го разряда»¹⁶. «Право 2-го разряда» – понятие, явно, специальное. Что оно означает, поначалу не было ясно. А.Ф. Крашенинников предположил, что это означает «специальное среднее образование» и сделал вывод, что Сабатин учился в кадетском корпусе, где, кроме прочих, как он считал, изучался и предмет «фортификация». На этом основании корейские авторы также указали в сво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что он закончил кадетский корпус, инженерное отделение. Однако кадетские корпуса не готовили специалистов. Это были семилетние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готовившие учащихся к дальнейшему поступлению в военные училища, где они и получали специальность. Их особенность состояла в том, что в них з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чет обучались, вместе проживали и привыкали к военной дисциплине мальчики в возрасте от 9 до 16 лет, в основном дети офицеров¹⁷.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что Сабатин, который сыном офицера не был, кадетский корпус не кончал. Не было у него и возможности учиться в одном месте в течение семи лет. В своей автобиографии Петр Сабатин сообщает:

«Когда отцу было 14 лет, видя как его скверно третировала мачеха, взял его дядя и отправил в Николаевское морское училище, которое отец мой и окончил, став штурманом дальнего плавания. Штурманом дальнего плавания он попал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где в 24 года бросил море и прожил большую часть своей жизни в Корее, Китае и Приморье».

И дальше:

«Отец мой был... самоучкой, т.к. первоначально у него, вероятно, не было даже полного средн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ажется, он окончил только мореходные классы; был год в Петербургской академии художеств...».

Петр называет два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 где его отец мог получить диплом штурмана: Николаевское морское училище или мореходные классы. Но и это сообщение не проливает достаточно света на образование Середина. Поскольку Святой Николай считается покровителем русского флота, многие военно-морск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в царской России носили его имя. Самое известное – Николаевская морская академи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Было также Николаевское штурманское училище, которое называлось так, потому что находилось в городе Николаевске-на-Амуре. Могли так называть в народе и какое-то училище в г. Николаеве на Украине, которые более столетия являлся центром русского Чер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Автор считает, что Сабатин никакого морского училища не кончал. Основанием служат сведения о Николае Н. Бирюкове (1861-1916), которого приняли 13 ноября 1895 г. на место первого учителя школ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Сеуле, которого добивался Сабатин, но получил отказ. Как установ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историк Пак Чонхё, Бирюков был выпускником кавалерийского училища¹⁸.

¹⁶ АВПРИ. Фонд 191 (Миссия в Сеуле. 1881-1917), опись 768, дело 22, листы 27, 29.

¹⁷ Гурковский В.А. Кадетские корпуса в России (XVIII — начало XX вв.) // Журнал «Образование и общество». 2002 №1,2. <http://www.ruscadet.ru/history/comm/01.htm>; Гуторович Г. Что такое Кадетский корпус // Журнал «Кадетская переписка». 1975, № 14. - http://xxl3.ru/kadeti/gutorovich_kk.htm

¹⁸ Пак Чонхё. Ку Ханмаль чхвечхо-ый Росиа-о хаккё-ва кёса Бирюкхопхы-ый кёюк мит кунса хвальтон ёнгу (Первая школ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Корее конца 19 в.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и вое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еподавателя Бирюкова) // Хангук кын-хёндэса ёнгу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новой и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Кореи). 2008, № 10.

Если бы Сабатин тоже был выпускником военного училища, вряд ли ему было бы отказано в прошении на основе «недостаточ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стаются мореходные классы, которые были по разряду несколько ниже морских училищ. Видимо, именно их и окончил Афанасий Сабатин. Годы его детства и юности были эпохой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одъема в России, наступившей после отмены крепостного права в 1861 г. Возникла острая потребность в грамотных кадрах, и для ее удовлетворения было открыто множество специальных средн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приспособленных к практическим потребностям¹⁹. Морские классы были впервые созданы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свещения в 1867 г. для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торговому судоходству. По объему преподавания они разделялись на 3 разряда. 1-й (низший) готовил к экзаменам на звание штурмана каботажного плавания, 2-й – на звание шкипера каботажного плавания и штурмана дальнего плавания, 3-й (высший) на звание шкипера дальнего плавания²⁰. Это объясняет, что имел в виду Сабатин, когда писал, что имеет «диплом 2-го разряда». Обучение в мореходных классах было бесплатное, и это очень подходило Афанасию, сыну разорившегося помещика.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предъявить удостоверение личности и два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б умении читать и писать и о плавании на торговых судах.

Внук «сеульского строителя» Петр Петрович помнит семейную легенду о том, что отец его, возможно, не уехал в 14 лет жить к дяде в Петербург, а бежал из дома и попал юнгой на флот. Там ему встретился какой-то офицер, который позаботился о его образовании. Эти сведения, оставшиеся у него в памяти с детства, возможно, имеют основание, если учесть, что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в мореходные классы нужно было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плавании на торговых судах. Видимо, у молодого Афанасия такой опыт был. Предметов, имеющих отношение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в мореходных классах не преподавали, но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приобретенной там специальности, как указывает его сын, он попал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он устроился штурманом в пароходную компанию «Добровольный флот». Она открылась в столице в 1878 г., то есть проводила набор сотрудников именно в годы учебы Сабатина. В начале 1880 г. она открыла регулярное товаро-пассажирское сообщение из Одессы с русскими портами на Тихом океане, куда пароходы шли с заходом в Порт-Саид, Коломбо, Сингапур, Нагасаки, Шанхай, Ханькоу.²¹ Работая на них, Афанасий имел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архитектурой разны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стран и городов.

Остается вопрос о том, где именно находились мореходные классы, где учился Афанасий Сабатин. Потомки уверены, что они находились в столиц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И это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ибо первые мореходные классы в этом городе были учреждены при императорском яхт-клубе в 1874 г.²², именно в

¹⁹ Дерюжинский В. Ф. Специаль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в царской России) // Полицейское право. Пособие для студентов. СПб. 1903. <http://www.allpravo.ru/library/doc76p0/instrum3732/item3916.html>

²⁰ Сайт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http://www.imha.ru/knowledge_base/base-12/1144524190-morekhodnye-klassy-uchilishha.html

²¹ Селютина Г. Как создавался Добровольный флот // Вечерняя Одесса. 4 ноября 2008 г. <http://vo.od.ua/article/9375>

²² Журнал «Яхта». СПб. 1908, № 54 // http://sea-wolfs.ru/01/1_1.html

тот год, когда Афанасий покинул родной дом. О том, что он мог жить и учиться в столице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фраза его сына: «был год в Петербургской Академии художеств».

Эта Академия с 1757 г. была высшим учебным заведением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в области изобразительных искусств. С 1859 г. в ней существовали два отделения: одно по живописи и скульптуре, другое по архитектуре, где главный упор делался на подготовку архитекторов-художников.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в Академию требовалась определенная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подготовка, чего у Афанасия не было, а значит, регулярным слушателем Академии он быть не мог. Однако известно, что в 1870-х годах при Академии имелись бесплатные вечерние курсы рисования для народа²³, и Афанасий мог их посещать. Очевидно, что большую роль в его жизни имело самообразование, наблюдательность, жизненный опыт моряка, лич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и осознание себя «человеком мира», чему в немалой степени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е корни его рода.

Профессия «архитектор» появилась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В России – в эпоху Петра I (в начале XVIII в.), а в Японии – только в 1947 г.²⁴ А вот «зодчие», то есть люди, занимавшиеся планировкой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искусственным созданием материальной среды, были во всех странах испокон веков. Множество старинных культурных памятников создано усилиями людей, не имевших официального диплома. Они учились у старших мастеров и строили, руководствуясь опытом, исходя из реальных условий, потребностей, вкусов заказчика и представлений о красоте. Сабатин был одним из таких людей. Он был первым европейским архитектором в Корее, которой еще только предстояло создать сво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потребностях Новой эпохи и соответствовавшей им архитектуре. Ценность его творчеств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е в качестве произведений, а в факте самого их появления внутри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й традиции.

4). Архитектур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наследия А.И. Середина-Сабатина

Для построек европейских зодчих в странах Азии характерен стиль,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название «колониальный». Принята следующая его периодизация: «раннеколониальный» период, 1873-1890-е; «классический» колониальный, 1900-1910-е; «экзотический» колониальный, 1920-1940-е гг.²⁵ В самый начальный период колонизации, когда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е условия были ограничены, строили в основном общественные здания: казармы, госпитали, дома для офицеров, школы, вокзалы, пристани. Они были 1-2-этажными, отличались простотой плана (как правило, прямоугольного) и обязательным устройством по периметру галерей с колоннами. Фасадный декор отличался аскетизмом, его детали, как правило, выбирали из арсенала классицизма (ордерные пилястры и колонны, профилированные карнизы, треугольные фронтоны и т.д.).

²³ Сайт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художеств http://www.rah.ru/content/ru/main_menu_ru/section-academy_history/section-chronicle.html?showContentPart=6

²⁴ «Российская архитектура», 4 марта 2005 г.

http://www.archi.ru/events/news/news_current_press.html?nid=1296&fl=1&sl=1

²⁵ Хо Хай Нам. Черты европейского влияния в архитектуре и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е Вьетнама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ериода (на примере г. Хюэ).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архитектур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07. С. 54, 75-76.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к «раннеколонияльному» стилю относятся в полной мере только постройки начального, «первого Инчхонского (1883-1888)»²⁶ периода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Корее: причалы, главное здание морской таможни, офис компании «Сечхан янхэн». Уже в «первый Хансонский период (1888-1892)» Сабатин преодолел характерный для этого стиля аскетизм. Примером того является здание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построенное им в 1890-1891 гг. и ставшее первым зданием европейского типа в 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е.

Русские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что его проект был составлен к началу июля 1890 г.²⁷ Русская миссия открылась в Хансоне (Сеуле) в октябре 1885 г. 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располагалась в неудобном временном помещении. В 1886-1887 гг. дл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стоянного здания был приглашен японский архитектор Тёго, который составил проект, 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ыло отложено из-за нехватки финансов. В начале апреля 1890 г. временный поверенный в делах К.И. Вебер вновь обратился с этим вопросом в МИД. Он, в частности, писал:

«Я имею честь препроводить вновь составленную смету молодого русского господина Середина-Сабатина, построившего для короля в дворцовом городе в Сеуле красивый двухэтажный дом»²⁸. Я вполне уверен, что он исполнит работу добросовестнее вызванного мною из Токио японца. Кроме того, весьма приятно будет, если миссия будет строиться русским. План главного здания тот же, как и прежде. Планы же других построек переделаны и упрощены без особого ущерба для их назначения. Устройство домов далеко не отличается изяществом, хотя и буде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умер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Единственный расход – мраморные каминные в парадных комнатах и паркетные полы. Общая стоимость 51,442 рубля»²⁹.

Но и эту сумму МИД счел завышенной. В конце концов, был принят проект Сабатина стоимостью в 32,500 долларов. Несмотря на ограничен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ему удалось построить особняк представительского класса, впечатлявший своими размерами и необычным видом и далеко видный окрест. Вот что писал о нем русский дипломат Сергей Чиркин, служивший в Корее в 1911-1914 гг. и работавший в этом здании:

«Наше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было прекрасно расположено на большом пологом холме, на вершине которого стояло главное здание, построенное в стиле итальянской виллы. Одноэтажный дом очень красив с анфиладой громадных высоких комнат и четырехгранной башней на правой стороне... На площадке перед зданием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и по

²⁶ Периодизация приводится по вышеуказанному труду Ким Тхэджона.

²⁷ АВПРИ. Ф. 191 (Миссия в Сеуле), опись 768, дело 15, листы 75-77.

²⁸ Видимо, имеется в виду Кванмунгак.

²⁹ АВПРИ. Там же. Листы 66-67.

склонам холма, спускающегося к бывшей Legation Street (ныне Тендоро), разбит великолепный парк вековых деревьев разнообразных пород...»³⁰.



Фрагмент фасада русск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миссии в Сеуле. Ок. 1923 г. Фото из семейного альбома, публикуется с любезного согласия владельца – К.С. Чиркина (Хэйворд, Калифорния).

Авторам удалось разыскать не известное ранее фото этого здания, снятое с ближнего расстояния в начале 1920-х годов. Судя по нему, по его

периметру шли арочные галереи, пилоны (четырёхгранные колонны) аркад были декорированы нишами, арки — архивольтами (итал. *archivolto*, т.е. обрамляющие дуги) с замковыми камнями (пирамидальными элементами кладки в вершине арки). Вход размещался по оси симметрии здания. Эту ось акцентировал треугольный фронтон и сдвоенные пилоны, изящно соединенные небольшой декоративной аркой. Между пилонами и по верху шла балюстрада с тумбами и вазонами на них. Вазоны были украшены мордами львов — маскаронами. Здание было выполнено из мало применявшегося до того времени в Корее кирпича и гладко оштукатурено. Конструктивная схема здания (продольно-поперечные несущие стены), принципиально отличалась от тех, что были приняты в корейск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Одноэтажный объем контрастировал с высокой четырехгранной трехэтажной башней, которая одна и сохранилась до наших дней. Согласно европейской практике, архитектура мисс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была решена в формах класс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Можно определить этот стиль как **историзм в формах ренессанса**.

Авторы подробно о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на особенностях здания русской миссии, поскольку в ней ван Коджон жил в течение года (12 февраля 1896 г. – 20 февраля 1897 г.), и оно, несомненно, стало главным источником его представлений о европейской архитектуре, которые в дальнейшем нашли отражение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королев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Чунмёнджон.

К зрелому этапу творчества Сабатина относится «второй Хансонский (1896-1900) период». Он отмечен,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роектом Ворот Независимости (*Тонниммун*), которые стали первым сооружением **смешанного европе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стил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ровня. Они были возведены в 1896-1897 гг. в столице и символизировали окончание многовековой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итая и свободолюбивые устремления Кореи. Хотя в стране с давних пор существовала традиция сооружать мемориальные ворота в честь выдающихся людей (например, почтительных детей и преданных жен),

³⁰ Чиркин С.В. Двадцать лет службы на Востоке. Записки царского дипломата. Москва: Русский путь, 2006. С. 204.

они обычно возводились из дерева, в виде небольшого павильона под черепичной крышей. Ворота Тонниммун не имели с ними ничего общего. Хотя они называются «ворота», это была именно арка, сооруженная из гранитных блоков. Традиция увековечивать особо важ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победы подобными арками возникла в Европе еще в древнем Риме. Тонниммун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ли об уже имевшихся в то время в Корее представлениях о Европе и ее культуре, а также о стремлении следовать новым образцам в отличие от прошлых времен, когда образцы были китайские.

В XIX в.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рок опять стало модным в Европе. Начало моде положила Триумфальная арка в Париже, построенная в 1806-1836 гг. и остающаяся по сей день самой грандиозной (высота 49,51 м, ширина 44,82 м). Примерно в те же годы подобная арка была сооружена в Петербурге. В начале 1890-х гг. триумфальные арки появились в русск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ородах (Хабаровске, Владивостоке, Никольско-Уссурийске, Благовещенске)³¹. Но русские арки имеют мало общего с той, что построил в Хансоне (Сеуле) Сабатин. Тип Ворота Независимости явно навеян аркой в Париже, и так же, как она, для своей страны они были грандиозны. Эта стройная и в то же время монументальная постройка в формах **неороманской архитектуры** минимально декорирована, в отличие от прототипа, в чем видится влияние канонов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архитектуры.

Этот период был отмечен также проектированием пяти уникальных зданий европейско-азиатского тип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ворц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Кёнунгун (с 1907 г. Токсугун). Поскольку до этого до этого европейские зд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ворцов никогда не строились, они определили своеобразие Кёнунгуна как первого императорского дворца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Его архитектура, соединившая традиционное и западное, стала символом новой, обновляющейся и постепенно входившей в мир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Кореи в короткий, но очень значимый период Великой Корейской Империи (*Тэхан чегук*), когда императором был Коджон (1897-1907). Постройки Сабатина в Кёнгунгуне создали прецедент, с которого началось признание европейской архитектуры корейцам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из них сохранился полностью только павильон *Чонгванхон* (靜觀軒, «Павильон умиротворённого созерцания»). Сооружение примечательно тем, что в нем зодчий сосредоточился на поисках новых форм, в которых бы сочетались местн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традиции с европейскими,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ями современности. При этом акцентированы корейские традиции. Развитие подобного опыта в Индокитае привело к оформлению к 1920-м годам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индокитайского» стиля, который ставил целью сохранять традиционные ценности в период стремите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современных форм. Родоначальниками его считаются французские зодчие Ernest Hebrard и Arthur Kruse. Однако, как показывают постройки Сабатина, попытки создания такого синтетического стиля предпринимались с конца XIX в. и в Корее.

Еще одно спроектированное Сабатиным для дворца Кёнунгун здание – Чунмёнджон –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В условиях отсутствия авторского проекта и ранних фотографий это

³¹ Леошико С. С. Православные храмы и триумфальные арки в русском стил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 рубеже XIX – XX вв. // Духовная жизнь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Хабаровск: Частная коллекция, 2000.

очень сложное дело. Для подобных памятников, где социально-историческая, мемориальная ценность является доминирующей, непреложным требованием является подлинность его облика, внутренней планировки, материалов.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опыт, главную роль тут играют тщательные натурные обследова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Они могут с большой долей достоверности раскрыть первоначальную структуру здания, понять по характеру кладк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кирпича некоторые конструктивные узлы и детали, и даже характер декора.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аркады обходных галерей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ым моментом в приближении сооружения к первоначальному внешнему виду, поскольку именно они являлись главной объемно-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построек Сабатина. Этому будет также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навеса над сильно выступающим высоким крыльцом, горизонтальных деталей фасада (межэтажной тяги, поребрика карниза), местоположения и конфигурации проемов (коробовые арк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декора, рам и дверей, первоначальной колористики.

Считается, что «новодел» не может являться историческим памятником. Историческая подлинность, если она утрачена, – не восстанавливаемое базовое качество. Тем не менее, жизнь сложнее самой «правильной» теории, и история реставрации знает много примеров, когда разрушенные сооружени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значимые для 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народа, воссоздавались буквально из «пепла». Это, например, дворцы Петергофа, Пушкина и Павловска под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ом в России или средневеков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центры Варшавы и Гданьска в Польше, разрушенные в ход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Чунмёнджон – именно такой случай.

Последний период (1901-1904) деятельности Сабатина в Корее ознаменовал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клуба в Инчхоне и отеля «Зонтаг» в Сеуле (1901). Это были не сугубо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постройки 1883-1888 гг. и не уникальные парадные резиденции 1896-1900 гг. в Сеуле. Они впервые предложили массовому клиенту невиданную в стране до того времени «западную роскошь». Судя по описаниям, в 1902-1910 гг.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клуб имел неизвестные до того в Корее теннисный корт, место для игры в пинг-понг и общественную библиотеку. Сохранились видовые открытки начала XX века с панорамным изображением отеля «Зонтаг» и надписью: «единственный первоклассный отель в иностранном стиле в пределах города».

В журнале «Современный мир» (С.-Петербург) за октябрь 1910 г. сохранились сведения, которые приводил некто, подписавшийся псевдонимом «Старый сотрудник»:

«В конце 9-го часа вечера поезд наш прибыл в Сеул при проливном дожде, и я, простившись «до завтра» со своими товарищами по путешествию, через полчас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ылезал из закупоренной наглухо рикши у подъезда ярко освещенного электричеством отеля «Зонтаг» - единственного и пользующегося отличной репутацией европейского отеля в корейской столице». Сеул, 1910-IX³².

Сын Пётр писал: «Отец мой... был хорошим архитектором. До сего момента можно еще встретить разбросанными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дома его постройки, как например, теперешнее генеральное

³² *Старый сотрудник*. Письма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поводу аннексии Кореи // Современный мир, 1910, № 11. С. 48.

советское консульство в Сеуле, дачи в Пэй-Та-Хо* и др.».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абатин работал не только в Корее, но и в Китае, и его проектная практика был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лодотворной.

5)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А.И. Середина-Сабатина

«Отец был человеком очень беспечным и ни о чем особенно не беспокоился и ничего в жизни, в конце концов, не достиг,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свои незауряд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и не раз представлявшие в его «пионерской» жизни на первобытн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зможности обеспечить себя на старость».

Такими словами завершил воспоминания о своем отце сын «сеульского строителя» Петр Сабатин.

В Корее прошли лучшие годы Афанасия Сабатина. Здесь он имел работу и признание, здесь родились его дети, причем старший сын Пётр был первый европейцем, родившимся в этой стране (12 апреля 1885 г.)³³.

О родителях, какими они были в эти годы, Пётр вспоминает та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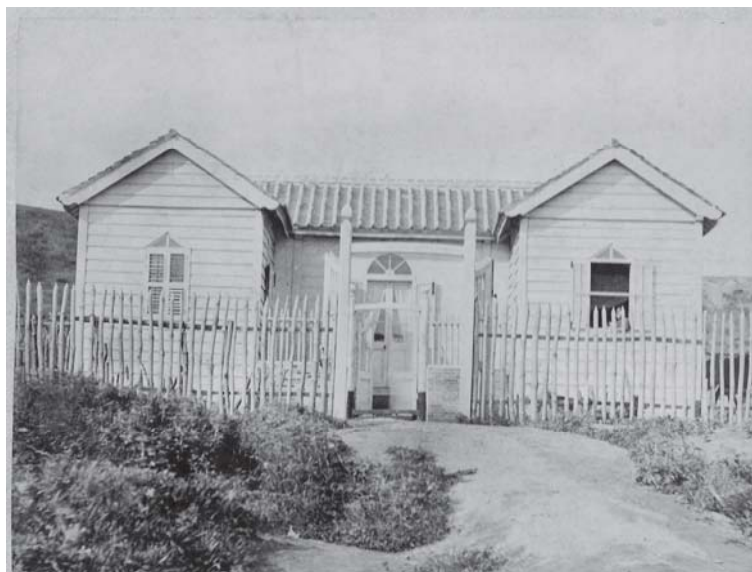
«Отец был всесторонне развитым человеком – уж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ыучил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настолько, что писал даже в английских газетах... Он любил охоту (всегда ходил с 10-го калибра двустволкой) и спорт, – прекрасно плавал (спасал несколько раз тонущих), играл очень хорошо в теннис, был неутомимым ходяком.

У матери было очень хорошее контральто, она часто выступала на любительских концертах, тоже хорошо плавала и ходила, несмотря на свой небольшой рост. Мама была энергичной женщиной и хорошей матерью, всегда о чем-то хлопотала, и всему тому, хотя и незаконченному образованию нашему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из-за скитальческой жизни нашей семьи), мы обязаны только ей».

Русско-японская война заставила семью покинуть Корею. Сабатиных, как и других русских, вывезли из Инчхона в Шанхай на французском крейсере, а откуда морским путем, через Порт-Саид эвакуировали в Одессу. Дочери Вере не было тогда и двух лет.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они жили на Украине у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о их очень тянуло назад. «Условия жизни и сами люди в Европейской России нам были чужды... Мы привыкли к жизн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где дышалось много легче...», – пишет Петр.

* Пэйтахо, кит. Бэйдайхэ – курортный город в г. Циньхуандао (провинция Хэбэй, Китай), который начал застраиваться современными дачами и виллами с 1894 г. и сегодня считается колыбелью китайск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и.

³³ Всего у Сабатиных было шестеро детей. Вторым был сын Павел (он скончался в раннем детстве от дизентерии и был похоронен в Чемульпо), затем дочери: Лидия (в семье ее звали Лилия), Людмила, Вера, Евгения.



Дом Серединых-Сабатиных в Чемульпхо, где 12 апреля 1885 г. появился на свет их старший сын Пётр – первый европеец, родившийся в Корее. Фото из семейного альбома Н. П. Роджер.

Вскоре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Портсмутского мира (5 сентября 1905 г.) Афанасию удалось получить какую-то должность, и в конце 1905 г. вся семья уехала в Нагасаки. А в 1907 г. он, по причине «какого-то нервного расстройства», бросил жену и детей и уехал сначал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потом – в европейскую Россию и умер в 1921 г. «то ли в Ростове-на-Дону, то ли в Царицыне-на-Волге». По рассказу внуки, Пётр ездил к нему незадолго до смерти, уговаривал вернуться, но ничего не добился. Это все, что удалось мне узнать о «сеульском строителе» у его потомков.

Судя по описи имущества, сохранившейся в Архиве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³⁴, в наследство от отца ему достались два охотничьих ружья, рисовальны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фотоаппарат, галстуки, альбом по архитектуре и собрание гравюр. Есть там и краткое описание глав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Серединых – дома в Чемульпхо, который им пришлось покинуть и компенсация за который была выплачена после войны Петру Сабатину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Перечислены: передняя, гостиная, столовая, кабинет, 5 спален, ванная и кухня. Но, судя по горькому замечанию Петра о том, что отец его «ничего в жизни, в конце концов, не достиг», полученная сумма значительной не была. Отъезд из Кореи был для семьи не только тяжелым душевным потрясением, но и финансовым крахом.

6) В заключение

В заключение расскажу об еще одной старинной фотографии из семейного альбома Н.П. Роджер. Это широко известное изображение вана Коджона и его сына – наследного принца Чхока (будущего императора Сунджона). На обороте есть надпись, сделанная рукой Петра-сына: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в 1893 году». Судя по всему, снимок этот был сделан Афанасием Сабатиным, который увлекался фотографией, и это – оригинал. Однако авторы склонны датировать его несколько раньше, 1888-1890 годами, когда Сабатин строил в королевском дворце Кёнбоккун ведомство Кванмунгак и имел, таким образом,

³⁴ АВПРИ. Фонд 305 (Вице-консульство в Чемульпхо), опись 767, дело 31, листы 7-8.

возможность часто встречаться с государем. Его потомки в один голос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когда-то в семье была еще одна подобная фотография. Ее хорошо помнят и внук, и внучка. Она была снята в том же месте и в то же время, только между Коджоном и наследным принцем на ней стоял маленький Пётр Сабатин. Думается, что это было вполне возможно. Коджон очень любил детей и нередко приглашал во дворец хорошо знакомых ему европейцев вместе с детьми. Об этом, в частности, оставила воспоминания американская миссионерка Лиллиас Хортон-Андервуд, чей сын родился в Корее в 1890 году³⁵.



Ван Коджон и наследный принц Чхок.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1893 г.». Из семейного альбома Н.П. Роджер, где, судя по всему, хранится оригинал этого широко известного изображения.

Фотография вана и принца с маленьким Петром была уничтожена в 1953 г. В то время семья готовилась эмигрировать из Дальнего в США, а китайские таможенные власти с большим подозрением относились к русским, уезжавшим в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е страны. Их багаж тщательно проверяли — особенно фотографии. Жена Петра-сына Мария Сергеевна разорвала снимок, так как опасалась, что это свидетельство знакомства ее мужа с монаршими особами помешает им уехать из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Китая. Что до А.И. Середина-Сабатина, то он, судя по всему, таким знакомством очень гордился и, «занимаясь частными работами по постройке, отпечатал себе бланки, на которых называл себя архитектором Его Величества короля Кореи». Запись об этом сохранилась в русских архивах³⁶.

³⁵ *Horton-Underwood, L.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Seoul, 1987.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Reprint Series). P. 116.*

³⁶ Записка К.И. Вебера от 18 (30) августа 1894 года. АВПРИ. Ф. 191 (Миссия в Сеуле. 1881-1917), опись 768, дело 22, лист 21-22.

Использова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Архивные материалы

Автобиография Петра Афанасьевича Середина-Сабатина, написанная в Дальнем (Китай) в апреле 1950 г. (рукопись)

Документы Архива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Фонды 191 (Миссия в Сеуле, 1881-1917) и 305 (Вице-консульство в Чемульпо, 1897-1915)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金晶東. 韓國近代建築에 있어서 西洋建築의 轉移와 그 影響에 관한 研究. 서울: 홍익대학교, 박문, 1990. *Ким Чондон*. Изучение проникновения западной архитектуры и его влияния на корейскую архитектуру нового времени. Докторская диссертация, рукопись. Сеул: Университет Хоник, 1990. С. 196-202.

金泰中. <開化期 宮廷建築家 사마전에 관한 研究 (雇傭經緯와 經歷 및 活動環境을 중심으로)> <<大韓建築學論文集>> 12卷7號, 通卷93號 1996年7月. *Ким Тхэджун*. Исследование о Сабатине – дворцовом архитекторе периода «открытия» Кореи // Объединенный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Научного общества архитектуры периода Империи. Т. 12. № 7. (июль 1996 г.). С. 107-119.

근대문화 교류의 현장 제물포구락부. 한국문화연구소 편. 박문관의 팜플렛. 인천: 출판년대 없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клуб в Чемульпо – место обмена культур в Новое время. Буклет музея. Сост. местным отделением Институт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нчхон, без даты.

박종효. <구한말 최초의 라시아어학교와 교사 비류코프의 교육 및 군사활동 연구> <<한국 근.현대사 연구>>. 2008년 10월호. *Пак Чонхё*. Первая школ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Корее конца XIX в.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и воен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еподавателя Бирюкова //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новой и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Кореи. 2008, № 10.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им Рехо. Гибель королевы Мин. Новая версия // Корея.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К 8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роф. М.Н. Пака. М.: МЦК МГУ, 1998. С. 123-136.

Крашенинников А.Ф. Русский архитектор-самоучка в Корее //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облемы развития архитектурн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Материалы конференции. Хабар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техн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2000. С. 81-83.

Крашенинников А.Ф. Раскопки в пропасти забвения. Воспоминания о XX веке. Москва: Совпадение, 2008). С. 255-258.

Левонко С.С. Православные храмы и триумфальные арки в русском стил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 рубеже XIX – XX вв. // Духовная жизнь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Хабаровск: Частная коллекция, 2000). Рр. 269-272.

Левонко С. С. Русская архитектура в Маньчжурии. Конец XIX – 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XX вв. Хабаровск: Частная коллекция, 2003. – 176 с.

Пак Б.Д. Россия и Корея. М.: ГРВЛ, 1979; Изд. 2-е, доп.: 2004.

Симбирцева Т.М. Убийство во дворце Кёнбоккун // Восточная коллекция (РГБ, Москва). 2004. Вып. 4. С. 127-142.

Старый сотрудник. Письма с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поводу аннексии Кореи // Современный мир, 1910, № 11.

Хо Хай Нам. Черты европейского влияния в архитектуре и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е Вьетнама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ериода (на примере г. Хюэ).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архитектуры.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07.

Чиркин С.В. «Двадцать лет службы на Востоке. Записки царского дипломата». Москва: Русский путь, 2006.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Horton-Underwood, L.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Seoul, 1987. 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 Reprint Series.

Интернет-ресурсы:

Korea's Official Website - http://www.korea.net/news/news/newsView.asp?serial_no=20090204007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p?pk=12655800&p=%B5%B6%B8%B3%B9%AE&field=id&type=enc&subtype=enc>

Testimony of the Russian citizen Seredin-Sabatin, in the service of the Korean court, who was on duty the night of September 26, 1895. Published in the Internet by Gary Ledyard, Center for Korean Research, Columbia University. From the archives of the Foreign Ministry, Russian Federation, <fond> Yaponskiy stol, <opis> 487, <delo> 6, <list> 73-75. <http://koreaweb.ws/ks/ksr/queenmin.txt>

Гурковский В.А. Кадетские корпуса в России (XVIII — начало XX вв.) // Журнал «Образование и общество». 2002 №1,2] <http://www.ruscadet.ru/history/comm/01.htm>];

Гуторович Г. Что такое Кадетский корпус // «Кадетская переключка». 1975, № 14. http://xxl3.ru/kadeti/gutorovich_kk.htm)

Дерюжинский В.Ф. Специальн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в царской России) // Полицейское право. Пособие для студентов. СПб., 1903. <http://www.allpravo.ru/library/doc76p0/instrum3732/item3916.html>

«Российская архитектура» (журнал). 2005. III. 04
http://www.archi.ru/events/news/news_current_press.html?nid=1296&fl=1&sl=1

Сайт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http://www.imha.ru/knowledge_base/base-12/1144524190-morekhodnye-klassy-uchilishha.html

Сайт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художеств: http://www.rah.ru/content/ru/main_menu_ru/section-academy_history/section-chronicle.html?showContentPart=6

Селютина Г. Как создавался Добровольный флот // Вечерняя Одесса. 4XI.2008 г.) <http://vo.od.ua/article/9375>

«Яхта» (Журнал).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08. № 54 // http://sea-wolfs.ru/01/1_1.html

3. 실측 조사



1. 중명전의 구법적 특징
2. 실측 조사
3. 한 장의 사진과 원형조사
4. 유구 조사

3. 실측 조사

1. 증명전의 구법적 특징

강성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1-1. 증명전의 구법 개요

증명전(사적 124호-덕수궁)은 러시아인 사바첸(A.I. Scardin Sabatin, 1860~1921)이 설계한 지하 1층, 지상2층의 벽돌조 건물이다. 증명전의 용도는 창건 시에는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후에 외교 사절의 접견에도 이용되었으며, 1904년 경운궁 화재 후에는 임시적이지만 궁궐 정전(正殿)의 역할을 수행한 장소이다. 현재의 건물은 1925년 3월의 화재로 외벽을 제외하고 소실되었는데, 이후 지붕트러스 및 목조바닥을 개수하고 회랑을 내부화하면서 창문을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⁸⁵⁾ 이는 1907년경의 증명전 사진⁸⁶⁾을 통하여 입증되는데, 원형은 정면 출입칸 좌우로 3칸씩 개방형의 아치를 두면서 회랑을 둔 형식이다.

증명전의 구법⁸⁷⁾은 ‘벽돌조 + 목조바닥 + 목조트러스’이다. 창건당시는 벽돌조로 외부에 회랑을 아치형벽돌쌓기로 구성하였다. 기초구법은 화강석 줄기초로 3-4단을 쌓고, 상부로 벽돌조적벽체를 구축하였다. 1층과 2층의 바닥은 목조로 구성되고, 지붕은 서양식의 목조트러스이다.



[사진 3-1] 1907년경 증명전의 모습, 『外人の觀たる朝鮮外交秘話』

85) 최근 지붕 누수에 의해서 2005년 3월~10월까지 지붕 및 트러스 부재의 해체 보수가 행해졌고, 2007년 12월부터 진행된 활용을 위한 내부복원설계 및 시공이 2009년 12월 완료되었다. 내부해체조사와 당시 사진자료(사진 3-1, 원래 다른 건물의 사진으로 알려졌다)나, 회랑의 난간동자와 상부의 아치기법 등을 토대로 비교 분석한 결과, 세부적으로 아치를 구성하는 이형벽돌의 크기·개수·모양과 난간동자의 디테일 및 그 하부를 구성하는 화강석 받침석과 지하통풍구, 그리고 벽돌조적기둥의 크기, 위치, 줄눈, 개수를 비교해 본 결과 현재의 증명전과 동일하게 판단되었다)를 참조하여 좌측후면부에만 있던 회랑이 전, 우측면에 연결되는 복원안이 수립되었다.

86) 영친왕의 일본행 후에 한국방문 때 찍은 사진으로 1907년경으로 보인다. 가운데 인물이 영친왕(1897~1970)이며 우측에 앉아 있는 이가 고종(1852~1919)이다.

87) 해당 건축물을 서 있게 하는 구조시스템으로 구법의 판단기준은 외부와 경계를 짓는 수직적 요소(기둥, 벽체)와 수평적 요소(바닥)가 어떠한 재료에 의해 축조되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구법은 '재료 + 구조전달방식 + 바닥구성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표 및 본고에서는 ①목구조, ②조적조, ③철근콘크리트조로 나눴다. 조적조에서는 다시 재료에 따라 석재조적조와 벽돌조로 나누고 '벽체 + 바닥'으로 그 구법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벽돌조의 경우 구조의 유형은 '벽돌조 + 목조바닥', '벽돌조 + 철골콘크리트바닥', '벽돌조 + 철근콘크리트바닥'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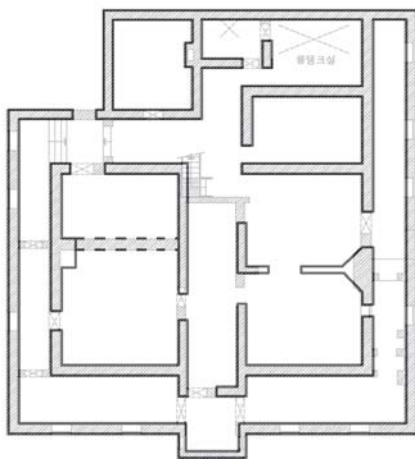
[표 3-1] 궁궐 내 근대식 구법건물들

기공	준공	건물명	문화재관련	설계자	구법
	1897	경운궁 중명전	사적 124호(덕수궁)	사바찐	벽돌조+목조바닥
	1902	경운궁 정관헌	사적 124호(덕수궁)	사바찐	벽돌조+목조바닥
	1902	경운궁 돈덕전	소실	사바찐	벽돌조+목조바닥
1900	1909	덕수궁 석조전	사적 124호(덕수궁)	J.R.Harding	벽돌조+철골콘크리트바닥
1908		창덕궁 인정전 개수공사	철거	궁내부영선사	한식목구조+양식트러스
1909		궁내부 청사	철거	궁내부영선사	한식목구조+양식트러스
1909		창덕궁 식물원	등록문화재 83호	어원사무국 福羽恩藏	철골조
1910		창경궁 帝室博物館	철거	궁내부영선사	벽돌조+목조바닥
	1912	덕흥전 및 귀빈대합실	사적 124호(덕수궁)	이왕직 영건조직	한식목구조+양식트러스
	1912	운현궁 양관	사적 257호(운현궁)	片山東熊(추정)	벽돌조+목조바닥
	1915	경복궁 總督府 博物館	철거(1995년)	-	-
1918		창덕궁 대조전, 희정당	사적 122호(창덕궁)	金倫求	한식목구조
1916	1926	경복궁 朝鮮總督府廳舍	철거(1995년)	野村一郎, 國枝 博	벽돌조
1936	1938	朝鮮古美術陳列館 (덕수궁 미술관)	사적 124호(덕수궁)	中村與資平	철근콘크리트조
	1939	경복궁 總督府 美術館	철거(1998년)	失野要	철근콘크리트조
연대미상 도면자료		창덕궁 內殿洋館	-	궁내부영선사	철근콘크리트조

1-2. 중명전의 구법 특징

가. 기초 : 화강석 줄기초

중명전의 기초구법은 화강석 줄기초로 4단(일부 3단)을 쌓고, 상부로 벽돌조적벽체를 구축하였다. 화강석기초의 현황은 중명전의 평면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다. 특히 100년 이상된 건물의 용도변화 및 화재 등의 이유로 평면간살이, 설비방식이 바뀐 상황이었으므로, 무엇보다 화강석 줄기초의 평면조사가 기초부분의 특징임과 동시에 중요한 평면유추의 근거를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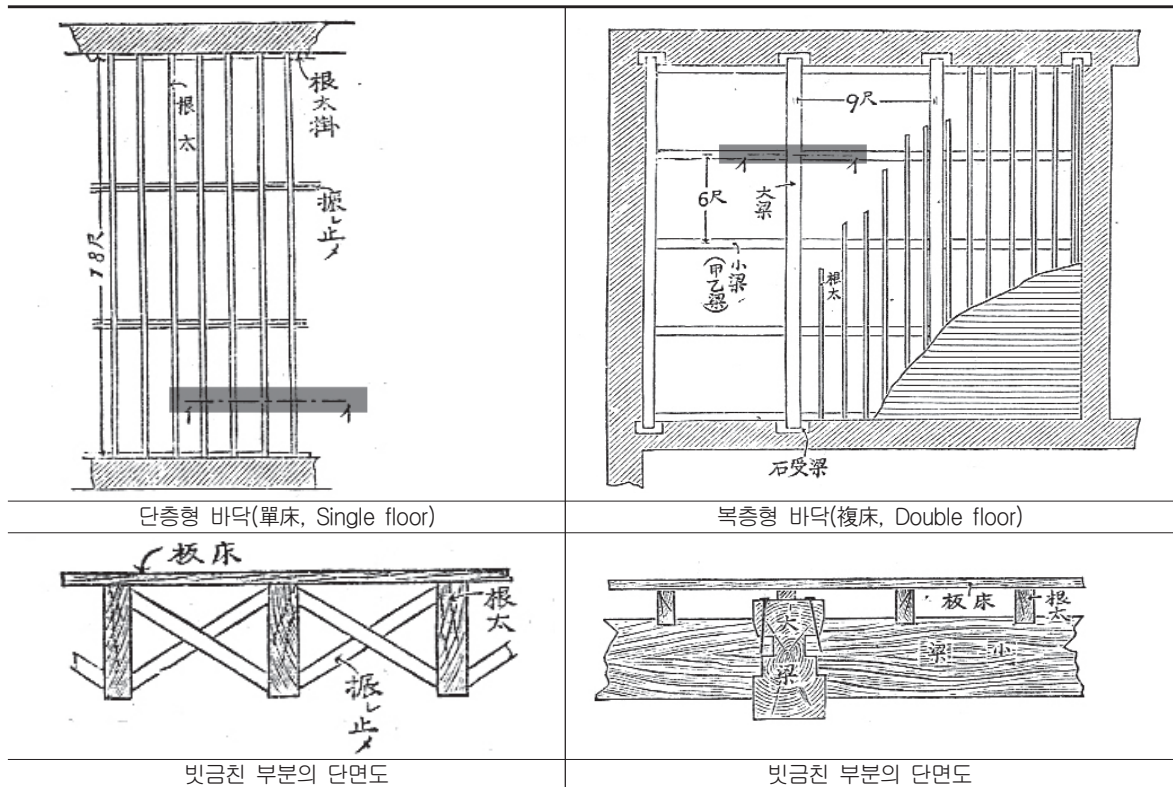


[도면 3-1] 중명전 화강석 줄기초 평면과 사진(실선부분이 화강석 줄기초를 나타낸 것이다. 왼쪽 방의 점선으로 된 벽체 하부도 화강석 줄기초가 보이지만, 이는 후대에 새롭게 벽체를 추가하면서 쌓은 부분으로 원래의 줄기초 모습과 다른 상세를 보인다)

나. 바닥 : 단층형 목조바닥

전통적 목구조는 석재의 독립기초에 기둥을 얹히고 가구식으로 바닥을 축조한다. 이러한 구법은 줄기초로 오면서 하중을 점이 아닌 선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또한 상부에 바닥을 구축하는 중층에 대한 요구가 생기면서 바닥시스템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일단, 내화구조가 나오기 이전 목재를 이용한 바닥시스템이 출현하는데, 단층형바닥(單床, Single floor)과 복층형바닥(複床, Double floor)으로 나눌 수 있다.

[도면 3-2] 근대기 중층바닥 유형, 『工業大辭書』(1910)



단층형 바닥, 혹은 장선바닥(根太床)이라고 하는 형식은 장선으로 촘촘히 바닥을 연결하고 각 장선을 짧은 사선부재가 연결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중명전과 승동교회가 그 사례이다.

복층형 바닥, 혹은 보바닥(梁床)이라고 하는 형식은 큰 대들보를 횡으로 놓고 보와 교차하는 한 방향으로 작은 장선을 두면서 그 위로 바닥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목구조 또는 벽돌조가 중층으로 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식으로 궁궐에서 적극적으로 채택되었다.

중명전의 경우, 원형은 목재로 구성된 보강(사선)부재-장선이지만, 현황조사 결과 후에 철골보가 보강되었고, 그 후에 철근콘크리트바닥이 타설된 것으로 추측된다. 후대에 변형이 있어 세부 실마 다 목조의 원형을 갖고 있는 천장, 그리고 후대에 변형되어 철근콘크리트가 타설된 천장도 보인다.

이는 장선과 보강(사선)부재를 이용한 것으로 근대기 ‘내화바닥’ 개념이 있기 전의 기법으로 당

시의 기술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벽돌조 + 목조바닥’의 시스템은 내화성, 내구성
에 대한 요구로 ‘벽돌조 + 철골콘크리트바닥’, ‘벽돌조 + 철근콘크리트바닥’으로 발전해간다.



[사진 3-2] 중명전의 바닥구조



[사진 3-3] 승동교회의 바닥구조

다. 벽체 : 벽돌조적조

① 벽돌의 규격

개항 이후 초기 벽돌의 수급은 수입에 의존했다. 당시 공사관, 선교사 주거, 종교시설 등의 외국 건축가가 담당한 공사에서는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였으며, 일부 현장에서 직접 구운 경우도 있었지만, 대량생산되지는 않았다. 벽돌이 자체적으로 대량생산된 것은 약현성당과 명동성당의 건축을 위해 1890년대 초, 와서현(瓦署峴)에 벽돌 제조소(한강통 연와소)를 설치하면서 부터이다. 벽돌제조에 적당한 점토가 많았던 한강통 연와소는 1882년 말까지 정부에서 기와를 굽던 와서현이 있던 곳이었다.⁸⁸⁾ 이러한 배경으로 미루어 볼 때 중명전에 쓰인 벽돌은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시기의 벽돌크기는 당대의 생산배경에 따라 상이했다고 보여 진다.

1907년 이후에는 오름가마에 의한 정형의 벽돌이 생산되게 된다. 탁지부산하의 관립벽돌제조소(官立煉瓦製造所)의 오름가마로 생산한 벽돌은 1907년도에 대한의원, 의정부, 평리원, 탁지부수도국, 공업전습소 등에 공급되었다. 1908년부터는 호프만식 가마에 의해 소성된 벽돌을 한국은행본관(제일은행 한국총지점), 광통관의 대형 벽돌조 건물에 공급하였다. 1909년에는 궁내부 내장원에도 다량의 벽돌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창덕궁 박물관 등의 벽돌조 건물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시기이다.

당시의 벽돌치수는 일본의 도쿄지역 표준형(東京形)과 같은 7.5치×3.6치×2치⁸⁹⁾(227×109×60.6mm)이다. 줄눈은 0.25치(7.6mm)로 하였으므로 벽의 두께는 반매쌓기-3.6치, 1매쌓기-7.50치, 1매반쌓기-11.4치, 2매쌓기-15.3치, 2매반쌓기-19.2치, 3매쌓기 23.1치가 되는 것이다.⁹⁰⁾

이후 벽돌규격은 1924년부터 공업품규격통일조사회에 의한 일본표준규격에 의해 벽돌은 [표 3-2]와 같이 규격화되고 보통벽돌, 유공벽돌, 내화벽돌로 세분화하였다. 따라서 벽돌조적벽체(표

88) 조흥석, 『한국 근대 적벽돌 건축에 관한 연구』, 목원대박논, 2005.12, pp.77~87

89) 근대건축관련 보고서수리에는 당대 건물(1924년 이전) 벽돌치수를 대부분 230×110×60로 하고 있는데, 이를 비롯한 계획치수는 당시 사용하던 자척으로 환산 후 병용하여 기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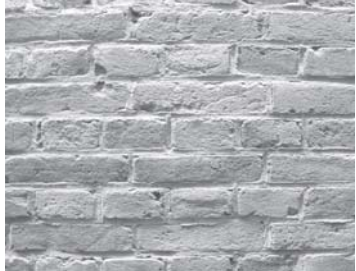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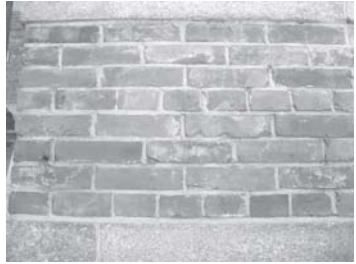
90) 日本建築學會, 『近代日本建築學發達史』, 1972, p.356

준 줄눈은 10mm)도 반매쌓기-100mm, 1매쌓기-210mm, 1매반쌓기-320mm, 2매쌓기-430mm, 2매반쌓기-540mm로 되어 반매 늘어날 때마다 110mm가 가산되는 규칙성을 갖으면서 더욱 시스템화되어 간다.

[표 3-2] 벽돌표준규격(工業品規格統一調査會, 1924년), 『高等建築學(第3卷-建築材料)』

종 류			크 기(단위: mm)
보통 벽돌(普通煉瓦)			210×100×60
유공 벽돌(空洞煉瓦)	제1종	一本型	210×100×60
		二本型	130×210×100
		三本型	200×210×100
		四本型	270×210×100
		六本型	320×210×130
	제2종	八厘型	240×240×80
		十二厘型	240×240×120
		十六厘型	240×240×160
		二十厘型	240×240×200
		二十四厘型	240×240×240
내화벽돌(耐火煉瓦)			215×105×65
참고: 1924년 이전 東京形 표준벽돌			7.5치×3.6치×2치(227×109×60.6)

[표 3-3] 중명전 및 당시 건물의 벽돌 쌓기법 및 크기상세(단위 : mm)

		
중명전, 1897년 추정 크 기 : 221×110×55, 쌓기법 : 1단 길이+1단 마구리	대한의원본관, 1908년 크 기: 227×115×55, 쌓기법: 1단 길이+1단 마구리	대한천일은행(광통관), 1909년 크 기 : 7.5치×3.6치×2치(227×109×60.6) 쌓기법 : 1단 길이+1단 마구리
		
벨기에영사관, 1903년(1905) 크 기 : 190×90×60 쌓기법 : 3단 길이+1단 마구리	구 서울구치소(경성감옥), 낙 인 : 官	중명전, 지하1층의 내화벽돌, 낙 인 : CN☆HK R.O.K, 크 기 : 220×105×(-)
번사창(1884) : 250×130×50 정관현(1900년경) : 230×110×55(적벽돌과 흑벽돌 크기 같음) 창경궁 제실박물관 ⁹¹⁾ (1910) : 7.5치×3.6치×2치(227×109×60.6) 창덕궁 전면난방설비시설(1918) : 7.5치×3.6치×2치(227×109×60.6), 일부 170×100×60 재래형(1925~1962), 210×100×60		

91) 철거하면서 벽돌부재는 추후 사용을 고려하여 창경궁 후원지역에 보관되고 있다.

벽돌크기에 대해 약술하자면, 초기의 벽돌은 생산지, 생산배경에 따라 각각 개별적으로 봐야 하며, 1908년 이후 생산된 벽돌은 대부분 7.5치×3.6치×2치(227×109×60.6mm)가 쓰였으며, 1924년 이후에는 210×100×60mm의 벽돌이 쓰였다.

초기에 영건된 벽돌조 건물의 실례로는 번사창(250×130×50mm), 대한의원본관(227×115×55mm)⁹²⁾, 벨기에영사관(190×90×60mm)⁹³⁾이다. 중명전(221~230×110×55mm)은 이 시기의 벽돌로 같은 시기 궁궐 양관 건축인 정관헌과도 같은 규격이다.

1908년 호프만식 가마에 의해 소성된 벽돌(7.5치×3.6치×2치(227×109×60.6mm))조 건물의 실례는 한국은행본관, 광통관, 창경궁 제실박물관, 창덕궁 전면난방설비시설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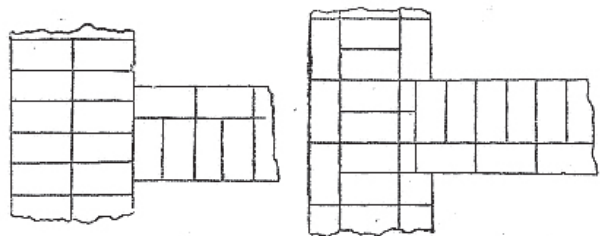
② 벽돌의 쌓기법

벽돌조 벽체는 그 벽돌크기, 입면모양 뿐만 아니라 [도면 3-3]과 같이 구법적으로 어떠한 두께를 어떠한 방식으로 쌓으면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하는지가 중요하다.

『大建築學』에는 영국식 쌓기(英吉利積, English Bond), 프랑스식 쌓기(フレミッシ積, Flemish Bond), 네덜란드식 쌓기(和蘭陀積, Dutch Bond)를 대표적인 쌓기법으로 하고 있다. 영국식 쌓기는 입면상 길이면과 마구리면이 번갈아 나타나며 모서리에 반절, 반반절 등을 쓰는 방식이다. 프랑스식 쌓기는 1켜에서 길이면과 마구리면이 같이 나오는 형식인데 모서리는 영국식 쌓기와 같으며, 안과 밖 양면을 프랑스식으로 하는 경우와 한 면만을 하는 경우가 있다. 네덜란드식 쌓기는 기본적으로 영국식과 같으나 모서리에서 칠오토막을 쓰는 것이 다르다. 하중이 집중되는 곳이나 저층일 경우는 3매 두께로 쌓기도 하며, 칸막이벽은 보통 1매 두께로 조적한다.

한국 근대초기 건물을 담당했던 탁지부건축소의 건물은 대부분 영국식과 네덜란드식 쌓기법을 하고 있다. 대한의원 본관, 광통관, 중명전의 건물들이 거의 1단 길이+1단 마구리 쌓기법으로 구축된다. 쌓기매수는 초기 은행의 경우 일본은행본점(2층 3매, 3층 2매반), 제일은행부산지점(지하 2매반), 대한의원본관(1층 3매, 2층 2.5매, 3층 2.0매)⁹⁴⁾처럼 구조벽체가 2매 이상으로 두터웠다. 이후 1920~30년대에는 1.5매(조선식산은행 개성지점), 1매(조선식산은행 사리원지점)의 벽돌조적벽체로 지할 수 있는 구법으로 정착되었다.

중명전 벽체의 경우는 원형이 네덜란드식(和蘭式) 2매쌓기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존 벽돌을 최대한 살리되 새롭게 구축되는 벽체도 같은 구축방식으로 쌓았다. 이는 입면상으로는 벽돌의 길이면과 마구리면을 번갈아 가며 올라가는 방식이다. 2매쌓기를 구축적으로 보자면, 길이면이 보일 때는 양쪽에 길이면이 보이게 가로로 쌓고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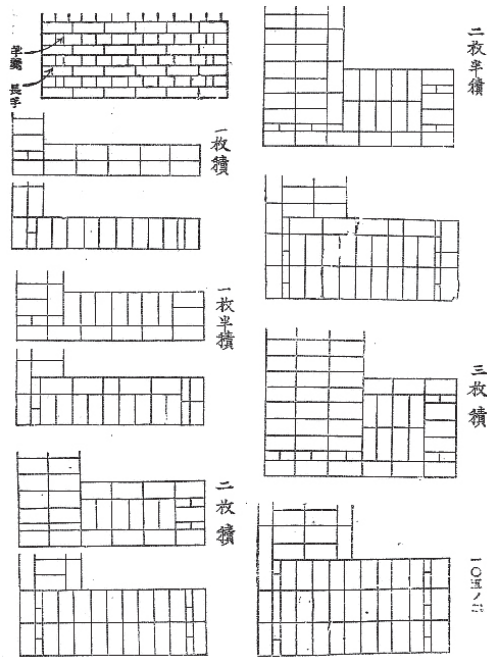
[도면 3-3] 중명전의 쌓기방식. 2매쌓기(좌)와 1.5매쌓기(우)가 교차되는 부분.

92) 227mm×115mm×55mm인데, 1907년 오름가마(1908년 이후는 호프만식가마)에 의해 공급된 벽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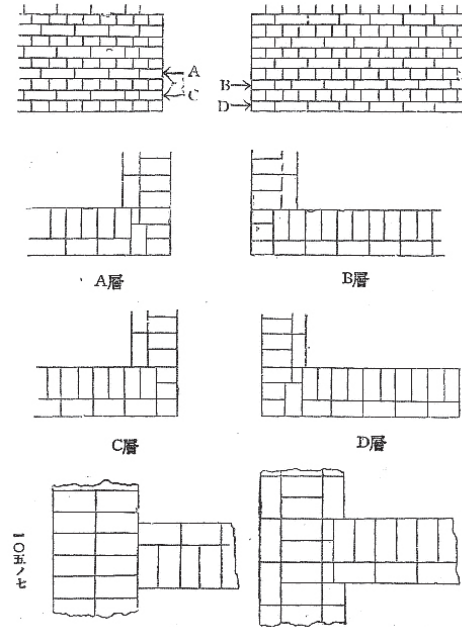
93) 벨기에영사관은 1982년에 이축되었기 때문에, 벽돌크기와 쌓기법이 원형의 것인지는 추후 사료가 필요하다.

94) 『대한의원본관 실측조사 및 수리보고서』, 1982.2,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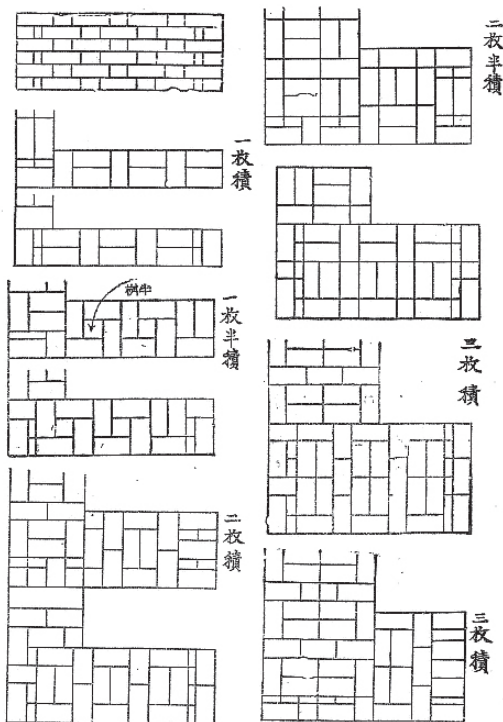
이에 세로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벽돌을 놓는다. 마구리면이 보일 때는 두 개의 벽돌을 마구리면이 외부에 노출되게 세로로 놓는 방식이다. 또한 모서리 끝이나, 교차부 부분에서는 칠오토막을 쓰면서 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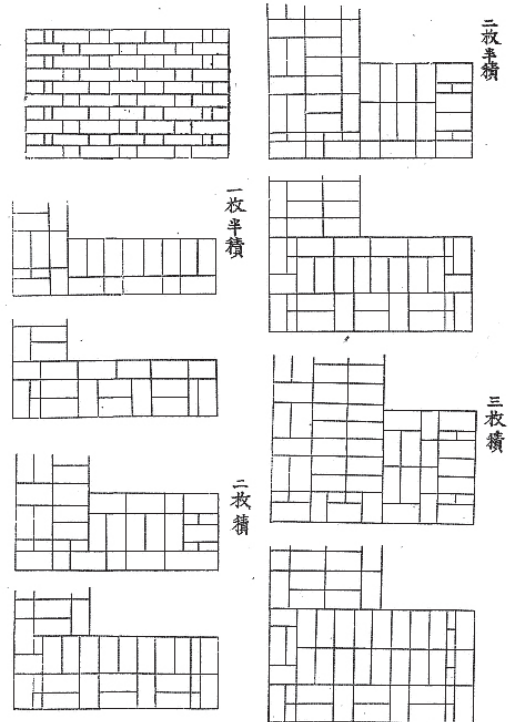
영국식 쌓기



네덜란드식 쌓기



프랑스식 양면쌓기



프랑스식 단면쌓기

[도면 3-4] 20세기 초 벽돌쌓기법, 『大建築學』, 1904



[사진 3-4] 중명전의 2매쌓기 벽체구성의 시공현황사진(길이 면이 보이는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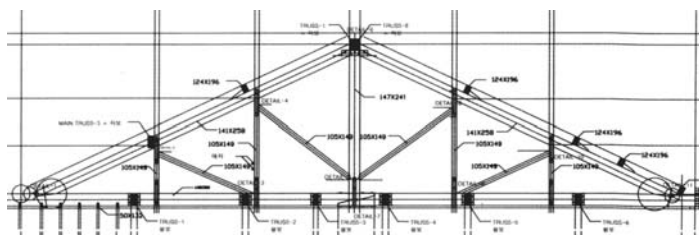
[사진 3-5] 중명전의 2매쌓기 벽체구성의 시공현황사진(마구 리면이 보이는 커)

라. 지붕 : 목조트러스

『高等建築學』의 목조 지붕트러스(木造小屋)⁹⁵⁾를 보면, 당시의 서양식 지붕트러스(洋風小屋)를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① 왕대공 지붕트러스(眞束小屋及其の變形, King Post Roof Truss or Prince P.R.T.)
- ② 쌍대공 지붕트러스(對束小屋及二重小屋, 對束小屋은 杵束小屋이라고도 부름,
Queen Post Roof Truss. Prince P.R.T.)
- ③ 만사드 지붕트러스(腰折屋根小屋, 또는 腰折小屋, Mansard Roof Truss)
- ④ 목철합성 지붕트러스(木鐵合成小屋, Compound Roof Truss)

대공의 위치에 따라 분류된 왕대공 지붕트러스는 스패 10m 전후에 쓰이는 가장 합리적인 지붕트러스이며, 쌍대공 지붕트러스는 스패가 좀 더 긴 경우에 유리하다. 만사드 지붕트러스⁹⁶⁾는 프랑스 문예부흥기의 건축에 자주 사용된 방식으로 트러스 양끝단에서 삼각형형태로 대공과 ‘^’ 자보로 구성된 위에 왕대공 트러스를 연결하는 방법이다. 목철합성 지붕트러스는 기존의 트러스 기법에서 인장력을 받는 부재를 철로 바꾸어 결구하는 방법이다.⁹⁷⁾ 합성구법도 방화에 취약하였으므로, 후대로 가면서 철골로 재료가 바뀌어갔다.



[도면 3-5] 중명전 목조트러스의 단면도와 사진



95) 트러스 명칭과 부재명은 『朝鮮建築』(朝鮮建築技術協會, 1947)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수정을 하였다.(지붕틀→지붕트러스, 지붕보→트러스보(Tie beam, 小屋梁), 시웃자보→^자보(Principal rafter, 合掌))

96) Francis Mansard가 고안해서 붙은 명칭이다.

97) 南 省吾, 「木構造」, 『高等建築學, 第8卷-建築構造2』, 1934, pp.4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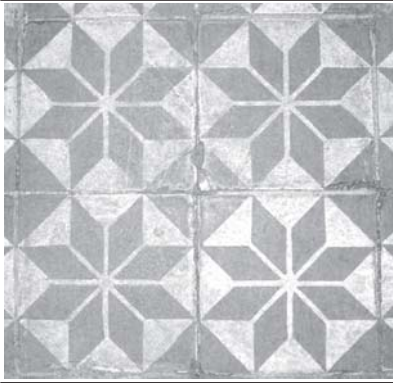
전통적 지붕 축조방식에서 목재트러스구조의 유입은 벽돌조 건축이 들어오면서 이른 시기에 들어오는데, 번사창이 그 중요한 사례이다. 번사창은 1884년 영건된 건물로, 화강석줄기초 상부에 벽돌 조적벽체를 하고 있다. 상부구조는 만사드지붕과 같은 형태인데, 양단에서 삼각형 형태로 지붕을 지지하면서 대공을 형성하고, 이는 다시王大공 트러스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이중 지붕을 구성하면서 그 사이에 고측창을 두면서 자연채광을 하였다.

중명전의 지붕 트러스는 평보와 대공, ‘八’ 자보로 구성된王大공 트러스를 기본 구조로 하였으며, 트러스를 건물의 중앙부 좌우에 2개소 설치 후, 대각선방향인 귀방향으로 반王大공을 설치하여 지붕모양은 전체적으로 모임지붕형이다. 트러스는 종방향트러스 2개소, 귀트러스 6개소, 그 외 17개의 트러스로 구성되었다. 평보를 내력벽인 외벽에서 외벽으로 받도록 설치된 트러스는 2개소이고 길이는 16,199mm, 21,843mm이다. 즉 16,199mm의 평보는 중간王大공 하부에서 엇걸이산지이음하였고, 21,843mm 평보는 3개의 부재를 엇걸이 산지이음하였다.⁹⁸⁾

마. 마감, 설비 및 기타사항

근대기에는 목재쪽매붙임, 도료 도장, 타일마감 등의 바닥재료가 도입된다. 중명전의 바닥특징은 타일의 사용인데, 정관현, 창덕궁내전, 함녕전행각에 크기와 양식이 같은 타일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당시 궁궐건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3-6] 근대기 궁궐 내 타일마감(단위 : mm)

		
중명전, 1897년 크기 : 200×200	정관현, 1900년경, 두가지 형식, 크기 : 200×200	창덕궁내전의 목욕시설, 20세기 초, 크기 : 200×200

난방방식의 변화는 근대기의 가장 큰 변화이다. 전통적 온돌 이후의 새로운 난방방식은 열기난방으로 벽난로, 폐치카, 독립난방기, 그리고 기관실(보일러실)을 두고 필요 실에 방열기로 연결되는 증기난방과 온수난방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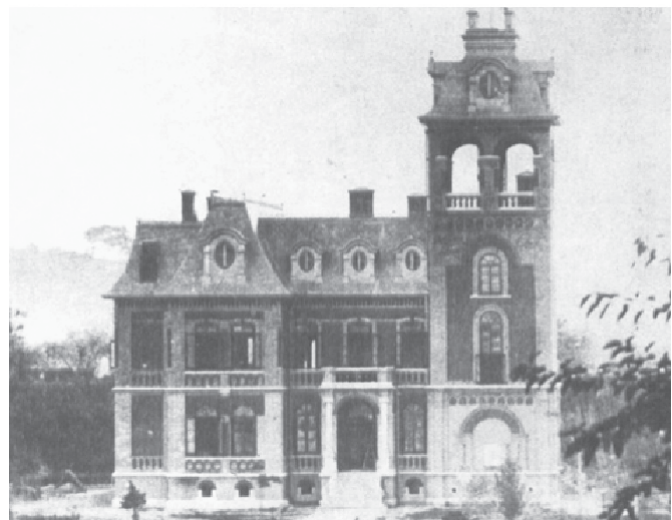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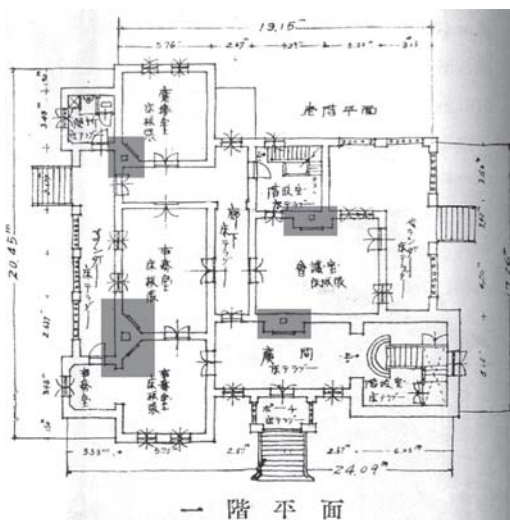
이 중 중명전의 난방방식은 열기난방으로 벽난로가 사용되었다.

벽난로(스토브)는 구성상 벽돌조와 함께 들어오는데, 19세기말의 외국공사관에는 내부 실마다 벽난로가 설치되었다. 프랑스공사관(1896년 기공, 1897년 준공)⁹⁹⁾ 1층에는 총 5개의 벽난로가 쓰였는

98) 『중명전 보수공사 보고서』, 2005.10

99) 1935년 서대문소학교가 들어서면서 철거되었다. 철거 당시 경성부 영선계의 미우라 노보루(三浦 昇)의 실측자료가 『朝鮮と建築』

데 홀, 회의실, 사무실, 응접실 등 계단실, 변소를 제외한 모든 내부공간에 벽난로가 배치되었다. 특이한 것은 남서쪽의 사무실을 45도의 벽체를 구성하면서 하나의 연도로써 해결하면서 측면에서 양쪽으로 동시에 벽난로를 설치하였다. 영국공사관¹⁰⁰⁾(1890년 기공, 1892년 준공)과 벨기에영사관¹⁰¹⁾(1903년 기공, 1905년 준공)도 마찬가지로 방마다 벽난로가 설치되어 벽돌조적 벽체를 통해 연도를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벽난로의 난방장치는 당시 기초구법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프랑스 공사관의 지하층을 보면 벽난로의 위치마다 기초벽체를 두텁게 축조하였다. 이는 연도를 구성하면서 연도 주위의 네 면을 벽돌벽체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하층에서 석재조적, 벽돌의 줄기조를 살펴본다면 상부의 벽난로 위치를 거꾸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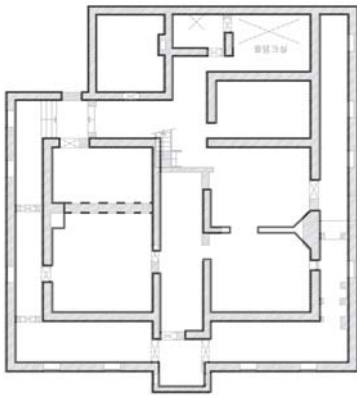
[도면 3-6] 프랑스공사관의 1층 평면(빗금친 부분 난 [사진 3-7] 프랑스공사관의 전경, 『朝鮮と建築』 (1935.4) 로 『朝鮮と建築』 (1935.4)

중명전의 난방방식은 1층에 벽난로 흔적이 있는데, [도면 3-7]과 같이 벽난로 위치의 지하 1층에는 화강석 줄기조를 두껍게 축조하여 상부의 하층을 덜었으며, 프랑스 공사관과 같이 45도로 화강석 벽체를 축조한 곳도 기법적으로 상부의 벽난로를 지지하였던 기법으로 프랑스공사관과 같은 방식이다.

의 1935년 4월호에 실려서 당시 평면과 디테일을 알 수 있다.

100) 영국 공사관은 마샬(J.Marshall), 보이스(R.C.Voyce)의 설계로 현재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다. 1892년에 완공되었는데, 현재 제 1의 집(Number 1 House)은 대사관저로, 제 2의 집(Number 2 House)은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고 있다.

101) 벨기에 영사관은 창건 당시는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건물이었었는데, 1982년에 현 위치인 관악구 남현동으로 이축하고 이후 미술관으로 전용하여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초석에는 당시의 시공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LVINCART ETANT CONSUL CENERAL / M.NISHIMURA DIRECTEUR DE HOKURIKU DOBOKU KAISAH / D.CODAMA INCENIEUR"라고 감각되어 있다.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호쿠리쿠 도보쿠 회사(北隆土木會社)의 담당관 니시무라와 설계를 담당했던 코다마(小玉, D.CODAMA)를 나타낸다. 'M.NISHIMURA'는 1905년 공사를 끝내고 1906년 11월 탁지부 건축소 발주의 '平澤驛上屋敷地々均土留及柵新設工事'를 맡았던 니시무라 마사노리(西村正則)와 같은 인물로 보인다.



[도면 3-7] 중명전의 기초부 평면(벽난로 위치)



[사진 3-8] 중명전의 기초부 벽난로 위치

1-3. 소결(중명전의 기술사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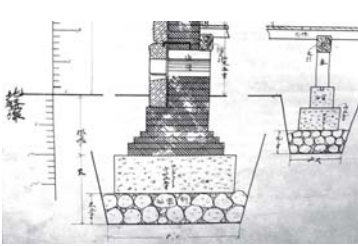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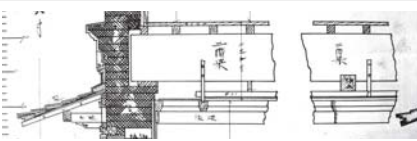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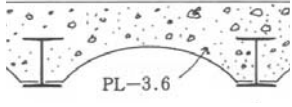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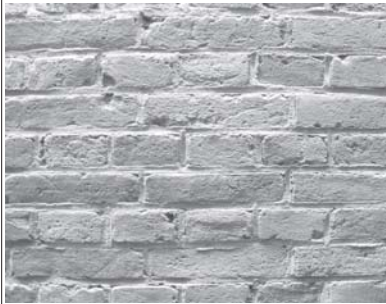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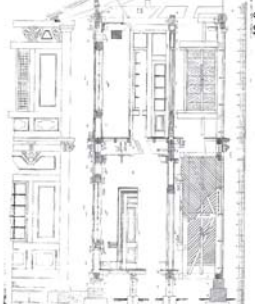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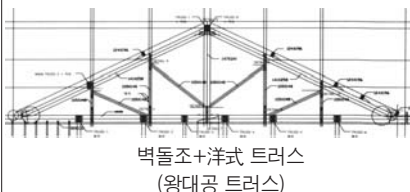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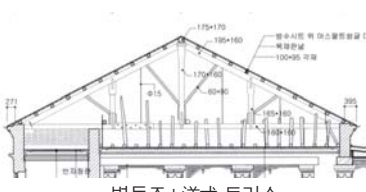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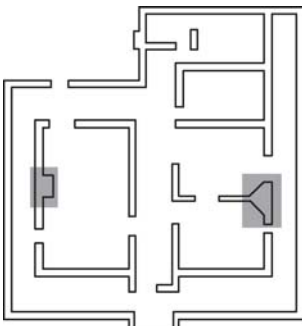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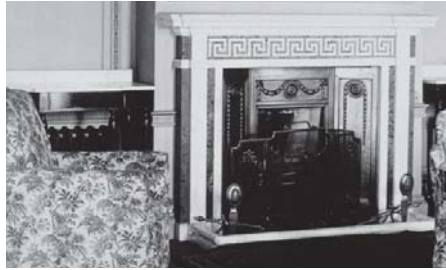
중명전은 근대초기 외국건축가에 의해 영건된 궁궐 내 서양식 건축물로 이 글에서는 그 기술사적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명전의 구법은 ‘벽돌조+목조바닥+목조트러스’이다. 이 장에서는 전술한 구법특징을 근대기 지어진 궁궐 내 건물과 비교하고, 시대적 변천에 따른 중명전 건물의 기술사적 의의를 서술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중명전의 기초는 화강석 줄기초로 4단(일부 3단)을 쌓고, 상부에 벽돌조적벽체를 구축하였다. 전통적 목조건물이 잡석다짐 위에 돌을 이용한 독립기초로 집중하중을 전달한다면, 근대기는 화강석 혹은 콘크리트 줄기초를 쓰면서 줄기초로 등분포하중을 전달하게 된다. 중명전은 이러한 변화에서 벽돌조 벽체를 화강석 줄기초를 거쳐 지반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형식이다. 창경궁 제실박물관(1910년)의 경우는 같은 벽돌조이지만 콘크리트 줄기초로 형성되었고, 창덕궁 회정당은 내부 옆에 ‘벽돌의 기초판과 기초+화강석 초석’을 구성하여 그 상부의 목조바닥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창덕궁 내전에 전면난방의 설비 덕트를 목조바닥 하부를 통해 보내기 위해 전체적으로 띄우기 위한 수법이다.

중명전의 바닥은 목재로 구성되는데, 이 경우 전통적 방식(장귀틀-동귀틀-마루청판)이 중층에 대한 요구로 두 가지 바닥시스템이 출현하였다. 첫 번째는 장선이 촘촘히 바닥에 놓이면서 각 장선을 짧은 사선부재로 이어주면서 뒤틀림 및 변형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중명전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보를 횡으로 놓고 이와 교차하는 장선을 두는 방식으로 궁내부청사(1909년), 창경궁 제실박물관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근대기 목조바닥시스템은 내화성, 내구성에 대한 요구로 철골콘크리트바닥(덕수궁 석조전), 철근콘크리트바닥(덕수궁 미술관)이 출현하기 이전 시기의 기법이다.

중명전의 벽체(가구)는 벽돌조로 크기는 221~230×110×55mm로 정관헌(1902년)과도 같은 규격이다. 이는 1907년 이후 자급적으로 오름가마, 호프만식 가마에 의해 소성된 벽돌이 나오기 이전에 외국에서 수입해서 썼던 것으로 보인다. 쌓기법은 원형이 네덜란드식 2매쌓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입면상으로는 벽돌의 길이면과 마구리면을 번갈아 가며 올라가는 방식이다. 2매쌓기를 구축적으로 보자면, 길이면이 보일 때는 양쪽에 길이면이 보이게 가로로 쌓고 사이에 세로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벽돌을 놓는다. 마구리면이 보일 때는 두 개의 벽돌을 마구리면이 외부에 노출되게 세로로 놓는 방식이다.

[표 3-4] 중명전의 구법적 특징과 의의

	중명전	여타 궁궐내 근대식 구법
기초	 화강석 줄기초+벽돌조	 콘크리트줄기초+벽돌조 ■ 1910 창경궁 제실박물관  벽돌 기초판·기초+화강석초석 ■ 1918 창덕궁 회정당
바닥	 중층목조바닥/단층형	 벽돌조+목조바닥/복층형 ■ 1910 창경궁 제실박물관  PL-3.6 철골콘크리트바닥 ■ 1909 석조전
벽체 가구	 벽돌조, 크기: 230×110×55, (1단길이·1단마구리, 2매쌓기)	 목구조(기둥-보 시스템) ■ 1909 궁내부청사  部 斷 面 圖 Section 철근콘크리트조 ■ 1938 덕수궁미술관
지붕	 벽돌조+洋式 트러스 (왕대공 트러스)	 벽돌조+洋式 트러스 ■ 1902 경운궁 정관헌  목구조+洋式 트러스 ■ 1908 인정전행각
설비	 벽난로 기초부분	 개별난방도입 ■ 1908 인정전내부  벽난로/개별난방 + 방열기/전면난방 ■ 1909 덕수궁 석조전

중명전의 지붕은 평보와 대공, ‘八’ 자보로 구성된 왕대공 트러스를 기본 구조로 하는데, 이는 정관현, 인정전행각(1908년 증축된 부분)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밖에 타일 또한 정관현, 창덕궁내전, 함녕전행각과 같은 크기와 양식이 쓰여진 것이 흥미롭다. 난방방식은 열기난방으로 벽난로를 사용하였는데, 벽돌 조적벽 내에 연도를 구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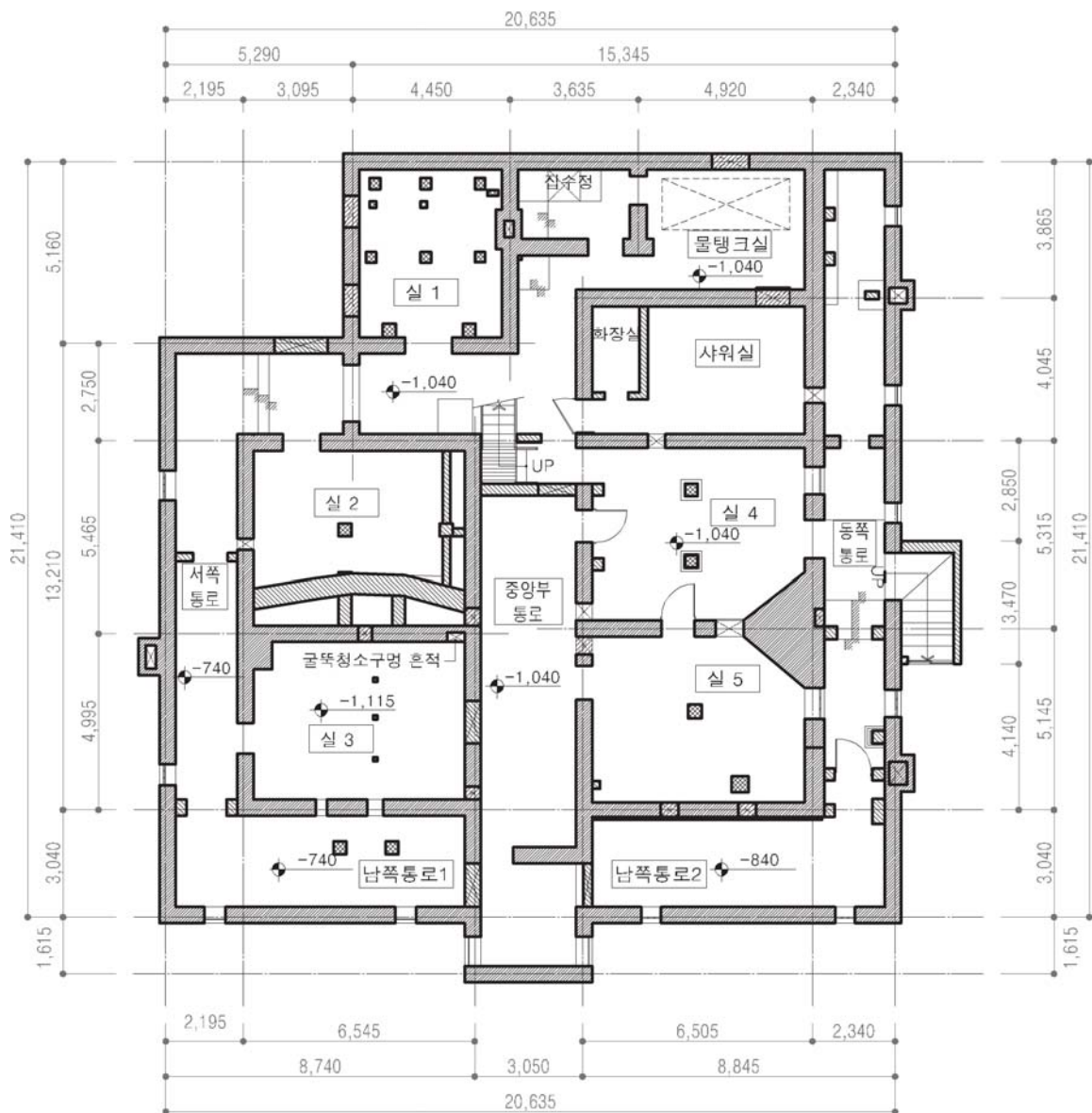
상술한대로 중명전의 구법적 특징은 1900년대 초의 서양식 건축기술의 유입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법에 대한 조사는 원형복원에 중요한 근거가 되며, 기술사적 가치는 시대적, 양식적 가치와 더불어 해당 건물을 보다 풍부한 의미를 갖게 한다.

2. 실측 조사

2-1. 평면 조사

가. 지하 1층 개요

중명전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되었다. 지하 1층은 건축당시의 평면과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지상 1층과 2층은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의 경우, 간살이는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출입구나 창문 구성은 다소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출입구나 창호는 벽돌로 메운 흔적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는 오히려 벽을 뚫어 출입구로 만든 흔적이 보이기도 하였다. 애초 건축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도면 3-8] 지하 1층 현황 평면도

지하 1층의 공간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통로공간과 거실공간으로 나뉘어진다. 통로공간은 동, 서, 남쪽의 외벽쪽 통로와 남북으로 긴 중앙부 통로가 있다. 외벽쪽 통로는 지하 토사를 받은 외벽과 면하면서, 내부 거실을 지탱하는 내부벽을 따라 구성되어 있다. 통로 좌·우측 벽은 둘 다 내력벽으로써 지상 1층과 2층의 회랑 구성과 관계가 있다. 아마도 초기 건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쪽에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통로공간이 없다. 중앙부 통로는 건물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 지르고 있는데 이 통로 좌·우로도 각 실이 배치되어 있다. 이 통로 또한 1층 중앙 통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실공간은 통로벽의 안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중앙부 통로 좌·우에 각각 2실씩 총 4개실이 있고 북쪽으로는 3개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근래에 물탱크실이나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거실공간은 천장고, 바닥마감, 환기 등을 고려할 때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측 즉, 동쪽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었다. 이 계단은 초창기에 있던 계단이 아니라 후대에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계단이었다. 외벽 일부를 철거하고 지상으로 통할 수 있는 계단을 만들고 외부에 조적벽을 쌓은 후 그 위에 골슬레이트로 지붕을 덮고 있었다.

지하 1층에는 벽난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동쪽 내벽쪽에 삼각형으로 쌓은 부분과 서쪽 내벽쪽에 사각형으로 쌓은 벽이다. 이 두 부분은 상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분명하게 벽난로 흔적으로 보인다.



[사진 3-9] 동쪽에 생긴 지하 출입구



[사진 3-10] 동쪽 지하출입구 내부

기존 조적벽은 그 두께가 2.0B로 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부벽 간살이는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출입구나 창문을 군데군데 메우거나 헐어낸 흔적이 보인다. 아마도 애초 건축 이후에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그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조적벽을 추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출입구나 창호를 막은 것이며 세 번째는 벽을 철거한 부분이다.

첫 번째 경우인 추가된 조적벽은 [도면 3-9]와 같다. 많은 변화가 보이는 부분은 ‘실 2’이다. ‘실 2’의 남쪽방향으로 곡선모양의 두꺼운 조적벽이 있고 동쪽방향으로는 칸막이 벽이 있다. 이

벽은 벽난로와 관련이 있는 ‘연도’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쪽방향 벽 내부에는 숯검댕 이가 벽돌에 많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샤워실에 화장실을 만든 칸막이벽도 있다. 그 외에 동쪽통로와 서쪽 통로에 출입구를 만들기 위한 기둥 크기의 받침벽 등이 있었다. 이들 받 침벽이나 칸막이벽은 결국 상황에 따라 만든 벽으로 보인다.



[도면 3-9] 지하 1층 추가설치 추정 조적벽



[도면 3-10] 지하 1층 출입구를 막은 부분



[도면 3-11] 지하 1층 창문을 막은 부분



[도면 3-12] 지하 1층 기존벽을 철거한 부분

두 번째 경우인 출입구나 창호를 막은 부분은 [도면 3-10], [도면 3-11]과 같다.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남쪽통로 1’ 과 ‘남쪽통로 2’ 를 연결하는 아치 출입구를 막은 부분과 ‘중앙통로’ 에 서 ‘실 3’ 을 연결하는 출입구, 그리고 서쪽통로 북쪽에 있는 아치형 출입구이다. 이들 부분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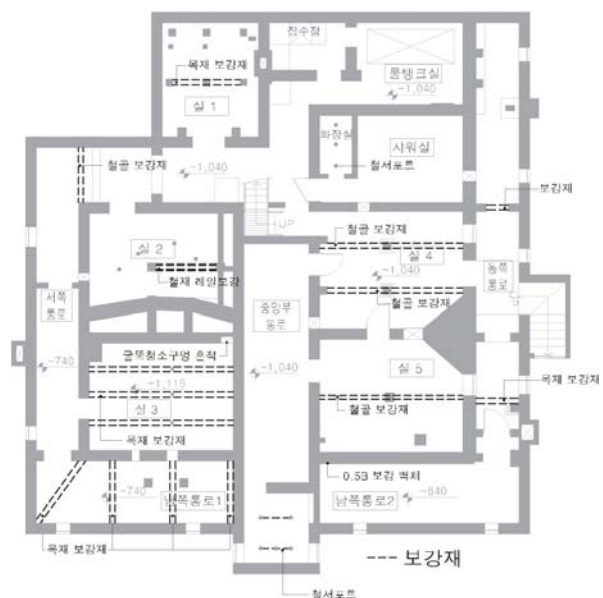
후대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 봉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쪽통로 북쪽에 있는 아치형 출입구는 매우 중요한 흔적으로써 그 부분을 철거한 결과 외부로 통하는 지하 주출입구임이 밝혀졌다.[3장 ‘4-1. 지하 1층 배면 지하출입구 유구조사’ 부분 참조] 작은 창도 메꾼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세 번째 경우는 기존벽을 철거한 경우이다. [도면 3-12]와 같다. 이 또한 후대에 필요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동쪽에 있는 지하 출입구가 있고 ‘실 4’와 ‘실 5’, 그리고 ‘중앙통로’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통로나 내부 각실 중간중간에는 상부 마루를 지탱하는 보강기둥들이 세워져 있었다. [도면 3-13]과 같다. 1층 마루가 부식되어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기에 이를 보강하기 위해 후대에 세워진 기둥들이었다. 보강기둥은 벽돌로 쌓은 조적기둥과 동바리로 사용되는 철서포트, 그리고 목재로 된 목기둥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도면 3-14]와 같다. 이 기둥 위에는 철골빔 또는 목재 등을 멍에 삼아 마루장판을 받치고 있었다. 일부 목재보에는 그 크기(180mm×150mm)가 써 있기도 했다.



[도면 3-13] 지하 1층 구조보강을 위한 기둥설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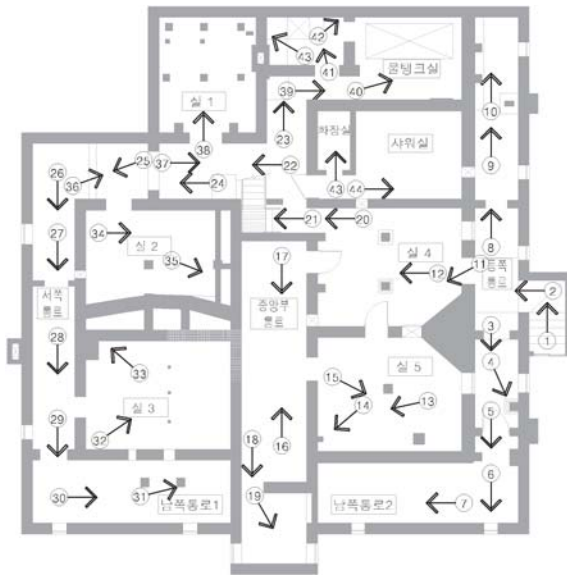
[도면 3-14] 지하 1층 구조보강을 위해 설치한 각종 보강재



[사진 3-11] 조적기둥위에 철골빔으로 장선을 받고 있다.



[사진 3-12] 보강보 크기 표시(180mm×150mm)



[도면 3-15] 지하 1층 사진 안내도



[사진 3-13] 지하 1층 ① 방향 모습



[사진 3-14] 지하 1층 ② 방향 모습



[사진 3-15] 지하 1층 ③ 방향 모습



[사진 3-16] 지하 1층 ④ 방향 모습



[사진 3-17] 지하 1층 ⑤ 방향 모습



[사진 3-18] 지하 1층 ⑥ 방향 모습



[사진 3-19] 지하 1층 ⑦ 방향 모습



[사진 3-20] 지하 1층 ⑧ 방향 모습



[사진 3-21] 지하 1층 ⑨ 방향 모습



[사진 3-22] 지하 1층 ⑩ 방향 모습



[사진 3-23] 지하 1층 ⑪ 방향 모습



[사진 3-24] 지하 1층 ⑫ 방향 모습



[사진 3-25] 지하 1층 ⑬ 방향 모습



[사진 3-26] 지하 1층 ⑭ 방향 모습



[사진 3-27] 지하 1층 ⑮ 방향 모습



[사진 3-28] 지하 1층 ⑩ 방향 모습



[사진 3-29] 지하 1층 ⑪ 방향 모습



[사진 3-30] 지하 1층 ⑩ 방향 모습



[사진 3-31] 지하 1층 ⑩ 방향 모습



[사진 3-32] 지하 1층 ⑫ 방향 모습



[사진 3-33] 지하 1층 ⑫ 방향 모습



[사진 3-34] 지하 1층 ⑫ 방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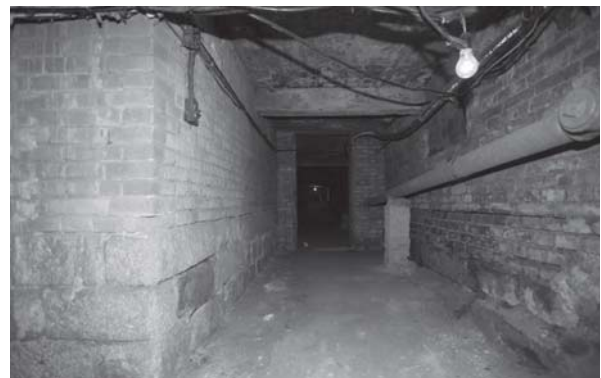
[사진 3-35] 지하 1층 ㉓ 방향 모습



[사진 3-36] 지하 1층 ㉔ 방향 모습



[사진 3-37] 지하 1층 ㉕ 방향 모습



[사진 3-38] 지하 1층 ㉖ 방향 모습



[사진 3-39] 지하 1층 ㉗ 방향 모습



[사진 3-40] 지하 1층 ㉘ 방향 모습



[사진 3-41] 지하 1층 ㉙ 방향 모습



[사진 3-42] 지하 1층 ㉚ 방향 모습



[사진 3-43] 지하 1층 ㉓ 방향 모습



[사진 3-44] 지하 1층 ㉔ 방향 모습



[사진 3-45] 지하 1층 ㉕ 방향 모습



[사진 3-46] 지하 1층 ㉖ 방향 모습



[사진 3-47] 지하 1층 ㉗ 방향 모습



[사진 3-48] 지하 1층 ㉘ 방향 모습



[사진 3-49] 지하 1층 ㉟ 방향 모습



[사진 3-50] 지하 1층 ㊸ 방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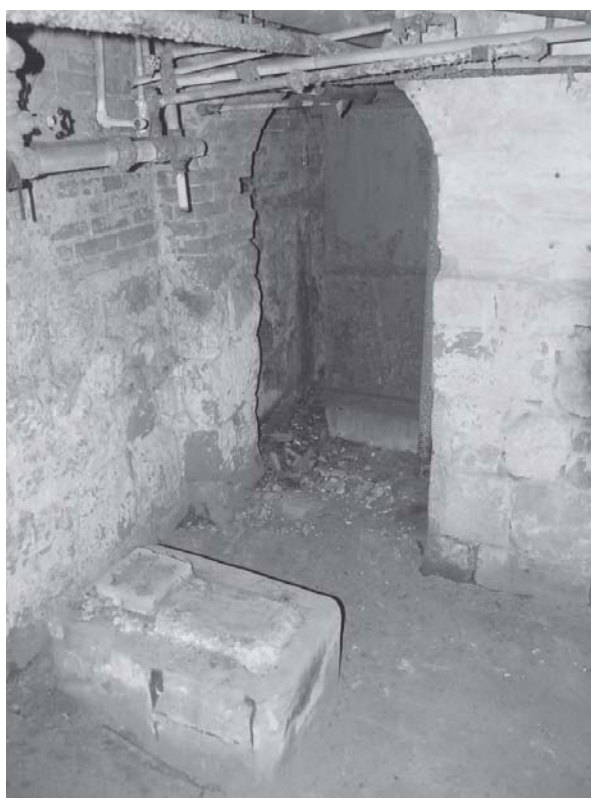
[사진 3-51] 지하 1층 ㊹ 방향 모습



[사진 3-52] 지하 1층 ㊺ 방향 모습



[사진 3-53] 지하 1층 ㊻ 방향 모습



[사진 3-54] 지하 1층 ㊼ 방향 모습



[사진 3-55] 지하 1층 ㉔ 방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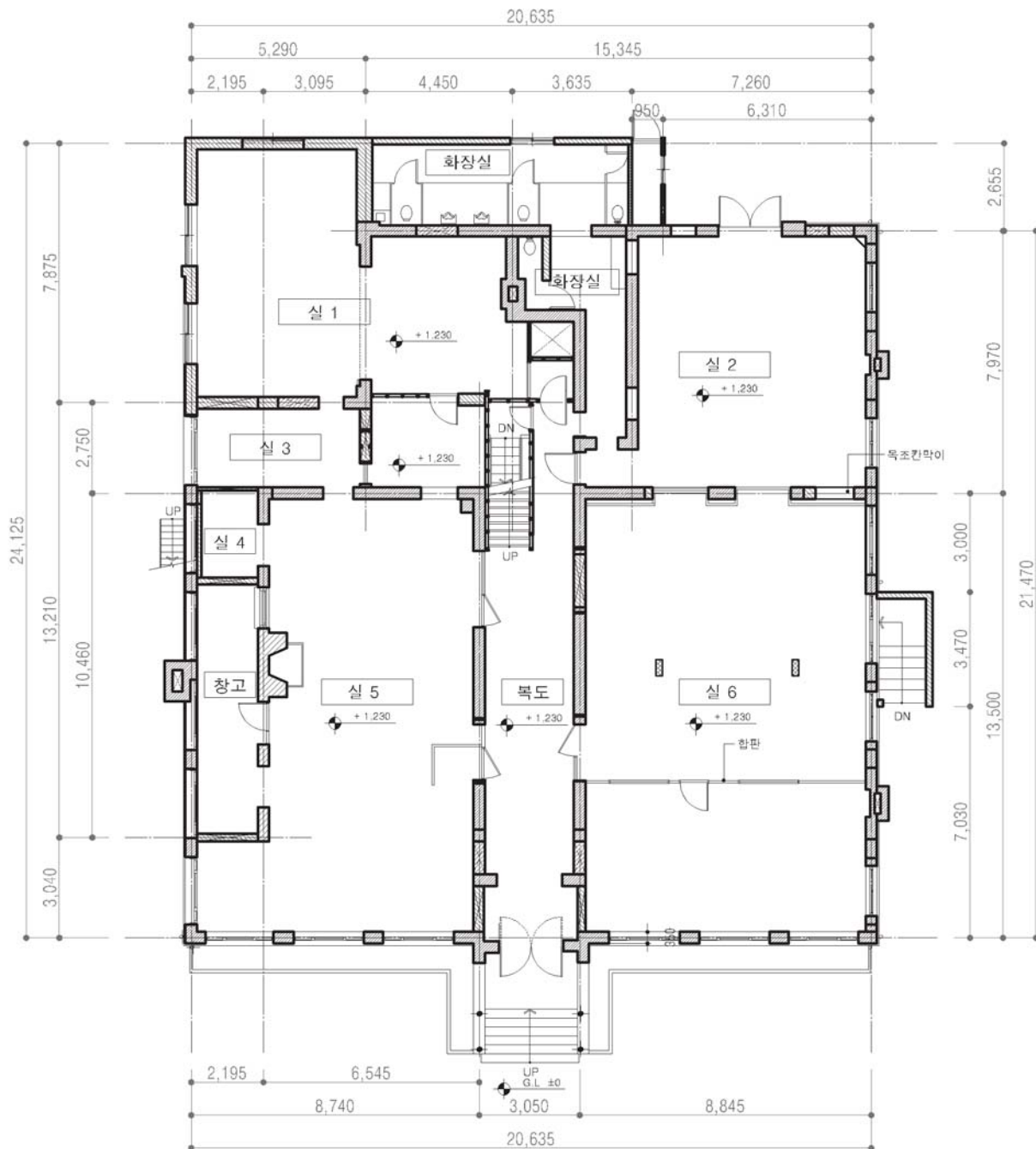


[사진 3-56] 지하 1층 ㉕ 방향 모습

나. 지상 1층 개요

지상 1층은 회랑 없이 전부 내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최근까지 거의 다 사무실용으로 사용되었다. 정면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중앙통로가 나오는데 그 양옆으로 내실이 있다. 동쪽 내실인 ‘실 6’이 있고 북쪽으로는 조적벽으로 구획된 또 하나의 내실인 ‘실 2’가 있었다. ‘실 2’는 천장 구조로 볼 때 과거에 중요한 용도로 사용한 실로 보여진다.[3장 2-2의 나. ‘③ 천장 마감’ 부분 참조] 서쪽 내실인 ‘실 5’는 칸막이벽으로 북쪽에는 ‘실 3’이 있고 서쪽에는 창고와 ‘실 4’가 또 다른 실로 구획되어 있는데 ‘실 4’와 ‘창고’는 아마도 과거에 회랑으로 구획된 벽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서쪽 모퉁이쪽으로는 후대에 추가 증축된 내실이 있는데 사무실과 화장실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중앙통로 끝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목조계단이 있고 그 옆으로 북서쪽으로 갈 수 있는 폭이 좁은 통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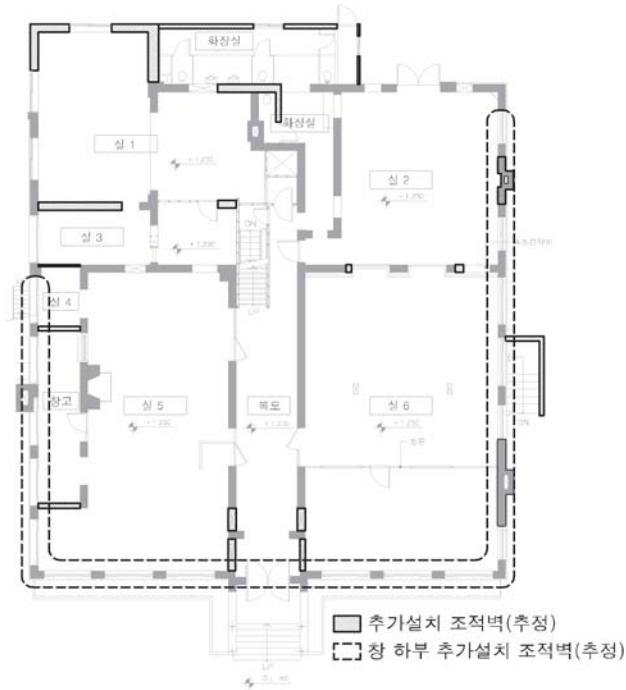
1층에도 벽난로가 있는데 서쪽 내벽쪽인 ‘실 5’에 있는 벽난로와 동쪽인 ‘실 2’와 ‘실 6’ 외벽쪽 벽난로이다. ‘실 5’에 있는 벽난로는 2층까지 연결되고 있었다. ‘실 2’와 ‘실 6’ 외벽쪽에 있는 벽난로는 마감재가 있었을 때는 확인이 안 되었으나 마감을 해체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벽난로와 관계가 있는 굴뚝이 외벽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 벽난로는 아마도 후대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지하 1층 동쪽 내벽쪽에 있는 벽난로는 1층에는 그 흔적이 없었다. 아마도 후대에 회랑을 없애면서 더불어 벽난로도 없앴 것으로 보인다.



[도면 3-16] 지상 1층 현황 평면도

1층 조적벽은 그 두께가 1.5B로 되어 있었다. 1층은 지하층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랑의 변화이다. 서쪽 일부에 과거 회랑의 흔적이 보이지만 지금은 전혀 회랑 없이 전부 내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내실들 또한 매우 복잡하게 얹혀 있었고 지하 1층처럼 군데군데 벽을 헐거나 새로 세워 내부 간살이벽에 변화가 많았다. 지상 1층도 지하 1층처럼 그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조적벽을 추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출입구나 창호를 막은 것이며 세 번째는 벽을 철거한 부분이다. 다행히 보수과정에서 벽 마감을 해체하면서 그 흔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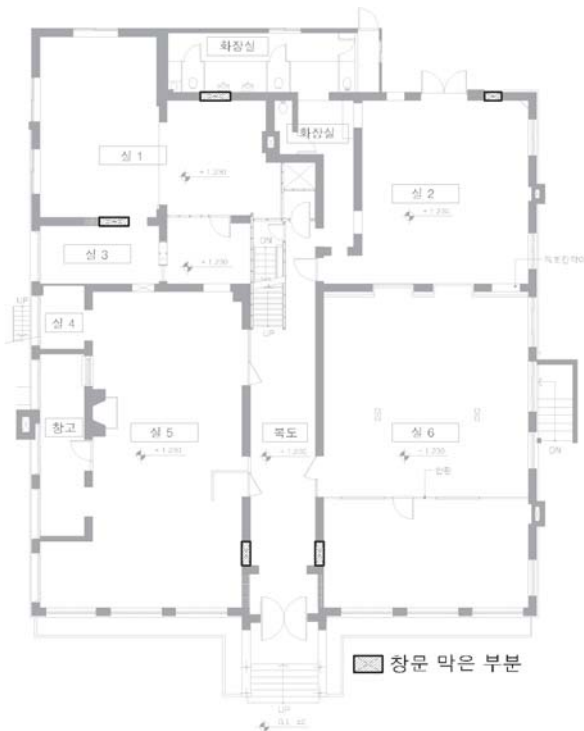
있고 이를 근거로 1층에 회랑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3-2의 ‘1층 회랑 원형조사’ 부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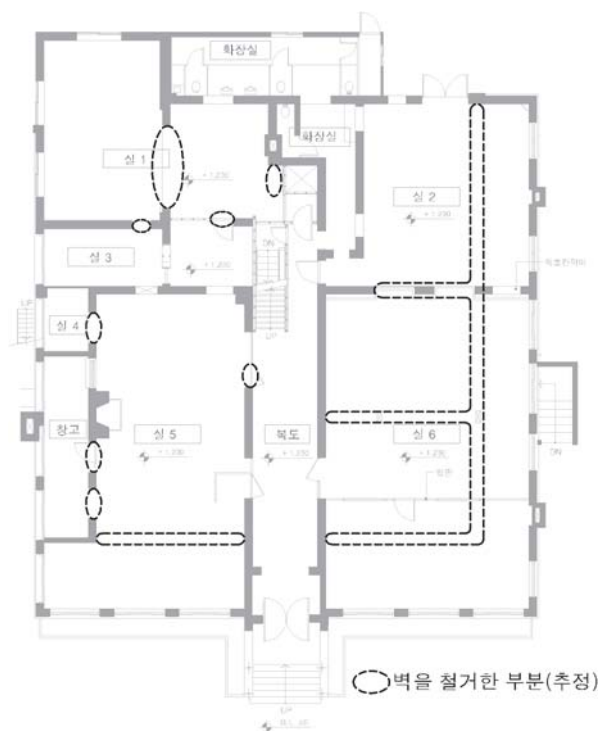
[도면 3-17] 지상 1층 추가설치 추정 조적벽



[도면 3-18] 지상 1층 출입구를 막은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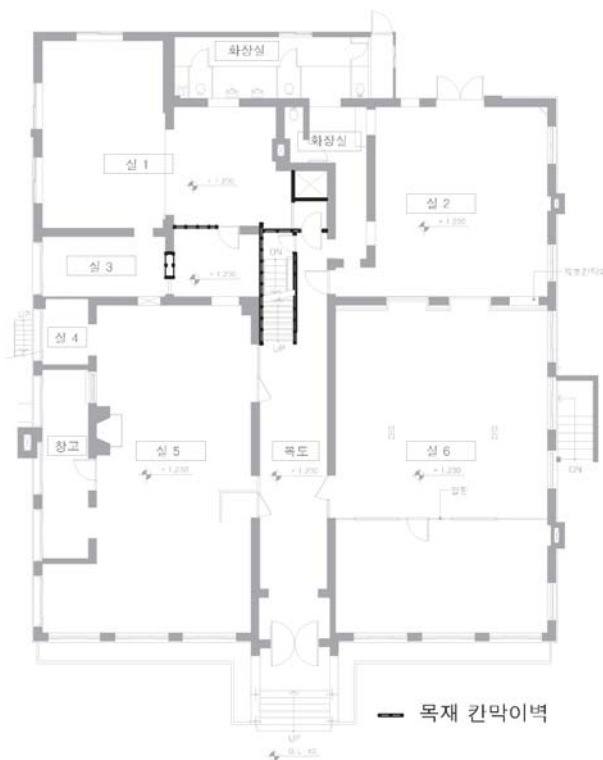


[도면 3-19] 지상 1층 창문을 막은 부분



[도면 3-20] 지상 1층 기존벽을 철거한 부분

첫 번째 경우인 추가조적벽 설치 부분은 크게 북서쪽에 있는 ‘실 1’ 부분과 서쪽과 남쪽, 동쪽의 외벽부분이다.[도면 3-17] ‘실 1’은 증축하면서 생긴 공간이기 때문이고 외벽쪽 부분은 기존 회랑을 철거하고 외벽을 구성하면서 추가된 부분이다. 또 남쪽 정면 입구에도 추가조적벽이 있는데 과거에 회랑을 연결하는 통로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경우인 출입구와 창문을 막은 부분은 [도면 3-18], [도면 3-19]이다. 세 번째 경우는 기존벽을 철거한 경우로 [도면 3-20]과 같다.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회랑을 철거한 경우이다. 그 외에 목재칸막이벽이 있다. 이 부분은 중앙통로에 있는 계단 좌·우측벽과 인근벽에만 있다. [도면 3-21]



[도면 3-21] 지상 1층 목재 칸막이벽 부분



[도면 3-22] 지상 1층 사진안내도



[사진 3-57] 1층 ① 방향 모습



[사진 3-58] 1층 ② 방향 모습



[사진 3-59] 1층 ③ 방향 모습



[사진 3-60] 1층 ④ 방향 모습



[사진 3-61] 1층 ⑤ 방향 모습



[사진 3-62] 1층 ⑥ 방향 모습



[사진 3-63] 1층 ⑦ 방향 모습



[사진 3-64] 1층 ⑧ 방향 모습



[사진 3-65] 1층 ⑨ 방향 모습



[사진 3-66] 1층 ⑩ 방향 모습



[사진 3-67] 1층 ⑪ 방향 모습



[사진 3-68] 1층 ⑫ 방향 모습



[사진 3-69] 1층 ⑬ 방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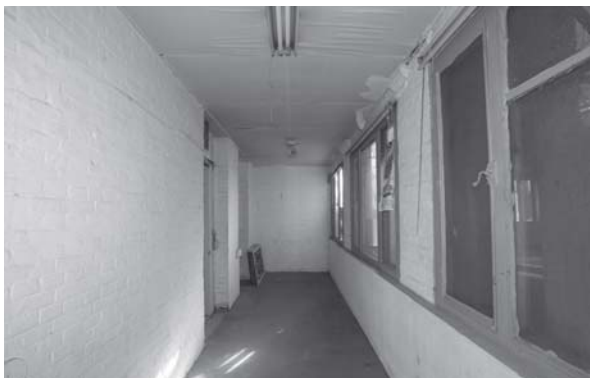
[사진 3-70] 1층 ⑭ 방향 모습



[사진 3-71] 1층 ⑮ 방향 모습



[사진 3-72] 1층 ⑯ 방향 모습



[사진 3-73] 1층 ⑰ 방향 모습



[사진 3-74] 1층 ⑱ 방향 모습



[사진 3-75] 1층 ㉑ 방향 모습



[사진 3-76] 1층 ㉒ 방향 모습



[사진 3-77] 1층 ㉓ 방향 모습



[사진 3-78] 1층 ㉔ 방향 모습



[사진 3-79] 1층 ㉕ 방향 모습



[사진 3-80] 1층 ㉖ 방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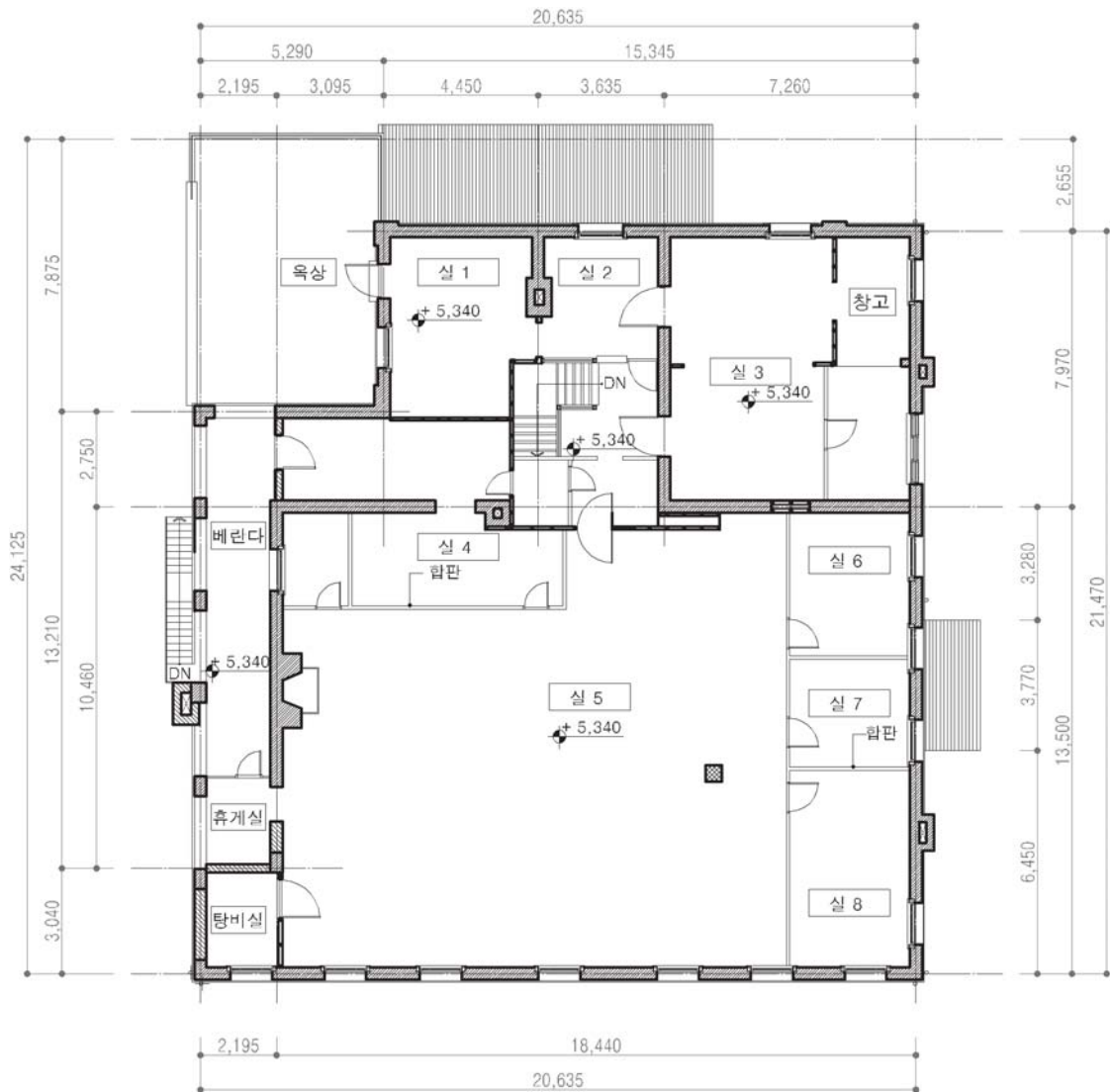
[사진 3-81] 1층 ㉔ 방향

[사진 3-82] 1층 ㉔ 방향

[사진 3-83] 1층 ㉔ 방향

[사진 3-84] 1층 ㉔ 방향

다. 지상 2층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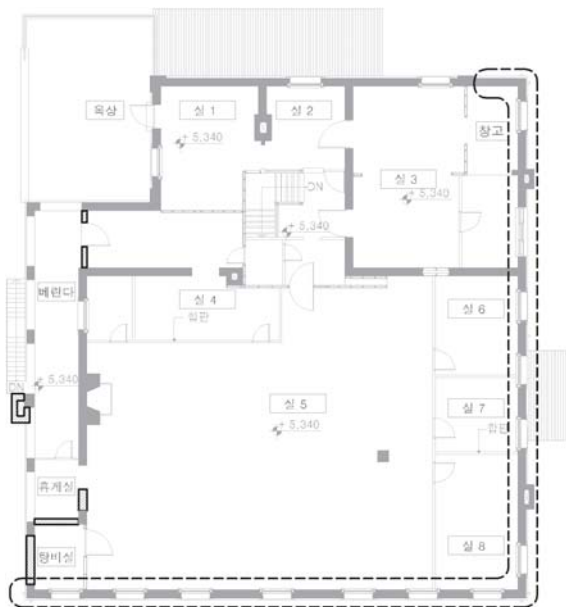


[도면 3-23] 2층 현황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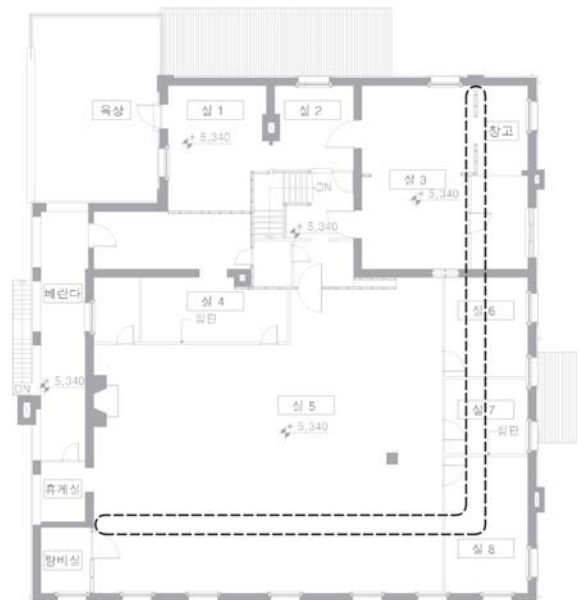
지상 2층도 지상 1층과 같이 거의 전부가 내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서쪽 일부에 회랑이 있는 것이 다르다. 1층 계단을 통해 올라오면 조그만 크기의 중앙로비가 있고 이 로비를 통해 각실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이다. 남쪽으로 아주 큰 규모의 내실인 ‘실 5’가 있고 이 내실 동쪽과 북쪽 일부에는 경량칸막이로 막은 작은 방들이 있다. 서쪽에는 원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회랑이 남아 있다. 이 회랑은 개방되어 있고 이 회랑을 통해 북서쪽에 있는 1층에서 증축된 부분의 옥상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큰 내실 북서쪽과 북동쪽에도 방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서쪽에는 2개의 방이 있고 북쪽에는 1개의 방, 북동쪽에도 1개의 방이 있다. 북동쪽에 있는 방 ‘실 3’ 안에는 경량칸막이로 막은 작은 방 2개가 있다.

2층도 1층과 같이 과거에는 남쪽과 동쪽, 서쪽에 회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후대에 와서 이를 철거하고 내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2층도 지하층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랑의 변화이다. 서쪽 일부에 과거 회랑의 흔적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흔적이 되고 있다. 다만 1층과 달리 과거에 회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서쪽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

2층 조적벽도 그 두께가 1.5B로 되어 있었다. 2층에도 벽난로가 있는데 1층과 같은 위치인 서쪽벽에 설치되어 있었고 마찬가지로 동쪽에는 벽난로 흔적이 전혀 없었다. 2층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층과 같이 회랑의 변화이다. 서쪽 일부에 과거 회랑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그 외에는 모두 회랑 없이 내실로 꾸며져 있었다. 지상 2층의 변화된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조적벽을 추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벽을 철거한 부분이다. 다행히 보수과정에서 벽 마감을 해체하면서 그 흔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2층에 회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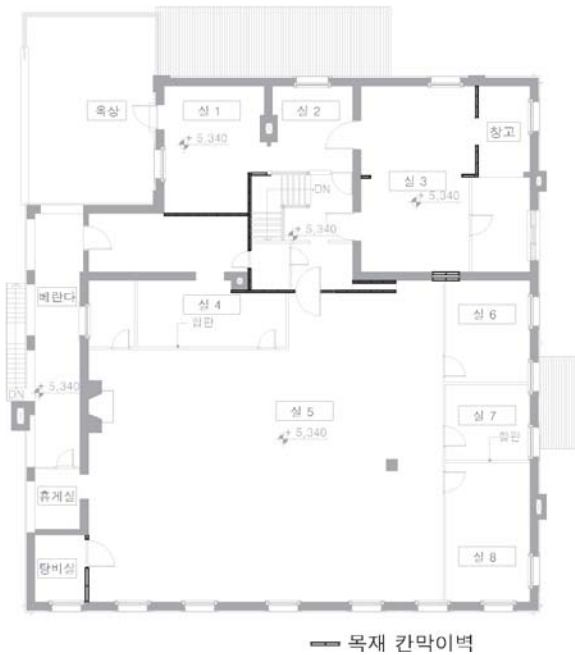


[도면 3-24] 지상 2층 추가설치 추정 조적벽



[도면 3-25] 지상 2층 기존벽을 철거한 부분

첫 번째 경우인 추가조적벽 설치 부분은 크게 서쪽에 있는 탕비실과 휴게실 부분이고 남쪽과 동쪽 외벽의 창 하부부분이다. 창 하부부분은 회랑을 없애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고 탕비실이나 휴게실은 후대에 필요에 의해 생긴 것이다. [도면 3-24] 두 번째 경우는 기존벽을 철거한 경우이다. [도면 3-25]과 같다.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회랑을 철거한 경우이다. 그 외에 목재칸막이벽이 있다. 이 부분은 중앙통로에 있는 계단 좌·우측벽과 인근벽에만 있다. [도면 3-26]



[도면 3-26] 지상 2층 목재 칸막이벽 부분



[도면 3-27] 2층 사진안내도



[사진 3-85] 2층 ① 방향 모습



[사진 3-86] 2층 ② 방향 모습



[사진 3-87] 2층 ③ 방향 모습



[사진 3-88] 2층 ④ 방향 모습



[사진 3-89] 2층 ⑤ 방향 모습



[사진 3-90] 2층 ⑥ 방향 모습



[사진 3-91] 2층 ⑦ 방향 모습



[사진 3-92] 2층 ⑧ 방향 모습



[사진 3-93] 2층 ⑨ 방향 모습



[사진 3-94] 2층 ⑩ 방향 모습



[사진 3-95] 2층 ⑪ 방향 모습



[사진 3-96] 2층 ⑫ 방향 모습



[사진 3-97] 2층 ⑬ 방향 모습



[사진 3-98] 2층 ⑭ 방향 모습



[사진 3-99] 2층 ⑮ 방향 모습



[사진 3-100] 2층 ⑯ 방향 모습



[사진 3-101] 2층 ⑰ 방향 모습



[사진 3-102] 2층 ⑱ 방향 모습



[사진 3-103] 2층 ⑲ 방향 모습



[사진 3-104] 2층 ⑳ 방향 모습



[사진 3-105] 2층 ㉑ 방향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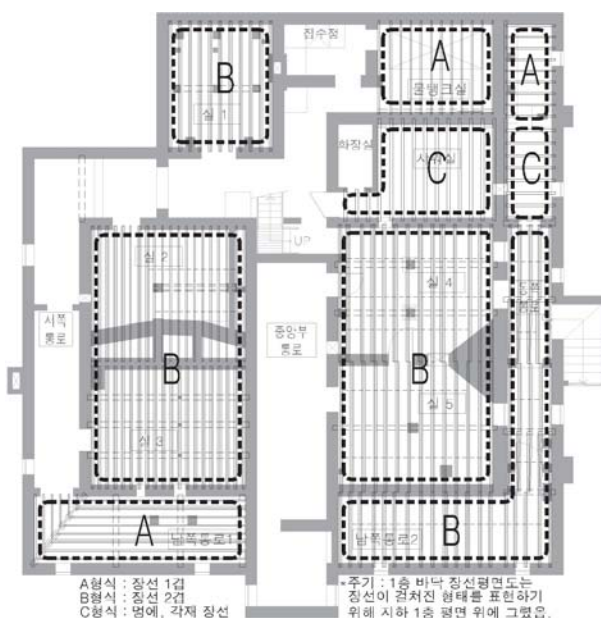
[사진 3-106] 2층 ㉒ 방향 모습

2-2. 단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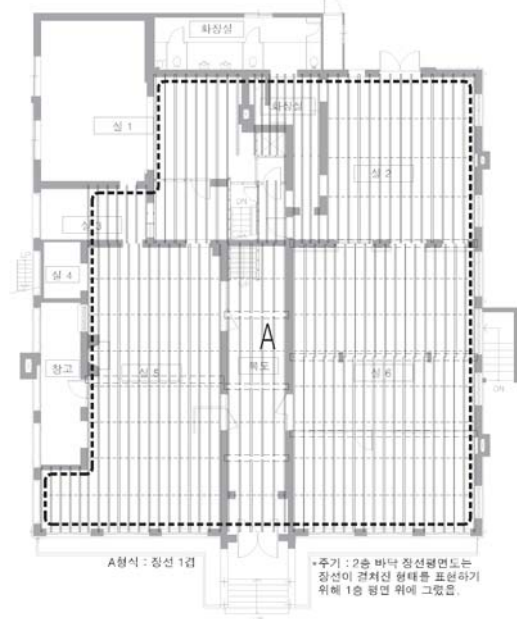
가. 바닥 구조

중명전의 바닥구조는 두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적벽에 장선을 촘촘하게 걸고 그 위에 마루널을 깔 목조마루널 형식과 콘크리트슬라브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1층에서는 지하층의 ‘실 1’, ‘실 2’, ‘실 3’, ‘실 4’, ‘실 5’, 남쪽 통로, 동쪽통로, 물탱크실, 샤워실의 상부가 목조마루널 형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다. 2층에서는 1층의 ‘실 3’, ‘실 4’, 창고 상부부분은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목조마루널형식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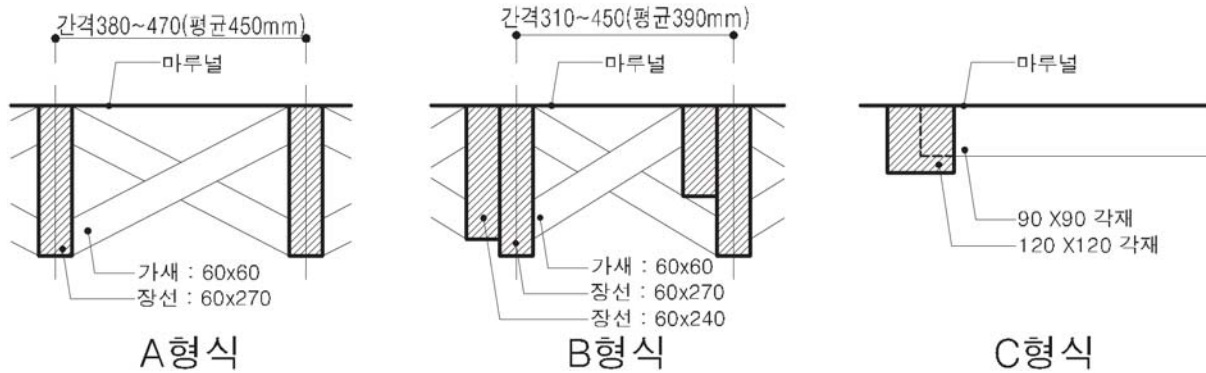
목조마루널 형식을 살펴보면 조적벽에 받침재 없이 장선을 놓거나 또는 평균 60×60cm각재를 놓고 그 위에 장선을 설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각재를 놓은 이유는 장선 높이를 맞추기 위함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선은 조적벽에 100~150mm정도 물려서 설치하였다. 장선 구조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는 판재로 된 장선이 한 겹으로 된 ‘A형식’ 경우이고 두 번째는 판재 두 겹을 겹쳐 하나로 된 ‘B 형식’ 구조, 세 번째는 각재로 된 ‘C 형식’ 구조이다.



[도면 3-28] 1층 장선 유형 안내도



[도면 3-29] 2층 장선 유형 안내도



[도면 3-30] 장선 구조 형식

목조마루널 형식의 첫 번째 형태는 2층 마루에서 나타난다. 모두 한 겹으로 되어 있었고 남북방향으로 길게 깔았다. 그 간격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 450mm 정도 된다. ‘실 1’은 385mm 내외이고 ‘실 2’에서 ‘실 6’까지는 470mm 정도 되었다. 중앙복도는 좀 더 넓어서 530mm 정도 되었다. 아마도 거실이 아니다 보니 좀 더 여유를 둔 것으로 보이며 장선을 받아주는 멍에가 비교적 좁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선은 두께가 평균 60mm이고 굵은 270mm 정도 되었다. 장선이 거의 판재와 같다 보니 좌굴이 생길 것을 고려해 장선과 장선 사이에 60×60mm되는 각재로 가새를 연결하여 고정하였다. 가새 간격은 위치마다 다르나 1,500~2,000mm 정도 되었다.

2층 ‘실 6’의 경우 장선이 설치될 총 길이가 8,200mm이다 보니까 처짐이 생길 것을 고려해 실 중간에 버팀기둥을 두고 그 위에 약 300×300mm 정도 되는 굵은 목재로 버팀용 멍에를 2개 설치한 후 장선을 걸었다. ‘실 5’의 경우에는 버팀기둥 없이 조적벽에 버팀멍에를 1개 설치하고 그 위에 장선을 걸도록 하였다. 버팀멍에가 1개이다 보니 ‘실 6’에 비해 장선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었다. ‘실 2’의 경우는 버팀멍에 없이 장선을 설치하였다.



[사진 3-107] 해체된 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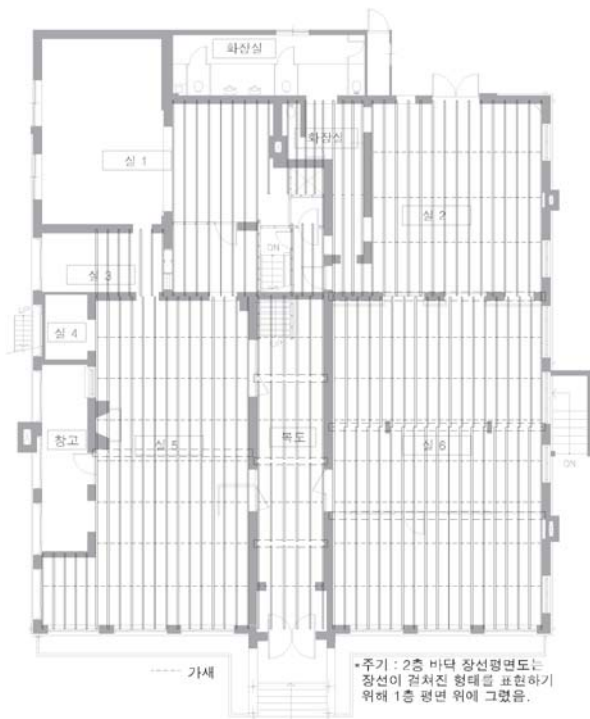
[사진 3-108] 해체된 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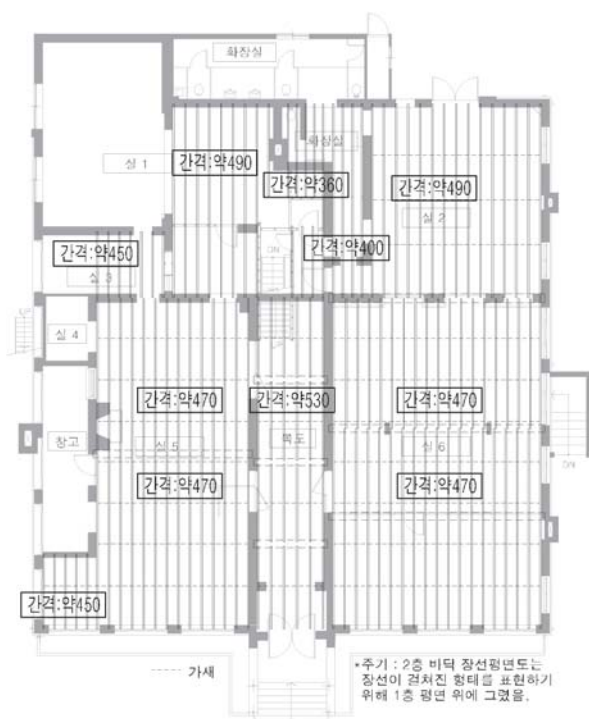
[사진 3-109] '실 6'의 버팀기둥과 버팀머에



[사진 3-110] '실 5'의 버팀머에



[도면 3-31] 2층 장선 평면도



[도면 3-32] 2층 장선 간격 안내도

두 번째 형태는 1층 마루에서 나타난다. 2층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장선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추정하기에는 실 용도상의 문제일 가능성과 춤 크기 차이로 인한 가능성이다. 2층에서 남쪽방인 '실 5'는 가장 큰방으로 되어 있다. 큰방이 가끔 쓰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굳이 장선을 두겹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추정은 장선크기 문제이다. 2겹 장선을 자세히 보면 '실 4'와 '실 5'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는 2겹 장선의 크기가 서로 다른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즉, 시대를 달리해서 장선을 보강한 흔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노후화된 상태와 목재의 퇴락된 색깔로 볼 때 좀 더 시대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장선은 그 크기가 평균 $60 \times 210\text{mm}$ 정도이고 후대에 보강한 것으로 보이는 장선은 $60 \times 270\text{mm}$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거기에서 장선 좌굴을 방지하는 가새도 연결방법이 매끄럽지 못

한 면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1층 바닥 장선은 애초에는 한 겹이었고 2층 마루 장선보다 그 크기가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작은 크기로 인해 생기는 구조적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나중에 좀 더 큰 부재를 추가 설치한 것이며 이때 서로 다른 크기의 장선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장선의 간격도 차이가 난다. 2층에 비해 1층이 비교적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2층은 비교적 장선간격이 일정하나 1층은 실마다 차이가 있었다. 지하층 상부인 ‘실 1’의 경우는 평균 390mm이고 ‘실 2’와 ‘실 3’은 310mm 내외, ‘실 4’와 ‘실 5’는 460mm내외이다.

장선방향도 각실마다 차이가 있다. 2층 바닥의 경우는 남북으로 일관성 있게 간 반면 1층 바닥의 경우는 대부분 남북방향으로 깔았지만 북동쪽 일부와 남서쪽 통로 일부는 동서방향으로 깔려 있었다. 아마도 수리를 하면서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다가 2층 바닥의 경우는 보수한 흔적이 많지 않으나 1층 바닥의 경우는 보수한 흔적이 많고, 지하층에서 동바리로 상부마루를 지탱하여 보강한 흔적이 많은 것으로 볼 때 그동안 수없이 보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선의 방향과 간격, 장선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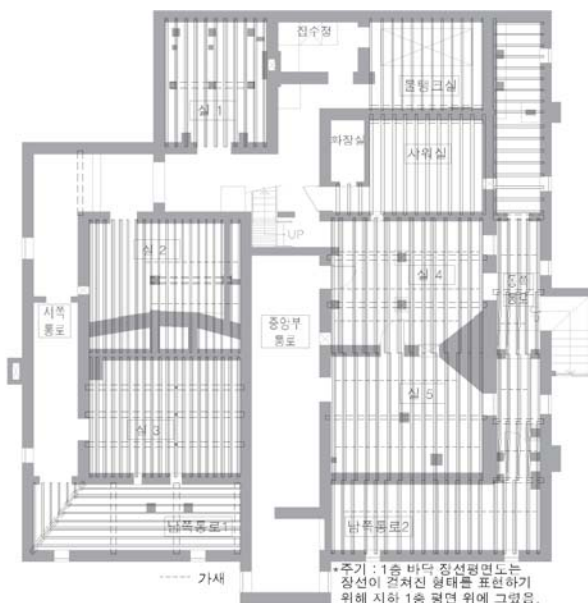
1층 전체가 두 겹 장선으로 된 것은 아니다. 지하층의 물탱크실과 샤워실, 남쪽통로 1, ‘실 3’의 일부 등은 한 겹으로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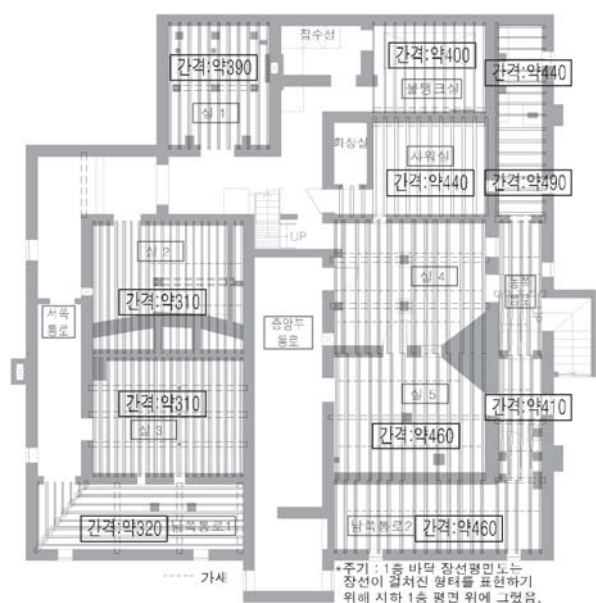
[사진 3-111] 1층 마루 장선의 구성(크기 차이가 난다)



[사진 3-112] 1층 마루 장선의 구성(색깔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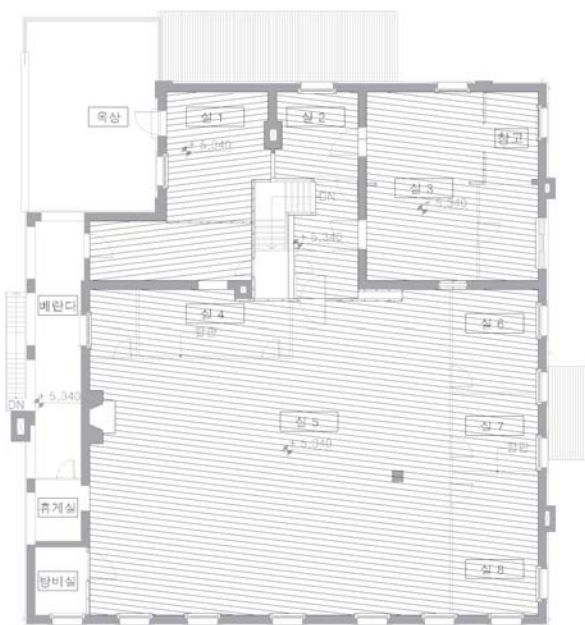
[도면 3-33] 1층 장선 설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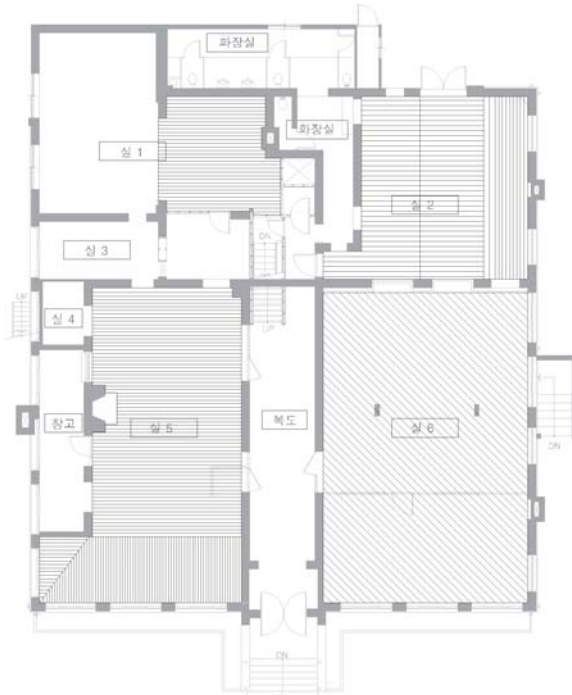
[도면 3-34] 1층 장선 간격 안내도

1층 마루 바닥은 장선 위에 두께 21mm 정도에 폭 240mm 내외인 육송판재를 촘촘하게 깔았다. 판재는 기본적으로 장선의 직각방향으로 깔려 있었다. 다만 ‘실 6’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판재를 장선의 직각방향으로 깎 것이 아니라 약 45° 사선방향으로 깔은 점이다. 일반적으로 직각방향을 까는 것이 상식인데 이 경우는 달랐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목재의 뒤틀림과 관계가 있지 않은가 싶다. 직각방향의 경우에는 뒤틀림이 생길 경우 그 뒤틀림 라인의 경우 명확하게 보이지만 사선방향의 경우 장선과 같은 방향이어서 뒤틀림의 정도가 미약하고 따라서 그 라인도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1층에서 서쪽에 있는 ‘실 5’의 경우에만 육송판재 위에 두께 9mm이고 폭 65mm인 참나무 후로링과 두께는 같지만 폭이 조금 큰 115mm 참나무 후로링이 서로 직각방향으로 깔려 있었다. 이중으로 마루널을 깎 이유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조금 달랐다. 목재 후로링 위에 300×300mm인 아스타일이 깔리고 다시 그 위에 장판지가 깔려 있었다. 원래는 육송 판재로 마감되어 있었는데 후대에 추가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2층 마루 바닥은 1층과 조금 다르다. 장선 위에 육송판재를 깔고 합판이 깔려 있었고 합판 위에 비닐을 깎 후 두께 20mm되는 스티로폴을 깔았다. 다시 그 위에 두께 20mm 정도로 시멘트몰탈을 깎 후 그 위에 아스타일로 마감되어 있었다. 2층도 애초에는 육송판재가 최종 마감재였으나 후대에 필요에 의해 마감재를 추가 한 것으로 보인다. 2층 육송판재 마루는 모두 장선과 사선방향으로 깔려 있었는데 1층에 비해 경사각이 작은 약 15° 내외인 점이 달랐다.



[도면 3-37] 1층 마루 평면도(현황)



[도면 3-38] 2층 마루 평면도(현황)

세 번째 형태는 1층 마루 중에서 지하층 동쪽 통로 북쪽 일부와 샤워실 상부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와는 달리 구법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앞의 경우는 조적벽에 장선을 걸친 반면, 세 번째 경우는 조적벽에 멍을 깔고 멍에와 같은 높이에서 멍을 반턱 깎아 그 위에 장선을 걸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장선의 크기도 다르다. 앞의 경우, 장선이 판재에 가까운 반면 이 경우에는 각재에 가깝게 되어 있다. 폭이 90mm에 춤이 120mm 정도 된다. 장선의 방향도 다르다. 멍에는 폭이 120mm, 춤이 120mm로 장선보다 조금 두껍다. 앞의 두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남북방향으로 길게 깔려 있는 반면에 이 경우에는 동서방향으로 깔려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세 번째 경우는 근래에 보수하면서 교체된 것이 확실하다.



[사진 3-113] 1층 마루의 각재형 장선



[사진 3-114] 1층 마루의 각재형 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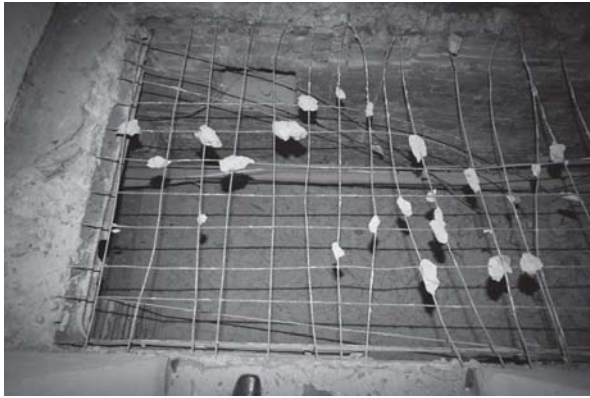
[사진 3-115] 2층 마루 장선과 가새



[사진 3-116] 2층 마루 장선과 가새

콘크리트 슬라브로 된 부분은 1층의 경우 중앙통로부분과 서쪽 회랑쪽, 그리고 북쪽편의 일부이다. 2층의 경우는 서쪽 회랑쪽이다. 언제부터 슬라브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건물 신축 당시는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슬라브와 조적벽과의 연결 관계이다. 슬라브를 타설한 뒤에 벽돌쌓기를 하였다면 벽돌과 슬라브가 만나는 부분이 매끄러울 것이나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였다. 즉, 벽돌벽 일부를 제거하고 슬라브를 나중에 타설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철근의 사용과 그 종류이다. 철근이 이형철근이 아니라 원형철근으로 되어 있었다. 원형철근은 상당히 오래전에 사용된 것이지만 재축 당시인 1925년 경에 보편적인 건축재료는 아니었고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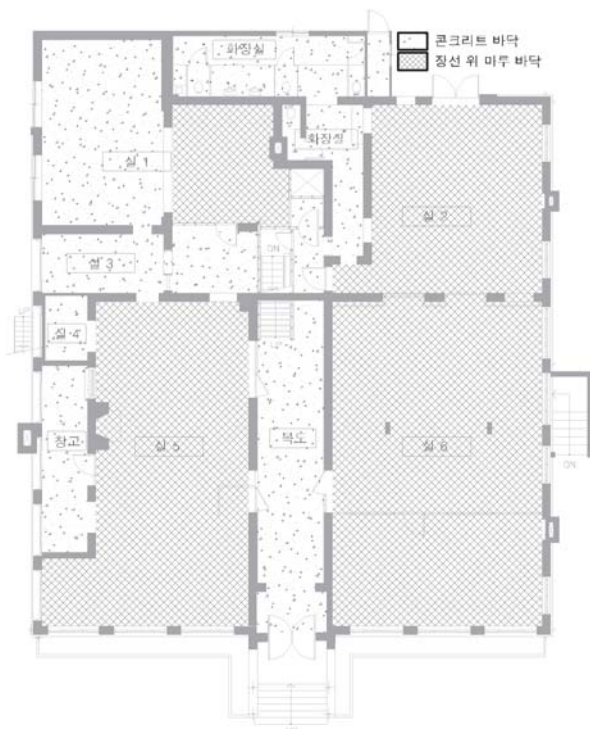
근 사용 또한 보편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거기다가 대부분 목재마루널로 되어 있는 바닥구조 형식에서 굳이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는 것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슬라브는 후대에 보수를 하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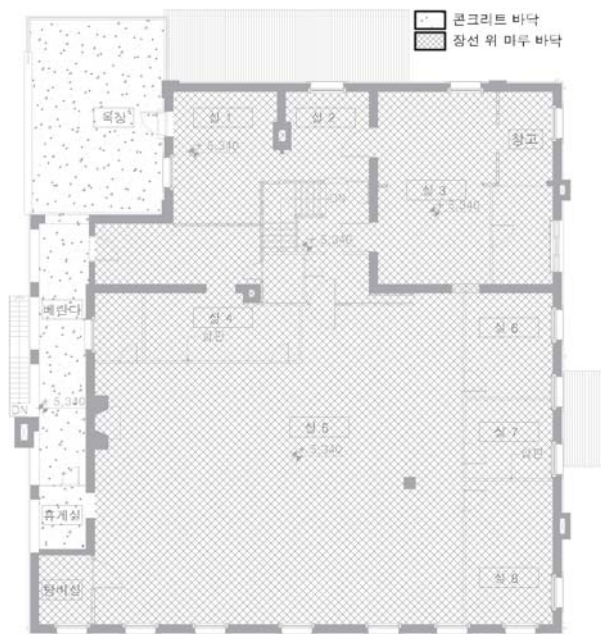
[사진 3-117] 1층 바닥 슬라브 철근



[사진 3-118] 1층 바닥 슬라브 철근



[도면 3-35] 1층 바닥 구조 형식



[도면 3-36] 2층 바닥 구조 형식

나. 마감재료

① 바닥 마감

지하층 바닥은 시멘트몰탈로 마감되어 있었다. 두께 200mm 내외의 점토다짐으로 보이는 지반 위에 바로 시멘트몰탈이 두께 50mm 정도 깔려 있었다.



[사진 3-119] 1층 마루 바닥 마감(실 5 부분)



[사진 3-120] 2층 마루 바닥 마감(실 5 부분)

② 벽 마감

지하 1층은 벽 마감 없이 모두 치장벽돌로 되어 있었다. 다만 화장실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었다.

지상 1층의 경우 최종 마감은 벽지나 수성페인트로 마감되어 있었는데 기존벽체에 30mm 각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합판을 댄 후 벽지나 페인트로 최종 마감되어 있었다. 이는 근래에 이루어진 것이고 애초에는 달랐다. 최종 벽 마감재를 뜯어낸 결과 크게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났다. 조적벽이 그대로 노출된 것과 조적벽 위에 석회물탈마감으로 된 경우이다. 이 둘은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재되어 있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조적벽 위에 석회물탈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보수과정에서 석회물탈 부분이 탈락된 것으로 보인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1층 ‘실 2’ 부분이다. 이 방에는 석회물탈 위에 왕골벽지가 일부 남아 있었는데 왕골벽지가 언제 붙어 있었는지는 확인 할 수 없었다.

2층 경우도 1층과 같은 방식이었다. 다만 다른 점은 계단이 있는 복도 부분 벽에는 석회물탈 위에 페인트처럼 보이는 녹색칠로 마감되어 있었는데 페인트 종류보다는 단청에 쓰이는 뇌록으로 보였다. 그 외의 방은 모두 조적벽이 노출되어 있거나 석회물탈로 마감되어 있었다.

중명전에 쓰이는 석회물탈은 조적벽 위에 발라져 있거나 목재 줄대판벽 위에 발라져 있었다. 그 두께가 약 30mm 정도였다. 석회물탈 바탕이 두 종류이다 보니 석회물탈도 [표 3-5]와 같이 두 종류로 되어 있었다. 즉, 벽돌벽이 바탕인 경우에는 초벌로 진흙과 여물을 섞어 바르고 재벌로 모래와 삼모가 섞인 회를 바르며 정벌로 회로 마감하였고 목재 줄대판벽은 벽돌벽에 초벌로 바른 진흙과 여물을 바르지 않고 모래와 삼모가 섞인 회를 바른 후 정벌로 회로 마감한 것이다.

[표 3-5] 중명전 석회물탈 구성

바탕	마감 방법	바탕	마감방법
벽돌벽 바탕	• 초벌 : 진흙+여물 • 재벌 : 모래섞인 회+삼모 • 정벌 : 회마감	줄대 바탕	• 초벌 : 모래섞인 회+삼모 • 정벌 : 회마감



[사진 3-121] 벽돌벽 바탕 회벽마감(현황)



[사진 3-122] 줄대 바탕 회벽마감(현황)



[사진 3-123] 2층 벽지 마감 부분



[사진 3-124] 2층 중앙 홀 뇌록 마감(추정)

③ 천장 마감

지하 1층은 천장 마감 없이 노출되어 있다.

1층과 2층 천장 마감은 기본적으로 목재로 달대를 만든 후 3mm 합판을 대고 벽지로 마감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마감은 후대에 필요에 의해 교체 된 것이고 비교적 옛것이라고 판단되는 천장이 1층과 2층에서 일부 남아 있었다.

1층의 경우 그 흔적이 확실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실 2’ 천장과 ‘실 3’ 천장이다. 이 천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장선에 10×33mm 되는 줄대를 박고 이 줄대를 바탕으로 해서 두께 9mm 내외의 석회물탈을 바른 후 여기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목조벽을 구성하는 구법과 동일한 구법이다. ‘실 2’ 천장에서 재미있는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장 중간에 줄대를 방사형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었다. 아마도 어떤 목적을 위해 천장을 일부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로 추정한 결과 상들리에와 같은 무거운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상들리에가 이 방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 방의 격이 다른 방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를테면 접견실이거나 침실 정도로 사용되지 않았나 싶다.

2층도 1층과 같이 기본적으로 장선에 줄대를 박고 석회물탈을 바른 후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 다만 가장 큰방인 ‘실 5’의 경우는 최종 마감재가 조금 달랐는데 줄대 바탕으로 30×30mm 되는 각재로 정사각형 틀을 짜고 그 틀 안에 다시 12×12mm 각재로 만(卍)자와 비슷한 모양으로 틀을 짰

후 여기에 얇은 합판을 붙여 그 위에 페인트로 마감하였다. 이 구성은 후대에 추가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3-125] 1층 '실 3'의 천장 마감(줄대 바탕에 석회물탈을 바르고 페인트로 칠해져 있다.)



[사진 3-126] 1층 '실 2'의 천장 마감(중앙에 방사형으로 보강한 구조가 보인다.)



[사진 3-127] 2층 '실 5'의 천장 마감



[사진 3-128] 2층 '실 5'의 천장 마감

2-3. 입면 조사

가. 개요

중명전의 외관은 몇 번의 변화과정을 거쳤다. 복원공사 전의 중명전 입면을 보면 2층 북서쪽 일부를 제외하고 외벽이 모두 조적벽으로 둘러 쌓인 모습이다. 벽은 대부분이 흰색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 페인트는 최소한 3~4번 정도 덧칠해져 있었던 것 같았다. 페인트를 긁어내 본 결과 처음에 수성페인트로 도색했다가 두 번째에는 유성페인트로, 세 번째는 다시 수성페인트로 도색한 것으로 보였다. 일부 탈락된 외벽을 보면 적벽돌과 흑벽돌이 동시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군데군데 보수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특히 배면쪽은 덧붙여 사용한 공간으로 인해 애초 중명전 모습에서 많이 달라져 있었다. 블록도 사용하였고 시멘트벽돌도 사용되어 있었다.

정면에 있는 입구도 변화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측면에 소맷돌처럼 쌓은 부분이라던지 아크리판으로 되어 있는 상부 캐노피 등이 변화를 증명하고 있었다.



[사진 3-129] 중명전 정면(흰색페인트로 도장되어 있다.)



[사진 3-130] 중명전 배면(흰색페인트로 도장되어 있다.)



[사진 3-131] 중명전 측면(흰색페인트로 도장되어 있다.)



[사진 3-132] 중명전 입구(보수 전)

나. 아치

외벽에 과거 회랑이 있을 때 있던 아치가 남아있다. 아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다. 결원형아치와 3중심아치이다. 결원형아치는 2층 외벽에 있고 3중심아치는 1층 외벽에 있었다. 결원형아치는 켜기 형벽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벽돌을 사용하고 줄눈 두께를 조정하여 쌓았다. 이 결원형아치는 애초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회랑을 없애면서 생긴 것이다.

3중심아치는 매우 세련된 곡선으로 되어 있었다. 아치는 존재하지만 아치 내부에는 벽돌로 채워져 있다. 후대에 메운 것이다. 3중심아치를 구성하는 벽돌은 이형벽돌을 사용하였다. 이 아치는 1층에는 모두 있고 2층에도 일부 있는데 배면 동쪽부분과 서쪽부분에 남아 있었다. 이 부분은 애초 회랑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아치와 아치가 만나는 부분에는 조적기둥 위에 주두가 있다. 주두 부분에 사용된 벽돌도 이형벽돌로 되어 있었다.

아치 위에는 층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형벽돌을 이용하여 0.25B씩 두 번 내쌓기 하였다.

아치 아래, 창대석 높이 정도에도 벽돌 2장이 0.25B 내쌓기 되어 있다. 1층과 2층 모두 존재하고 있는데 이 또한 3중심아치의 존재처럼 애초에 회랑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난간 두겹석이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3-133] 1층 외벽에 남아 있는 아치 모양(3중심아치)



[사진 3-134] 1층 아치가 만나는 부분의 주두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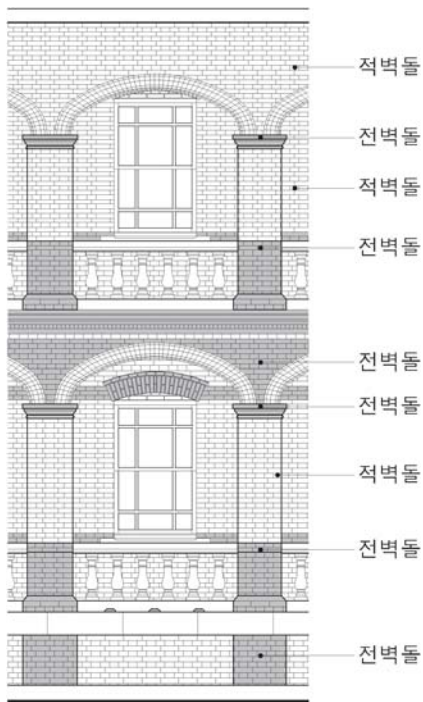


[사진 3-135] 2층 외벽에 남아 있는 아치 모양(결원형아치)



[사진 3-136] 외벽 벽돌 내쌓기 상세

다. 벽돌



[도면 3-39] 전벽돌 사용위치

중명전에서 사용한 벽돌은 색깔로 구분하면 적벽돌과 검정색의 전벽돌 두 종류가 사용되었다. 모양상으로도 일반벽돌과 이형벽돌의 두 종류가 사용되었다. 복원전에는 외벽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어서 색깔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페인트를 벗겨낸 결과 색깔과 모양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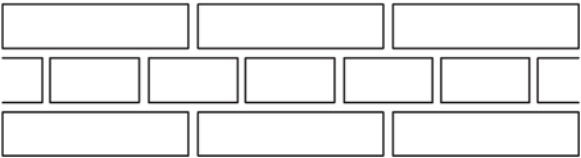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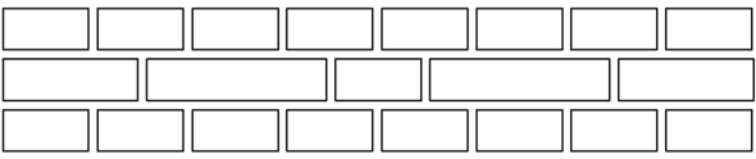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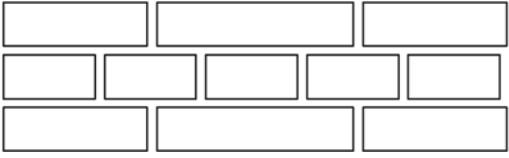
적벽돌은 기본적으로 외벽전체와 내부벽에서 모두 사용하였다. 다만 외부벽에서 일부는 흑색인 전벽돌을 사용하였는데 각층의 허벅지 높이에 있는 창대석이나 두겹대 높이 이하에서 사용하였고 조적기둥의 주두 부분, 층간 구분을 할 수 있는 내쌓기 부분 등에서 사용하였다.

중명전에서 사용된 일반벽돌은 전형적인 직사각형 벽돌이다. 40여개를 샘플링하여 조사한 결과 [표 3-6]과 같았다. 조사 개수가 너무 적어 일반화하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굳이 평균을 내면 $221 \times 108 \times 55\text{mm}$ 이다. 그러나 길이에서 편차가 있어 길이를 $220\sim 230\text{m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벽돌쌓기 방법을 보면 3종류가 있는데 [도면 3-40]처럼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

[표 3-6] 중명전 벽돌 크기 통계표

번호	A	B	C	번호	A	B	C	번호	A	B	C
1	220	100	55	15	220	110	55	29	220	107	53
2	225	105	55	16	220	110	55	30	223	108	55
3	225	105	50	17	225	110	55	31	222	109	56
4	225	110	55	18	220	110	55	32	220	109	57
5	225	110	55	19	225	110	55	33	219	107	53
6	220	110	55	20	220	110	55	34	218	106	54
7	220	110	55	21	221	103	55	35	220	110	56
8	220	110	55	22	227	105	50	36	223	108	55
9	220	105	55	23	225	108	54	37	218	110	57
10	220	110	55	24	224	107	55	38	219	106	53
11	215	110	55	25	227	108	53	39	222	108	54
12	220	110	55	26	218	106	54	40	229	112	53
13	215	110	55	27	219	110	54				
14	220	110	55	28	221	109	52	평균	221.38	108.28	5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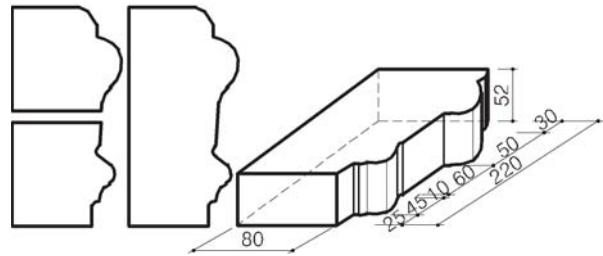
쌓기 모양	위치
	정면 현관 부분 벽돌쌓기
	회랑 아치(정면부분 2개소만)
	회랑 아치(모든 부분)

[도면 3-40] 중명전 벽돌쌓기 모양

이형벽돌은 총 8가지 종류가 있었다. 가장 특별하게 생긴 벽돌은 아치에 쓰이는 벽돌인데 한쪽 면을 곡선으로 만든 벽돌이다. 이 벽돌은 원래 한 종류인데 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위해 기본형을 중간에서 잘라 두 개 더 만든 것 뿐이다. 따라서 8가지 중 3종류는 같다고 할 수도 있다. 기본형의 크기는 220×110×52mm이고 이를 중앙부분에서 잘라 몰탈 두께를 고려해서 조금 작게 만들었다. 각각 그 크기가 210×110×50mm, 210×110×50mm 이다.



[사진 3-137] 아치에 쓰인 이형벽돌 3종류



[도면 3-41] 아치에 쓰인 이형벽돌 3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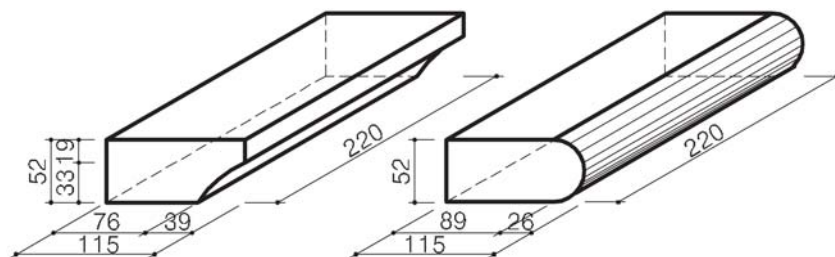
두 번째와 세번째 이형벽돌은 기둥상부에 사용한 내쌓기용 벽돌이다. 윗부분에 사용한 벽돌은 직사각형 벽돌의 길이 방향부분을 오목하게 깎은 모양이고 그 크기는 $220 \times 115 \times 52\text{mm}$ 이었다. 그아래에 사용한 이형벽돌은 직사각형 벽돌의 길이 방향부분을 둥글게 깎은 모양이고 그 크기는 $220 \times 115 \times 52\text{mm}$ 이었다.



[사진 3-138] 기둥상부에 쓰인 이형벽돌(보수 전)



[사진 3-139] 기둥상부에 쓰인 이형벽돌(보수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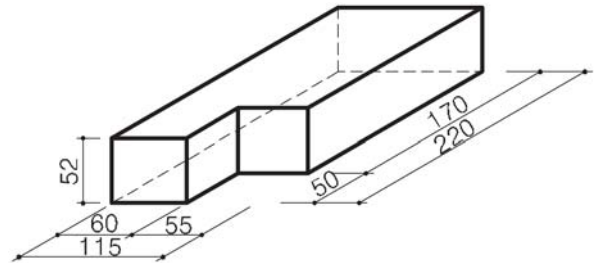


[도면 3-42] 조적기둥 상부에 쓰인 이형벽돌

네 번째 이형벽돌은 층 사이에 사용한 내쌓기용 벽돌이다. 직사각형 벽돌의 마구리를 반으로 자르고 길이방향으로 조금 깎은 모양이다. 그 크기는 $220 \times 115 \times 52\text{mm}$ 이었다.



[사진 3-140] 층 사이 내쌓기용 이형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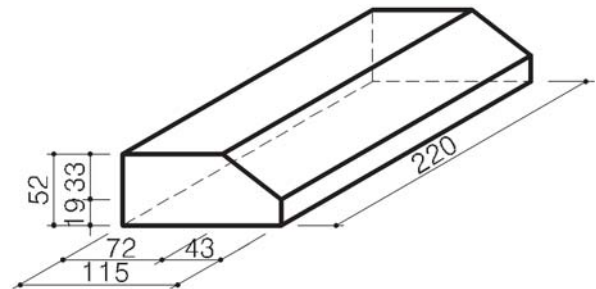


[도면 3-43] 층 사이 내쌓기용 이형벽돌

다섯 번째 이형벽돌은 기둥하부 주좌에 사용한 내쌓기용 벽돌이다. 직사각형 벽돌의 길이 방향부분을 사선으로 깎은 모양이다. 그 크기는 $220 \times 115 \times 52\text{mm}$ 이었다.



[사진 3-141] 기둥하부 주좌에 사용된 이형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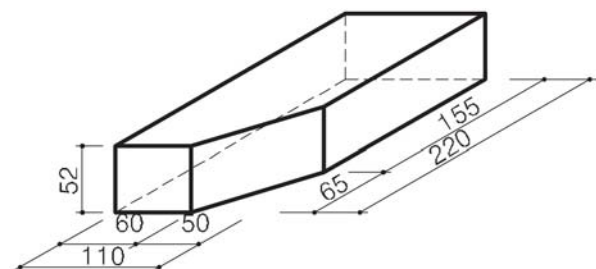


[도면 3-44] 기둥하부 주좌에 사용된 이형벽돌

여섯 번째 이형벽돌은 배면에서 지하층과 1층 사이에서 벽 받침용으로 사용한 벽돌이다. 직사각형 벽돌의 마구리 일부를 사선으로 깎은 모양이다. 그 크기는 $220 \times 110 \times 52\text{mm}$ 이었다.



[사진 3-142] 배면 1층 하부벽에 사용된 이형벽돌



[도면 3-45] 배면 1층 하부벽에 사용된 이형벽돌

일부 벽돌에는 글씨가 음각으로 파인 벽돌이 나왔다. 그 글의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제작 회사 이름과 년도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 싶다. 총 4개의 명문 벽돌이 나왔다. 첫 번째 벽돌은 “SK 32 コウカ” 이라 쓰여 있었다. ‘SK’ 는 기호 같은데 그 의미는 확인이 안 되었고 ‘32’ 는 년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コウカ’ 는 상호를 의미하지 않나 싶다.

두 번째 벽돌에는 “DAY SK 32” 라고 쓰여 있었다. ‘SK 32’ 는 첫 번째 벽돌과 같은데 ‘DAY’ 는 그 의미가 확인이 안 되었다. 이것 또한 상호를 의미하지 않나 싶다.

세 번째 벽돌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위에 “SK” 라고 쓰여진 것은 확실하게 보였고 그 아래에는 ‘朝鮮00’ 라고 희미하게 쓰여진 것이 보였다.

네 번째 벽돌은 지하층 연도부분에서 나온 것인데 “CN☆HK R.O.K”라고 문양이 찍혀 있었다. 그 크기는 220×105mm였다. ‘CN☆HK’ 는 그 의미는 확인할 수 없고 다만 ‘R.O.K’ 는 Republic Of Korea를 의미하지 않나 싶다. 즉, ‘대한민국’ 을 의미하지 않나 싶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벽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SK” 이다. 이 표시가 기호라면 당시의 제품분류와 관계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만약 ‘SK’ 가 지금의 KS표시와 같은 공업규격이나 아니면 년도를 표시한다면 “SK 32” 는 ‘공업규격 32’ 번이나 ‘서기 32년’ 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자칫 확대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조심스럽다. 이들 벽돌은 증명전 외곽경계에 설치된 남쪽 담장 일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수는 많지는 않았다.



[사진 3-143] 명문 벽돌 1



[사진 3-144] 명문 벽돌 2



[사진 3-145] 명문 벽돌 3



[사진 3-146] 명문 벽돌 4

3. 한 장의 사진과 원형조사

3-1. 한 장의 사진



[사진 3-147] 중명전으로 추정되는 사진(같은 사진이지만 해상도가 달라 같이 수록하였다)

위: 『外人の觀たる朝鮮外交秘話』, 아래: 한미사진미술관 제공



[사진 3-148] 현재(2008년)의 중명전 입구

수리를 위한 공사가 시작하면서 우연히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하였다.[사진 3-147] 이 사진은 중명전 수리보고서 작성 일부를 담당하고 있던 근대건축을 공부하는 강성원이 발견하였다. 원래 이 사진은 『外人의觀たる朝鮮外交秘話』(1934)에 실린 사진으로써 1907년 7월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에게 잘 알려진 사진이었다. 다만 배경되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는지는 불분명하였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중명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리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는 (주)아름터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김석순에게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배경건물이 중명전임이 확인되었다. 확인의 주안점은 디테일이었다. 즉, 다른 건물을 같은 설계자나 시공자가 같은 디테일로 설계하거나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현장 여건상 똑같은 디테일이 나오기 어렵고 아주 사소하게나마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확인하였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 아치와 벽돌기둥 위 주두 모양이 같다.

[사진 3-147]에서 위쪽의 우측과 좌측에 보이는 아치가 현재(2008년 기준)의 중명전 아치와 그 모양과 아치를 구성하는 벽돌 갯수가 같았다. 현재의 아치는 결원형아치인데 사진 속의 아치도 결원형아치이고 그 디자인과 상세 그리고 비례가 같았다. 거기에다가 사진에 의하면 아치가 걸리는 벽돌기둥의 주두의 모양과 상세도 같았다. 수리전의 중명전 외벽은 페인트로 도장되어 있어 금방 확인은 안 되었으나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진 3-149] 옛 사진에 있는 아치와 주두 모양



[사진 3-150] 2008년 중명전의 아치



[사진 3-151] 2008년 중명전의 벽돌기둥 주두

② 난간 밑 지하벽 벽돌쌓기 단수와 난간하대석 연결이음 줄눈의 위치가 같다.

1층 난간 밑에는 지하벽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데 그 노출된 상태가 현재의 중명전과 같았다.

우선 살펴본 것이 지하벽의 구조였다. 지면에서 볼 때 벽돌을 받아주는 지대석이 있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았고 그 위로는 난간 하대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구성이 현재의 중명전과 같았다. 거기 에다가 벽돌 단수가 같았다. 옛 사진에서 보이는 벽돌 단수가 10개이고 현재의 중명전도 10개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난간 하대석의 줄눈 위치였다. 옛 사진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하대석이 맞붙는 줄 눈이 보이는데 이 또한 현재 중명전과 같았다. 벽돌쌓기 단수는 설령 같이 할 수 있을지언정 석재 의 길이를 모두 똑같이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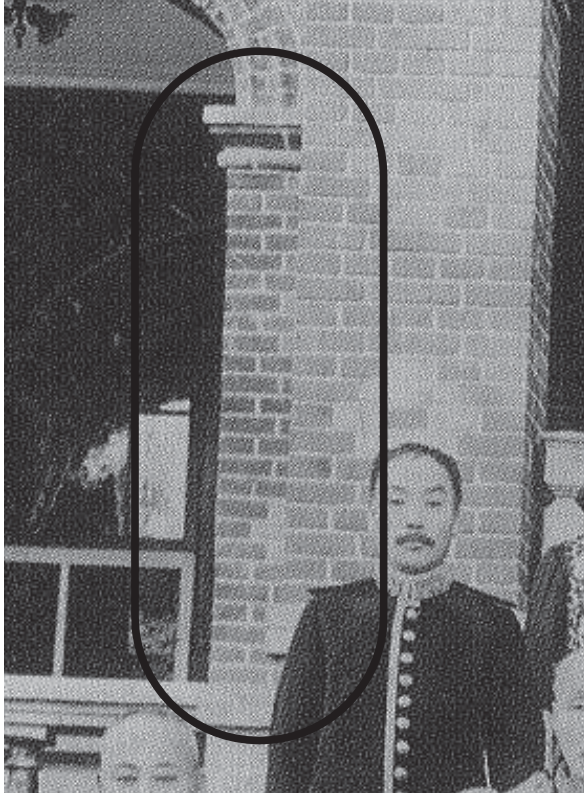
[사진 3-152] 옛 사진에 보이는 석재 줄눈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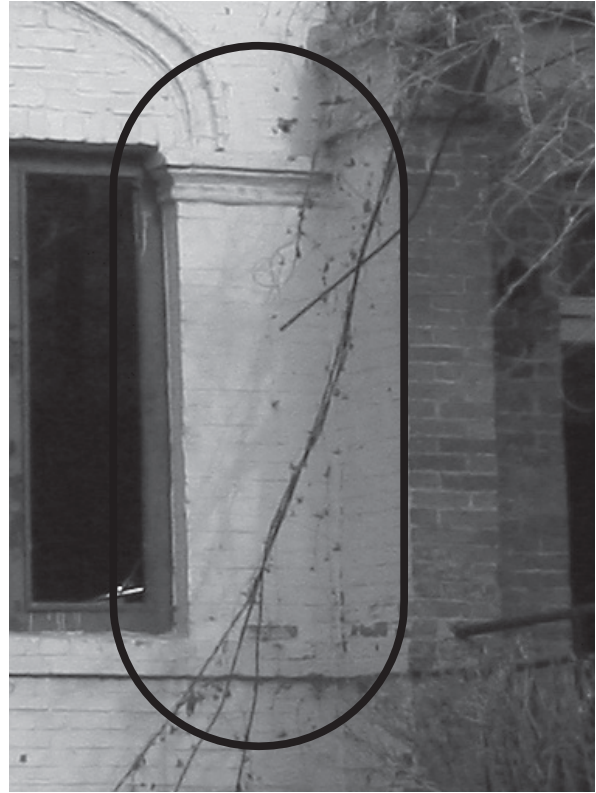
[사진 3-153] 현재 중명전의 환기구 위치와 줄눈 위치

③ 벽돌기둥의 단수와 내어쌓기 방법이 같다.

입구 좌·우로 보이는 벽돌기둥의 난간 두겹대 위에서 주두 밑까지 벽돌쌓기 단수가 같았다. 옛 사진에 있는 벽돌쌓기 단수가 25단이었고 현재의 증명전 쌓기 단수도 25단이었다. 물론 옛 사진에는 난간으로 되어 있고 현재의 사진에는 난간 없이 벽돌로 막아 놓았지만, 난간 두겹대가 있는 위치에 벽돌이 1/4토막 내쌓기 되어 있어 이곳이 경계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 내어쌓기 방법도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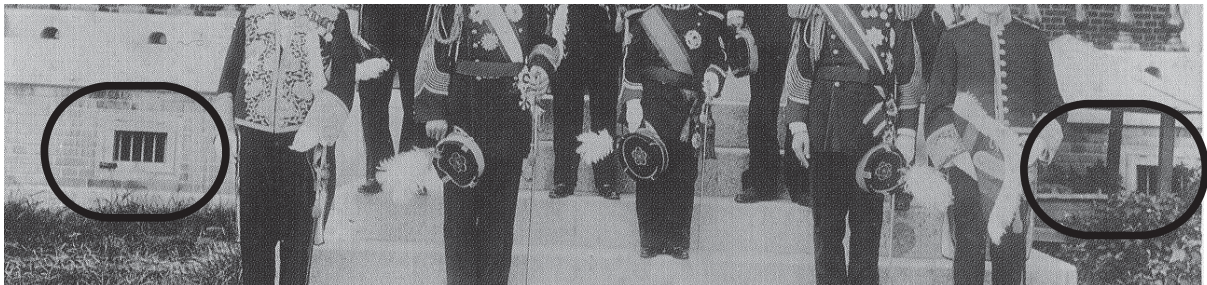
[사진 3-154] 옛 사진에서 보이는 벽돌쌓기 단수가 25단이다.



[사진 3-155] 현재 증명전의 벽돌쌓기 단수도 25단이다.

④ 환기구 위치가 같다.

[사진 3-156]에서 보면 좌·우에 사각형 모양의 환기구가 있다. 이 환기구의 위치가 현재 증명전의 환기구 위치와 같았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환기구가 있는데 환기구는 벽돌 2단을 쌓고 그 위에 환기구가 벽돌 6단 쌓은 높이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 또한 같았다. 그 크기도 사진상의 비례로 보아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사진 3-156] 좌·우에 환기구가 있다.



[사진 3-157] 현재 중명전에도 같은 위치에 환기구가 있다.

이와같은 네가지 이유로 이 사진이 중명전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계단의 모양과 포치의 구성은 다르지만 이는 이미 후대에 변형된 것이고 그나마 변형되지 않고 남은 것이 위에서 언급한 네가지 사항이었다.

이 사진의 발굴로 인해 중명전을 복원 수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1층 전면은 확실하게 회랑이 있었고 포치의 구성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계단의 구성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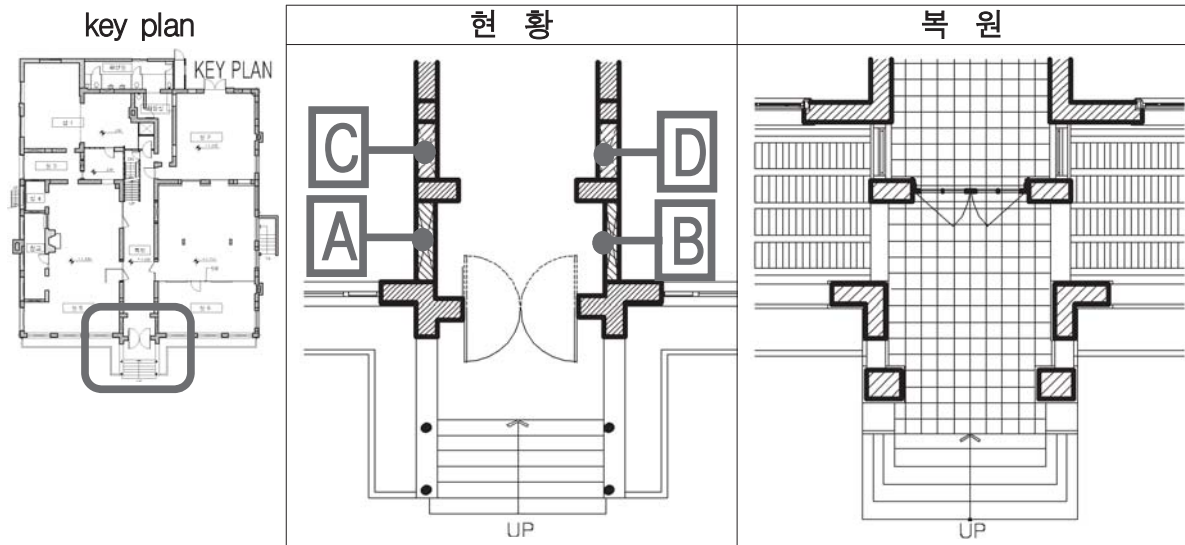
3-2. 1층 회랑 원형 조사

옛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1층에 회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수리 전의 중명전에서 회랑의 존재를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1층과 2층 서쪽에 일부 남아 있는 회랑의 흔적과 현재 중명전 입면상에서 보이는 아치의 흔적과 변화 등이었다. 그 흔적 외의 자료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사진이 발굴되면서 그 윤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거기다가 수리를 위해 벽마감재와 몰탈 등을 해체하면서 나온 벽돌벽의 변화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1층의 경우는 북쪽면을 제외한 나머지 삼면에 회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① 남쪽 입구 좌·우측면 원형 조사

[도면 3-46]에서 표시된 수리전 중명전 남쪽에 있는 입구부분의 좌·우측면인 [A]와 [B]부분은 벽으로 막혀 있었다. 그러나 이 벽은 후대에 회랑을 없애면서 막아놓은 것이 밝혀졌다. 이미 발굴된 사진에서도 확인되었고 벽을 쌓은 형태에서도 밝혀졌다.

입구 좌·우측벽인 [A]와 [B]부분 상부에는 반원형 아치가 있는데[사진 3-158, 159] 이는 과거에 출구내지는 통로가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 통로를 후대에 벽으로 막은 것이다. 같은 시대에 쌓았다면 통줄눈이 없었을 텐데 아치로 튼 벽과 막은 벽 사이가 통줄눈[사진 3-16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후대에 쌓은 것이 확실하다. 이는 내부에서 확인 되었다.[사진 3-161, 162] 또 입구 바로 안쪽에 창문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사진 3-161, 162] 쪽창과 같은 것인데 이 부분 또한 후대에 막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부분도 막은 벽과 기존 벽사이가 통줄눈으로 되어 있었다.



[도면 3-46] 입구 부분 원형 조사



[사진 3-158] 입구에서 본 [A]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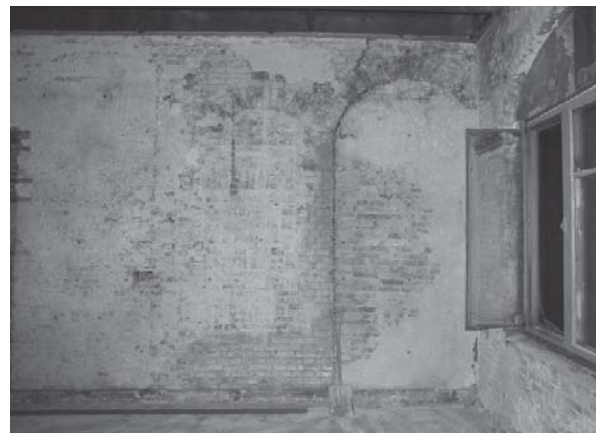
[사진 3-159] 입구에서 본 [B] 부분



[사진 3-160] [A],[B] 부분의 통줄눈



[사진 3-161] 내부에서 본 [B] 부분-우측에 쪽창 흔적이 보임



[사진 3-162] 내부에서 본 [A] 부분-좌측에 쪽창 흔적이 보임

② 1층 서쪽 창고실 회랑 흔적

1층 남서쪽에 있는 실 5 서쪽에 있는 창고실과 ‘실 4’에는 지금도 회랑 일부가 남아 있다. 과거에는 회랑으로써 외부화되어 있었는데 회랑을 없애고 내부화되면서 회랑 중 일부를 창고로 사용한 것이다. 내벽쪽으로 난 창에 창대석이 있는 것과 조적벽이 노출된 것으로 볼 때 이 공간이 과거에는 회랑으로써 외부공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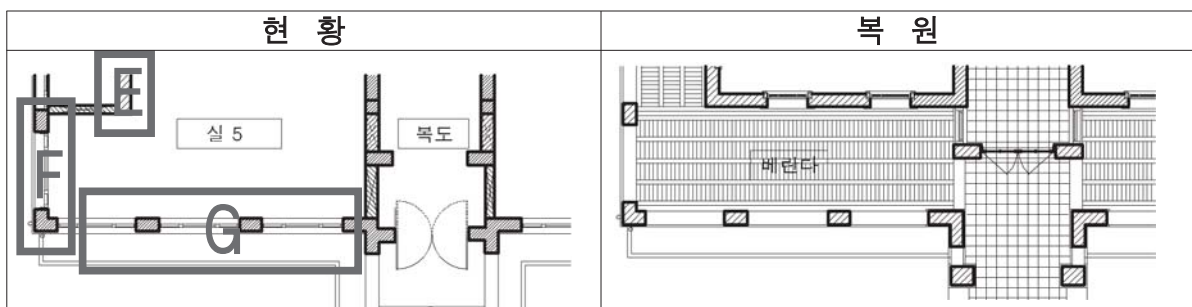
[사진 3-163] 1층 회랑이었던 서쪽에 있는 창고실- 우측에 창대석이 보인다.



[사진 3-164] 1층 창고실 창문에 있는 창대석 - 회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1층 남서쪽(실 5)벽의 회랑 흔적

1층 남서쪽(실 5)벽에도 회랑 흔적이 보이고 있다. [도면 3-23]에 표시된 [E]부분과 [F], [G]부분에서 그 흔적이 보이고 있다. [E] 부분을 살펴보면 [사진 3-16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존에 회랑벽을 털어낸 흔적이 보인다. 또 [사진 3-166]를 자세히 보면 막은 벽과 기존벽 사이에 통줄눈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볼 때 회랑이었던 부분을 벽돌로 막은 것이 확인된다. 즉, 회랑벽을 일부는 털어내고 일부는 막아 실로 사용한 것이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F]부분인데 [사진 3-167]에서 볼 수 있다. 창 상부를 보면 벽돌로 쌓은 기둥 위에 주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래부터 이 부분이 내부로 사용되었다면 굳이 주두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두가 있다는 것은 애초에는 이 부분이 외벽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도면 3-47] 1층 남서쪽 벽의 회랑 흔적 조사

이런 현상은 [사진 3-168]처럼 남쪽벽인 G부분에서도 확인된다. 상부에 주두가 내부쪽에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남쪽에 있는 회랑을 없애고 회랑을 내부화하였음이 확실한 것이다.



[사진 3-165] 회랑벽을 잘라낸 흔적이 보인다.



[사진 3-166] 회랑을 막은 흔적 - 통줄 눈이 보인다.



[사진 3-167] 벽돌조적기둥 위의 주두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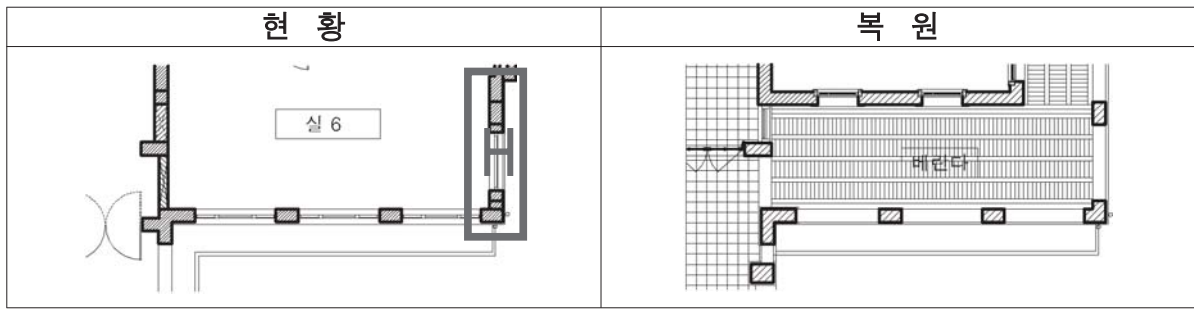


[사진 3-168] 내부에서 본 남쪽벽-벽돌조적기둥위에 주두가 선명하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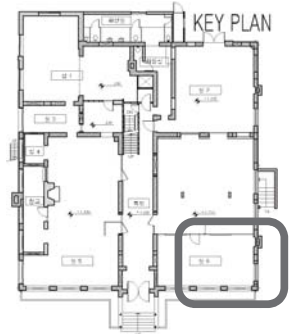


④ 1층 남동쪽(실 5)벽의 회랑 흔적

1층 남서쪽(실 5)벽에도 회랑 흔적이 보이는 것처럼 1층 남동쪽 모서리 부분에서도 회랑 흔적이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내부에 조적벽이 없어 많은 증거는 없지만 외벽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부분이 H부분인데 [사진 3-169]를 보면 외벽 상부에 아치가 있고 그 아치 아래부분은 벽돌로 막은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웅색하게 창을 두기 위해 평아치를 걸었는데 평아치를 시공한 흔적이 매우 조잡하게 보인다. 또 ‘실 5’의 남쪽벽에 보이는 주두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부분을 잘라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사진에서 좌측을 보면 벽난로가 있는데 이는 애초부터 있던 난로가 아니라 후대에 설치한 난로로 보인다.



[도면 3-48] 1층 남동쪽 벽의 회랑 흔적 조사



[사진 3-169] 아치 아래부분을 벽돌로 막은 흔적과 벽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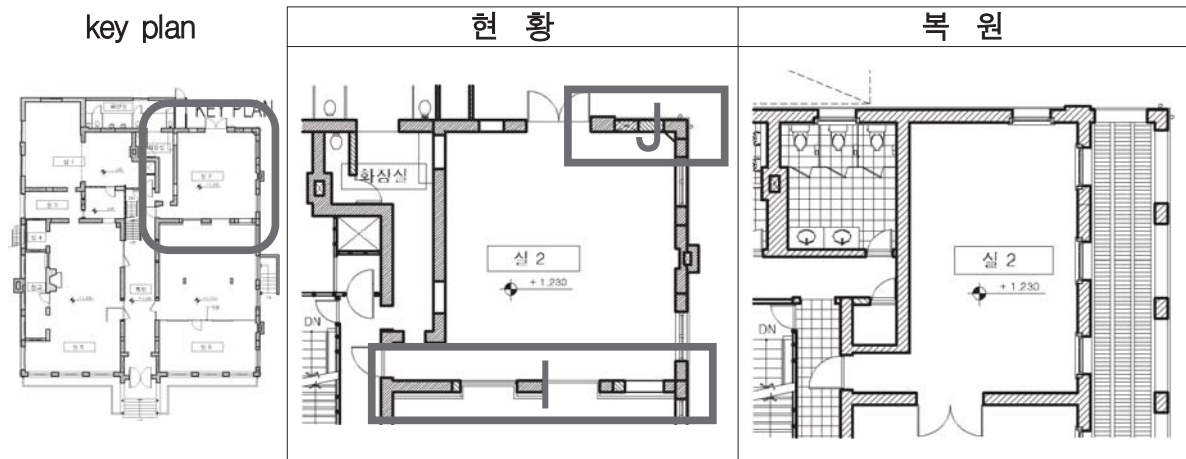
⑤ 1층 북동쪽 회랑 흔적

1층 동쪽에 있는 ‘실 2’와 ‘실 6’ 사이에 칸막이 벽이 있다. 이 벽 일부에 회랑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특히 Ⅰ부분의 오른쪽 개구부이다. [사진 3-170]는 Ⅰ부분 전체 모습이다. 이 사진을 보면 조적벽이 이중으로 쌓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통줄눈이 보이기 때문이다. 왼쪽벽은 애초부터 있던 벽인데 잘린 흔적이 선명하게 보인다. 즉, 회랑 내부벽이 있었는데 회랑을 내부화하면서 그 벽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떨어냈다는 증거이다. 그 우측에 있는 기둥과 같은 벽은 후대에 Ⅰ부분의 우측 상부를 보강하기 위해 덧붙여 쌓은 벽이고 외벽쪽에 붙어 있는 벽도 상부를 보강하기 위해 부축벽으로 덧붙여 쌓은 것이다. 즉, Ⅰ부분 오른쪽 개구부는 원래 없었던 벽이었는데 회랑을 떨어내면서 생긴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벽을 쌓고 문을 만든 것이다.

Ⅰ부분 중앙에는 개구부가 2개 더 있는데 이중 가운데 있는 개구부 좌·우측을 보면 기존벽이 잘려나간 흔적이 보인다. [사진 3-171, 17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없던 문을 만들기 위해 기존 벽을 헐어낸 것이다.

Ⅰ부분 위쪽인 Ⅱ부분에도 회랑 흔적을 찾을 수 있다. Ⅱ부분은 회랑이 끝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 3-173]에서 보면 상부에 아치가 틀어져 있고 아치 내부는 후대에 벽돌을 쌓아 막은 흔적이 보인다. 벽을 막은 부분 옆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벽돌선이 있다. 이 선이 애초에 있던 벽을 헐어내면서 생긴 흔적이다. Ⅰ부분과 Ⅱ부분 사이에 있는 외벽을 보여주는 [사진 3-174]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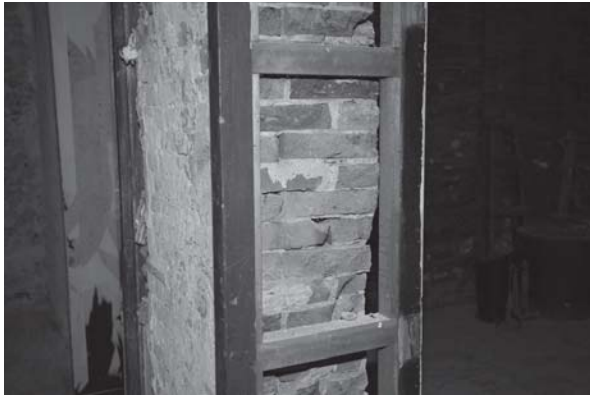
㉔부분처럼 아치와 주두가 보이고 있다. 다만 돌출된 주두를 잘라낸 상태였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결국 회랑 내부벽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치는 원래 개방된 부분이며 회랑은 최소한 ㉔부분까지는 존재한 것이다.



[도면 3-49] 북서쪽 회랑 흔적 조사



[사진 3-170] ㉔ 부분 모습



[사진 3-171] ㉠ 부분 중앙 개구부 좌측 모습



[사진 3-172] ㉠ 부분 중앙 개구부 우측 모습



[사진 3-173] ㉡ 부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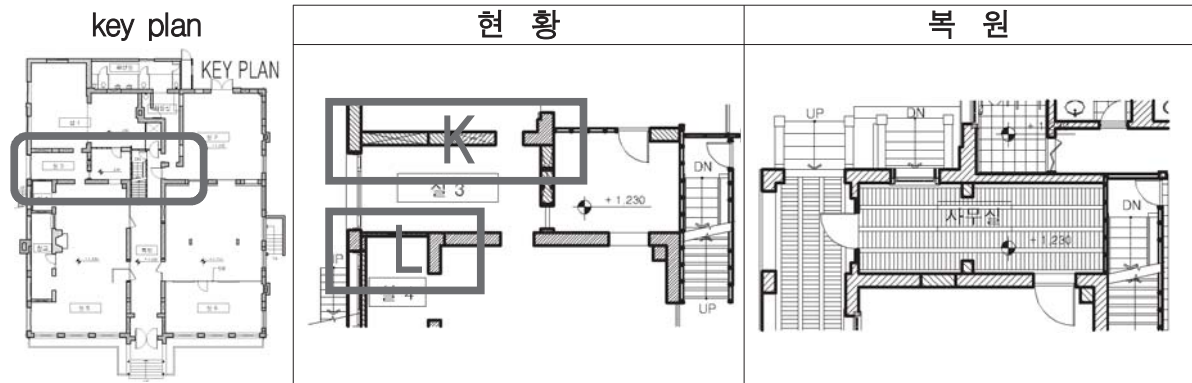


[사진 3-174] ㉠와 ㉡ 부분 사이 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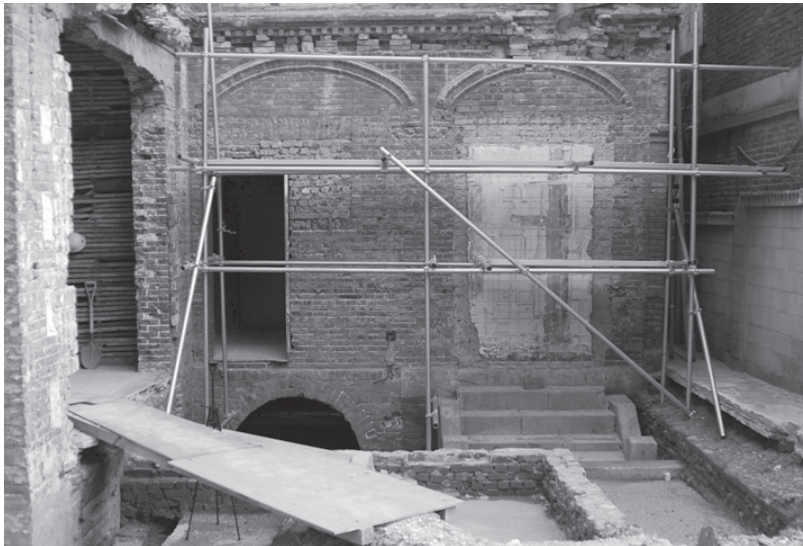
⑥ 1층 북서쪽 회랑 흔적

1층 북서쪽에도 회랑의 흔적이 나왔다. 그 부분이 ㉢부분이다. 그 흔적은 배면쪽에서 발견된 계단과 입면상에서 보이는 아치의 존재였다. 배면쪽인 북서쪽에는 아주 후대에 증축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철거한 결과 계단이 나타났다. [사진 3-175]를 보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과 1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보인다. 1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회랑과 연결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계단은 회랑이라고 추측되는 곳과 지상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현재는 1층과 통하는 회랑이 막혀있지만 이 벽은 통줄눈의 존재와 벽돌 크기의 다름으로 볼 때 확실히 후대에 막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하나는 ㉣부분이다. [사진 3-176]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벽으로 막혀 있었는데 이 부분 또한 후대에 막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진 3-175]에서 보이는 아치는 전면부에 있는 아치와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아치 끝에 주두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애초에 이 부분이 건물 외부였고 회랑이 이 부분까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치가 두 개 있지만 사진에서 보이는 좌측의 아치는 애초부터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회랑이 이 부분까지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도면 3-50] 북서쪽 회랑 흔적 조사



[사진 3-175] 1층 북서쪽 K 부분의 외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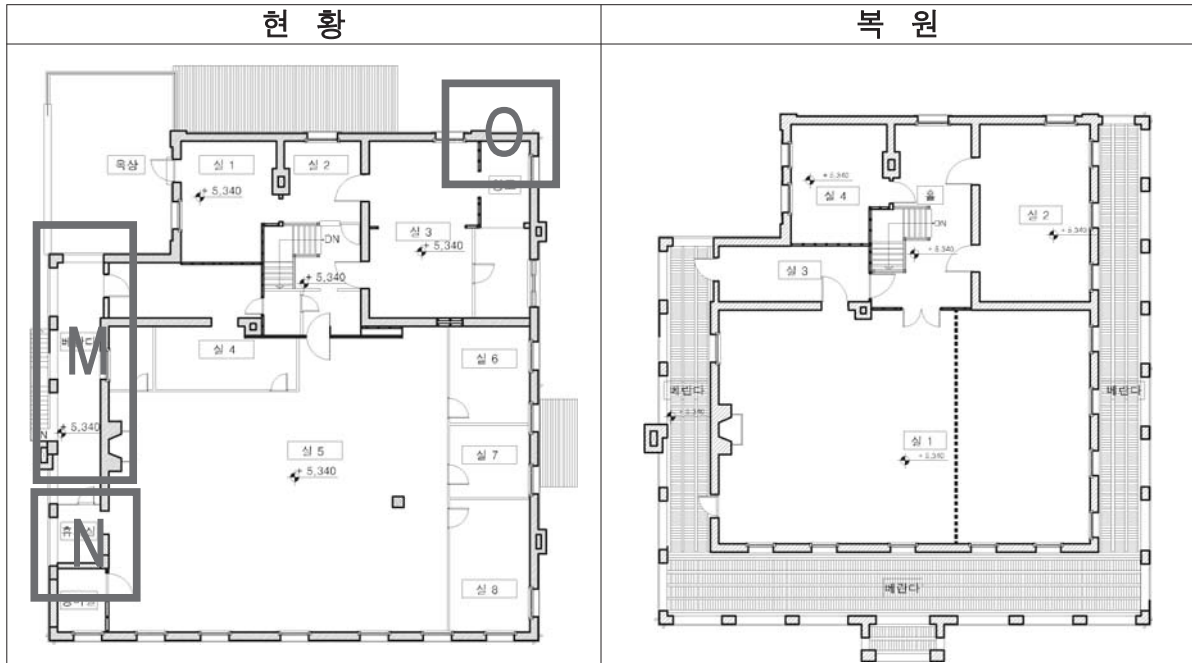
[사진 3-176] 1층 L 부분의 내부

⑦ 2층 회랑 흔적

2층에도 1층과 같이 북서쪽 일부에 회랑이 있었다. 그 부분이 M부분이다. [사진 3-177, 17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층과는 달리 외부공간으로 되어 있었다. 또 [사진 3-17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벽돌로 된 난간도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회랑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일부 회랑이 있어 추정이 가능하였다. 그 부분이 N이다. [사진 3-178]에서 보면 벽돌로 벽을 막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벽이 맞닿는 부분이 통줄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벽은 후대에 막은 것이고 결국 회랑은 남쪽까지 연결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회랑이 1층처럼 삼면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배면에서 북동쪽부분과 남동쪽부분의 아치모양이다. [사진 3-181]을 보면 정면쪽 1층은 결원형 아치가 되어 있고 2층은 결원형 아치이지만 그 디자인이 다를 수 있다. [사진 3-182]을 보면 배면쪽에서 우측과 좌측부분에 2층임에도 1층과 같은 결원형아치가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결원형 아치가 2층에도 있다는 점은 과거에 2층도 삼면에 회랑이 있었고 그 끝은 1층과 같이 배면쪽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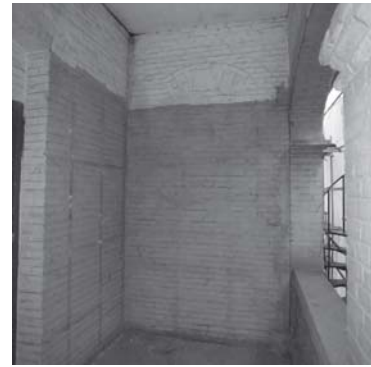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 점만으로 회랑구성을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2층에서 서쪽편 회랑은 북쪽에서 끝나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동쪽부분의 회랑의 구성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디자인의 일관성을 고려한다면 2층 동쪽편에도 1층과 같이 회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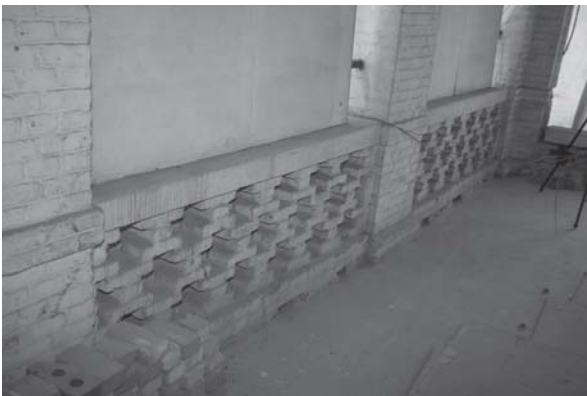
[도면 3-51] 북서쪽 회랑 흔적 조사



[사진 3-177] M 부분 모습(남→북)



[사진 3-178] M 부분 모습(북→남)



[사진 3-179] 벽돌 난간



[사진 3-180] M 부분 외부 모습



[사진 3-181] 중명전 정면



[사진 3-182] 중명전 배면

3-3. 1층 현관 원형 조사

중명전 정면에 현관이 있다. 현재 있는 현관은 후대에 변형 설치된 것으로 애초에는 달랐다. 이는 발굴된 한 장의 사진으로 확인되었다. 출입구에서 나와 여유공간을 둔 후 앞에 계단이 있는 것은 같으나 계단의 좌·우측 돌출기둥의 모양과 계단 상부의 모습이 달랐다. 옛 사진에 의하면 출입구에서 나오면 상부를 받는 돌출된 조적기둥이 좌·우측에 있고 이 기둥 앞으로 계단이 조성되어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기둥 상부 모습이 사진상에는 나오지 않아 그 모습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현관의 원형을 추적하였다.



[사진 3-183] 1907년경 입구 모습



[사진 3-184] 현재(2008년)의 입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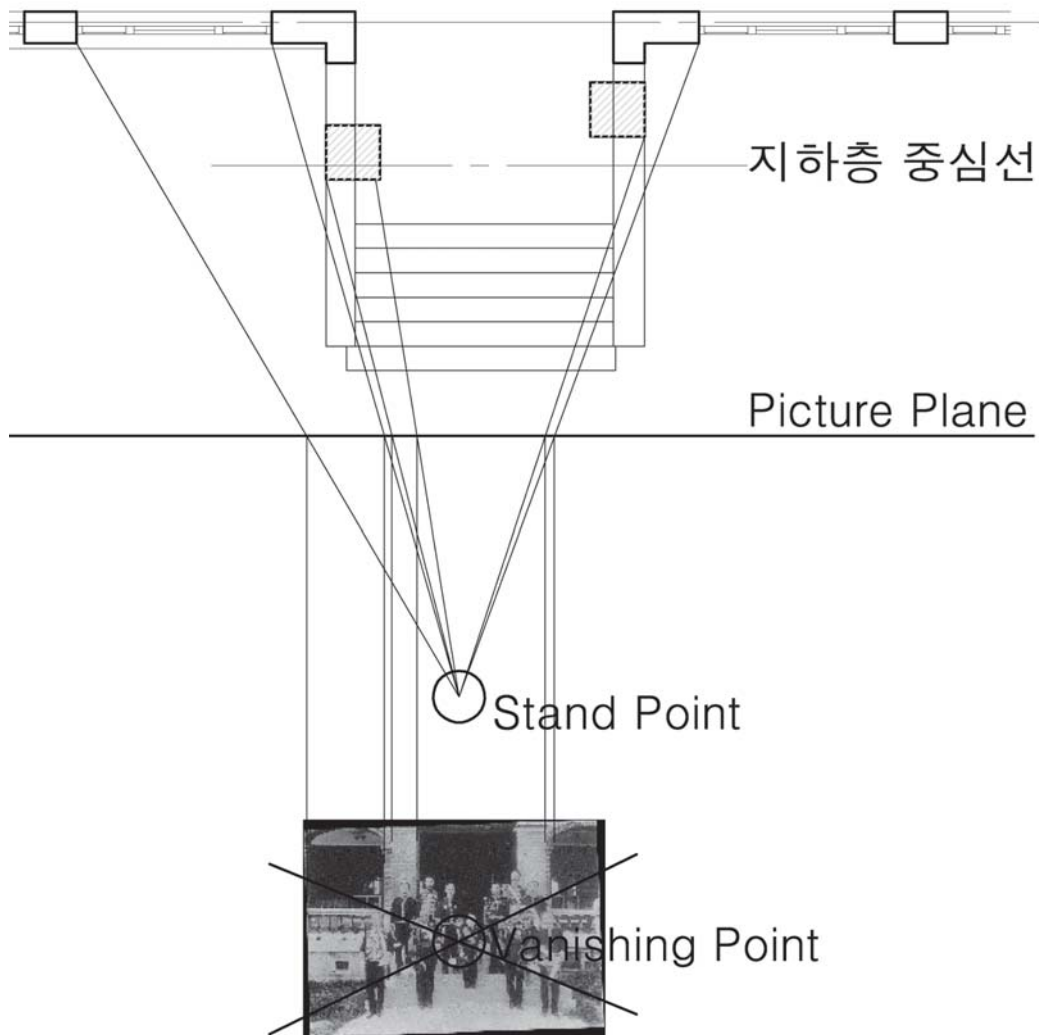
① 돌출기둥의 크기

우선 돌출기둥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사진에 의하면 돌출기둥의 전면쪽은 벽돌이 마구리쌓기로 5장 두께로 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중명전에서 사용한 벽돌의 마구리 길이는 약 110mm 정도 된다. 따라서 줄눈폭을 뺀 기둥의 순벽돌 폭은 $110 \times 5 = 550\text{mm}$ 이고 여기에 줄눈이 4개있는데 줄눈을 10mm로 본다면 $10 \times 4 = 40\text{mm}$ 가 된다. 따라서 전체 기둥폭은 $550 + 40 = 590\text{mm}$ 가 된다. 안타까운 것은 측면 폭은 확인 할 수 없는 점이였다. 그런데 지하층 벽돌 두께는 2.0B이였다. 이를 환산하면 $230 + 10 + 230 = 470\text{mm}$ 가 된다. 조적조의 특성상 상층부가 하층보다 두꺼워 질 수 없으므로 측

면폭을 최대 460mm로 추정하였다. 사진상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측면 부분이 전체적인 비례로 볼 때 이 보다 넓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돌출기둥의 크기는 590×470mm 정도 된다고 추정하였다.

② 돌출기둥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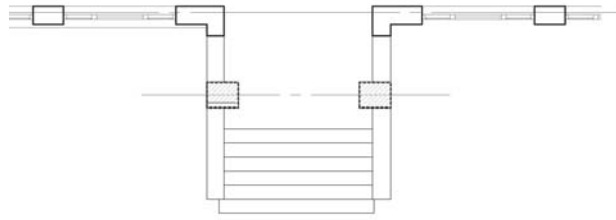
그러면 돌출기둥의 돌출된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점이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여러 가지로 궁리한 끝에 ‘투시도법’을 이용해 보았다. 즉, 사진을 이용해 투시도 작도법을 역산해서 적용해 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정확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진은 결과적으로 왜곡이 된 결과물이고 렌즈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며 촬영거리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 완벽한 투시도법이라도 소점(Vanishing Point)이나 눈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은 돌출기둥이 어느정도인지 윤곽이라도 잡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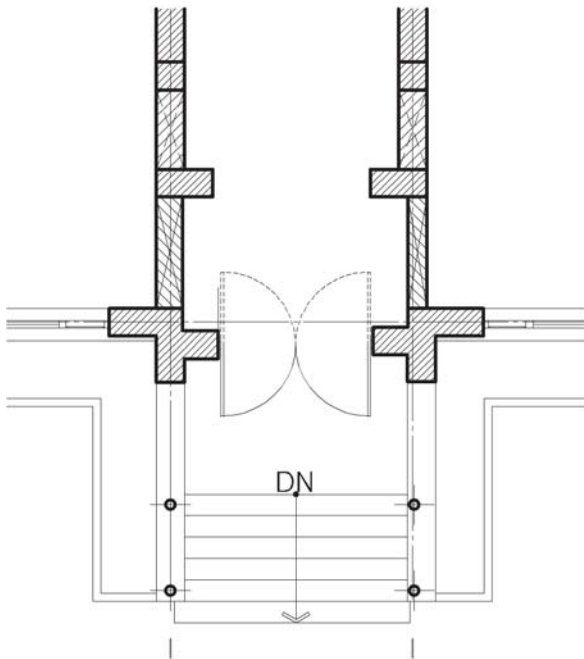
[도면 3-52] [단계 1] 투시도법을 이용하여 돌출기둥 위치분석

[도면 3-52]이 그 결과이다. 우선 소점을 잡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진이 계단의 중앙부분에서 촬영한 것이어서 투시도법중 1소점에 가까운 것이었다. 만약 2소점으로 되어 있었다면 더욱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물론 1소점이라도 아주 정 중앙이 아니면 이미 2소점이어서 오차가 심해지는 면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느 정도 중앙에서 촬영한 것이어서 이 점은 무시하고 1소점으로 추정하고 작도해 보았다. 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계단이었다. 측면쪽 계단 선을 연장해서 소점을 잡았다. 아쉬운 것은 그 선이 아주 짧아서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소점에 따라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작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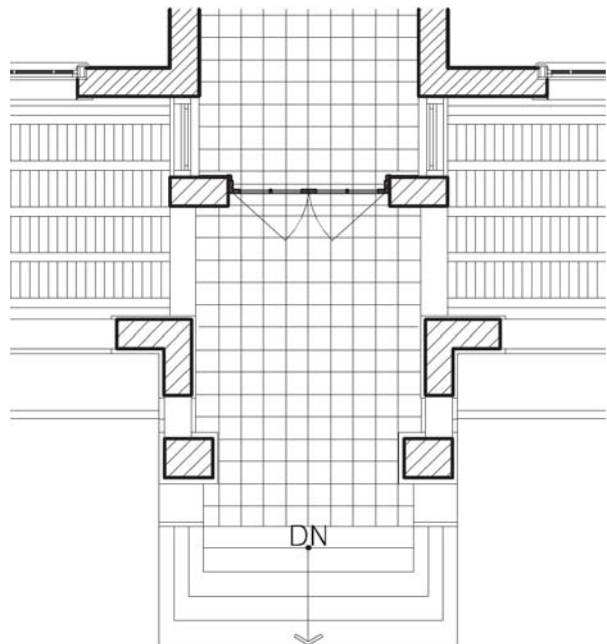
그 결과 [도면 3- 53]과 같은 결과 나왔다.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둥이 돌출된 것은 확인하였는데 좌측 기둥과 우측 기둥의 위치가 서로 달랐다.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바로 소점의 수와 소점의 위치 때문이었다. 그러나 돌출기둥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바로 지하층 벽의 위치였다. 지하층 평면을 보면 정면쪽 중앙부가 돌출되어 있는 점이었다. 투시도면에서 확인 되는 것과 같이 좌측 기둥은 지하층 벽 중심선상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법상의 오차라 감안한다면 바로 지하층벽 중심선상에 1층 포치의 돌출기둥이 있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돌출기둥의 위치는 지하층벽 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 결과가 [도면 3-53]이고 이를 조합한 결과가 [도면 3-55]이다.



[도면 3-53] [단계 2] 지하층벽을 고려한 돌출기둥 위치



[도면 3-54] 현재 중명전 현관



[도면 3-55] 복원 중명전 현관

③ 현관 상부

돌출기둥의 크기와 위치는 확인하였지만 포치 상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상부에 아치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만약 아치가 있다면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다. 당시에 건립된 여러 건물을 보면 추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동성당과 수도박물관을 참조하였다. 전동성당이나 수도박물관은 돌출된 현관이 있고 현관 상부는 아치가 있으며 그 위는 발코니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또 발코니는 난간이 있으며 그 난간은 1층 회랑 발코니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조합한 결과가 [도면 3-5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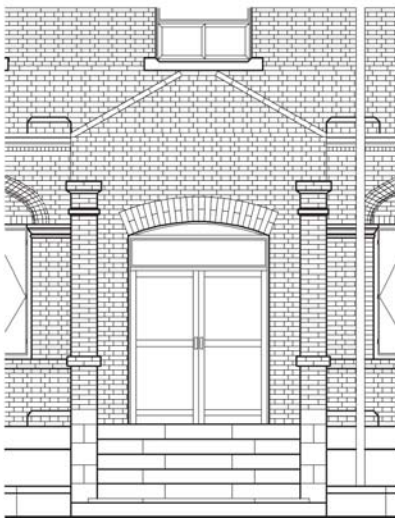
[사진 3-185] 현관 상부 처리 - 아치가 아주 약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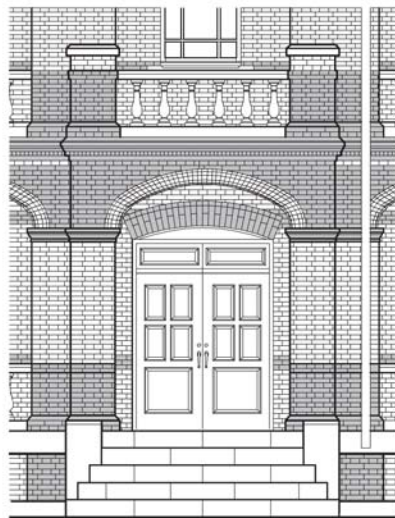
[사진 3-186] 전동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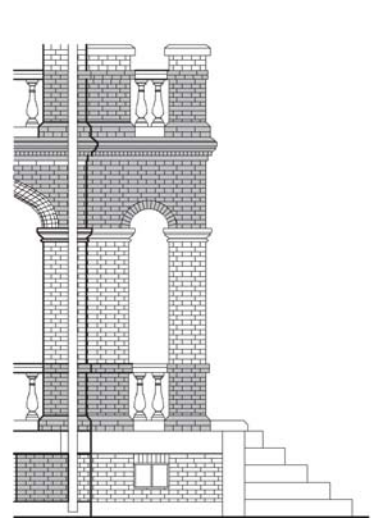
[사진 3-187] 수도박물관



[도면 3-56] 현재 중명전 현관



복원 현관 정면



복원 현관 측면

3-4. 회랑 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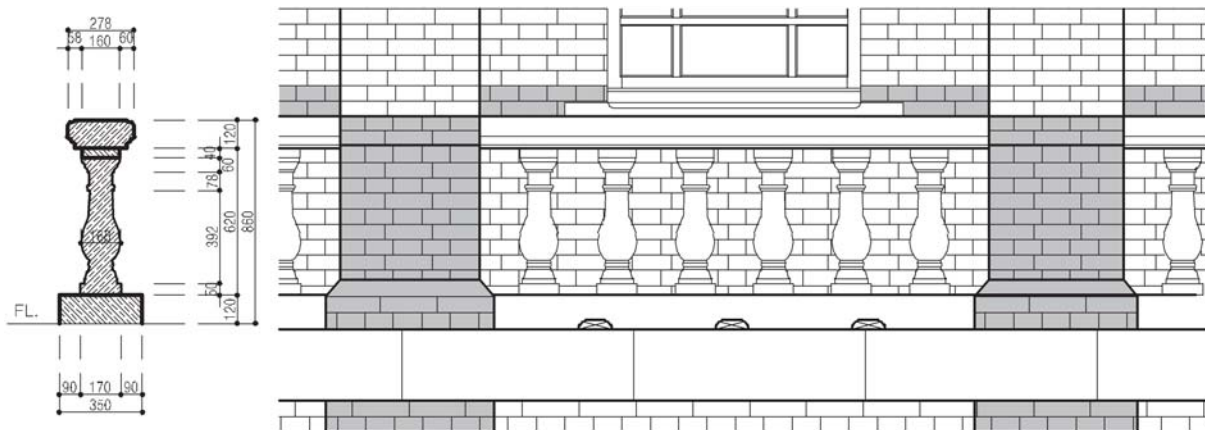
옛 사진에 보면 난간이 잘 나와 있다. 바닥에 난간 하대석을 두고 그 위에 난간 동자석을 두었으며 그 위에 난간 두겹석을 놓은 모습이다. 난간 동자석은 아치 한 칸마다 6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난간 높이는 690mm였다. 난간 높이는 조적 단수를 계산하여 산출해 냈다. 하대석에는 배수를 위한 배수구가 3개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진상에서 난간의 모양과 크기, 난간 동자석의 모양 등을 알 수 있어 원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3-188] 종명전 난간 상세



[사진 3-189] 현재 난간 부분



[도면 3-57] 난간 복원 상세

4. 유구 조사

4-1. 지하 1층 배면 지하출입구 유구조사

1층 북서쪽에는 근래에 증축된 부분이 있었다. 벽돌과 블록으로 시공되어 근래에 사무실로 쓰였던 이 공간은 원형과 먼 부분이어서 철거가 이루어졌다. 철거를 한 결과 지하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과 지상에서 1층 회랑으로 통하는 계단이 나타났다. 지상에서 직접 지하층과 1층 회랑으로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계단의 발견으로 과거 평면구성에 대해 좀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끝에는 아치로 틀어진 지하층 출입구가 확실하게 확인되었고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의 존재로 1층 동측부분에 확실히 회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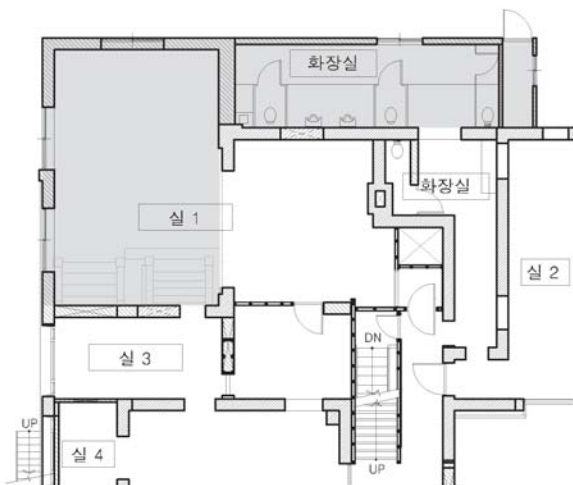
이 계단은 모두 화강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단 높이가 평균 190mm이고 단 폭은 296mm로 6단으로 되어 있었고 계단폭은 1,550mm였다. 1층 회랑으로 통하는 계단은 높이가 평균 210mm이고 단 폭은 332mm로 4단으로 되어 있었고 계단폭은 1,620mm였다. 두 계단 모두 소맷돌이 있었고 그 폭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210mm,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210mm였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석은 거칠게 정다듬 되어 있는 반면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석은 조금 고운정다듬이었다. 지하계단이 조금 거친 것으로 보였는데 시대적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사진 3-190] 배면 증축된 부분 철거 전 상태



[사진 3-191] 배면 증축된 부분 철거 후 상태



[도면 3-58] 철거 전 북서쪽 1층 평면도와 철거 후 북서쪽 1층 평면도



[사진 3-192] 증축된 부분 평면상태(계단이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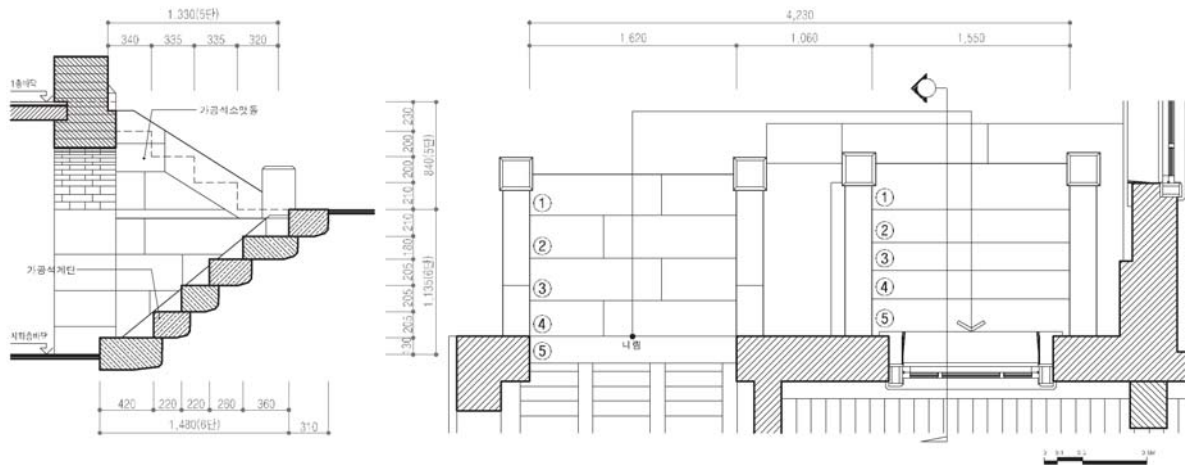
[사진 3-193]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진 3-194]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사진 3-195]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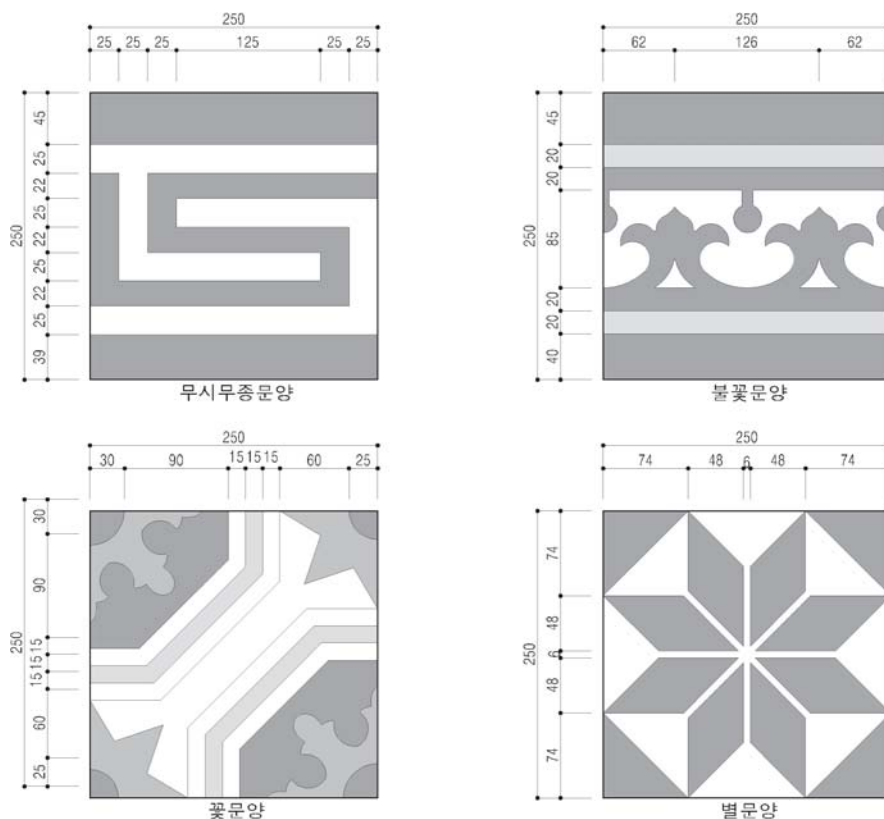


[도면 3-59] 배면 계단 단면도와 평면도

4-2. 1층 중앙통로 바닥 타일

1층 입구와 중앙통로에는 장식용 테라조타일이 깔려 있다. 이 타일은 두께가 25mm이고 가로가 250mm, 세로가 250mm로 정사각형 타일이고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시멘트몰탈로 접착되어 있었다. 일부는 깨져 있거나 손상이 간 상태였다. 타일재료 구성을 보면 오석으로 보이는 검은색 부분과 백 시멘트를 부어 만든 것으로 보이는 흰색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즉, 오석을 모양에 맞게 자른 후 여

기에 백시멘트를 부어 틀 속에서 만든 것으로 보였다. 이 타일은 덕수궁 정관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일에는 각종 문양이 있는데 총 4종류가 있었다. 무시무중문양, 불꽃문양, 별문양, 꽃문양이다. 꽃문양의 경우는 4개가 조합되면 팔모문양 안에 불꽃이 이는 모양이 되었다. 무시무중문양은 타일 간부분의 외곽에 마무리용으로 사용되었고 방사형의 별문양 타일은 출입구와 중앙통로의 벽 쪽에 깔려 있었다. 불꽃문양 타일은 중앙통로의 벽쪽에 깔려 있었다. 꽃문양 타일은 중앙통로에 4개가 조합되어 화려한 팔모문양을 이루면서 깔려 있었다. 문양별 타일 장수를 살펴보면 무시무중문양은 온장이 31장, 1/2장이 4장, 1/4장이 15장으로 총 50장이다. 불꽃문양은 온장으로만 90장이다. 별문양은 온장이 215장, 1/2장이 11장, 1/4장이 6장으로 총 232장이다. 꽃문양은 온장이 319장, 1/2장이 7장, 1/4장이 5장으로 총 331장이 사용되었다.



[도면 3-60] 바닥타일 문양



[사진 3-196] 1층 정면 출입구 바닥에 깔린 타일



[사진 3-197] 1층 중앙통로 바닥에 깔린 타일



[사진 3-198] 바닥타일 각종 문양



[사진 3-199] 꽃문양 타일 조합

4-3. 외부 굴뚝과 벽난로

중면전에는 벽난로와 굴뚝이 있다. 벽난로는 1층에 3군데, 2층에 1군데 확인되었고 굴뚝은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총 4개가 있었다.

벽난로는 [도면 3-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층에 그 흔적이 남아있었다. ‘A’와 ‘B’ 부분이 그 흔적이다. 이 두 부분의 벽난로 흔적은 애초에 1층과 2층 벽난로의 연도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재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벽난로 기초 역할을 했던 것이다. A 부분 경우, 연도가 조적벽 공간 쌓은 부분에서 확인 되었는데 숯검댕이가 벽돌에 묻어 있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A 부분에서 [사진 201]과 같이 “CN☆HK R.O.K” 라고 쓰여진 벽돌이 발견되었다. “R.O.K”는 추정컨대 ‘Republic Of Korea’의 약자로 보이지만 “CN☆HK”는 회사이름을 약자로 쓴 것이 아닌가 싶다. A 부분 중 ‘실 3’ 쪽 북동쪽 모서리에는 재를 수거하는 연도 청소용 개구부가 있는데 철제 주물로 만든 뚜껑이 있었다. 이 철제 뚜껑에는 양각으로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뚜렷하게 글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K)”라는 글자이다. “(K)”표기는 KS규격 표시인 것으로 보인다. KS규격 표시는 1964년 8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때 이때 이후에 보수한 흔적으로 보인다.

B 부분은 특이하게도 평면이 삼각형모양이다. 1층 마루를 해체하고 이 부분을 살펴본 결과 여기서도 숯검댕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B 부분 상부에 벽난로가 있었는데 회랑이 없어지면서 1층과 2층에 있던 벽난로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 3-200] A부분 연도 숯검댕이



[사진 3-201] 연도의 벽돌("CN☆HK R.O.K"라고 문양이 있다.)



[사진 3-202] A부분 연도 청소용 개구부



[사진 3-203] 연도 청소용 개구부 철제 주물 뚜껑



[사진 3-204] B 부분 벽난로 기초



[사진 3-205] A 부분 연도

1층에 있는 벽난로 3개 중 ‘실 5’에서 내벽쪽 한 개(①번 벽난로)가 있고 ‘실 2’와 ‘실 6’에는 외벽쪽에 한 개씩(②, ③ 벽난로)이 있었다. ①번 벽난로는 내벽 안쪽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애초부터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②, ③번 벽난로는 외벽쪽에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회랑이 없어지고 내부화 되면서 후대에 생긴 것이 분명하다. ①, ③ 벽난로는 옛 것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지만 ② 벽난로는 벽돌로 메워져 있었다. 이들 벽난로 모두는 숯 검댕이가 묻어있는 상태였다. ①번 벽난로는 개구부 폭이 약 1,000mm 정도되었고 바닥은 가로가 1260mm, 세로가 460mm 정도되었다.



[사진 3-206] 1층 ① 벽난로



[사진 3-207] 1층 ② 벽난로



[사진 3-208] 1층 ③ 벽난로



[사진 3-209] 1층 ② 벽난로 바닥

2층에는 벽난로가 한 개 있다. 비교적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마감재를 철거해 본 결과 과거에 벽난로를 설치하기 위해 적어 놓았던 일본어로 된 글씨가 발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용 표시였다.

< 원본 >

テ ラ ゾ	大 理 石	人 造 石	テ ラ ゾ	大 理 石	人 造 石
大理石	代用				
← 3尺一寸二分 →					

< 번역 >

테 라 조	대 리 석	대 리 석	테 라 조	대 리 석	대 리 석
대리석대용	인조석				
← 3척 일촌 이분 →					

이 벽난로는 난로를 구성하는 목재바탕이 온전히 남아 있었고 난로 상부로는 연도도 남아 있었다. 난로 안쪽에 있는 벽돌에는 숫검댕이가 남아 있었으며 바닥에는 옛것으로 보이는 바닥틀도 보였다. 사실상 외관을 구성하는 테라조는 없지만 원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흔적이 남아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벽난로의 개구부는 폭이 960mm 정도이고 높이는 975mm, 바닥 크기는 1,300×490mm 정도였다.

벽난로의 모양은 알 수 없지만 그 규모와 위치는 알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 당

시 설치되었던 건물에서 유사한 벽난로를 조사하여 복원해 보았다. 운현궁과 석조전에 있던 벽난로의 사진과 실측을 통해 유사하게 복원하였는데 디자인은 운현궁 양관의 벽난로를 모사하고 석조전 벽난로의 무시무중문양을 조합하였다. 중명전은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벽난로를 선택하였는데 그것이 운현궁 양관에 있는 벽난로였다. 이 벽난로는 그 모양이 소박하였다. 다만 석조전 벽난로에 있는 문양을 차입해서 복원하였다. [도면 3-62]



[사진 3-210] 2층 벽난로



[사진 3-211] 2층 벽난로에 새겨진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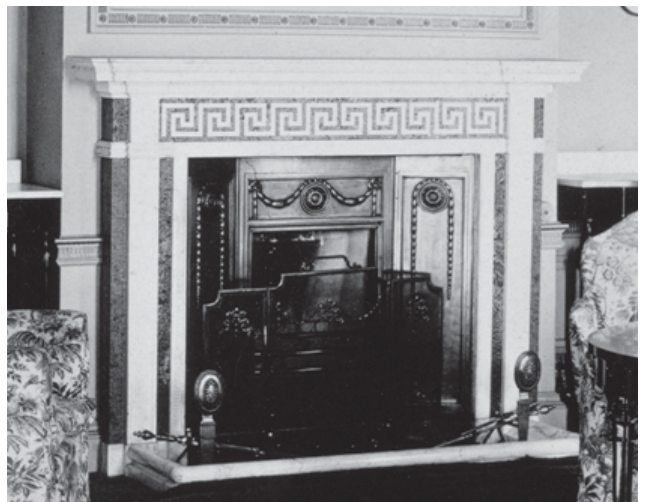
[사진 3-212] 2층 벽난로에 새겨진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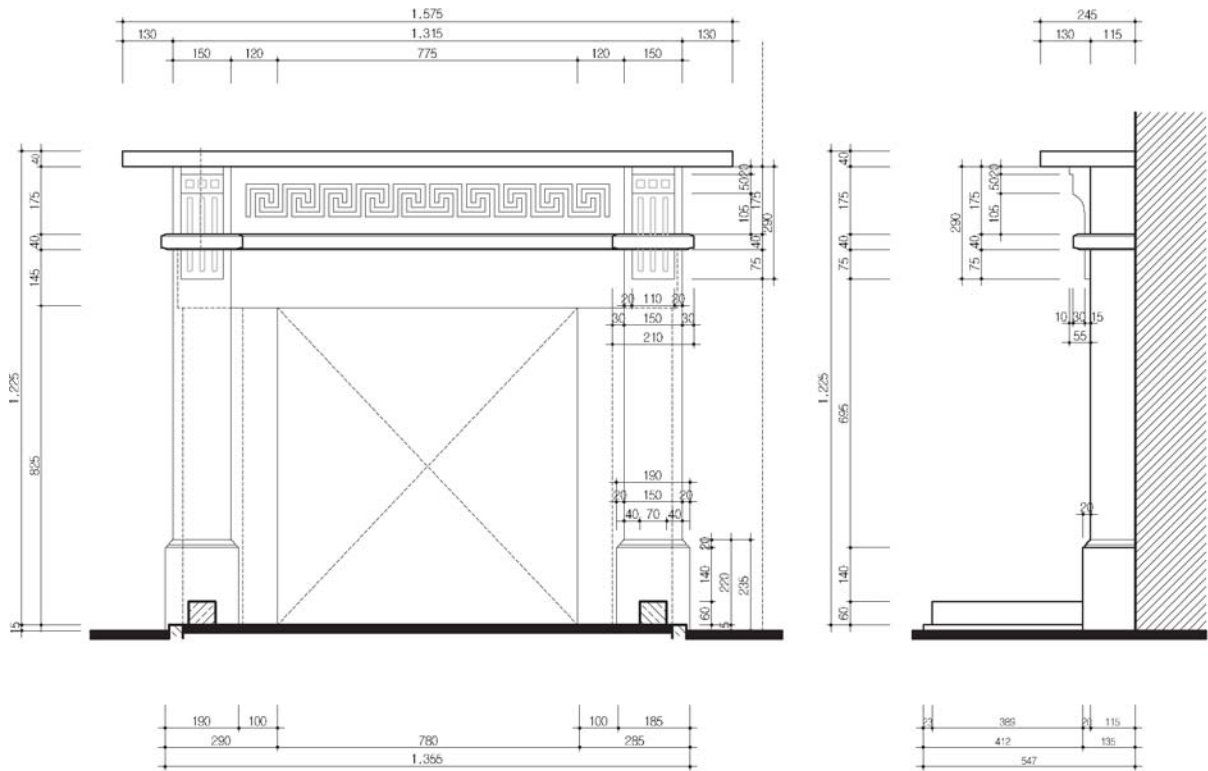
[사진 3-213] 2층 벽난로에 새겨진 문구



[사진 3-214] 운현궁 양관



[사진 3-215] 석조전



[도면 3-62] 중명전 복원 벽난로 디자인

굴뚝은 내부에 2개, 외부에 3개 있다. ‘가’ 굴뚝은 과거에 사용했던 연결부분을 찾을 수 없었고 ‘나’ 굴뚝도 연결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도면 3-61] ‘다’와 ‘라’ 굴뚝은 1층과 2층에 벽난로 흔적이 있어 연결부분이 확실했다. 흥미로운 것은 지붕에 남아 있는 굴뚝이다. ‘㉠’번 벽난로와, ‘나’ 굴뚝, ‘마’ 굴뚝만 지붕 위로 돌출되어 있어 나머지 벽난로와 굴뚝은 지붕 위로 돌출되지 않았고 처마 밑에서 끝나있었다. 이런 현상은 후대에 여러번 보수과정을 거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사진 3-216] 지붕위로 나온 굴뚝



[사진 3-217] 우측면에 있는 외부 굴뚝(다, 라 굴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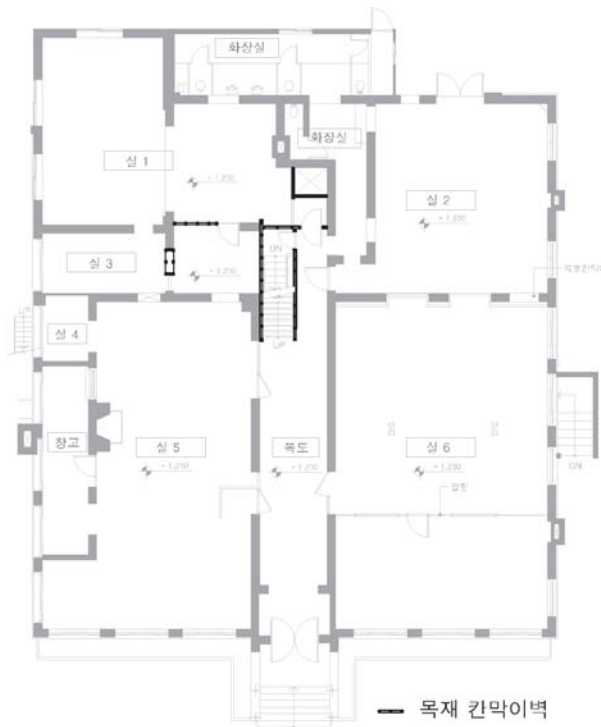
[사진 3-218] 1층 '나' 굴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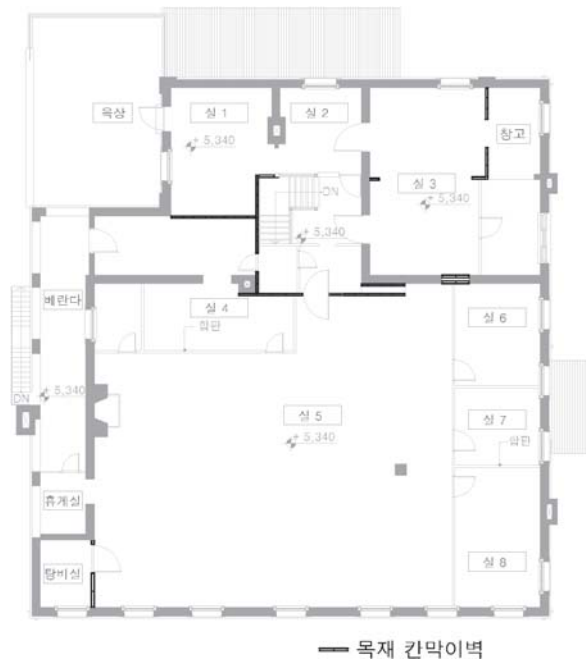
[사진 3-219] 1층 '가' 굴뚝

4-4. 목재판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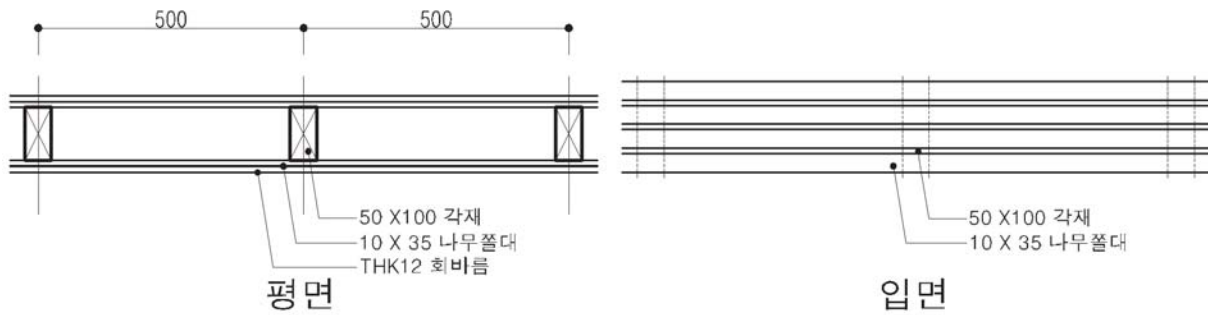
중명전에는 부분적으로 목재 줄대판벽이 있다. 주로 계단을 중심으로 인근 벽체에 있다. 이 벽체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50×100mm되는 각재를 평균 500mm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 각재에 두께 10mm, 폭 35mm되는 각재를 못으로 박아 구성하였다. 줄대는 촘촘히 박지 않고 약간씩 간격을 띄워 연결하였다. 이 줄대 위에 석회몰탈을 발라 마감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애초것이라 보이는 줄대에는 못을 두 개씩 박은 반면 후대에 보수한 것으로 보이는 곳에는 못을 한 개씩 박은 점이다. 이런 바탕벽은 해방 이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근대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법이다.



[도면 3-63] 지상 1층 목재 칸막이벽 부분



[도면 3-64] 지상 2층 목재 칸막이벽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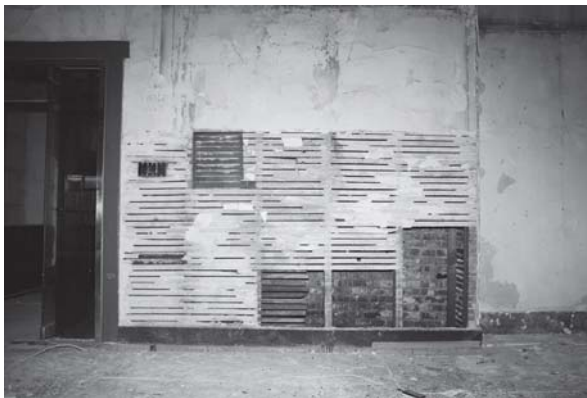
[도면 3-65] 목재판벽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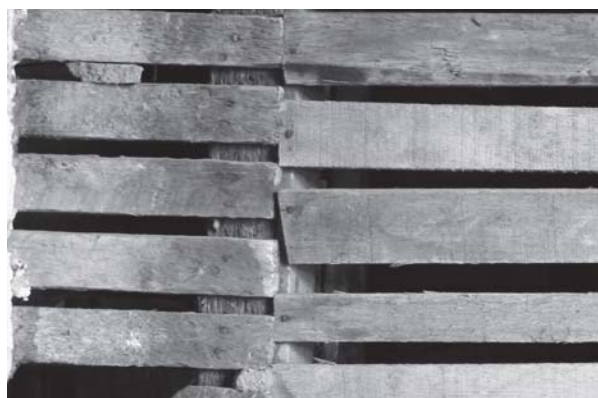
[사진 3-220] 1층 목재 판벽



[사진 3-221] 1층 목재 판벽



[사진 3-222] 2층 목재 판벽



[사진 3-223] 졸대에 박은 못이 두 개인 경우와 한 개인 경우가 있다.

4-5. 창호

중명전에 창호는 크게 문과 창문으로 나눌 수 있다. 문과 창호는 알루미늄창호와 목재창호로 되어 있었다. 알루미늄창호는 근래에 교체한 것이어서 제외되었고 목재창호도 대부분 근래에 교체한 것이어서 제외하였다. 과거에는 대부분 목재창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리 전에 중명전에 있던 창호는 상당수가 없어진 상태였는데 일부가 남아 있었다. 문의 경우 2층에 잘 남아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사진 3-225]와 같다. 창문의 경우도 2층에 잘 남아 있는 것이 있었는데 [사진 3-224]와 같다. 이 두 개의 창호를 기준으로 복원 계획을 하였다.

1층에 마감을 해체하여 보니 중앙통로 좌우에 있던 문 주변에 나무벽돌이 있던 것을 확인하였다.

조적벽 사이에 끼워 문틀을 고정하기 위한 벽돌이었다. 지금의 문이나 창은 보수를 하면서 상당부분에서 변형이 생겼는데 이 나무벽돌 위치를 감안하여 문의 크기를 조정하여 복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진 3-224] 2층 '실 2'에 있던 오르내리창



[사진 3-225] 2층 '실 2'에 있던 문틀



[사진 3-226] 2층 '실 1'에 있던 오르내리창 도드래



[사진 3-227] 2층 '실 2'에 있던 오르내리창 도르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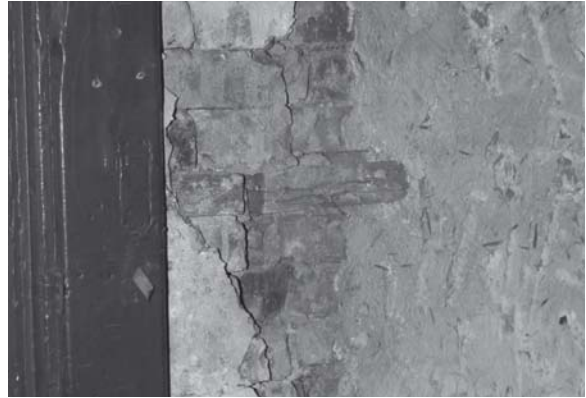
[사진 3-228] 2층 '실 2'에 있던 창틀 상세



[사진 3-229] 2층 '실 2'에 있던 창틀 상세



[사진 3-230] 2층 에 있던 창고리 상세



[사진 3-231] 조적벽에 끼운 문틀 고정용 나무벽돌

4. 보수·복원공사



1. 보수·복원개요
2. 가설공사
3. 해체 및 철거공사
4. 조적공사
5. 마루공사
6. 마감공사
7. 창호공사
8. 기타공사

4. 보수 · 복원공사

1. 보수 · 복원 개요

중명전 보수 · 복원공사 사업 지침은 다음과 같았다.

- 해체시 현황 실측도 작성(수리보고서 기록)
 - 건물현황 실측
 - 현황 사진 촬영 및 기록
- 원형 복원설계도
- 부분 해체 및 철거
- 보수 원형(복원)공사
- 준공도 작성

중명전 보수 · 복원공사의 주요 내용은 중명전을 부분적으로 철거하면서 원형을 찾아 복원하고 그 내용을 수리보고서에 기록하여 발간하는 것이다. 이런 대원칙하에 공사는 이루어졌고 그 주요 공정은 다음과 같았다.

- 공사 계약, 가설공사
- 1차 자문회의(보수방향)
- 1차 해체공사(배면 지하출입구 유구조사), 1차 실측조사
- 2차 해체공사(벽 미장마감 해체공사), 2차 실측조사
- 2차 자문회의(벽 구획 확인 및 회랑 구성 확인)
- 3차 해체공사(1층 마루 해체공사)
- 3차 자문회의(러시아, 일본 조사결과 보고)
- 4차 해체공사(지하층 조적 일부 해체)
- 4차 자문회의(설계변경사항 논의)
- 지하층 조적공사
- 1층 바닥 마루설치공사, 1층 조적공사
- 5차 자문회의(공정보고)
- 6차 자문회의(정면 입구 부분 결정)
- 5차 해체공사(2층 마루 해체공사)
- 벽 구조 보강공사
- 7차 자문회의(우물, 마당 논의)
- 2층 마루설치공사
- 2층 조적공사
- 8차 자문회의(등기구, 배수로 논의)

- 창호공사, 수장 공사
- 전등 설치공사
- 소화저수조공사
- 주변정비공사

공사하는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자문회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였고 그 외의 문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해결해 나갔다. 한편 자문회의를 통해 당초 설계내용이 바뀌게 되어 1차례 설계변경을 하였고 설계변경된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2. 가설공사

2-1. 공사준비

보수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와 관련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 조사와 준비사항으로는 현장 답사, 관계자협의, 자재수급 계획, 공정 계획, 안전조치 강구, 날씨, 가설, 공사장관리 등을 들 수 있다. 공사계약과 동시에 현장답사를 하였다. 현장조사는 크게 공사 작업 여건과 실측조사 여건을 조사하였다. 공사작업 여건은 좋지 않았다. 장소자체가 좁은 편이고 진입로도 좁아 차량진입도 용이하지 않은 편이었다. 실측조사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시행청인 문화재청과 보수공사 시공자, 실측조사를 할 설계사무소, 덕수궁 관리자 인 덕수궁 관리사무소 등 4자가 있다. 공사 시행청은 문화재청이고 보수시공자는 ‘(주)한성’이며 실측조사 설계사무소는 ‘(주)아름터 건축사사무소’ 이고 덕수궁은 ‘덕수궁관리사무소’ 이다.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이들 4자가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보수시공자는 문화재청이 조달청에 의뢰하여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되어 선정되었다. 실측조사 및 보고서작성은 입찰내용상 턴키 발주 여서 (주)한성이 설계사무소와 하도급 계약을 통해 선정하였다. 공사현장조사와 관계자가 공사 협의를 한 후 공정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사 내용은 보수·복원공사와 수리보고서 발간이고 공사기간은 720일간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보수·복원공사 내용에 따라 주공정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하였다. 보수·복원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하였고 공사장 내 출입 통제를 하였다. 또한 작업 인부에게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을 주지시켰으며 작업장 곳곳에 안전 수칙판 및 안전 표시판을 달아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2-2. 가설공사

공사를 시작하기 전의 준비작업과 함께 가장 기초적인 공사가 가설공사이다. 가설공사는 공사 중의 작업 안전과 물품의 보관, 행정처리,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제반 시설과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가설사무실, 가설비계, 안전시설 등이 있다.

가. 가설사무소, 가설숙소, 가설창고, 가설회의장

공사를 위한 대략의 상황을 파악한 후 현장사무소를 마련하였다. 현장사무소는 통상 가설사무소로 마련하는데 가설사무소는 증명전 앞마당 우측편에 마련하였다. 가설사무소와 함께 가설숙소, 가설창고를 가설사무소 옆에 마련하였다. 공사를 하면서 작업공간을 마련하기위해 가설사무소를 옮겨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들 가설사무소 등은 모두 컨테이너를 사용하였는데 사무소와 숙소는 3×6m, 회의실과 창고는 3×9m 컨테이너를 사용하였다.



[사진 4-1] 가설회의장과 가설사무소



[사진 4-2] 가설 숙소

나. 가설비계

공사를 위한 가설비계를 설치하였다. 가설비계는 48.6mm 강관파이프를 이용하여 사측면을 돌아가면서 쌍줄비계를 두 겹으로 매었다. 쌍줄을 두 겹으로 맨것은 상부에 발판을 매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서포트는 건물에 닿지 않도록 30cm 띄워서 평균 1.5m 간격으로 세우고 수평재를 1.5m 간격으로 질러댄 후 중간에 ‘×’ 형으로 가새를 대어 좌굴과 횡력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서포트를 세울 때 기단 바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포트 바닥에 판재를 대고 설치하였다. 가설 높이는 처마까지 하였다. 가설비계 상부는 다공 철판을 깔고 그 위에 부직포를 이중으로 깔아 구멍을 통해 낙하물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였다. 상부를 올라가기 위한 가설비계다리는 정면쪽에 매었고 폭을 1.2m로 하였다. 가설비계에는 증명전 전경사진을 넣은 파나플렉스휘장막을 설치하여 관람객이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공사안내판 및 안전시설

일반 가설물과 함께 공사안내판, 안전수칙판, 안전표시판, 건물관련사진 판넬 등을 설치하였다.

공사안내판은 대형안내판을 설치하였다. 대형안내판은 입구대문에 1기를 설치하였다. 1.2×1.8m 크기에 높이 1.5m로 스텐레스 봉관으로 틀을 짜고 갈바늄 강판으로 면을 대고 그 위에 내용을 기록하였다. 본 수리공사의 내용과 관계자, 증명전 사진을 수록한 것으로 공사기간, 공사시행자, 시공자를 기록하고 사진을 갈라로 첨부하였다.

안전표시판은 안전수칙판 등이 있는데 안전수칙판은 0.9×1.8m로 안전 일반 수칙을 기록하여 인

부들이 출입하는 비계다리 옆에 놓았으며 통행금지판은 0.6×0.9m로 관람객이 진입할 소지가 있는 곳에 놓았다. 안전포탈은 타포린포탈을 비계와 출입구, 난간 등 곳곳에 설치하였다.

작업인부의 흡연을 고려하여 가설창고 옆에 흡연 장소와 재떨이를 마련하여 꼭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하였으며 항시 인부들에게 이를 주지시켰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를 가설덧집 상부와 가설사무소, 창고 등에 비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사진 4-3] 가설비계와 그래픽 휘장막



[사진 4-4] 공사안내판

3. 해체 및 철거공사

3-1. 트렌치 조사

지하 1층을 공사하기 전에 바닥 일부를 트렌치조사 하였다. 트렌치조사를 한 것은 지하 1층 바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수 전에 바닥상태를 알기 위함이었다. 트렌치를 파 본 결과 지하바닥은 진흙 뿔층 위에 두께 100mm정도 잡석다짐하고 그 위에 와이어메쉬가 있는 두께 100mm 무근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었다. 즉,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바닥은 애초부터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와이어메쉬의 존재로 볼 때 근래에 설치한 것으로 보였다.



[사진 4-5] 트렌치 단면



[사진 4-6] 트렌치 파기



[사진 4-7] 트렌치 파기

3-2. 증축부분 철거

중명전 북서쪽에는 원형부분에 덧붙인 부분이 있었다. 1층에만 덧붙여 사용하였는데 이 부분은 원형과 달라 철거하기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을 철거 하였다. 철거한 결과 증축된 부분은 확실히 후대에 확장한 것이 확인되었고 원래 원형이 나타났다. 그 핵심은 계단 부분과 지하층 출입구이다. 이 계단은 1층과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었고 지하층 출입구는 원래 개방되어 있어야 했으나 막혀 있는 상태였다. [3장 4-1. 지하 1층 배면 지하출입구 유구조사 참조]



[사진 4-8] 지하 1층 출입구 원형모습



[사진 4-9] 1층 출입 계단 원형모습

3-3. 벽마감 해체공사

중명전은 일부 근래에 설치된 칸막이를 제외하고 조적 위에 석회몰탈로 마감되어 있었다. 이 석회몰탈을 해체하였다. 해체한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는 석회몰탈 마감상태가 나빠 이를 제거하여 재미장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조적벽의 변화과정을 알기 위함이었다. 해체해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1층 회랑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3장 3-2. 1층 회랑 원형 조사 참조] 더불어 창호의 위치와 벽의 구성 및 위치, 마감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4-10] 석회몰탈을 해체한 후의 벽 모습 1



[사진 4-11] 석회몰탈을 해체한 후의 벽 모습 2

4. 조적공사

4-1. 벽돌 구입

중명전에 사용된 벽돌은 고벽돌이다. 적색인 적벽돌과 흑색인 전벽돌이 사용되었다. 지금의 벽돌은 소위 개량형이라 해서 크기도 다르고 벽돌 소성온도도 달라 질감도 다르다. 문화재 보존원칙상 같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나 이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 같은 재질과 색상의 벽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째는 국내에서 주문제작하여 생산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과거에 사용한 파벽돌 중에서 공급받는 방법이었다. 첫째의 경우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었다. 고벽돌은 기본적으로 수작업에 의한 제작방식에 의해 생산된 것인데 이때 가마의 온도에 따라 벽돌의 색깔과 질감, 재질 등이 결정되는데 고벽돌은 도기질 수준으로 내부가 현재 벽돌보다 밀실한 정도가 약하고 따라서 강도도 약할 뿐만 아니라 색깔도 파스텔톤으로 나온다. 반면에 현재 생산되는 벽돌은 공장에서 자동생산되고 가마의 온도도 높아 강도도 높고 밀실도도 높아지게 된다. 특히 표면은 거의 자기질 수준까지 가게 된다. 또, 개량형 크기이기 때문에 고벽돌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주문 생산해야 하는데 이때 공장 제작이 아닌 수작업 제작으로 주문해야 하며 크기도 크고 배합비도 옛날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소량 생산이었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였다. 다행히 전벽돌은 주문생산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내가 아니고 국외였다. 중국에서 주문생산할 수 있었는데 중국 대련이라는 곳에서 수작업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다행히 질감과 색깔, 강도가 비슷하였다. 주문량은 1만 5천장이었고 전량 생산하여 반입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파벽돌 중에서 구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미 많은 건물이 사라져 버렸고 있어도 소량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외에서 알아본 결과 적벽돌은 중국 하얼빈에서 구할 수 있었다. 하얼빈에 있는 근대건물에서 철거하면서 생긴 파벽돌 중에서 중명전과 같은 크기에, 같은 질감을 가진 벽돌을 구할 수 있었다. 중명전에 사용된 벽돌은 약 $220 \sim 230 \times 110 \times 55$ 크기를 가졌는데 중국 하얼빈에서 확보한 벽돌은 그 크기가 $240 \times 115 \times 55$ 정도였다. 완벽하게 같은 크기의 벽돌을 구할 수 없었다. 길이가 긴 것은 잘라 내거나 글라인더로 갈아 사용하면 되었다. 다행히 두께가 거의 같아 큰 문제는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줄눈 두께를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반입된 적벽돌은 14만 2천장이었다. 가장 큰 고민인 벽돌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예상량은 8만장 이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더 확보한 물량도 거의 소모되었다.

4-2. 벽돌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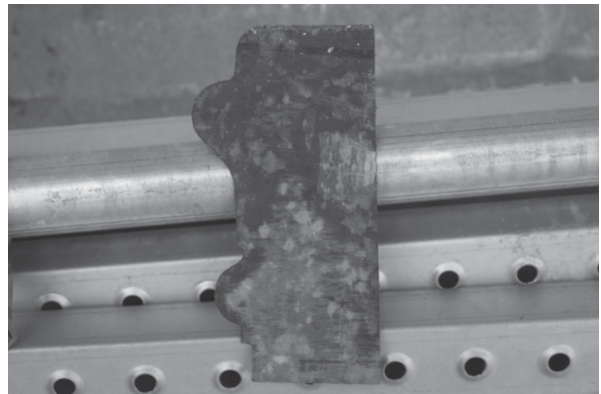
반입된 벽돌은 가공이 필요하였다. 특히 이형벽돌은 가공이 필요하였다. 가공은 전동그라인더와 전동절단기를 사용하였다. 자르는 것은 절단기를 사용하였고 갈아내야 하는 것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였다. 이형벽돌은 총 8종류인데 필요량을 감안하여 모두 가공하였다. 이 중에서 외부 아치에 쓰이는 이형벽돌 3종류는 그 모양이 복잡한 곡선으로 되어 있어 수작업하기가 어려워 공장에서 가공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가공하였다. 그 장수는 각각 600여 장씩 약

1,800여 장을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아치를 양쪽에서 받는 주두에 있는 2개의 이형벽돌은 각각 200여 장씩 총 400여장을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층단을 구분하기 위한 내쌓기용 벽돌 2개는 각각 400여 장씩 총 800여 장을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기둥 하부에 사용된 굽받침용 이형벽돌은 약 600여 장을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결국 이형 벽돌은 총 3,600여 장을 사용한 셈이다.

이형벽돌의 경우 얇은 합판을 이용해 현척도를 따서 벽돌에 그려 일일이 가공하였다.



[사진 4-12] 현척도 이용



[사진 4-13] 현척도



[사진 4-14] 글라인더 가공



[사진 4-15] 절단기 가공



[사진 4-16] 가공된 이형벽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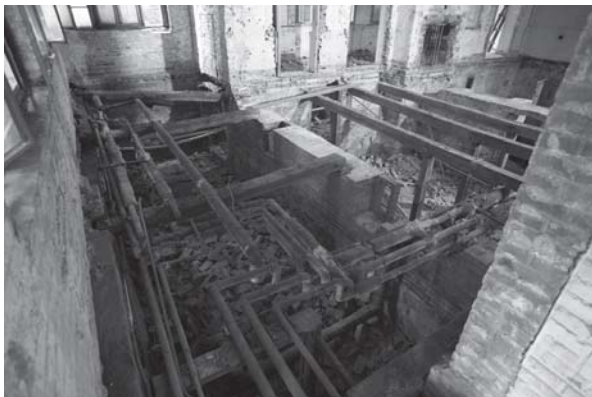
[사진 4-17] 가공된 이형벽돌

4-3. 지하 1층 조적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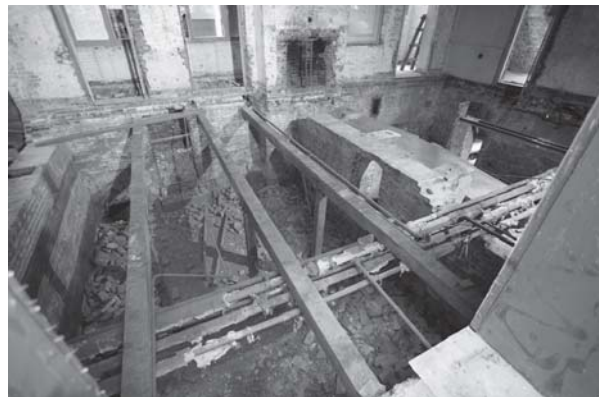
조적공사는 지하 1층부터 공사하였다. 마루공사와 공정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신축공사가 아니다 보니 지붕을 남겨둔 채 기존 벽체를 유지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붕하중과 연결하여 공사순서를 정해 공사에 임해야 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층 마루 해체공사 → 지하 1층 조적공사 → 1층 마루 설치공사 → 1층 회랑 내벽 조적공사 → 2층 마루 해체공사 → 2층 마루 설치공사 → 2층 회랑 내벽 조적공사 → 2층 회랑 외벽 해체공사 → 2층 회랑 외벽 조적공사 → 1층 회랑 외벽 해체공사 → 1층 회랑 외벽 조적공사

지하 1층의 조적벽은 2.0B로 되어 있었다. 1층 마루를 해체한 후 지하 1층 공사가 시작되었다. 해체해 보니 지하 1층의 전체 윤곽이 드러났다. 조적벽의 상태를 보니 장선이 걸렸던 상부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하부는 그런대로 양호했는데 상부 벽돌은 석회몰탈 강도가 약해 서로 이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어쩔 수 없이 상부벽돌 5단 정도를 해체하여 재시공할 수밖에 없었다. 5단 정도를 해체한 후 다시 조적하면서 장선이 얹을 자리를 감안하여 벽돌을 쌓아 나갔다. 이때 기본벽돌의 50% 정도는 재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신재를 사용하였다. 조적쌓기 방식은 소위 네델란드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식으로 쌓았다.



[사진 4-18] 지하 1층 남쪽통로 1과 '실 3' 부분 모습



[사진 4-19] 지하 1층 '실 3' 부분 모습



[사진 4-20] 지하 1층 '실 2' 부분 모습



[사진 4-21] 지하 1층 '실 3', '실 2' 부분 전경



[사진 4-22] 지하 1층 '실 4' 부분 모습



[사진 4-23] 지하 1층 '실 4' 부분 모습



[사진 4-24] 지하 1층 '실 5' 부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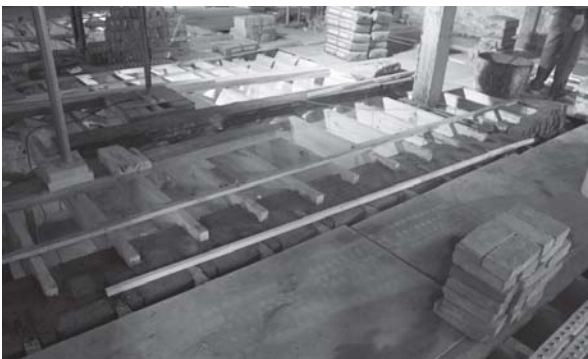
[사진 4-25] 지하 1층 남쪽통로 2 부분 모습



[사진 4-26] 지하 1층 조적벽 쌓기



[사진 4-27] 지하 1층 조적벽 쌓기



[사진 4-28] 조적벽과 장선의 맞물림



[사진 4-29] 1층 조적벽 쌓기

4-4. 1층 조적공사

1층 조적공사는 1층 마루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하였다. 지하 1층은 2.0B로 쌓았지만 1층은 1.5B로 조적하였다. 우선 회랑 내벽을 먼저 쌓았다. 외벽은 막혀 있고 이 벽을 헐어낼 경우 상부 하중을 받지 못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하 1층 조적벽 위에 1층 회랑 내벽 벽돌을 쌓기 시작했다. 1층 회랑 내벽쌓기는 수월하였다. 내부에 없던 벽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벽에는 창문과 문이 설치되는데 창문이 있는 곳에는 창대석을 설치하였다. 창대석은 1층 서쪽에 남아 있는 창대석을 모사하여 제작 설치하였다.

창 상부는 아치로 되어 있는데 아치는 그 호에 맞게 합판으로 틀을 짰 후 그 틀을 받치고 아치를 쌓았다. 아치벽돌은 일반 벽돌을 세워쌓기 하였다. 아치벽돌을 쌓을 때 벽돌이 아치에 맞게 마구리 크기가 서로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벽돌을 사용하였고 줄눈 두께를 위와 아래를 서로 달리하여 쌓았다.

1층부터는 입면상에서 적벽돌과 전벽돌을 같이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적벽돌로 쌓아 올라 가다가 창대석이 있는 부분에는 전벽돌을 3단 쌓고 다시 적벽돌로 쌓다가 상부 아치가 있는 곳에 다시 전벽돌로 3단 쌓았다.



[사진 4-30] 1층 조적벽 위 창대석 설치



[사진 4-31] 1층 조적벽 쌓기



[사진 4-32] 1층 창 상부 아치틀과 벽돌쌓기(쌓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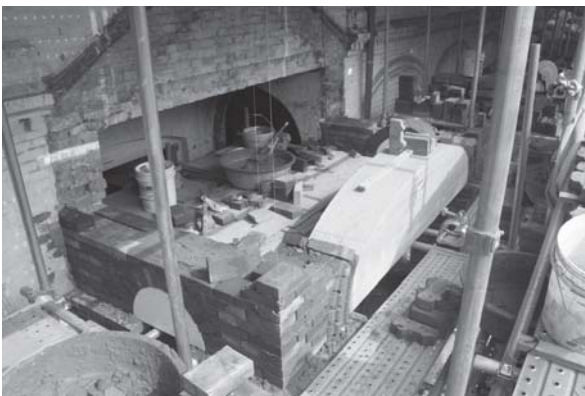
[사진 4-33] 1층 창 상부 아치틀과 벽돌쌓기(쌓기 후)



[사진 4-34] 지하 1층 아치 쌓기



[사진 4-35] 기존 벽돌 재사용재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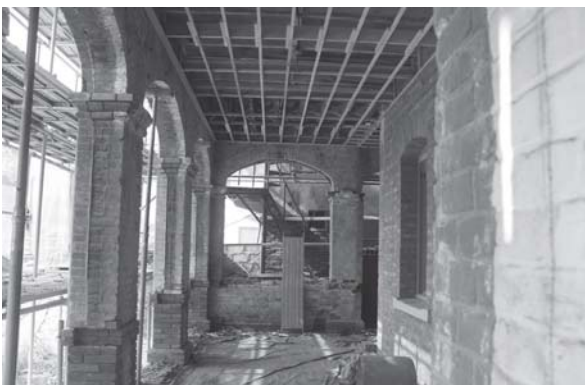


[사진 4-36] 정면 현관 상부 아치쌓기



[사진 4-37] 정면 현관 상부 아치쌓기(완료 후)

1층 외부 벽돌은 2층 회랑 외부 조적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하였다. 2층 외벽하중이 많은 상태에서 1층 외벽을 헐어낼 경우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사하기 어려웠다. 회랑 내벽의 경우,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오히려 쉬웠지만 외벽의 경우는 외벽이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헐어내면서 아치를 받는 기둥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었다. 다행인 것은 1층 외부에 있는 벽은 창 하부와 아치 바로 밑에 있는 벽만 헐어내면 되었다. 우선 창 하부에 있는 벽돌벽을 헐어내고 창 상부, 아치 바로 밑에 있는 벽을 헐어내었다. 아치는 그 자체가 구조적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안정성이 있었다.



[사진 4-38] 1층 외벽 해체공사



[사진 4-39] 1층 외벽 해체공사

4-5. 2층 조적공사

2층 조적공사도 회랑 내벽 공사를 먼저 한 후 외벽공사를 하였다. 특히 외벽공사는 기존 벽체를 부분적으로 헐어내면서 그 사이에 조적기둥을 세우고 아치를 설치하였다. 이런 작업은 매우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지붕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벽을 쌓고 이 내벽이 상부 하중을 받고 있도록 한 후 외벽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회랑 내벽 공사는 쉬운 편이었다. 1층 회랑 내벽 위로 조적하면 되었고 내부에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내벽은 2층 마루공사가 완료된 후 조적공사를 하였다. 그 외에는 1층 내벽공사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사진 4-40] 2층 회랑 내벽 조적공사



[사진 4-41] 2층 회랑 내벽 창대석 설치



[사진 4-42] 2층 회랑 내벽 창틀 및 조적공사



[사진 4-43] 2층 회랑 내벽 조적공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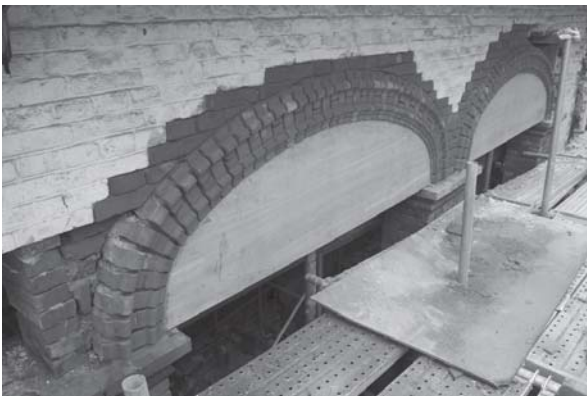
외벽공사는 상부 구조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진행하였다. 벽 전체를 헐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적기둥이 위치할 부분을 먼저 부분적으로 헐어내면서 헐어낸 부분에는 아치 받침용 조적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이 완료되면 나머지 부분인 창호가 위치 할 부분을 헐어내어 아치를 쌓고 틈새를 벽돌로 사춤하듯 끼워가면서 공사하였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차츰차츰 완성해 나갔다. 2층 벽도 1층과 같이 창대석 있는 선상에서는 전벽돌을 3단 쌓았고 다시 창틀 상부 아치에도 전벽돌을 3단 쌓고 그 위에 적벽돌을 쌓았다. 2층 내벽 조적의 상부에는 지붕을 구성하는 장선틀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 꼭 끼게 쌓아 상부 지붕을 받도록 하였다.



[사진 4-44] 2층 외벽 일부 헐어내기



[사진 4-45] 일부 헐어낸 부분에 조적기둥 세우기



[사진 4-46] 아치틀을 받치고 아치 설치하기



[사진 4-47] 완성된 아치에서 아치틀 제거하기

4-6. 몰탈

기존 벽돌쌓기에 사용된 몰탈은 석회몰탈이었다. 강회와 모래를 섞어 배합했는데 줄눈 두께가 평균 10mm 정도였다. 줄눈은 평줄눈이었고 외부도 평줄눈으로 되어 있었다. 이 석회몰탈은 조금 압력을 주면 푸석푸석하게 떨어져 나갈 정도였다. 따라서 강도가 미약한 편이었다. 이를 감안하여 새롭게 조적하는 곳에는 시멘트몰탈을 사용하였다. 쌓기몰탈은 1:3 배합으로 하였고 줄눈몰탈은 1:1로 하였다. 줄눈몰탈은 기존과 같이 평줄눈으로 하였다.



[사진 4-48] 벽돌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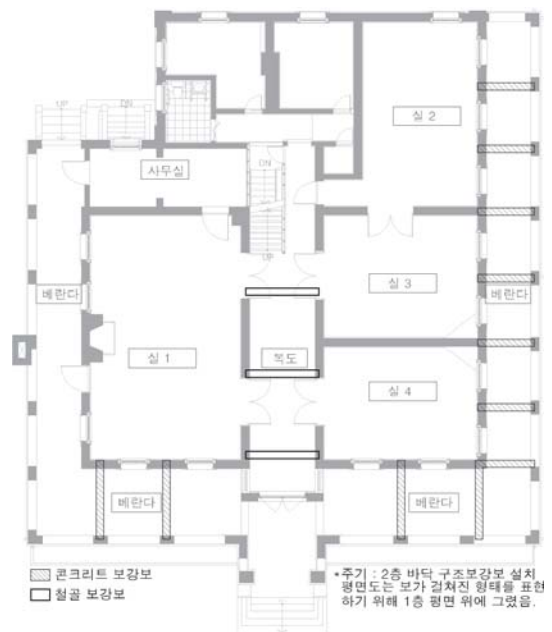
[사진 4-49] 줄눈공사

4-7. 구조보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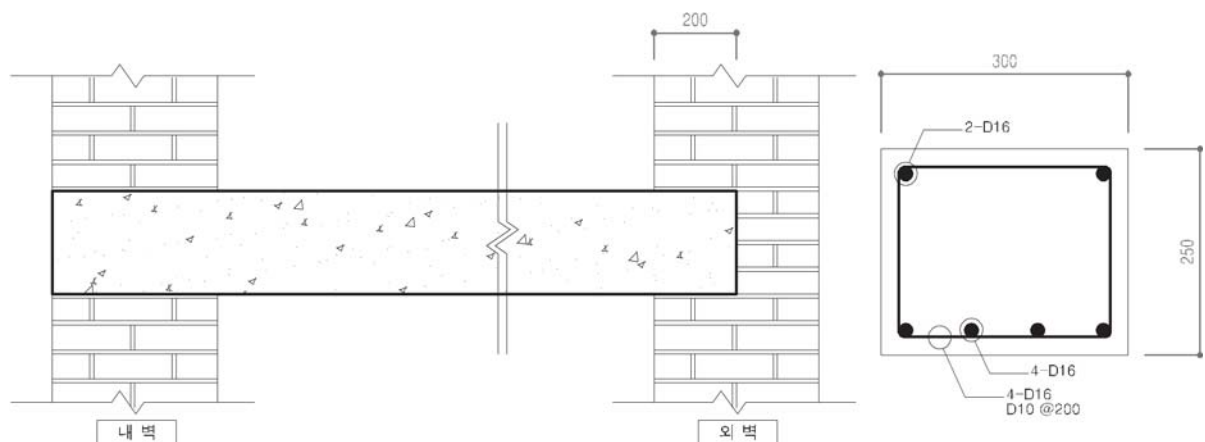
가. 콘크리트 보강 보

1층과 2층에 회랑이 새롭게 생겼다. 조적벽은 서로 연결되면서 구조적 내력을 서로 보완하게 된다. 그런데 회랑이 생기면서 회랑 내벽과 외벽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서 있게 된 결과가 나왔다. 1층이나 2층 벽은 1.5B 밖에 안 되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었다. 이는 조적조에서 불안정한 구조가 된다. 기존 구조는 확인할 길이 없어 애초 방법대로 구조를 선택할 수 없었다.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었다. 즉, 내벽과 외벽을 서로 연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권기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교수)께 자문하여 그 방법을 찾았다. 즉 독립된 보를 콘크리트로 만들어 외벽과 내벽 사이를 연결하는 방법이었다. 1층 회랑 내벽이 완료된 후 이 콘크리트 보를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 그 위에 2층 회랑 내벽 조적공사를 하였다. 결국 콘크리트 보가 벽돌벽 속에 일체화되어 연결된 것이다. 물론 서로 완벽하게 일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 구조적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콘크리트 보강보는 [도면 4-1]과 같이 회랑을 따라 벽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였다. 총 11군데 설치 하였다. 보의 단면 크기는 300×250mm이고 길이는 2400mm였다. 보의 외벽쪽에는 200mm를 물렸고 내벽쪽에는 1.5B 두께인 340mm 전체가 물리도록 하였다. 보 속에는 철근을 배근하였다. 주근이 D16인데 상부에 2개, 하부에 4개 배근하고 늑근은 D10이고 간격을 200mm로 하였다.



[도면 4-1] 구조보강보 설치 위치 안내도



[도면 4-2] 콘크리트 구조보강보 상세도



[사진 4-50] 콘크리트 보강 보 거푸집 설치



[사진 4-51] 콘크리트 보강 보 거푸집 설치



[사진 4-52] 콘크리트 보강 보 완성



[사진 4-53] 콘크리트 보강 보 완성

나. 철골 보강 보

1층 중앙통로는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었다. 이번 공사에서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슬라브가 처질 가능성이 있어 슬라브 보강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지하 1층에서 철골보로 1층 슬라브를 받도록 하였다. 이 철골보는 3군데에 설치되었는데 [도면 4-1]과 같다.

철골은 H-200×200×10×10을 사용하였다. 바닥에 철골보를 앵커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서 상부 슬라브를 받는 철골을 설치하였다. 전체적으로 ‘□’가 되었다.



[사진 4-54] 철골 보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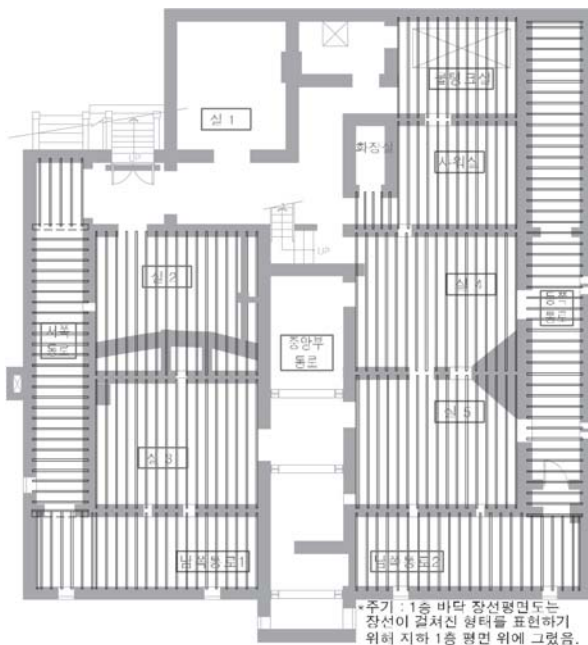


[사진 4-55] 철골 보강보

5. 마루공사

5-1. 장선설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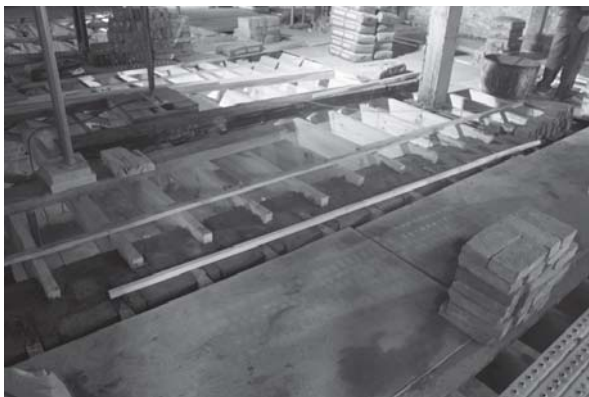
기존 마루는 상당 부분이 부식되고 처짐이 생겨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를 보수하였다. 그 구조는 기존 것과 같은 구법으로 공사하였다. 기존 장선 중 상태가 좋은 것은 재사용하였는데 1층의 경우는 약 20% 정도이고 2층의 경우는 약 30% 정도였다. 신재로 반입된 장선은 모두 육송을 사용하였다. 장선은 240×60mm 크기인데 1개씩 설치하였고 간격은 기존과 같은데 370~400mm로 하였다. 장선을 설치하고 기존과 같이 60mm 각재를 ‘×’ 모양으로 해서 가새를 설치하였다. 이 장선은 벽돌에 100~120mm 물려 설치하였다. 구재를 사용하면서 신재와 약간씩 높이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부분은 목재췌기를 이용해서 맞추어 설치하였다.



[도면 4-3] 1층 바닥 장선설치 평면도



[도면 4-4] 2층 바닥 장선설치 평면도



[사진 4-56] 1층 마루 장선 설치



[사진 4-57] 2층 마루 장선 설치



[사진 4-58] 2층 마루 장선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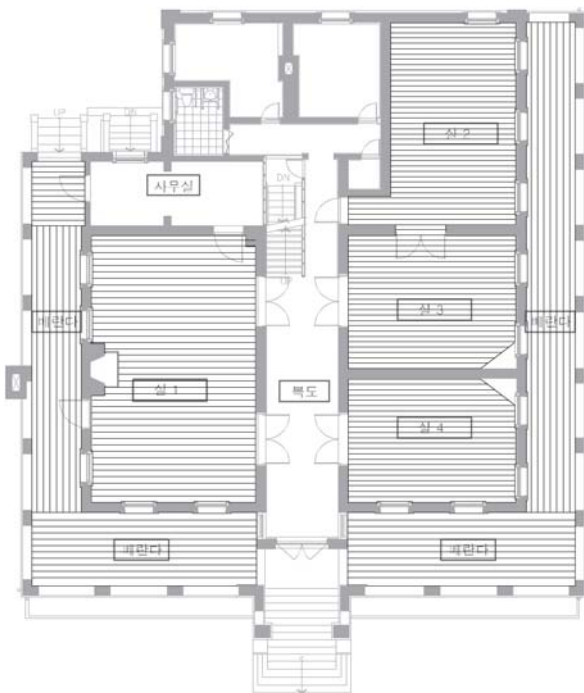


[사진 4-59] 장선과 벽돌의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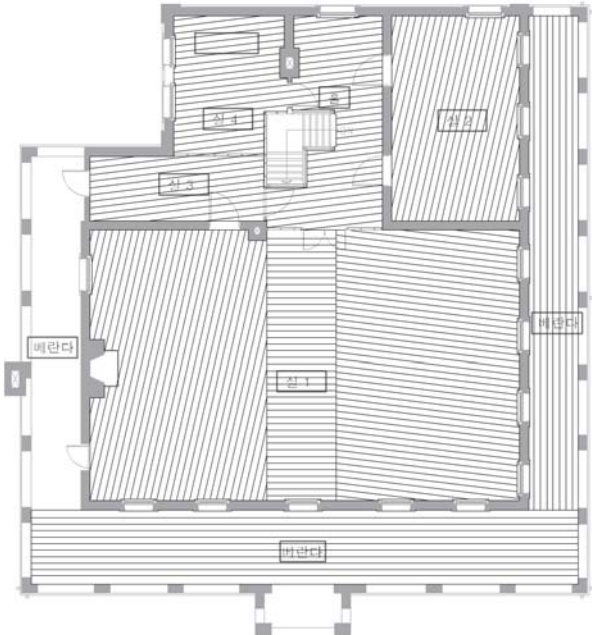
5-2. 마루공사

장선 위에 마루를 설치하였다. 마루는 두께 27mm짜리 육송 판재를 사용하였다. 폭은 240mm이다.

이 마루는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일부는 장선의 직각방향으로, 일부는 사선방향으로 설치하였다. 1층과 2층이 약간씩 다른데 이는 가능하면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기 위함이었다. 장선과 마루는 못으로 결구하였으며 1층과 2층에서 기존에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던 곳을 제외하고 모두 설치하였다. 마루나 장선 모두 훈증처리하였다.



[도면 4-5] 1층 마루설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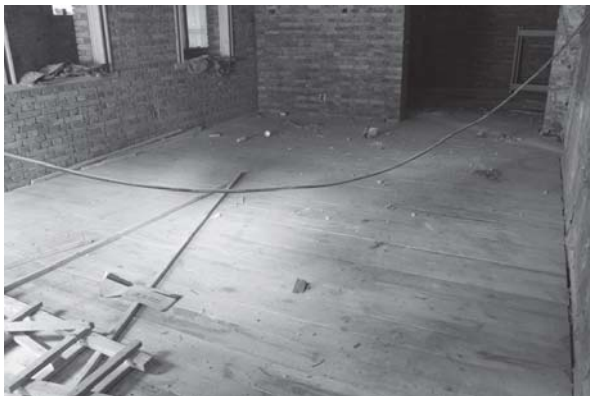
[도면 4-6] 2층 마루설치 평면도



[사진 4-60] 1층 마루 설치공사



[사진 4-61] 1층 마루 설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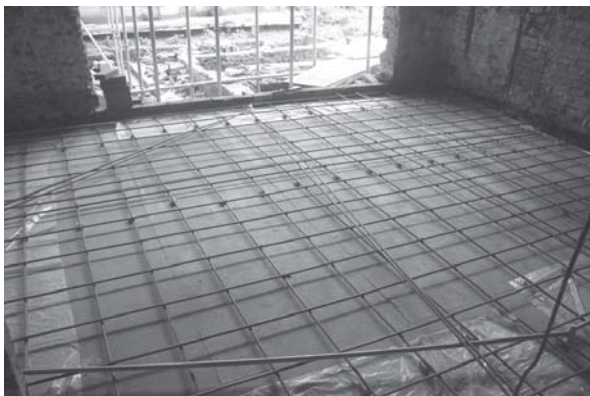
[사진 4-62] 1층 마루 설치공사



[사진 4-63] 1층 마루 설치공사

5-3. 콘크리트 슬라브공사

1층과 2층의 서쪽 회랑은 일부가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었다. 이 슬라브를 해체하고 콘크리트 슬라브를 재설치하였다. 위치는 같은 곳이었다. 철근은 복배근 하였는데 상부근은 D13 짜리를 250mm 간격으로 설치하였고 하부근은 D13 짜리를 250m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사진 4-64] 철근 배근



[사진 4-65] 콘크리트 타설

6. 마감공사

6-1. 외벽세척공사

가. 예비조사 및 페인트제거제 선택시험

① 벽돌 및 지대석의 페인팅 상태조사

중명전은 흙벽돌 조적건물로서 적색벽돌과 흑색벽돌로 외장이 꾸며져 있으며, 내층에 적색안료(석간주), 중층에는 미황색 유성페인트, 표층에는 백색 수성페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페인트는 수회에 걸쳐 덧칠해져 있다. 테라스 내부 벽면도 내층에 적색안료(석간주), 중층 미황색페인트, 표층 백색 수성페인트로 칠해져 있으며 2층 복도는 페인팅 도장 강도가 약하나, 1층 테라스 복도는 페인트접착강도가 상당히 강하고 두텁게 도막이 형성되어 있다. 지대석의 경우 화강암 재질로서 내부에 미백색, 표층에 회색의 수성페인트로 도장되어 있다.

② 페인트제거제 선택시험

페인트 리무버에 의한 수성페인트의 도막제거는 쉽게 일어나며 2-3회 반복으로 내층의 오염 없이 헤라나 철솔로 쉽게 제거된다. 중층의 유성페인트는 리무버에 의해 연화가 되기는 하나 연화정도가 미약하고 색상이 용해되어 표면을 오염시킨다. 신나나 MEK에 의한 페인트의 용해도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용해된 색소가 벽돌표면에 재흡착되어 표면을 오염시킨다.

자일렌의 경우, 끓는점이 높아 용매의 표면흡수율이 타 용매에 비해 느리고 리무버에 용해된 색소가 응결되어 분무기에 의한 분무 직 후 솔로 제거하면 재오염 정도를 최소화하며 제거가 가능하였다.

③ 벽돌의 부분적 강도확인

복도 내벽과 처마 밑 등 강우가 직접 들이치지 않는 곳이나 햇볕을 직접 받아 우수가 쉽게 증발하는 곳의 벽돌은 표면강도가 원상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으며 이곳의 페인트도막 고착정도도 상당히 강한 편이다. 반면, 웅달이나 1층 부위의 벽돌은 빗물과 습기에 의한 재질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부분적으로 표층 탈피가 진행 중이다.

④ 에어브레시브에 의한 벽돌마모 및 파손여부 확인

60mesh의 Garnet로 샌딩할 경우, 3~4kg/cm²의 압력으로 페인트 도막의 제거가 가능하나 재질이 약화된 벽돌의 경우 표면의 질감이 너무 거칠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관 내부복도 및 건물후면 2층 부위는 60~80mesh의 Garnet와 금강사(Aluminium Oxide)로 2~3kg/cm²의 압력으로 재질의 파손정도를 고려하여 분사압력과 분사거리를 조절하며 샌딩하였다.

⑤ 유기용매에 의한 페인트 오염정도 확인

락카신너의 경우 유성페인트 부분이 용매에 녹아 흘러내리면서 하층부위를 오염시키고 있다. 자

일렌(BP:140℃)의 경우 락카신너(BP:80~110℃)나 MEK(BP:80℃)보다 표면흡수율 및 증발속도가 낮고 리무버에 의해 용해된 색소가 응축되므로 분무기로 부분적 세척 및 솔질을 상부에서 하부로 실시하여 페인트를 제거하였다.

나. 페인트제거작업

① 페인트리무버 및 Xylene에 의한 페인트제거

- 표면의 먼지 및 페인트 들뜬 부위를 헤라 및 솔로 1차 제거한다.
- 페인트리무버를 피막 외부에 붓으로 칠한 후, 5~10분 경과 후 페인트 도막이 연화되면 헤라로 수성 페인트 층을 긁어낸다.
- 페인트리무버를 피막 외부에 붓으로 칠한 후, 5~10분 경과 후 페인트 도막이 연화되면 솔로 제거한다.
- 페인트리무버를 피막 외부에 붓으로 칠한 후, 유성페인트층이 용해되면 자일렌을 분무하며 솔로 제거한다.
- 크실렌을 분무하며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페인트 층을 솔로 제거한다.
- 크실렌 및 락카신너에 의한 페인트 오염층을 솔로 제거한다.
- 리무버 및 크실렌을 이용 시멘트 줄눈부위 세척한다.
- 모타틀에 의한 줄눈부위 페인트 미제거분 연마한다.

② 에어브레시브에 의한 페인트제거

- 샌딩 시 미디어의 수거 및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 비닐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분진 제거용 집진장치를 설치한다.
- 60~80메쉬의 Garnet 및 금강사(Aluminium Oxide)에 의한 샌딩작업을 실시한다. 시멘트 줄눈부위를 3~4kg/cm²의 압력으로 1차 제거한다.
- 샌딩 시 재질면 연마정도를 확인하며 분사거리 및 압력을 조절하여 페인트를 제거한다.
- 2~3kg/cm²의 분사압력으로 벽돌면 페인트를 제거한다.
- 리무버 및 크실렌을 이용 페인트 잔재물을 제거한다.
- 치과용 소도구 및 모타틀을 이용하여 줄눈부위 페인트 미제거분을 연마한다.

③ 표층 먼지제거 및 적색안료층 연마작업

- 에어건을 이용하여 페인트제거면 먼지를 건식 세척한다.
- 흑벽돌에 적색안료층이 오염된 부위는 샌드페이퍼 연마지로 연마하여 흑색층이 노출되게 한다.
- 시멘트 줄눈 부위는 연마지와 연마석을 이용 적색안료층을 제거한다.
- 좁은 틈이나 모서리부분, 요철부위는 모타틀, 헤라, 끌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제거한다.
- 락카신너와 자일렌을 이용하여 리무버 잔재물과 용해된 페인트를 습포지로 흡착 제거한다.

④ 색맞춤 및 탈락부위 수지성형

시멘트 줄눈 부위는 적색안료 및 유성페인트가 내부로 깊게 스며들어 표면을 연마해도 페인트층이 제거되지 않는 곳이 부분적으로 남게 된다. 또한 벽돌 파손부위를 시멘트로 성형한 부위는 페인트제거 후 바탕이 노출되어 이질감을 나타내므로 적벽돌과 흑벽돌을 분쇄하여 포리졸과 아크릴물감을 혼합하여 색맞춤을 실시하였고, 부분적 적벽돌 훼손 부위는 에폭시수지를 적벽돌가루와 혼합하여 성형하였다.

⑤ 발수 경화처리

페인트제거가 완료되고 처리 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에어건과 플라스틱 솔로 표면의 먼지와 이물질을 2회에 걸쳐 건식세척한 후 발수경화제(리페론 QR4900)를 분무기를 이용하여 도포량 6㎡/l 으로 24시간 간격으로 2회 도포하였다.

⑥ 지대석 페인트 제거작업

화강암재질의 지대석은 표층의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표면이 회색의 수성페인트로 도장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페인트층과 암석층이 분리되어 있다. 유기용매를 쓸 경우 페인트가 용해되어 암석 틈으로 색소가 스며들 우려가 있어 1차로 페인트리무버를 도포하여 표층의 페인트층을 헤라로 가볍게 긁어낸 후 금강사를 이용 에어브레시브한다. 샌딩 후, 페인트 잔재물을 치과용소도구 및 플라스틱솔을 이용하여 제거하고 에어건으로 건식세척을 2회 진행한 다음 발수경화제를 2회 도포하였다.

다. 사용약제 및 주요자재

① 페인트 리무버 (Paint Remover)

페인트 리무버(리무버YY900)는 오래된 페인트 도막과 바니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유기용매의 혼합물로서 페인트 제거 시 용해된 잔재물의 2차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점성을 첨가한 젤라틴계 박리제이다.

■ 일반적 성질

가. 마감상태: 밀크색 투명

나. 고형분 용적비: 약4%

다. 비중: 약1.2(kg/L)

라. 인화점: 비인화성물질

■ 도장사양

가. 도장조건: 증발을 너무 빨리 진행시키는 25℃ 이상의 온도와 직사광선 및 강풍 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희석: 원액 그대로 사용

다. 도장방법 : 붓으로 두껍게 칠하여 5-10분간 방치한 후 도막을 스크레퍼로 제거할 수 있다. 리

무버 도포면이 건조되거나 1시간 이상 방치하면 오히려 긁어내기가 어려워지므로 주의한다. 너무 두꺼운 얇은 도막이나 연성도막이 건조되어 있다면 반복한다. 제거할 도료나 바니쉬의 특성과 도막의 두께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지며 3-5㎡/L 정도의 도포율로 도장한다.

② 락카신너 (Lacker Thinner)

신나는 공업용 유기용제를 일컫는 말로 그 용도에 따라 몇 가지의 유기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신나를 제조할 때 혼합하는 유기용제의 성분으로는 대개의 경우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부틸아세테이트, 시크로헥산, 휘발류 등이 있고,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클로로포름과 같은 할로겐화 탄화수소물과 노말헥산, TDI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도료용 신나의 경우 가장 많이 포함되는 톨루엔을 비롯하여 자일렌, 노말헥산 등이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이소프로필알콜, 아세톤 등과 혼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③ 자일렌 (Xylene)

화학식 $C_6H_4(CH_3)_2$, 벤젠고리에 메틸기 2개가 결합하고 있는 구조로 o-xylene, m-xylene, p-xylene의 3종의 이성질체가 있다. 달콤한 냄새가 나고 매우 가연성이 있는 무색의 액체로 독성이 없다. 분자량은 106.17이다. 녹는점, 끓는점, 비중은 이성질체에 따라 다르다. 이성질체 모두가 물에는 녹지 않지만 에테르, 벤젠 등의 유기용매와는 잘 섞인다. 용해력이 크기 때문에 이성질체 혼합물 그대로 용제로 사용한다.

[표 4-1] 사용 유기용제의 끓는점 비교표

종류	끓는점(℃)
Xylene	139
MEK	79.6
Toluene	110.8
Benzene	80.1

④ 에어브라스트 미디어

가. 가넷(Garnet): 석류석의 작은 분쇄물 #60mesh

나. 금강사(Brown Aluminum Oxide(Al_2O_3)): #80mesh

⑤ 발수경화제(리페론QR4900)

리페론QR4900은 실리콘계 침투성 발수제로서, 도장 시 소지표면에 피막을 형성하지 않고 미세한 기공을 형성하며 소지 깊숙이 침투하여 두터운 발수층을 형성하는 통기성을 가진 도료입니다.

가. 용도 : 콘크리트, 시멘트모탈, 석고보드 등으로 마감한 건축물 내,외벽 습기방지 및 발수성능 부여 혹은 노화 방지용.

나. 일반적 성질

- 마감상태 : 투명
- 건조시간 : 20℃ 충분한 환기 하에서, 지축건조 : 30분
- 고형분용적비 : 약 5%
- 도포율(이론치) : 평활한 면에서 건조도막두께 8마이크론으로 6㎡/ l

- 비중 : 약0.79(kg/ l)
- 인화점 : 38℃(밀폐시)

다. 도장사양

- 표면처리 : 소지표면의 먼지, 수분,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콘크리트 소지는 20℃, 상대습도 80% 이하의 조건에서 28일 양생되어야 하며, 표면함수율이 6% 이하로 건조되어야 한다.
- 도장조건 : 소지표면은 깨끗하여야 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소지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이어야 한다.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분무도장
- 도막두께 : 1회에 건조도막두께 8마이크론으로 2회 도장한다.
- 재도장간격 : 20℃, 충분한 환기 하에서 최소 2시간

■ 비고 : 시공 전 소지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 습기가 있는 부위에 도장 시 건조 중에 백택이 발생할 수 있다.
- 본 제품은 희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한다.
- 장기간 물이 고이는 장소나 수압을 받는 부위의 방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부적당하며, 광택이 있는 타일과 같은 소지에도 적용이 불가하다.
- 상도 도장이 요구되는 부위는 도장하지 않는다.
- 용제 증기를 장시간 흡입치 마시고, 피부와 눈에의 접촉을 피한다.
- 작업시에는 필히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라. 작업일지

[표 4-2] 작업일지

일 자	작 업 내 용
10/28-10/31	예비조사 및 페인트제거제 선택 시험/ 자재 및 세척제 구입/ 부분별 시험 세척
11/3-11/25	건물 후면 및 현관 출입문 샌딩작업/ 건물 전면 및 우측면 리무버에 의한 페인트제거 2층 복도 내부 리무버에 의한 페인트제거/ 1차 세척부위 유기용제에 의한 잔재물 제거 및 세척
11/26-11/30	건물 좌측면 샌딩작업/ 건물 좌측면 리무버에 의한 페인트제거/ 1층 복도 내부 리무버에 의한 페인트제거 색마춤 및 결손부위 부분 성형/ 2층 발수경화처리
12/1-12/7	기단석 샌딩작업/ 복도 내부 백회 제거작업/ 1차 세척부위 유기용제에 의한 잔재물 제거 및 세척 색마춤 및 결손부위 부분 성형/ 1층 발수경화처리
12/8-12/10	줄눈 및 흑벽돌 적색 착색부위 연마작업/ 에어건을 이용한 건식세척/ 마무리 작업 및 청소



[사진 4-66] 세척 전 외벽 도장상태



[사진 4-67] 세척 전 테라스 복도 도장상태



[사진 4-68] 1차 페인트 도막제거



[사진 4-69] 1차 페인트 도막제거 상태



[사진 4-70] 2차 페인트 도막제거



[사진 4-71] 3차 페인트 도막제거



[사진 4-72] 4차 시멘트 줄눈부위 세척



[사진 4-73] 페인트 제거 후 발수경화제 도포



[사진 4-74] 모터툴에 의한 요철부위 및 페인트 잔재물 연마



[사진 4-75] 페인트 제거 후 발수경화제 도포



[사진 4-76] 샌딩작업을 위한 분진 가림막 및 집진기 설치

6-2. 바닥마감공사

가. 내부 바닥마감

중명전의 당초 바닥 마감재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당시 같은 시기에 건축된 건물 중 유사한 건물을 찾아 마감재료를 확인해서 그 재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건물 중에서 참조한 건물은 창덕궁의 회정당과 석조전을 참조하였다. 이 두 건물은 모두 격자형 목재타일을 사용하였었다. 당시에는 가장 보편적인 재료가 목재였고 대중화되어 있는 것이어서 특별히 다른 재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석조전과 회정당의 마감재료를 참조하기로 하였다.



[사진 4-77] 석조전 바닥마감(목재타일)



[사진 4-78] 회정당 바닥마감(목재타일)

장선 위에 두께 27mm 육송판재를 깐 위에 내부 바닥마감을 하였다. 마감재는 격자형 오크무늬목 목재타일을 사용하였다. 오크 무늬목은 폭이 75mm에 길이가 300mm인 무늬목을 4개 겹쳐서 이를 한 개의 모듈로 해서 제혀쪽매로 서로 격자형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바탕과 오크무늬목은 고강도 원목마루용 에폭시 접착제 PU-2를 사용하여 붙였다. 이 무늬목의 두께는 18mm이다. 1층과 2층 내실은 모두 같은 재료를 사용하였다.



[사진 4-79] 목재타일 깔기



[사진 4-80] 완료된 바닥

나. 회랑바닥마감

중명전에 새로 생긴 부분이 회랑이다. 회랑은 외부공간이다 보니 바닥마감재료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구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목재의 경우는 물에 약해 사용이 어려워서 타일을 사용하였다. 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사용한 타일은 목재 마루 무늬 타일이다. 이 타일을 우물마루 모양이 나도록 설치하였다. 이 타일은 자기질타일인데 길이가 450mm이고 폭은 90mm, 두께는 6mm이다. 회랑의 구조 바탕은 장선 위 육송판재이다. 그러다 보니 우수에 의한 침수가 우려되어 외부 쪽, 즉, 난간 쪽에는 폭 1,000mm 정도로 시트방수지를 육송판재 위에 깔았다. 그 위에 0.05mm 두께인 PE 필름을 깔아 외부 습기를 차단하도록 한 후 그 위에 몰탈을 깔았다. 몰탈은 30~50mm 정도 되었는데 배수가 되도록 물매를 잡아 두었다. 몰탈에는 와이어메쉬를 설치하였다. 몰탈 위에 바닥타일을 깔았다.



[사진 4-81] 회랑 설치몰탈 깔기



[사진 4-82] 설치몰탈위 타일 깔기



[사진 4-83] 설치몰탈 위 타일 깔기



[사진 4-84] 완성된 회랑 바닥

다. 문양타일마감

1층 중앙복도에 있는 문양타일을 일부 보수하고 깨진 것들은 주문생산된 문양타일을 교체 보수하였다. 신재로 교체된 문양 타일은 총 45장 이었다, 이중 무시무종문양 타일은 6장, 불꽃문양 타일은 9장, 별문양 타일은 30장이었다. 꽃문양 타일은 전체를 재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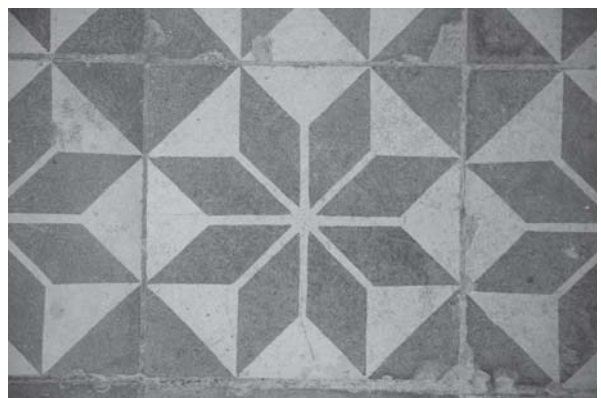
문양타일은 부분적으로 보수한 것이고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를 해체하여 재설치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면 현관 앞쪽이 조금 넓어지면서 통로 북쪽에 있던 일부 타일을 현관쪽으로 옮겨서 설치하기는 하였다.

신재 문양타일은 주문 제작하였는데 기존 제작공법대로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그래도 최대한 같은 방법대로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같은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은 어려웠다. 두께 10mm된 화강석을 바탕으로 해서 상부 문양석인 오석을 에폭시로 접착하여 만들었다. 에폭시 두께가 약 3mm 전후이고 문양 부분은 약 12mm 정도가 되었다. 까만색은 기존과 같은 문양 오석을 사용하고 흰색부분은 대리석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만든 후 상부를 갈아내어 표면을 일정한 상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러다 보니 기존 타일과 마감 질감에서 차이가 났다. 타일은 몰탈로 접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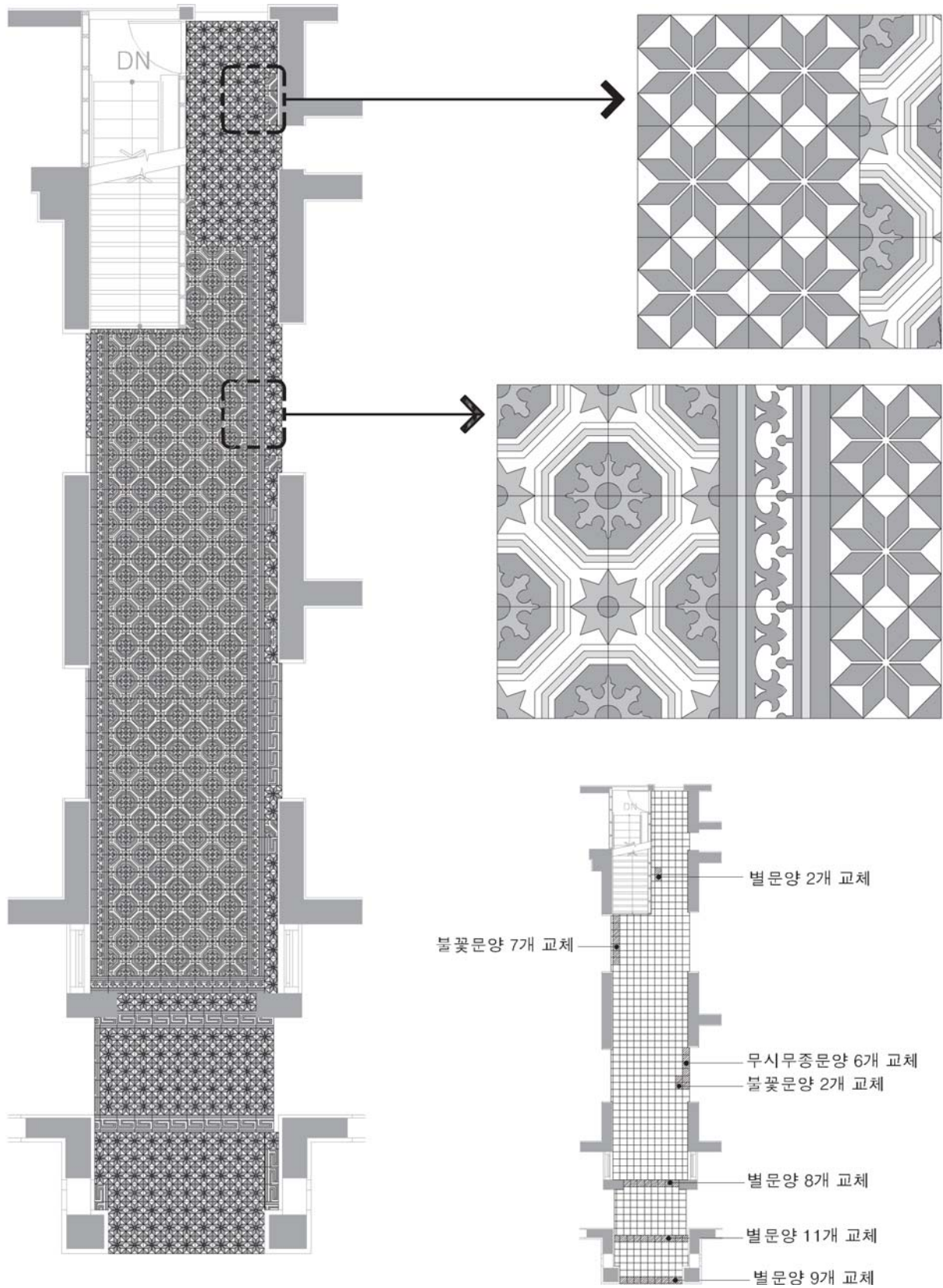
이 문양타일은 바닥에 있다 보니 사용자에게 의해 깨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문양 타일 위에 강화유리를 설치하였다. 우선 문양타일 위에 강화유리를 받아줄 20×40mm 스텐 각과이프를 설치하고 그 위에 두께 15mm 강화유리를 설치하였다.



[사진 4-85] 기존 문양 타일(무시무종 문양)



[사진 4-86] 기존 문양 타일(별 문양)



[도면 4-7] 중앙통로 문양타일 전개도



[사진 4-87] 주문 제작된 문양타일



[사진 4-88] 문양타일 보호 강화유리 설치

6-3. 벽마감공사

가. 벽 마감

기존 마감재는 해체공사하면서 모두 해체되었다. 그래서 마감을 다시 공사하였다. 우선 조적벽 위에 몰탈로 초벌을 한 후 재벌하고 다시 정벌하였다. 초벌은 두께가 일정치 않았다. 왜냐하면 조적벽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꺼운 곳도 있었고 얇은 곳도 있었다. 재벌은 평균 두께 18mm로 석회몰탈을 바른 후 다시 그 위에 정벌로 석회 미장 마감을 하였다.

바탕이 목재인 벽 위에는 메탈라스를 치고 그 위에 석회미장 마감하였다.



[사진 4-89] 초벌 미장하기



[사진 4-90] 재벌 미장하기



[사진 4-91] 재벌 미장하기



[사진 4-92] 정벌 미장하기



[사진 4-93] 목재벽 위 초벌바르기



[사진 4-94] 목재벽 위 재벌바르기

나. 걸레받이 마감

걸레받이는 집성목 목재를 사용하였다. 미장마감하기 전에 우선 두께 9mm 합판을 조적벽위에 고정하고 그 위에 걸레받이를 설치하였다. 걸레받이는 높이가 240mm이고 두께는 18mm였다. 설치된 걸레받이에 걸레받이 페인트를 칠했다.



[사진 4-95] 걸레받이 바탕 설치



[사진 4-96] 걸레받이 도장하기

6-4. 천장마감공사

가. 천장 마감

기존 마감재는 해체공사하면서 모두 해체되었다. 그래서 마감을 다시 공사하였다. 목재천장틀 위에 9mm 석고보드를 2겹 치고 흰색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였다. 목재 천장틀은 장선 바로 밑에 12mm 합판 2겹을 세워 걸고 그 밑에 30×30mm 되는 달대를 평균 300mm 설치하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달아매도록 하였다.



[사진 4-97] 천장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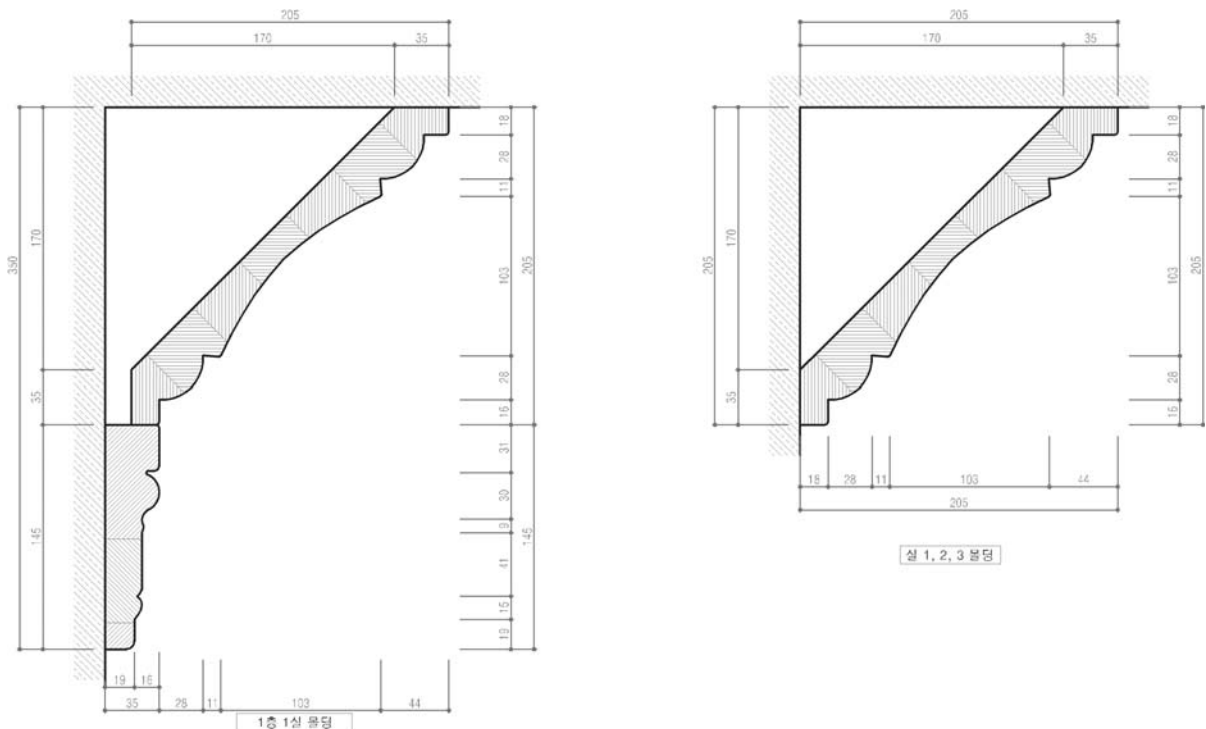


[사진 4-98] 천장 마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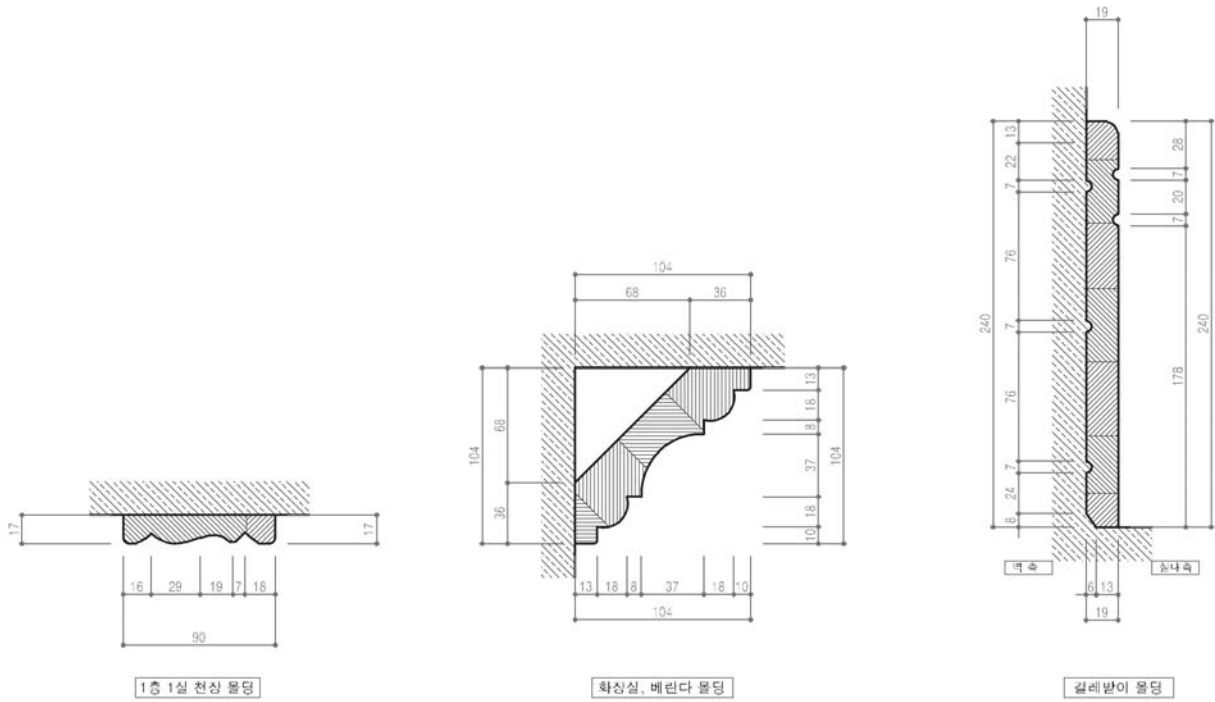
나. 천장 몰딩

중명전에서 사용된 몰딩은 그 원형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바닥마감처럼 같은 시기에 건축된 건물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참조된 건물은 회정당, 벨기에 영사관, 운현궁 등이었다. 주로 회정당을 참조하였다. 몰딩은 그 구성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어려운 면이 있었다. 중명전은 고종 황제가 거처하던 곳이었지만 그리 격이 높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여 수수하게 디자인 하였다.

몰딩은 집성목으로 제작하였다. 집성목을 사용한 이유는 건조율이 높아 뒤틀림이 적기 때문이었다. 몰딩은 총 5종류였는데 이중 1개는 걸레받이이고 천장과 관련된 몰딩은 4종류였다. 4종류 중 3종류는 1층 서쪽에 있는 ‘실 1’에 사용하였다. 이곳에 많이 사용된 것은 이 방이 공간계획이나 동선상 접견실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사용된 몰딩의 모양과 크기는 [도면 4-8~9]과 같다.



[도면 4-8] 천장 몰딩 상세



[도면 4-9] 천장과 걸레받이 몰딩 상세



[사진 4-99] 석조전 천장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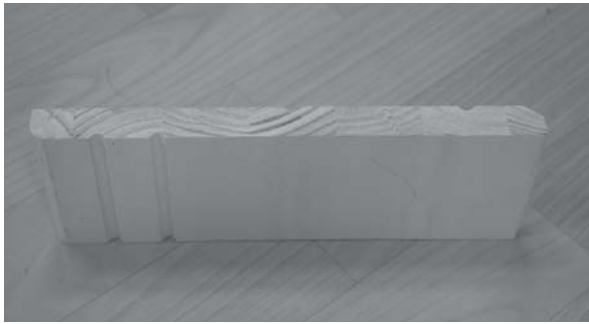
[사진 4-100] 구 벨기에 영사관 천장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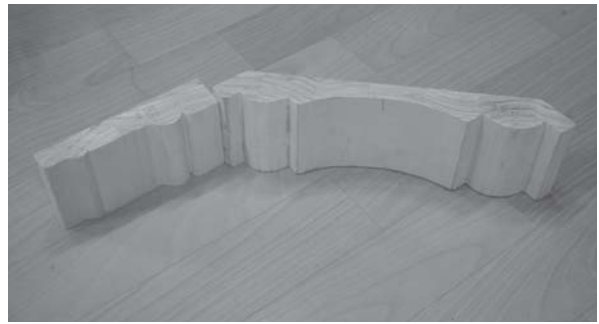
[사진 4-101] 운현궁 양관 천장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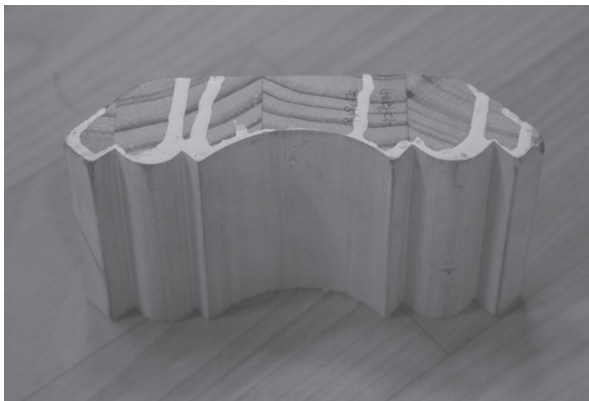
[사진 4-102] 희정당 신관 천장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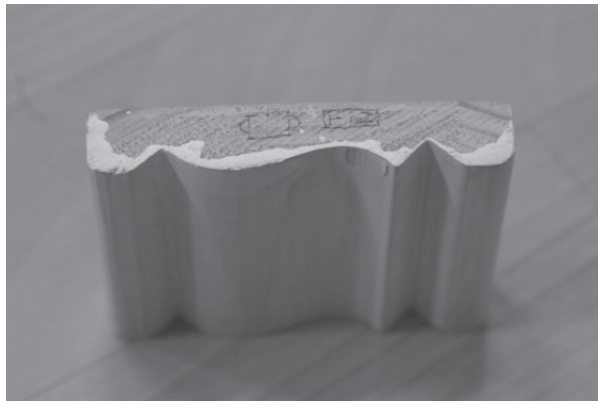
[사진 4-103] 걸레받이 몰딩



[사진 4-104] 1층 '실 1'의 천장몰딩



[사진 4-105] 화장실 천장 몰딩



[사진 4-106] 1층 '실 1' 천장몰딩



[사진 4-107] 설치된 천장 몰딩



[사진 4-108] 설치된 걸레받이 몰딩

다. 등기구 받침 조각물

각 실마다 설치되는 메인전등 천장에는 등기구 받침조각물이 있다. 당시에는 이런 받침 장식들이 많이 사용된 것 같다. 그 모양 또한 확인할 수 없어 다른 예를 참조하였지만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의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 이 등기구 받침조각물은 주문 제작하였다. 재료는 석고로 하였고 총 3종류가 사용되었다. 1층 큰방인 '실 1'에는 지름 900mm 짜리를 1개 사용하였고 지름 750mm짜리는 각 실에 총 6개를 사용하였다. 회랑과 복도에는 지름 500mm짜리를 사용하였다.



[사진 4-109] 등기구 받침 장식물 1



[사진 4-110] 등기구 받침 장식물 1

7. 창호공사

기존에 사용된 창호는 이미 많이 교체 사용되어 있었다. 알루미늄창호, 목재창호, 한식세살창호 등이 있었는데 그 중 문과 창에서 옛것으로 보이는 창호가 각각 한 개씩 남아 있어 이를 기준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창은 오르내리창이었고 문은 상부에 고창이 달린 문이었다. 크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개의 창호를 기준으로 제작하였다. 제작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오르내리창은 만들기 까다로웠다. 이런 유형의 창은 이미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 제작할 수 있는 곳도 드물었다. 간신히 제작할 수 있는 창호제작공을 확보하여 제작하였다.

오르내리창은 도르래의 구성과 추의 크기, 추를 매다는 실의 종류와 길이 등이 중요한데 몇 번의 시험을 통해 완성할 수 있었다. 도르래와 그 구성은 기존에 있던 창호를 살펴보고 확인이 할 수 있었으나 추의 크기와 실의 길이는 몇 번의 실험을 통해 결정하였다. 실은 거문고 뒤테를 묶는 실로 알려진 일명 ‘구라롱사’를 사용하였다. 이 실은 장력이 없어 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창에 쓰인다고 한다. 만약 늘어지면 창을 개폐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창문은 울거미를 육송으로 하였고 유리는 두께 4mm를 사용하였다. 단열을 고려하여 복층유리로 고려해 보았는데 원형유지 차원에서 단창으로 하였다. 창문은 모두 오르내리창을 36개소 사용하였고 그 크기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로가 1,070mm이고 세로는 1,680mm이다. 문은 쌍여닫이와 외여닫이문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쌍여닫이문은 7개, 외여닫이문은 15개를 사용하였다.



[사진 4-111] 창 하대석



[사진 4-112] 복원된 창문



[사진 4-113] 복원된 문

중명전 창에는 받침석이 있는데 화강석으로 되어 있었고 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외부 쪽이 경사진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 창 하대석은 서쪽 회랑 부분에 잘 남아 있어 이를 기준으로 주문 제작하였다. 창 하대석은 두께가 130mm이고 폭이 270mm, 길이가 1,430mm이다.

8. 기타공사

8-1. 난간공사

회랑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난간이 생겼다. 이 난간은 발견된 옛 사진을 근거로 복원하였다. 난간 하대석과 난간 두겹석은 포천석을 잔다듬으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하대석은 두께가 120mm이고 폭은 350mm이고 두겹석은 두께가 120mm이고 폭은 278mm로 하였다. 동자석은 사진에 나온 동자석과 같은 모양으로 하였다. 동자석은 전남고흥석을 물갈기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동자석은 총 266개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보수·복원공사 막바지에 본 공사와 관련 없이 궁능 화재예방 소화설비 공사를 하었는데 그 와중에 터파기한 곳에서 중명전에 쓰였던 난간으로 보이는 동자석이 나왔다. 깨진 동자석 일부만이 나왔는데 청자였다. 옛 사진상으로는 그것이 청자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확인된 것은 청자였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여서 교체가 어려웠다.



[사진 4-114] 난간 동자석 설치



[사진 4-115] 난간 동자석 설치



[사진 4-116] 난간 동자석 설치 완료



[사진 4-117] 발견된 청자 동자석

8-2. 벽난로공사

1층과 2층에 있던 벽난로를 복원하였다. 두 종류가 복원되었는데 각 층 서쪽에 있는 벽난로와 동쪽에 있는 벽난로이다. 서쪽에 있는 벽난로는 1층과 2층에 각 1개씩 총 2개로, 운현궁과 덕수궁 벽난로를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석재는 강원도 정선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사용하였다. 기본 모양은 운현궁에 있는 벽난로로 삼았고 다만 석조전에 있는 벽난로의 문양 중 무시무종 문양을 일부 차용하여 만들었다. 실제 불을 지필 수는 없지만 그 모양은 유지하도록 하였다.

동쪽에 있는 벽난로는 지하층에 난로가 있어 1층 같은 위치에도 설치한 것이다. 그 모양은 확인할 수 없어 벽돌로 난로가 있었다는 느낌만 나도록 만들었다. 이곳 또한 불을 지필 수는 없다.



[사진 4-118] 석재 벽난로



[사진 4-119] 벽돌 벽난로

8-3. 기타공사

복원하면서 화장실도 보수하였다. 오수와 관련된 정화조는 배면에 FRP 250인조 설치하였다.

현재 중명전은 뒤쪽 부분이 복토된 상태였는데 그러다보니 새로 발견된 배면 출입구가 복토된 부분보다 낮아져 우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져서 배면 일부를 절토하여 계단을 노출시켰고 절토하면서 생긴 단차는 2단으로 된 장대석 석축을 설치하고 이 석축 밑에 U형 측구를 설치하여 우수가 자연배수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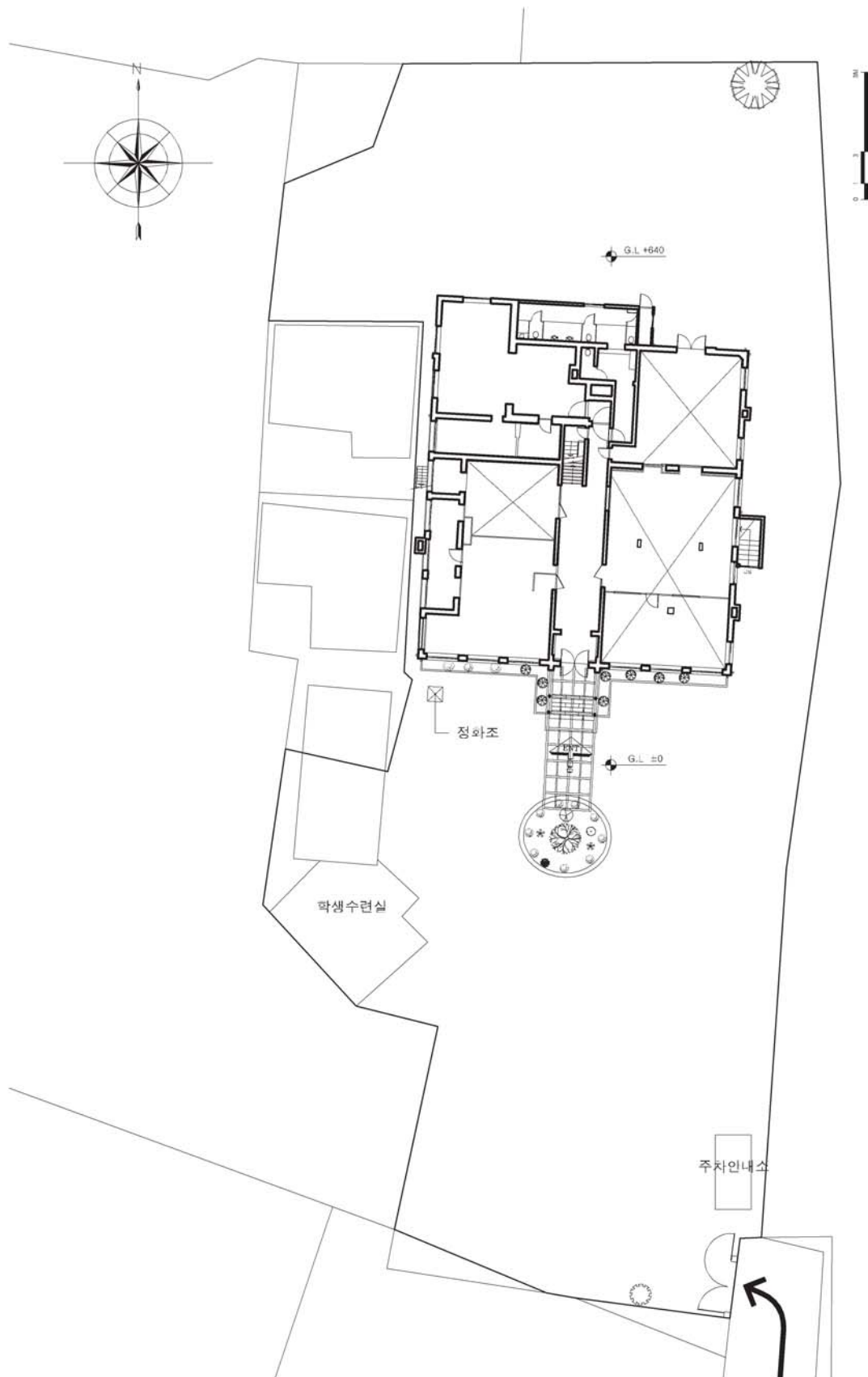
중명전 앞마당은 황토포장으로 마감하였다.

5.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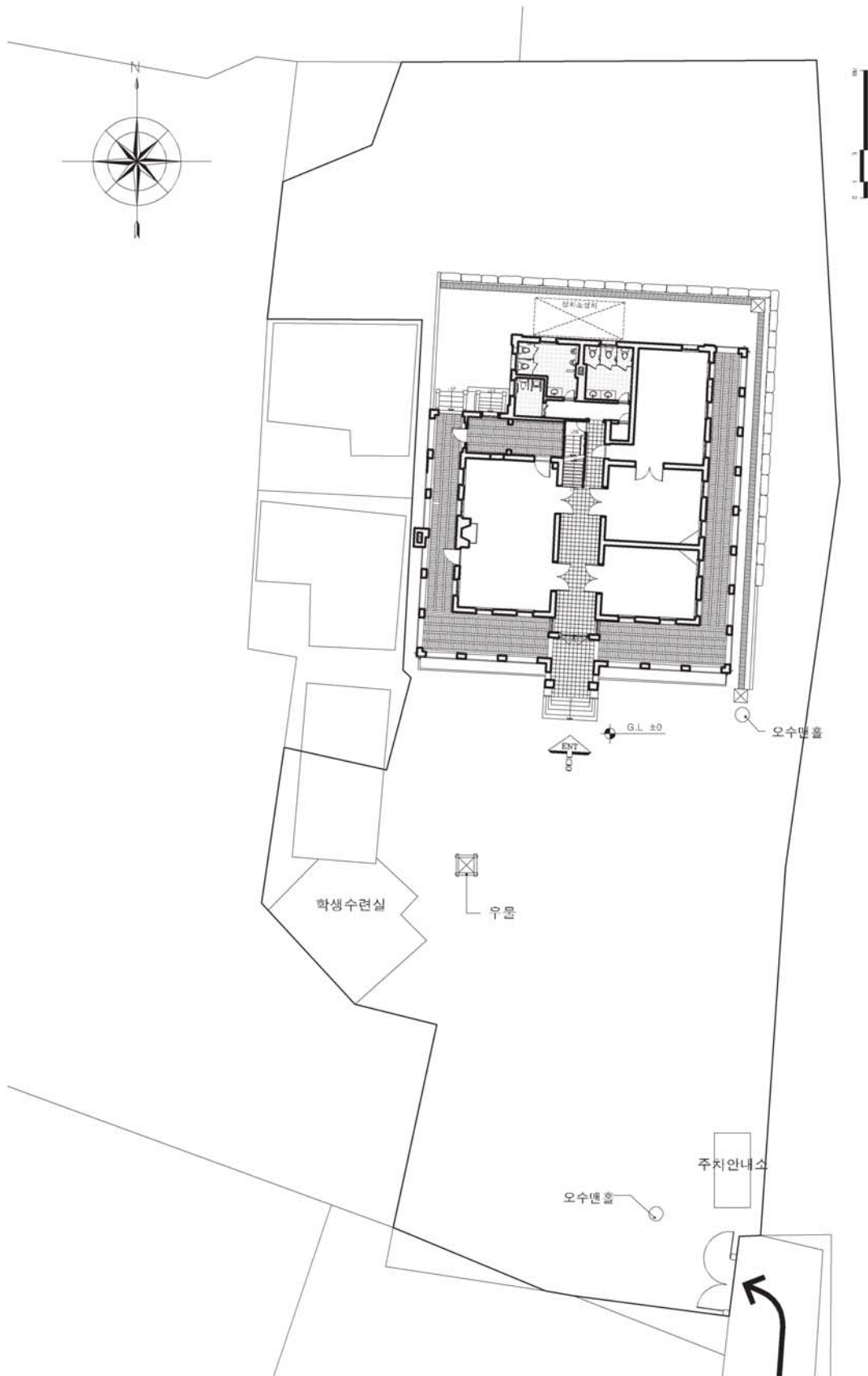


1.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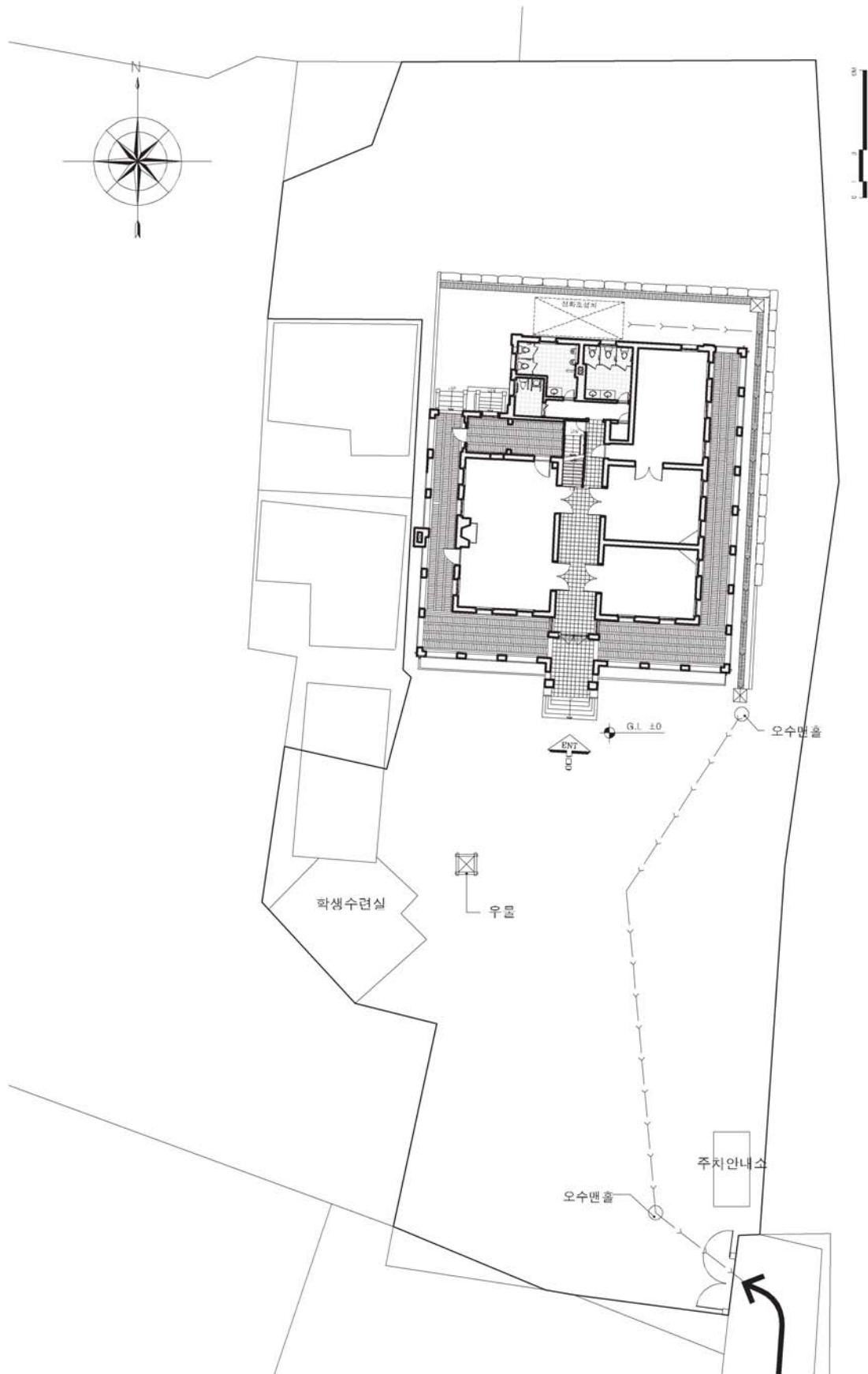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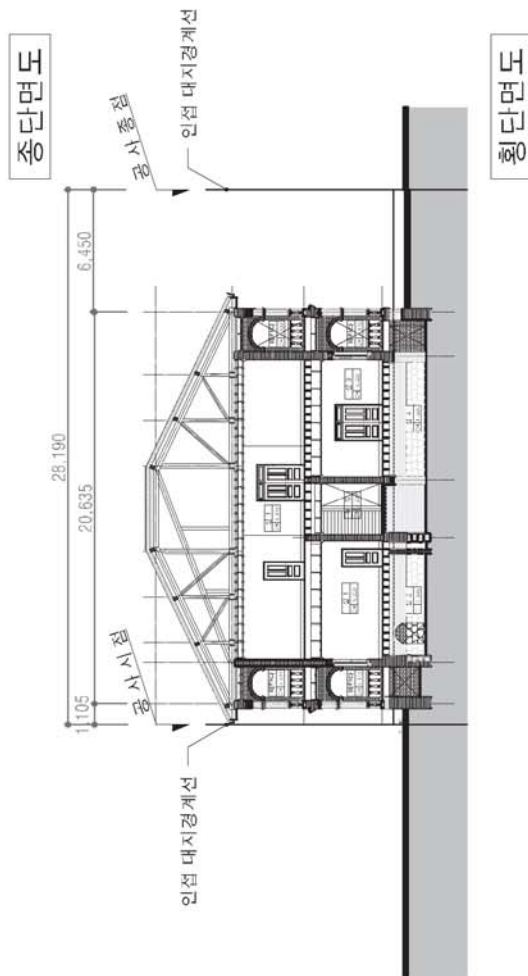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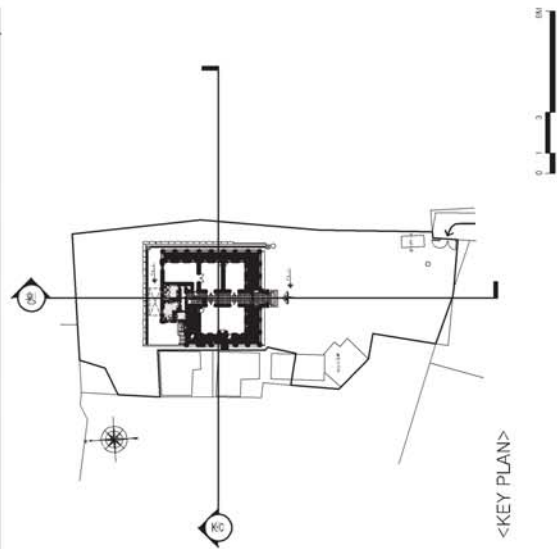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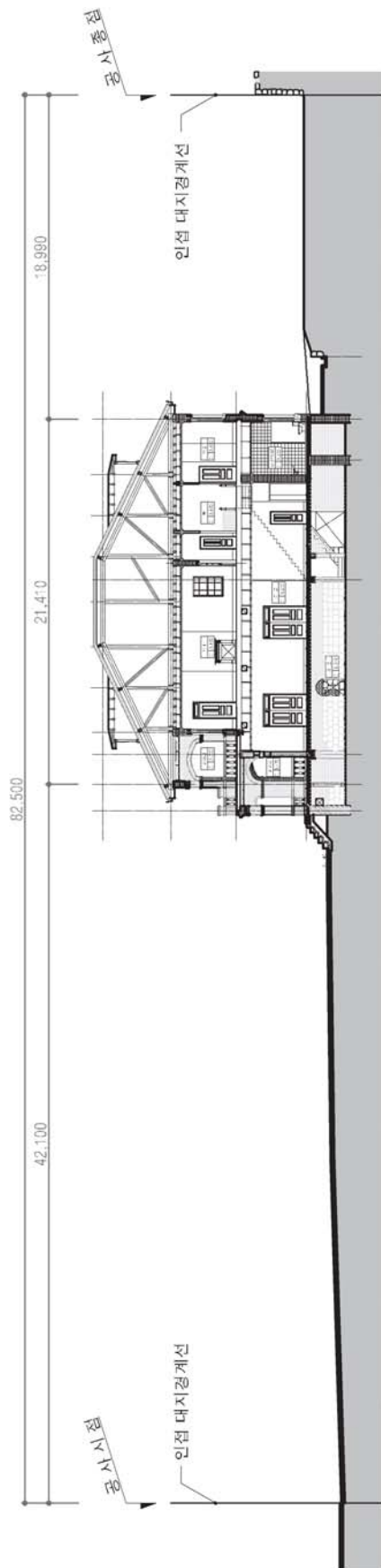
배치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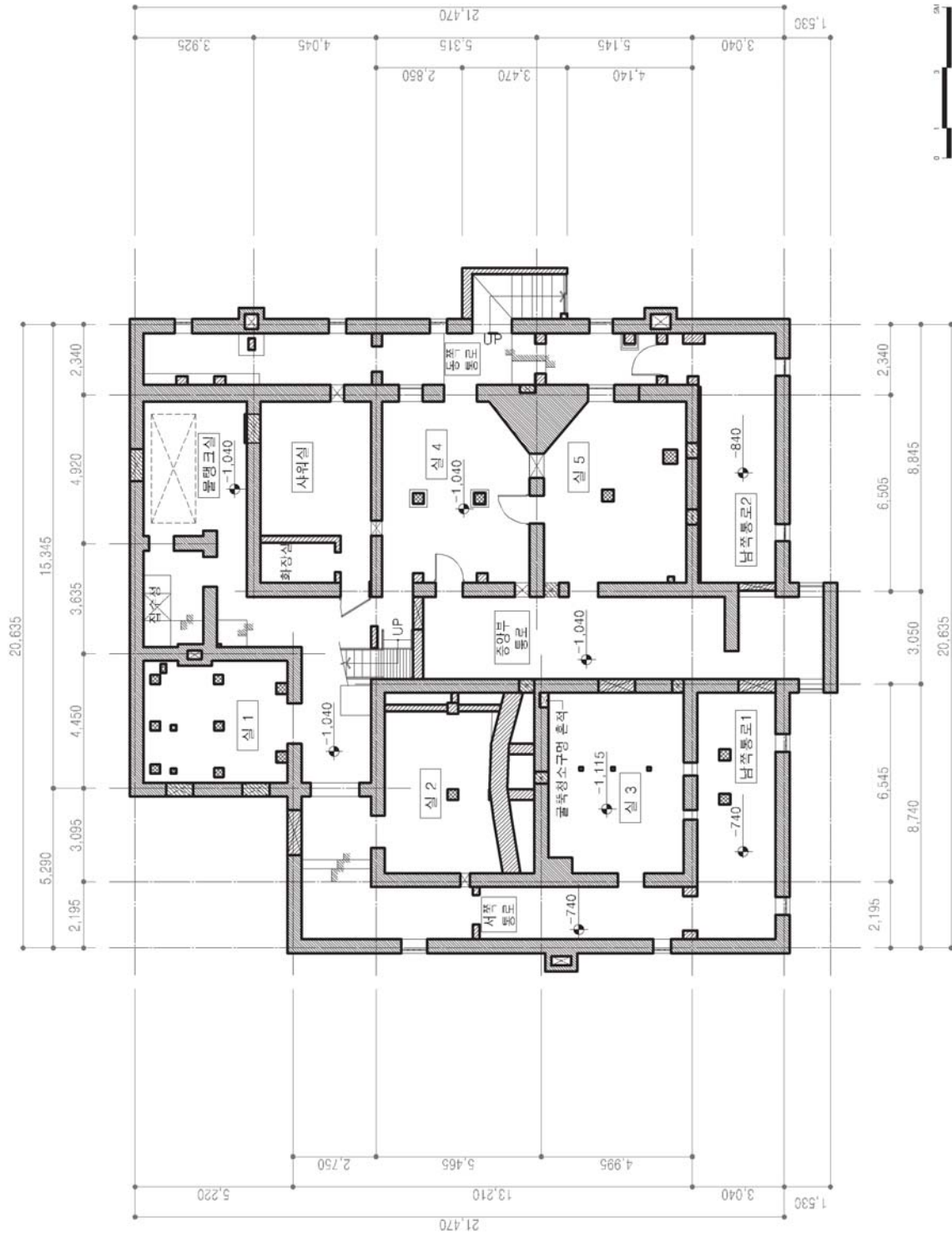
배치도(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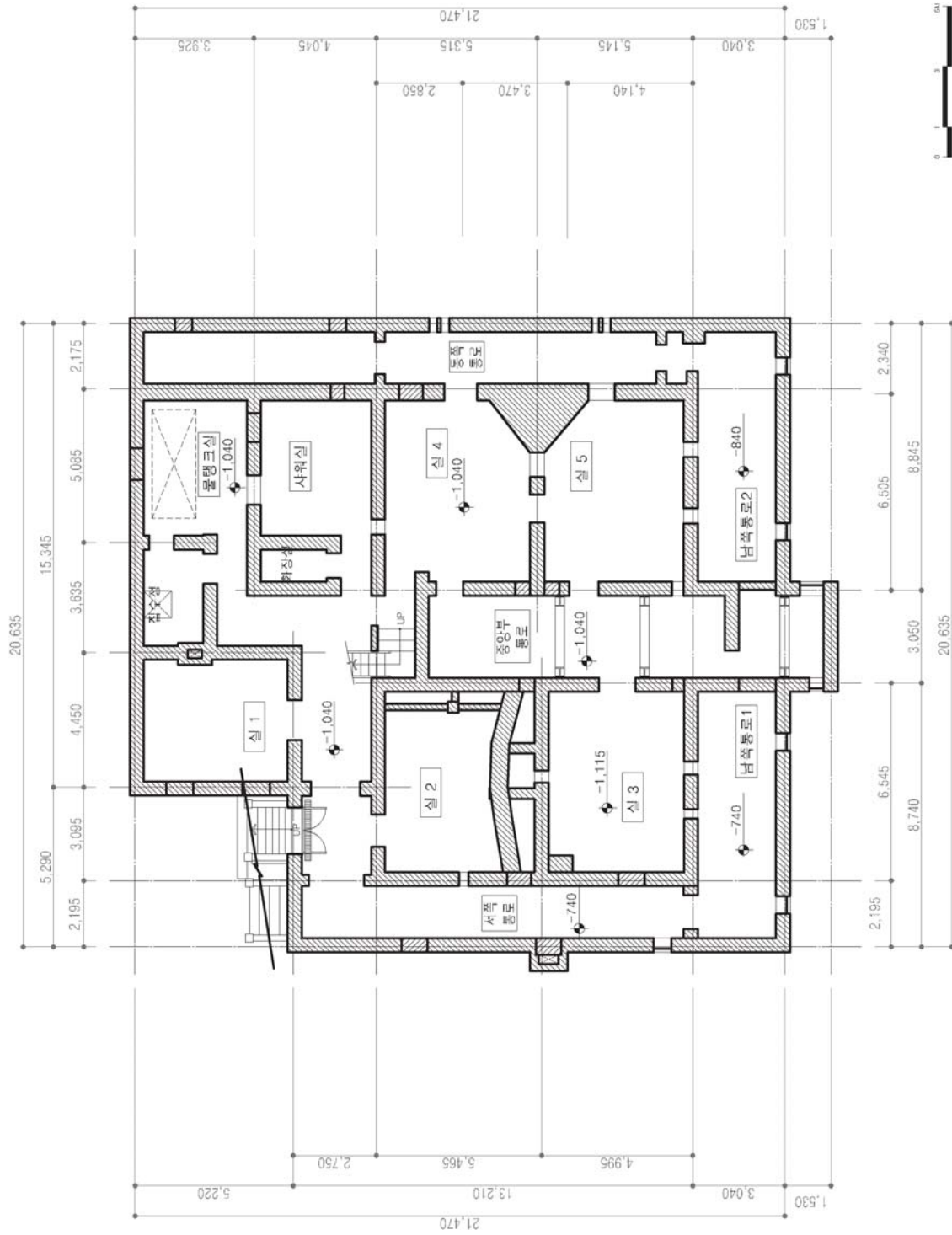
배수계획도(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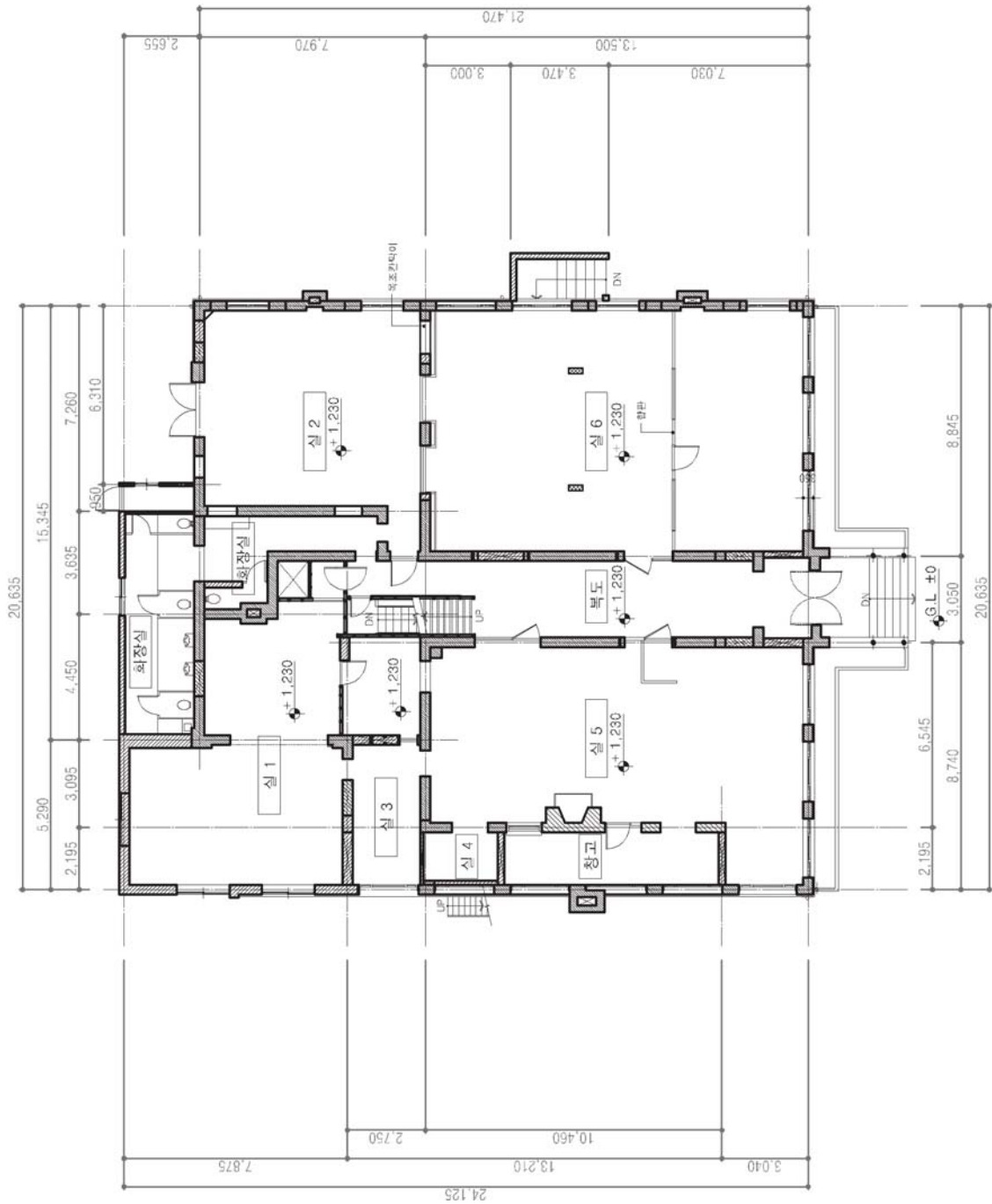
대지단면도(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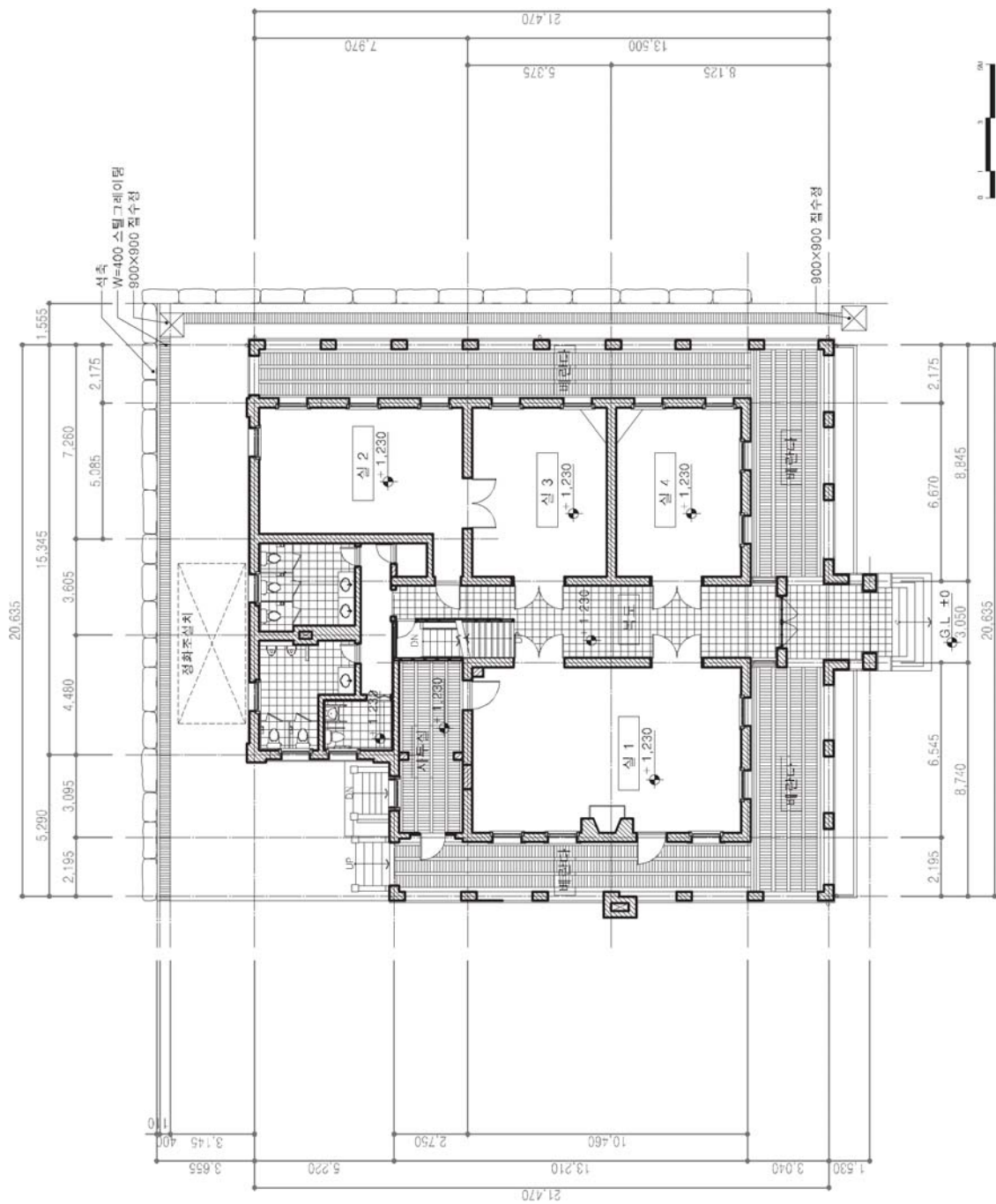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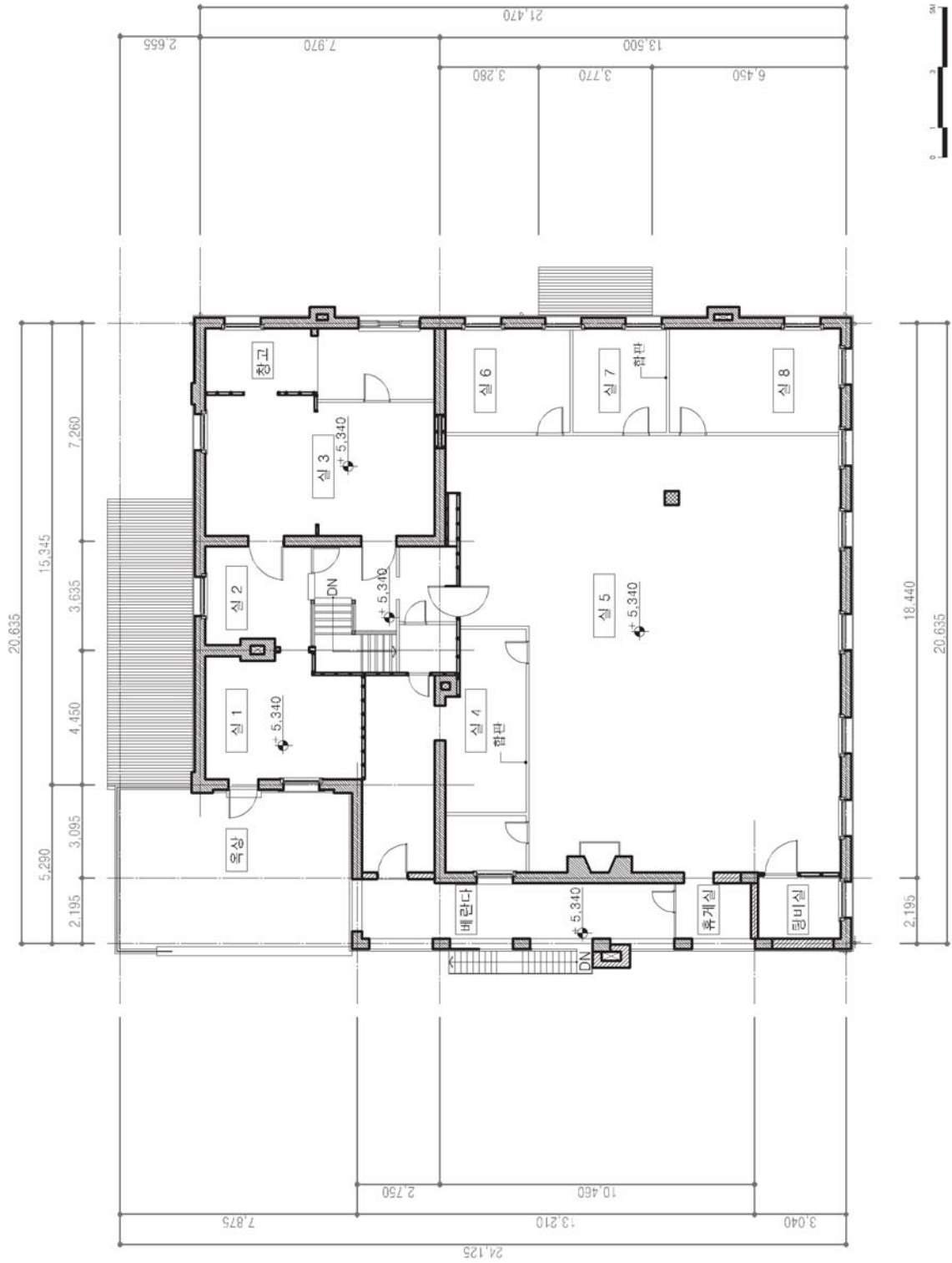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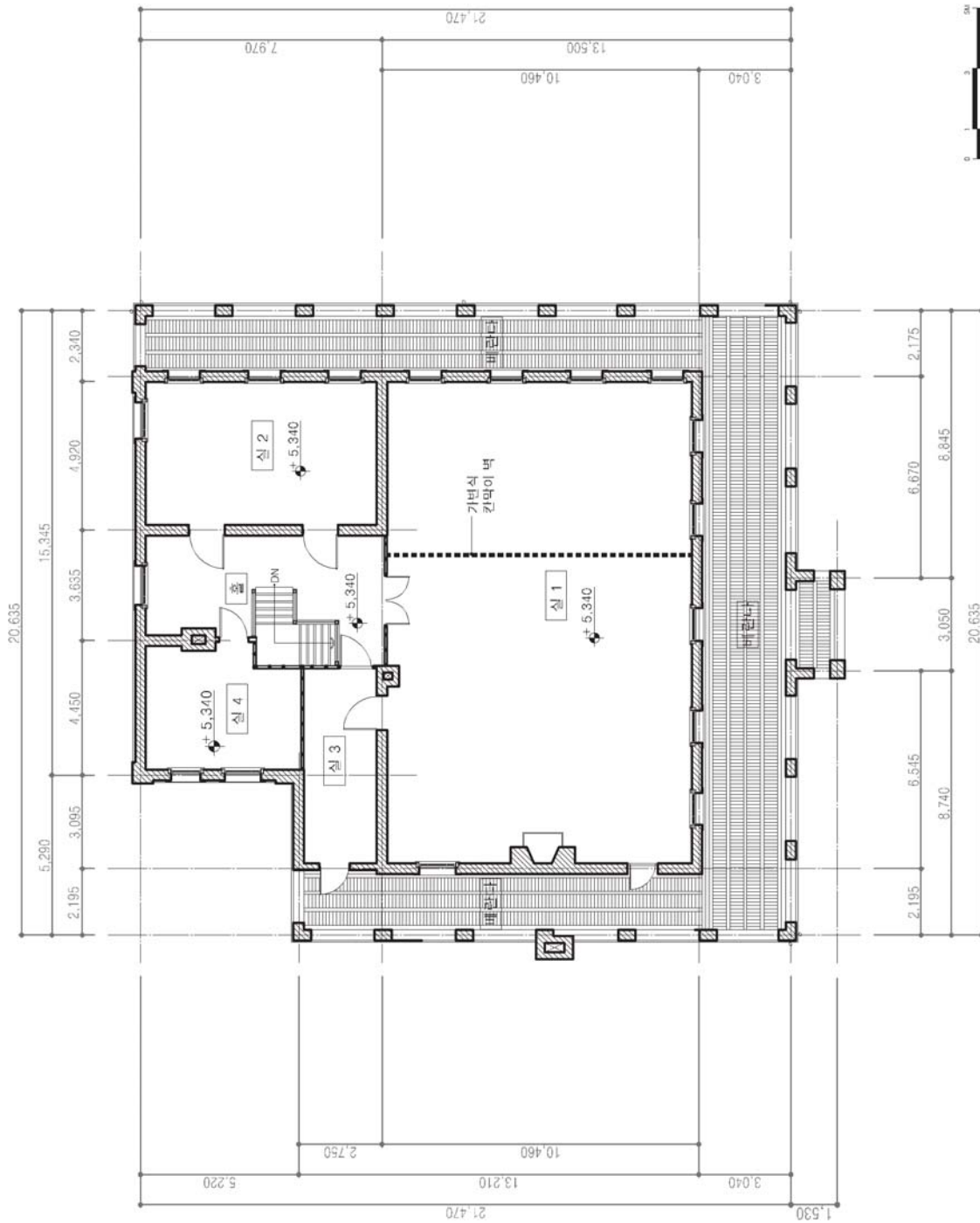
1층 평면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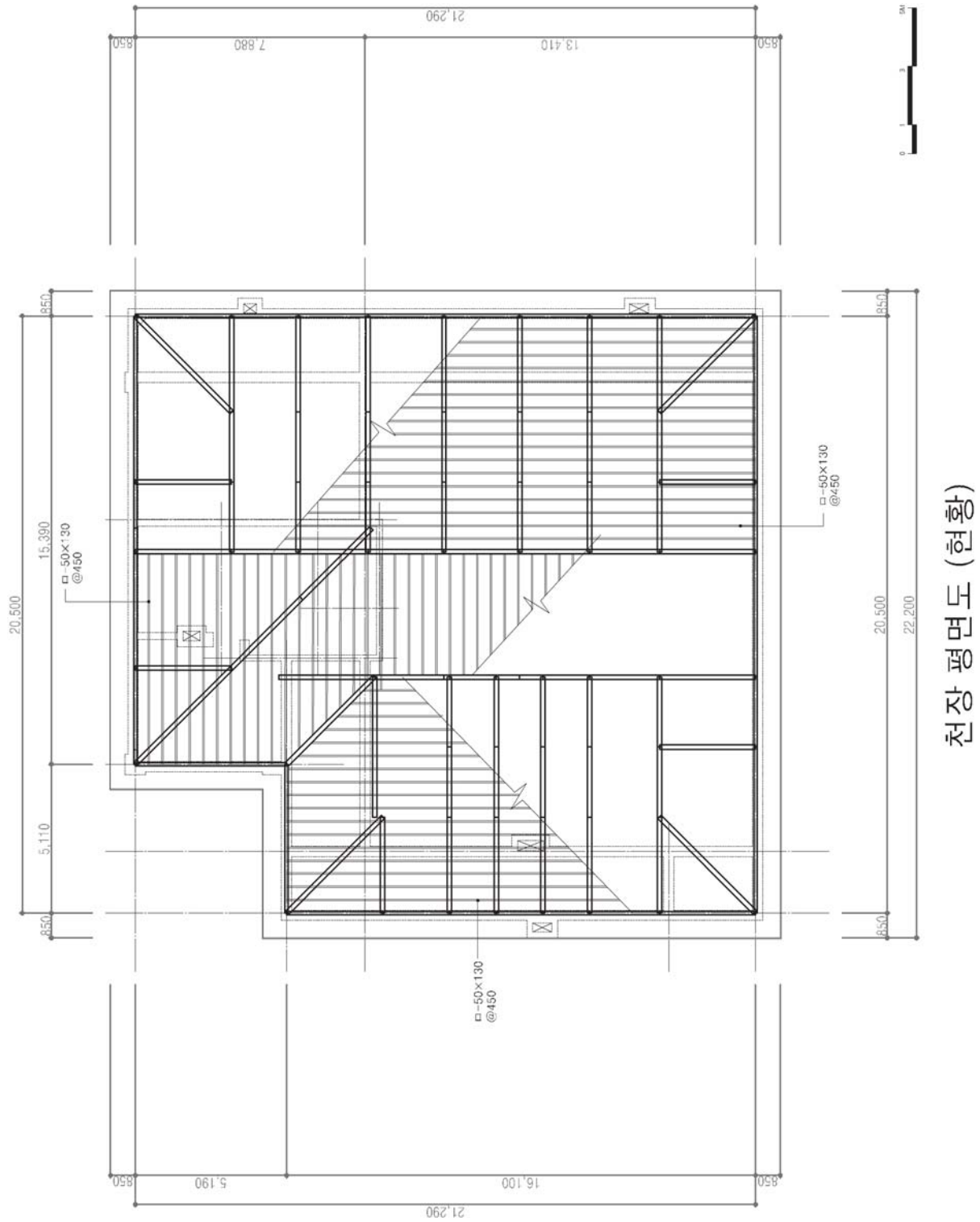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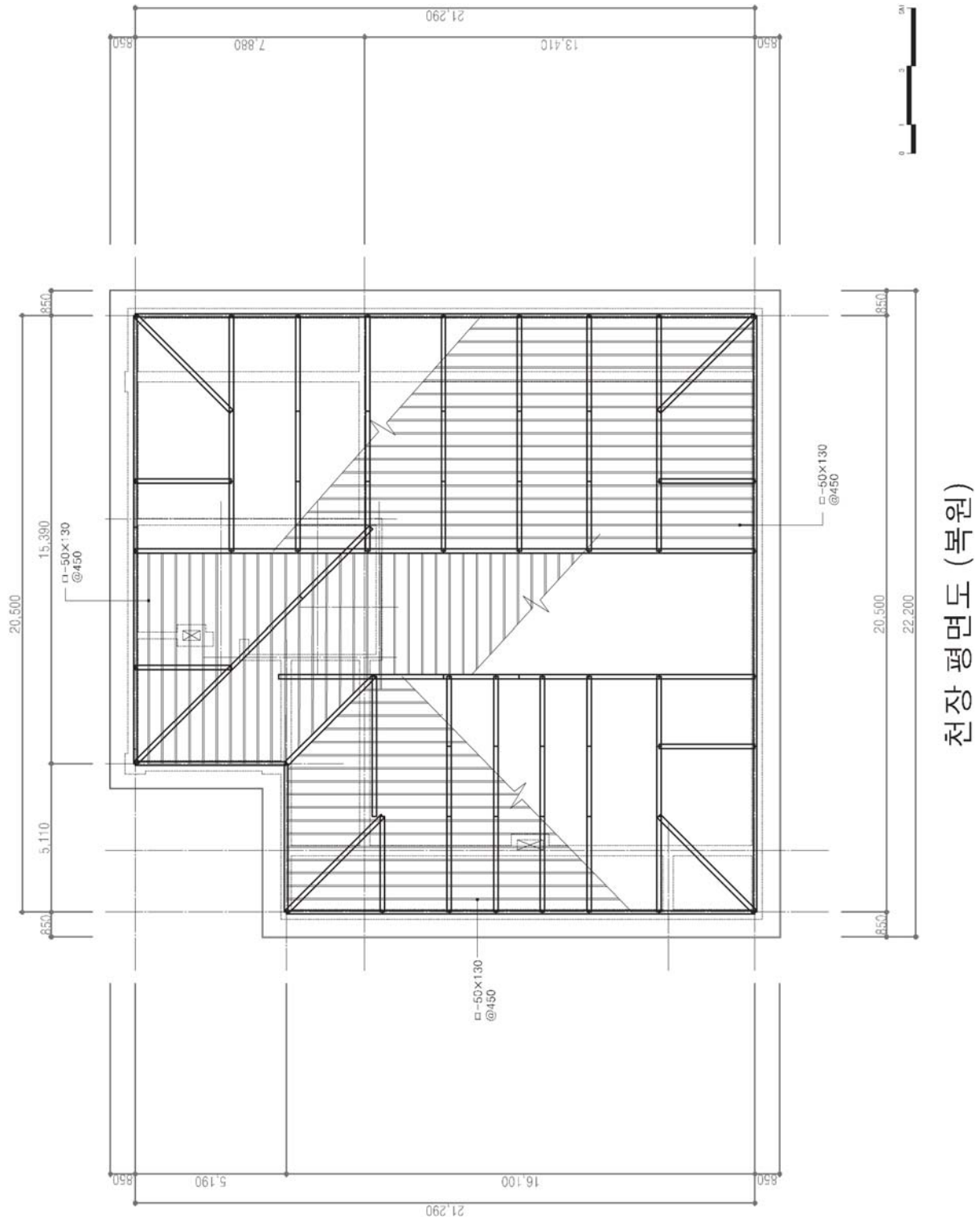


2층 평면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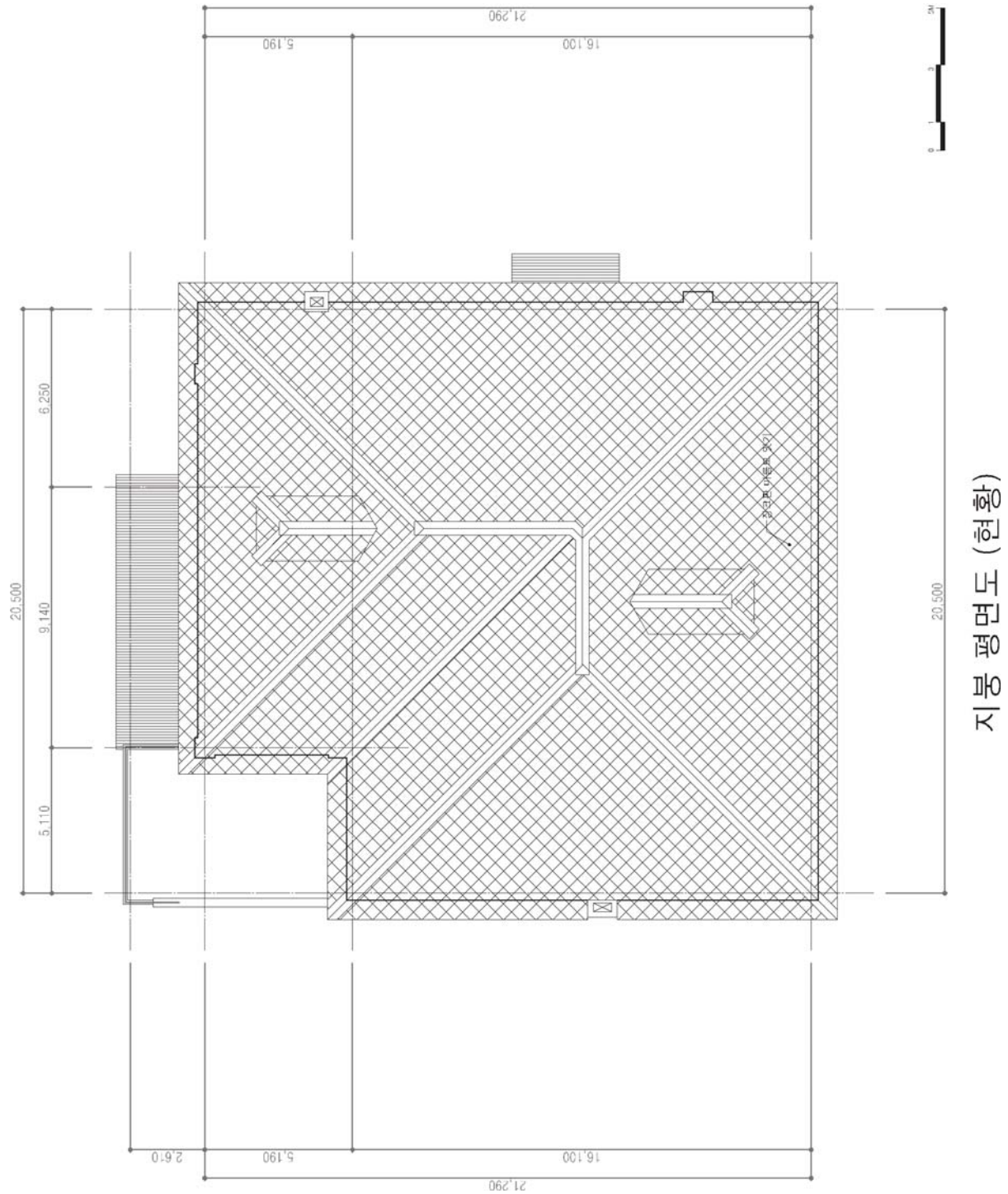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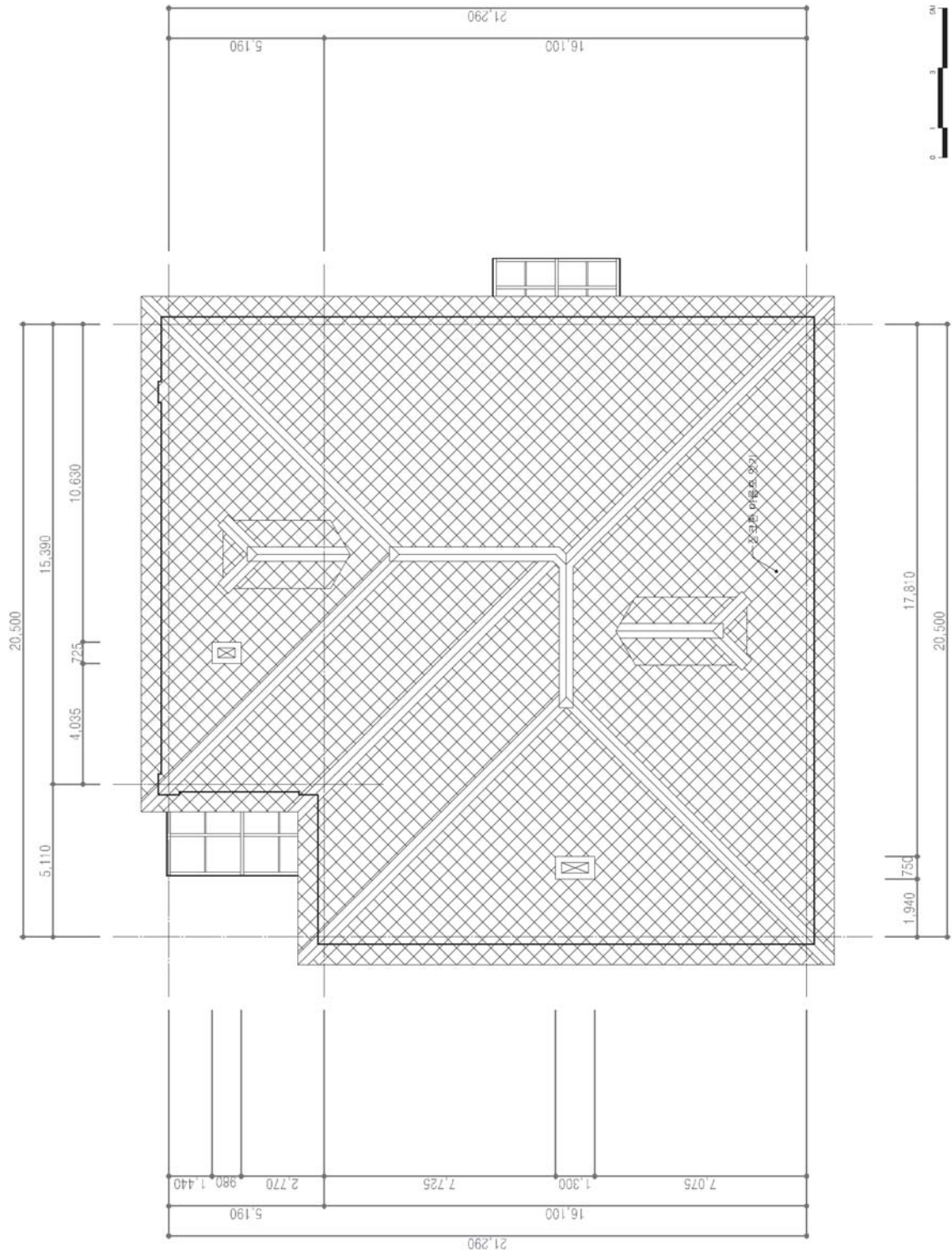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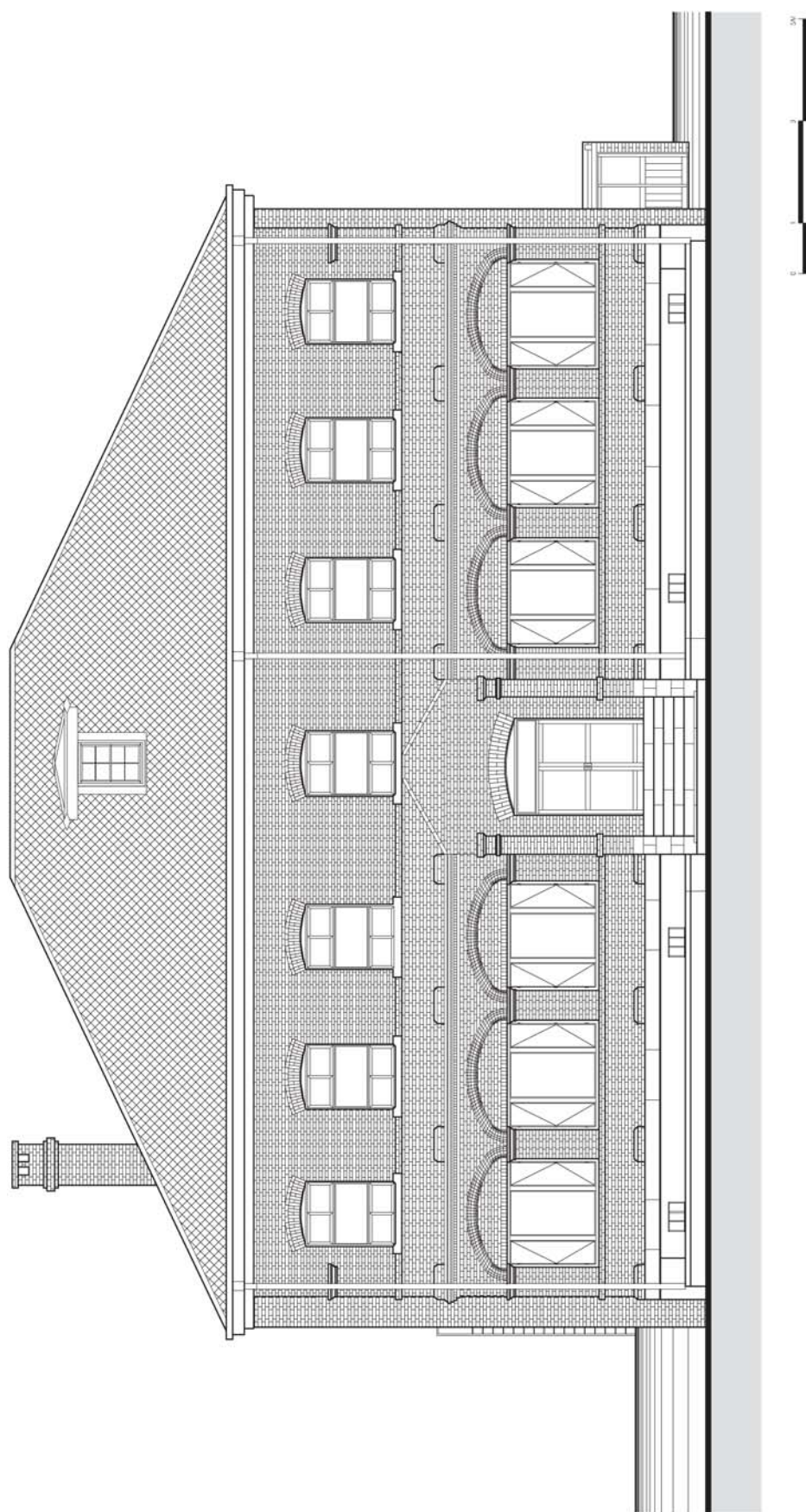


천장 평면도 (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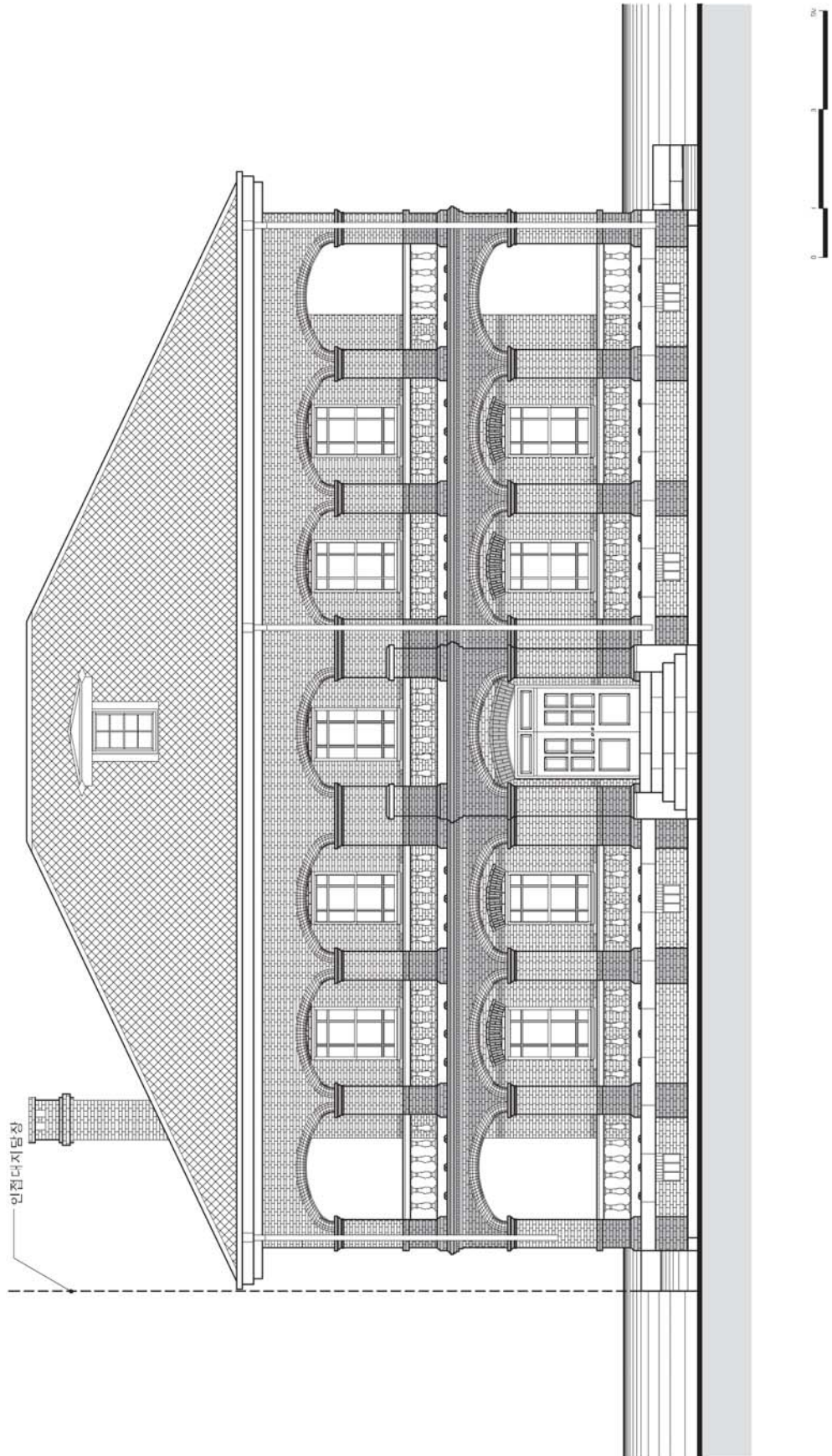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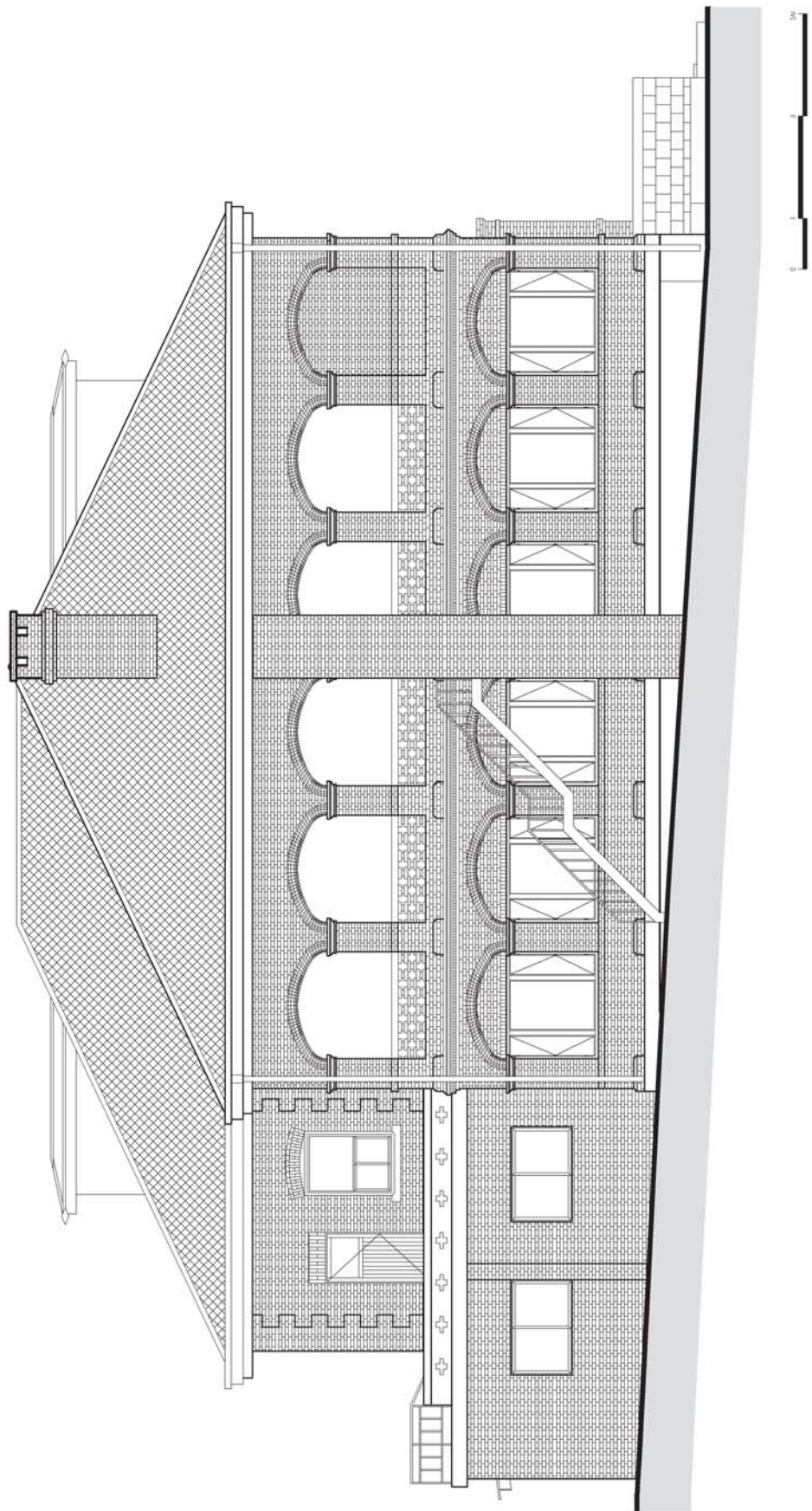
지붕 평면도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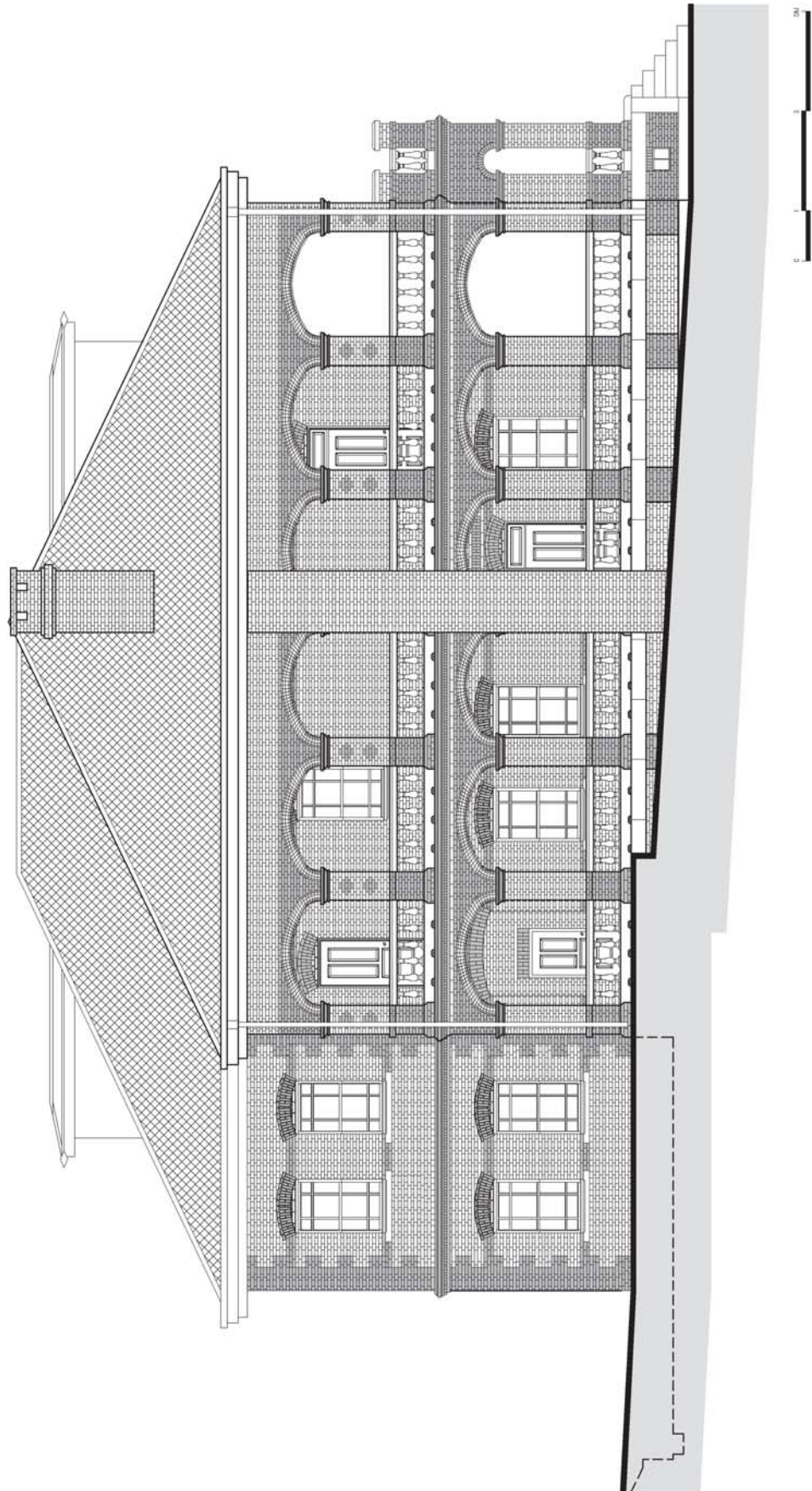
정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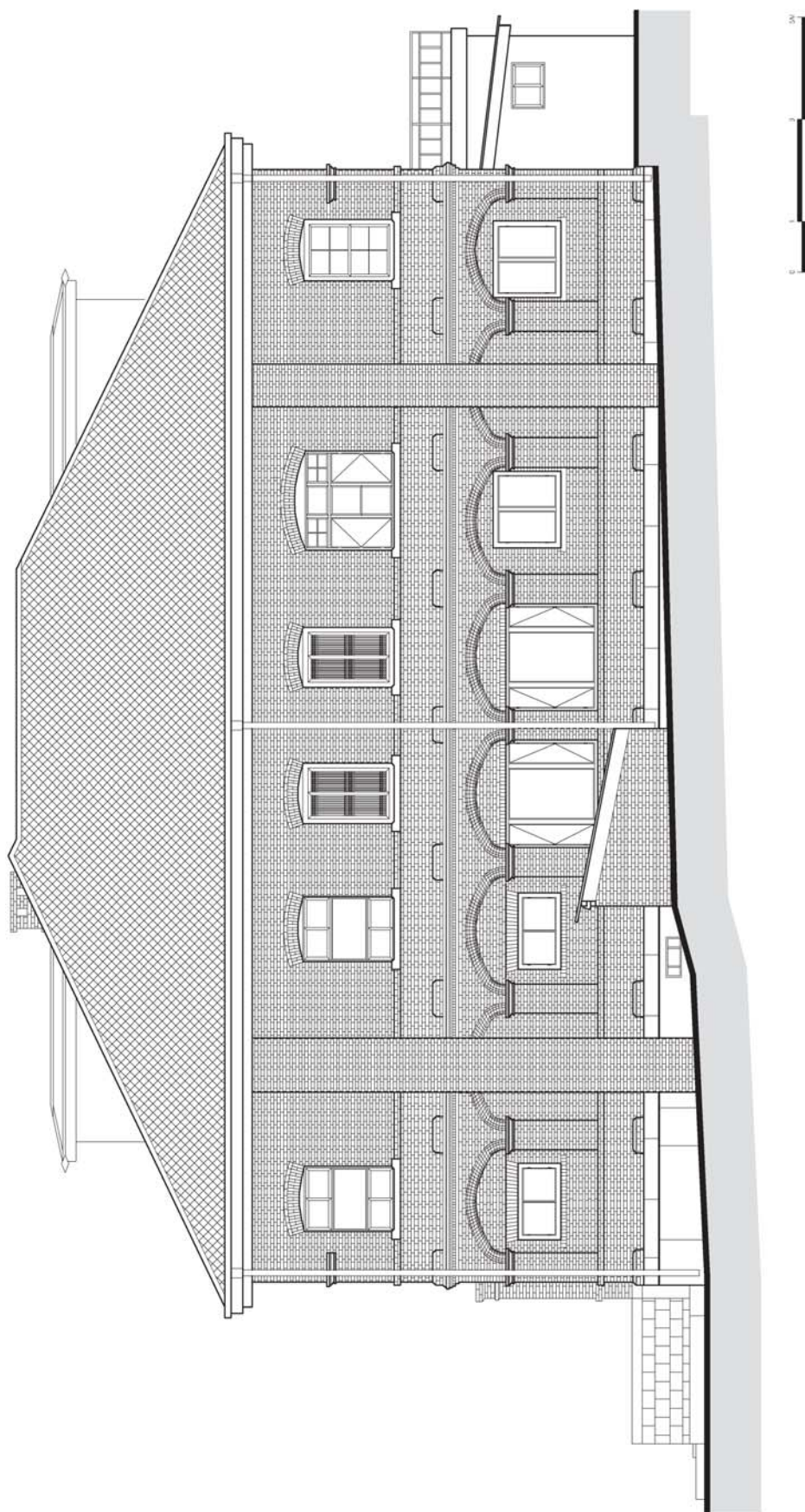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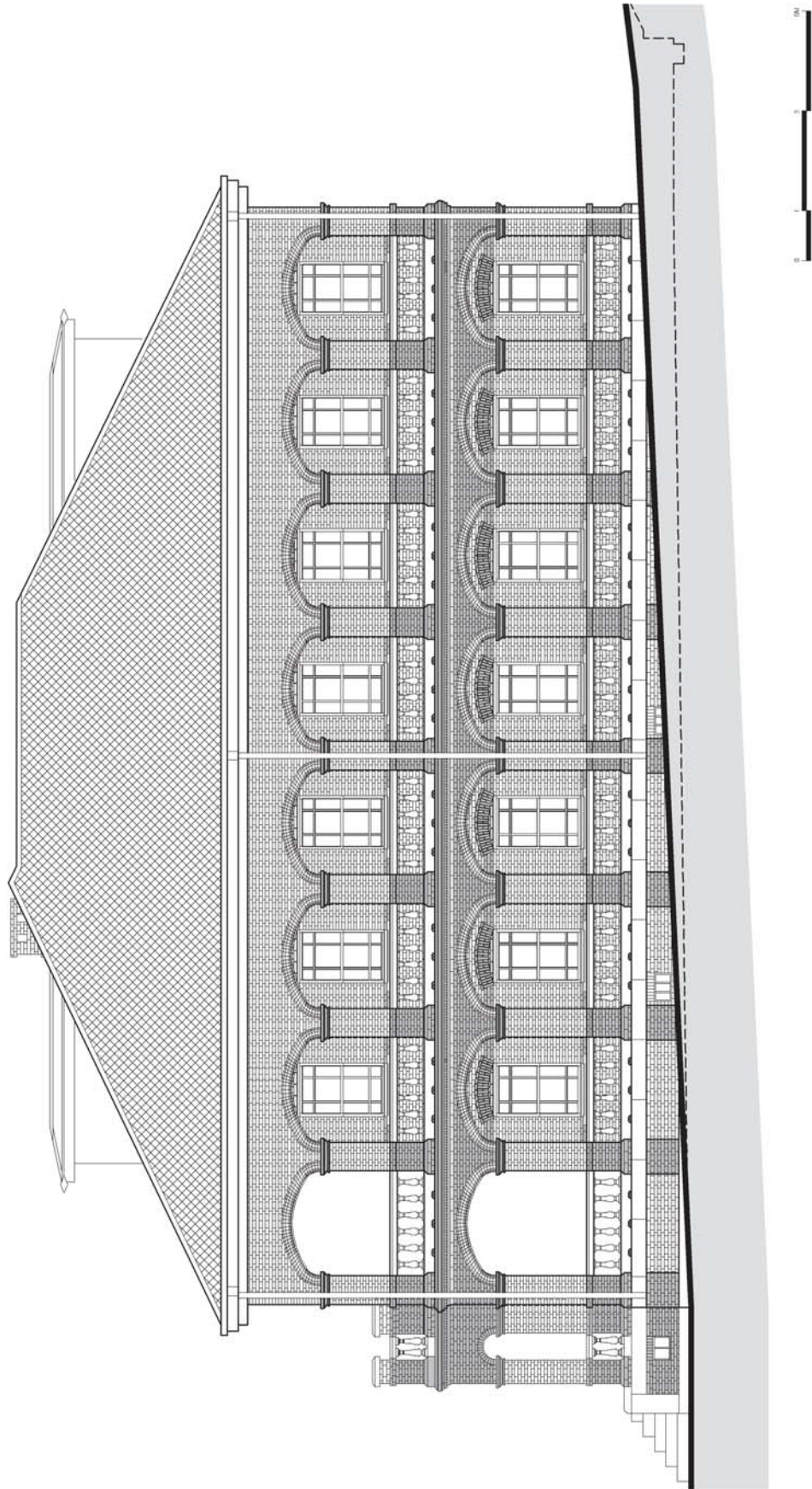
(영) 중명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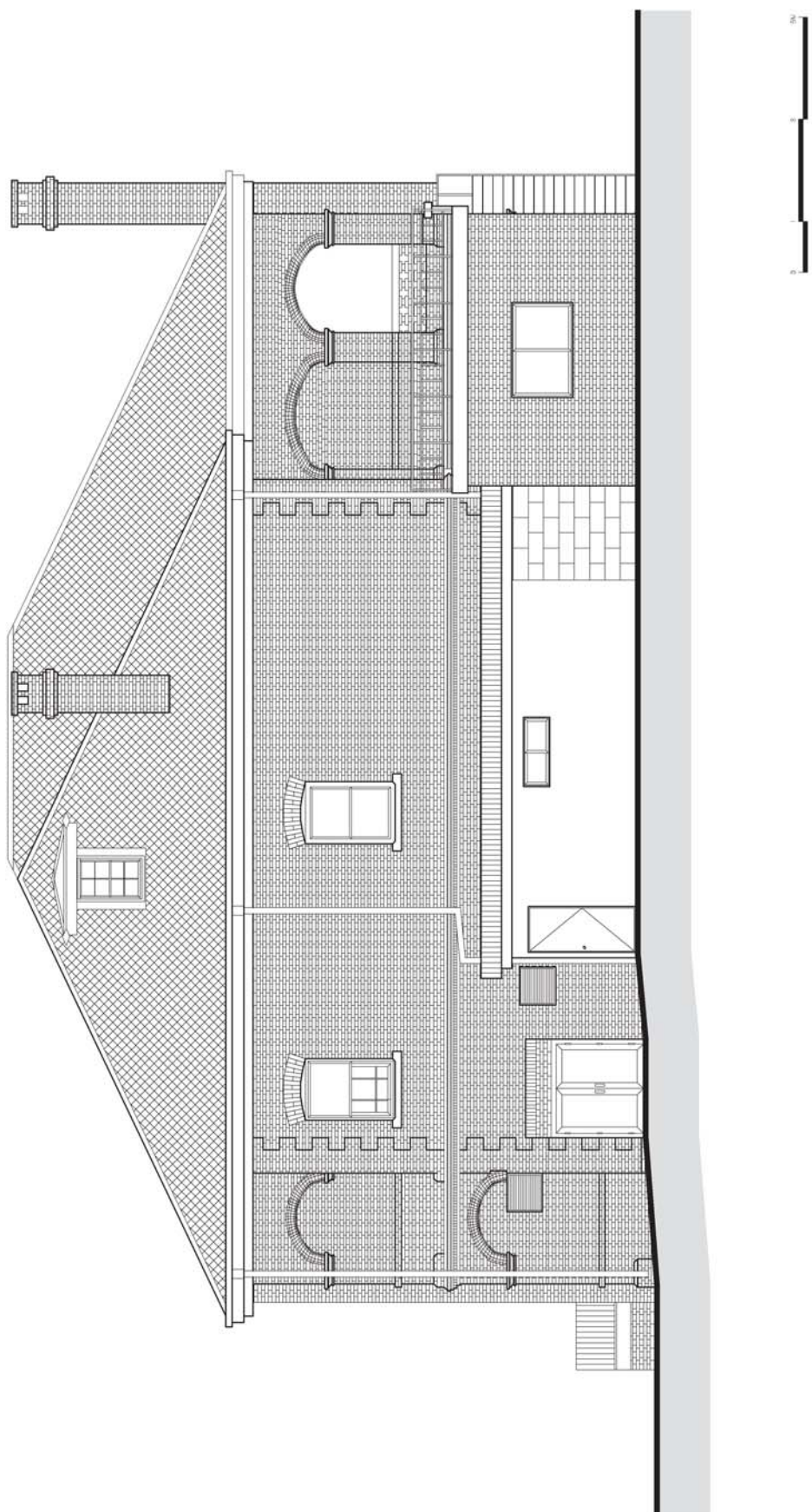
좌측면도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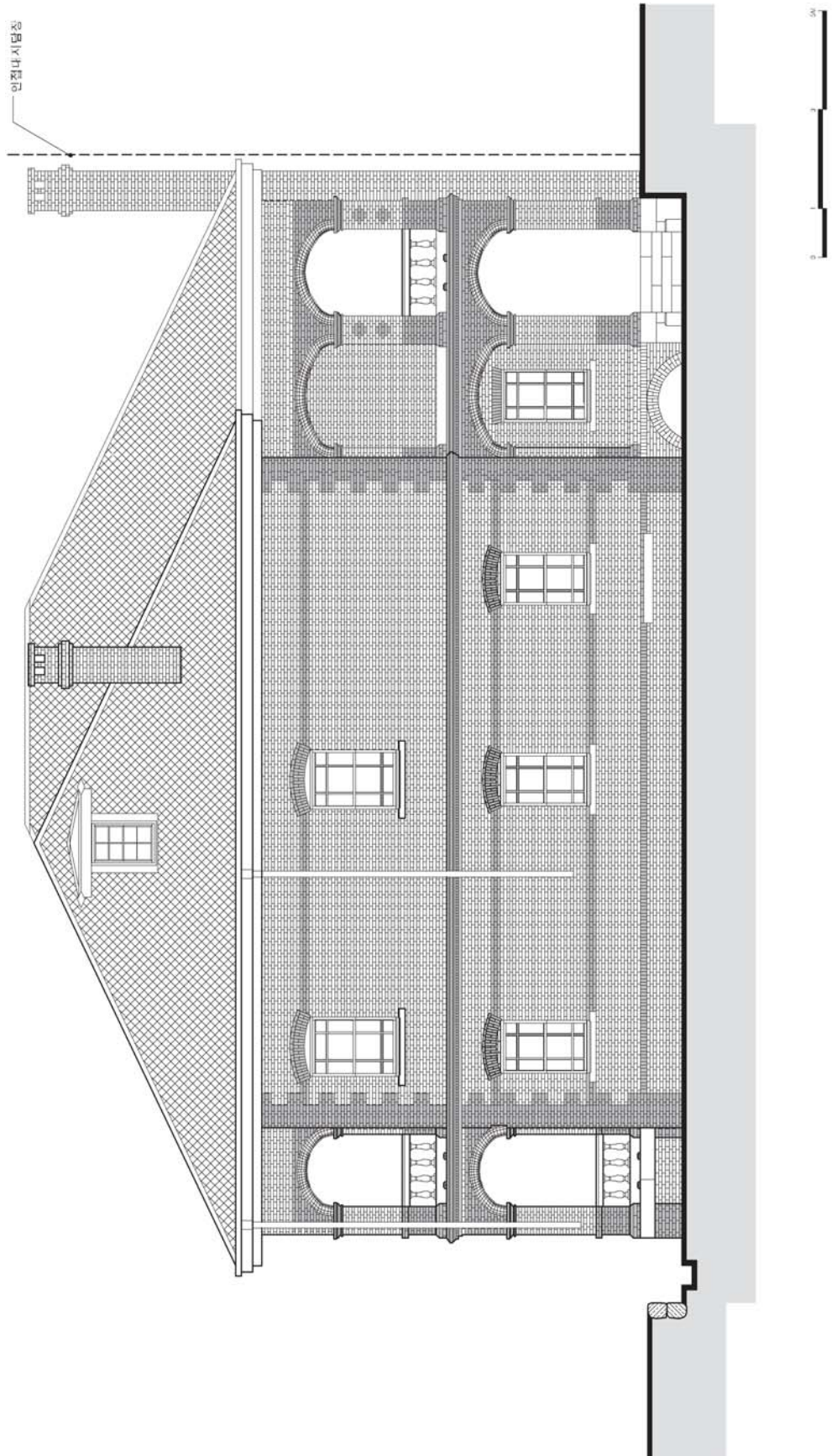
(현) 내 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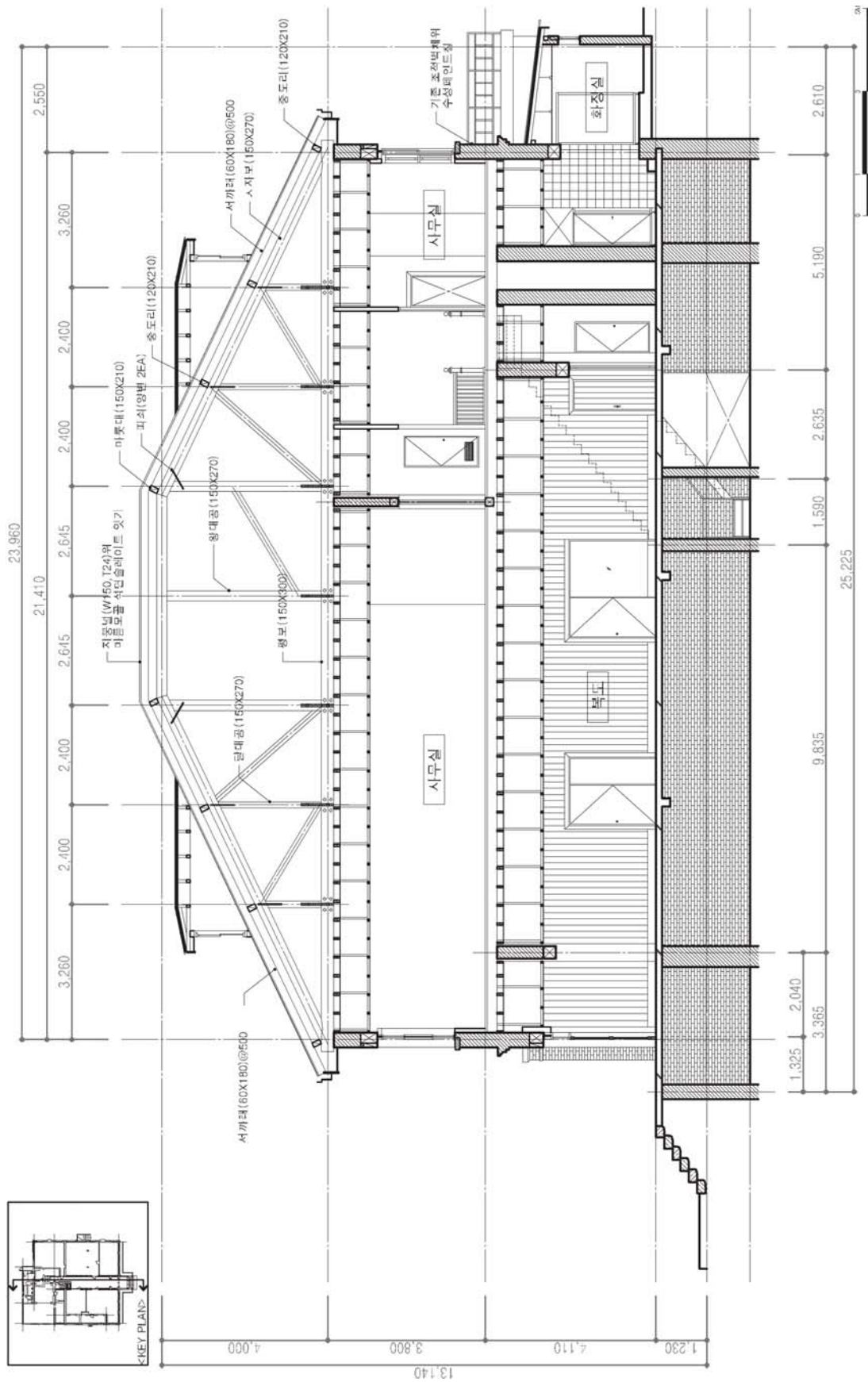
아침녘 (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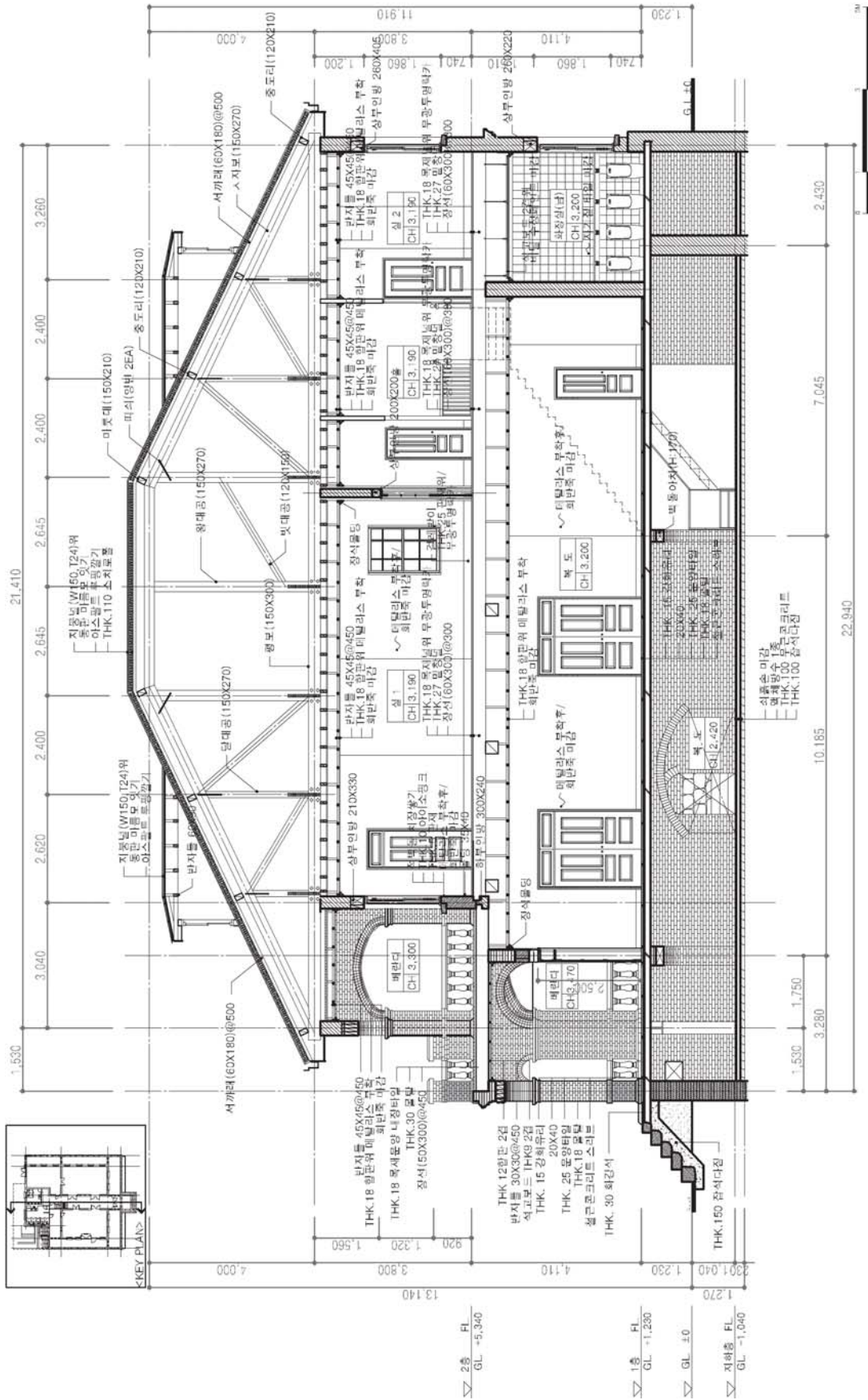
(중명전) 서면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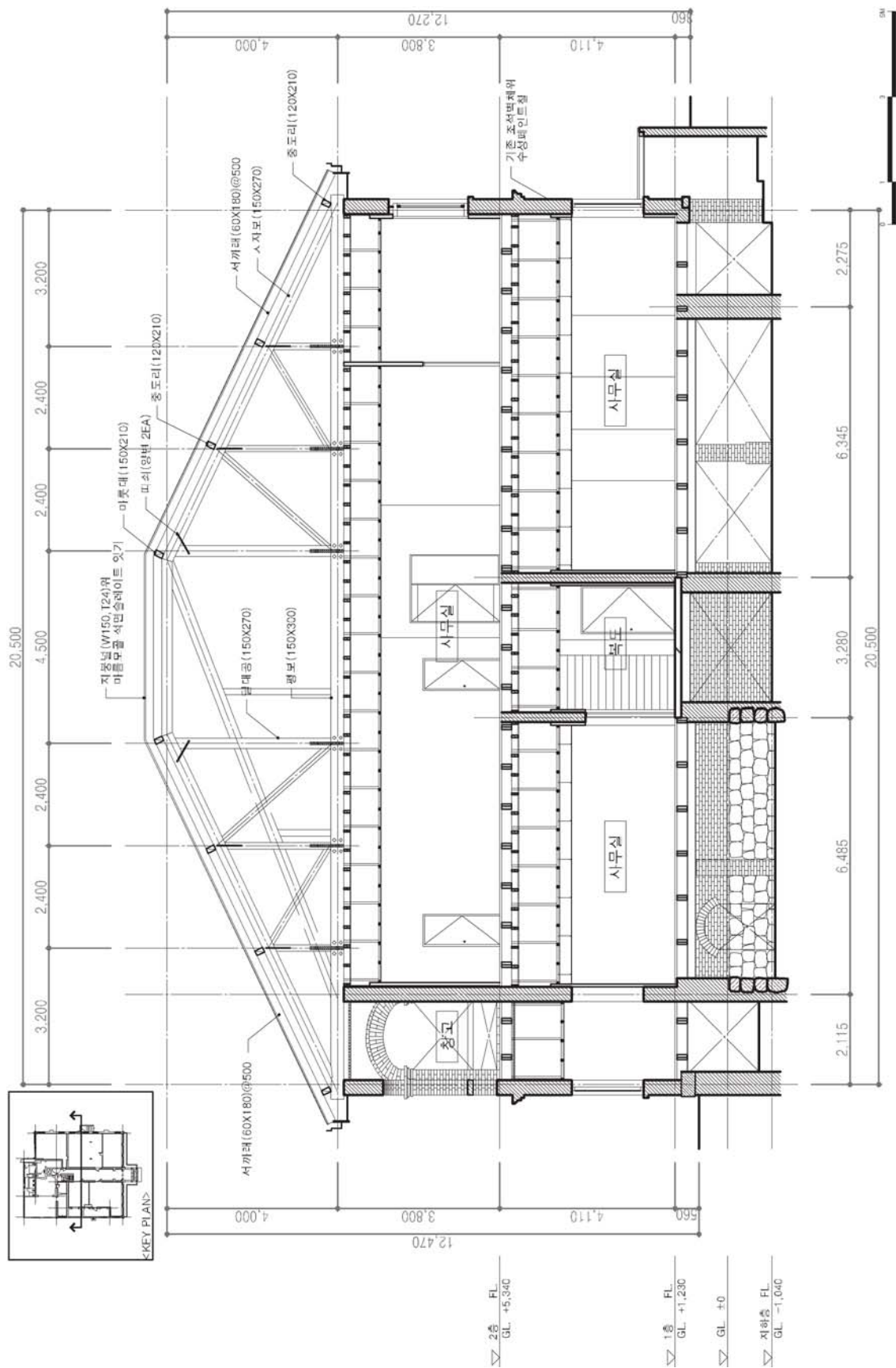
배면 (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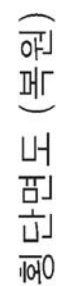
중명전 단면도 (현황)



(아) 퍼 (나) 품 (나) 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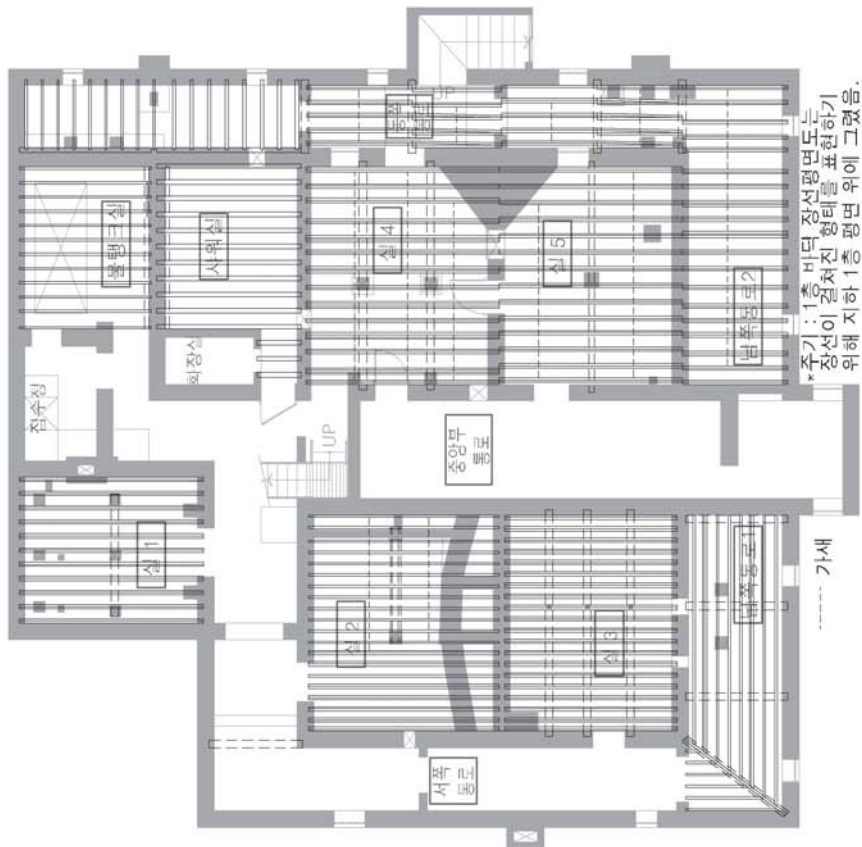


횡단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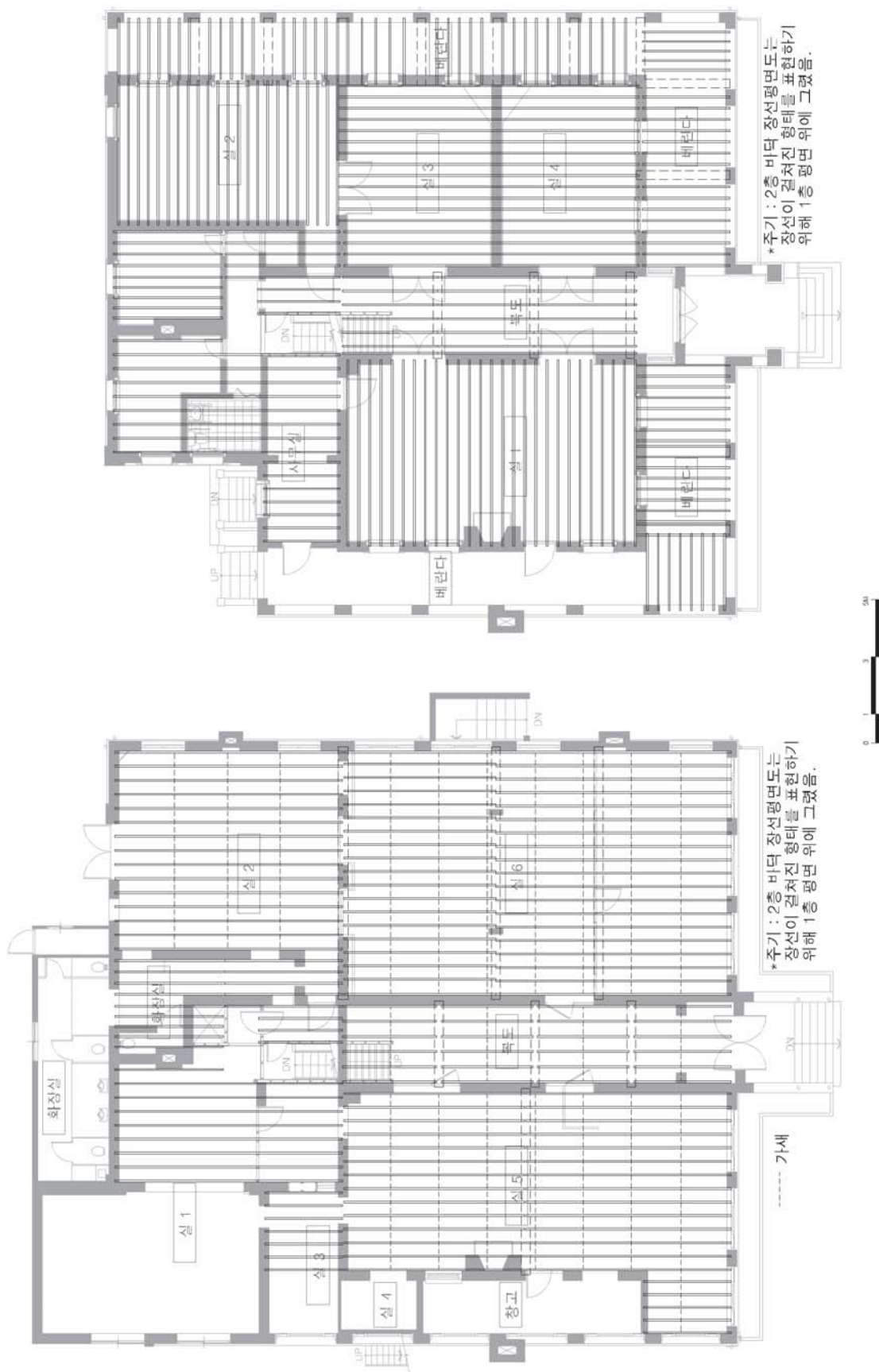




1층 바닥 장선 평면도 (복원)



1층 바닥 장선 평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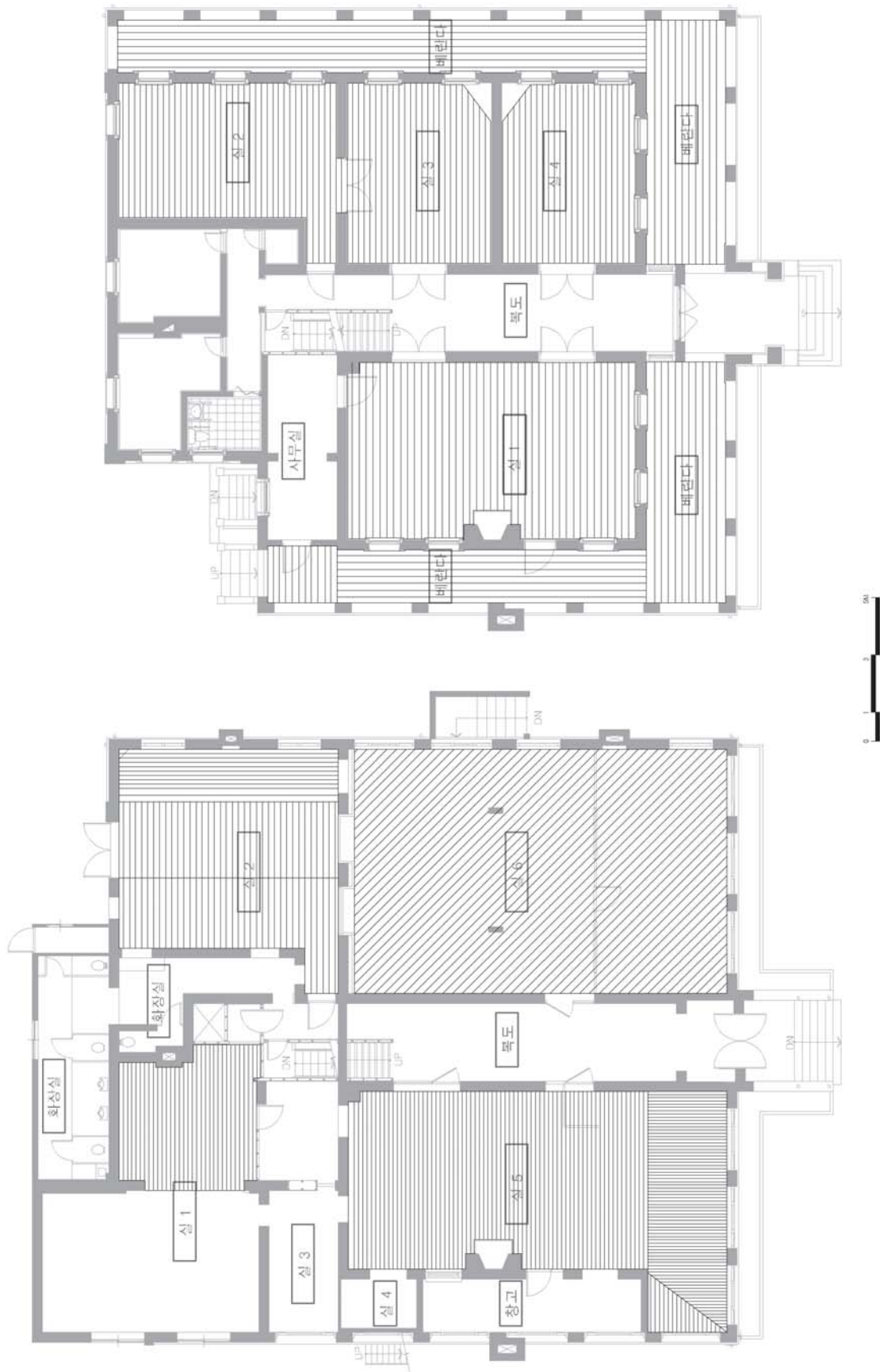


2층 바닥 장선 평면도 (복원)

2층 바닥 장선 평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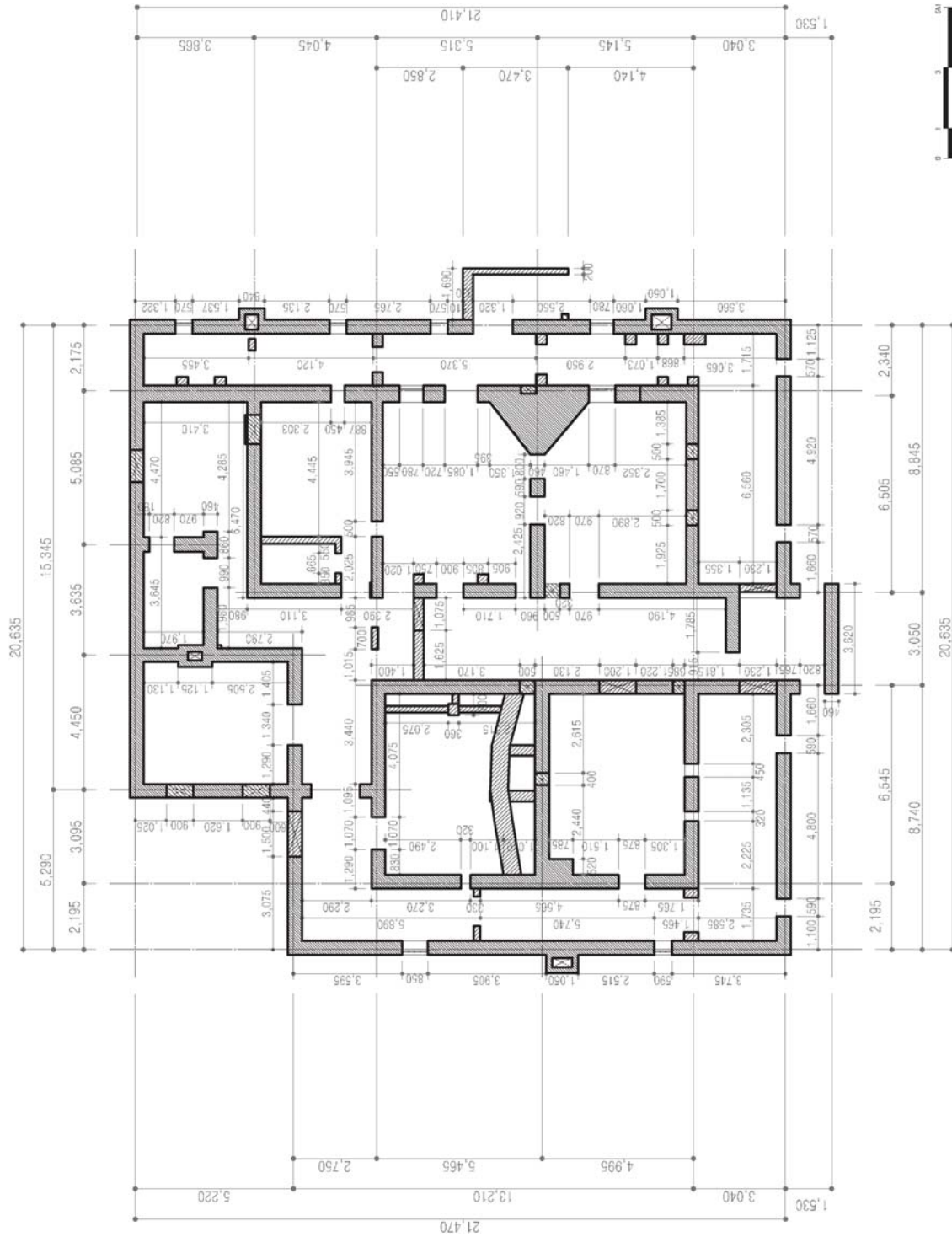
2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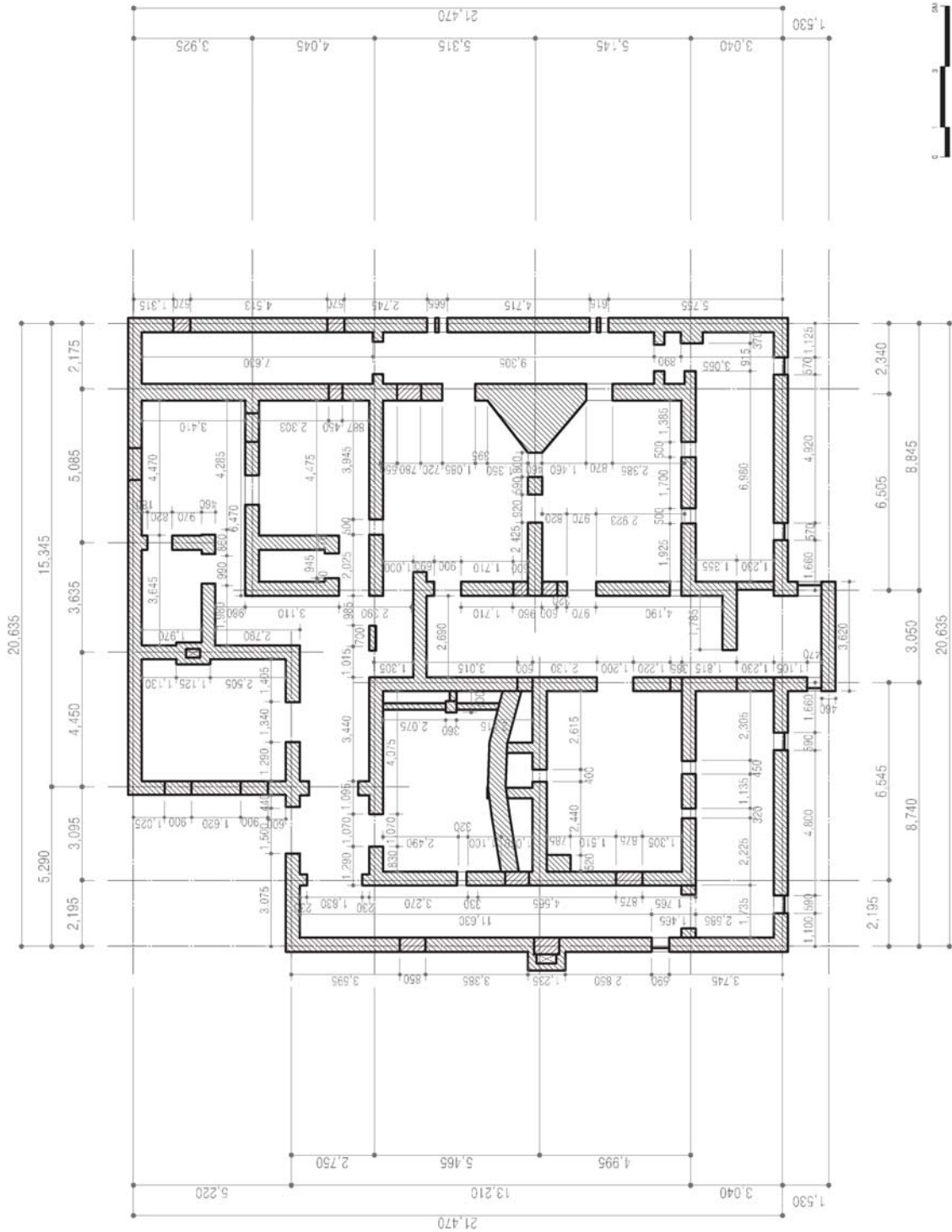
1층 마루바닥 평면도 (보완)

1층 마루바닥 평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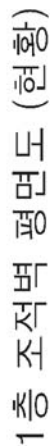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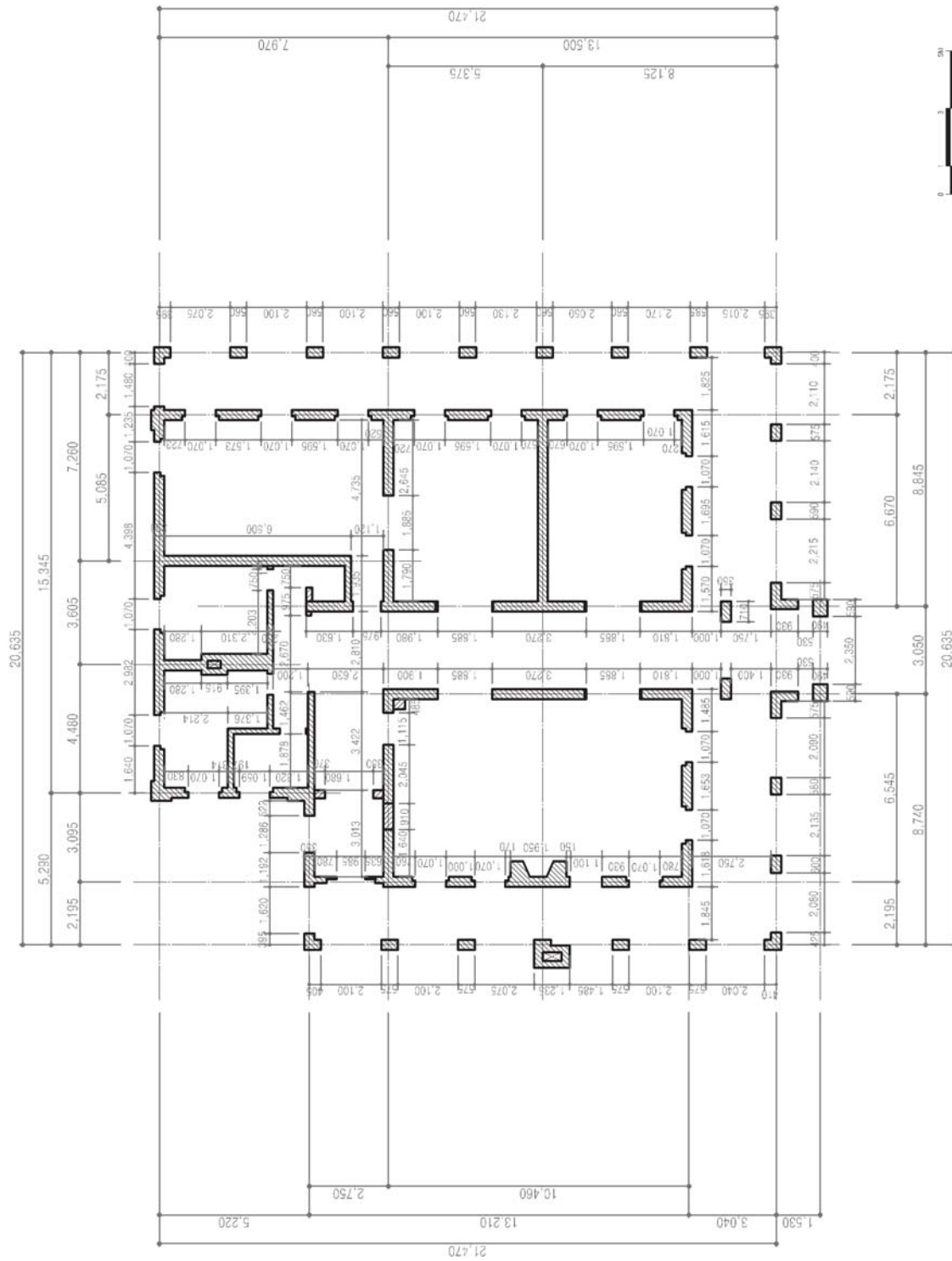


지하 1층 조직벽 평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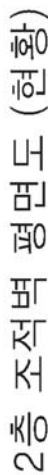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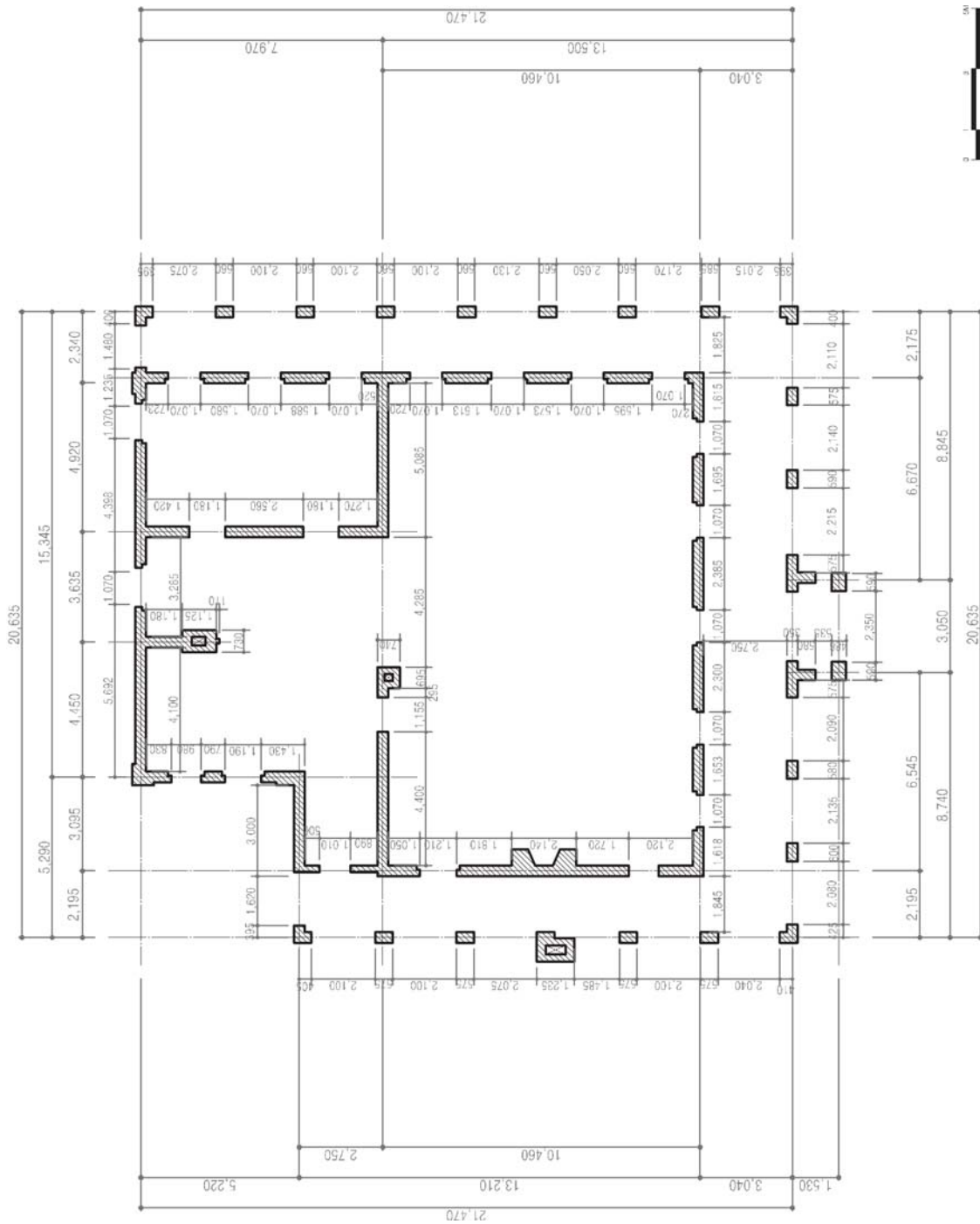
지하 1층 조직벽 평면도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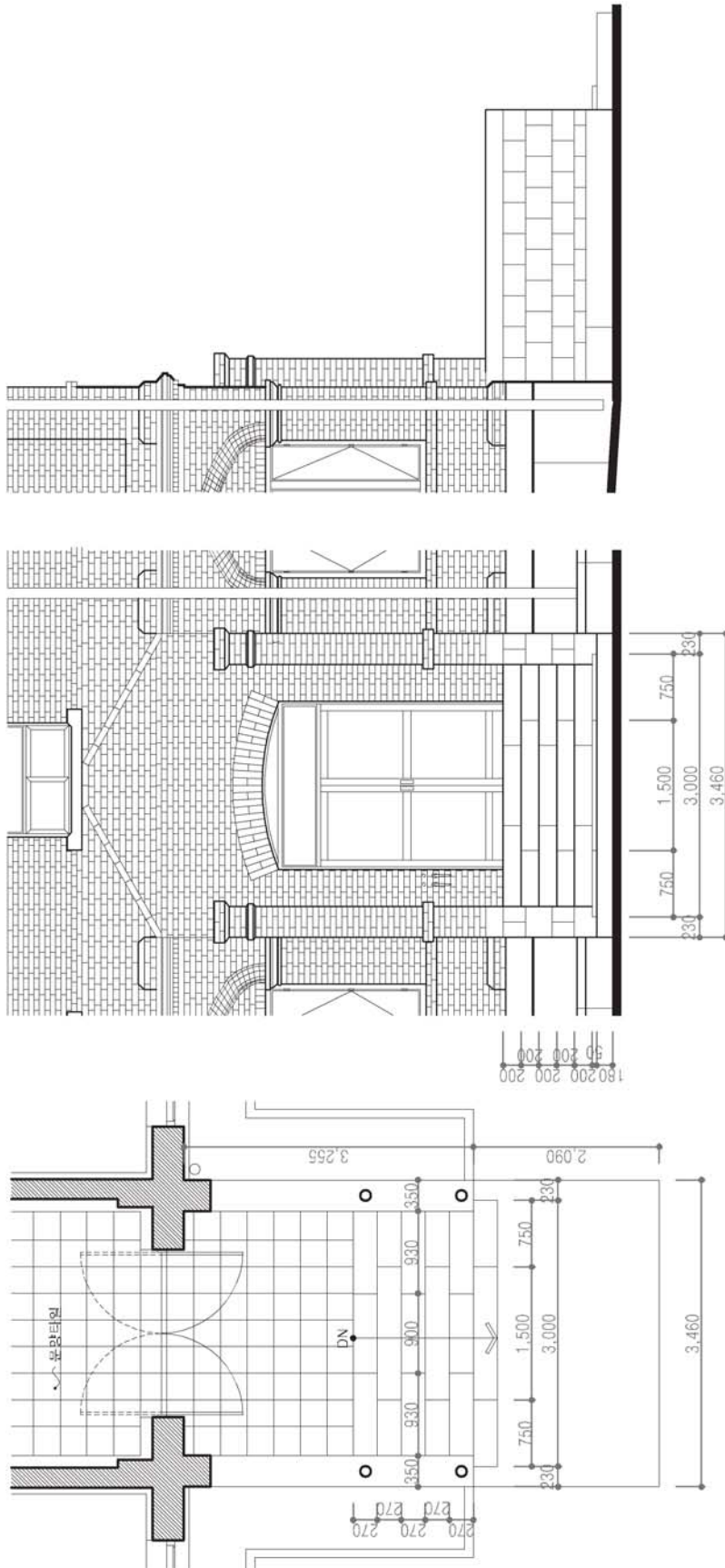


1층 조직면 평면도 (복원)





2층 평면도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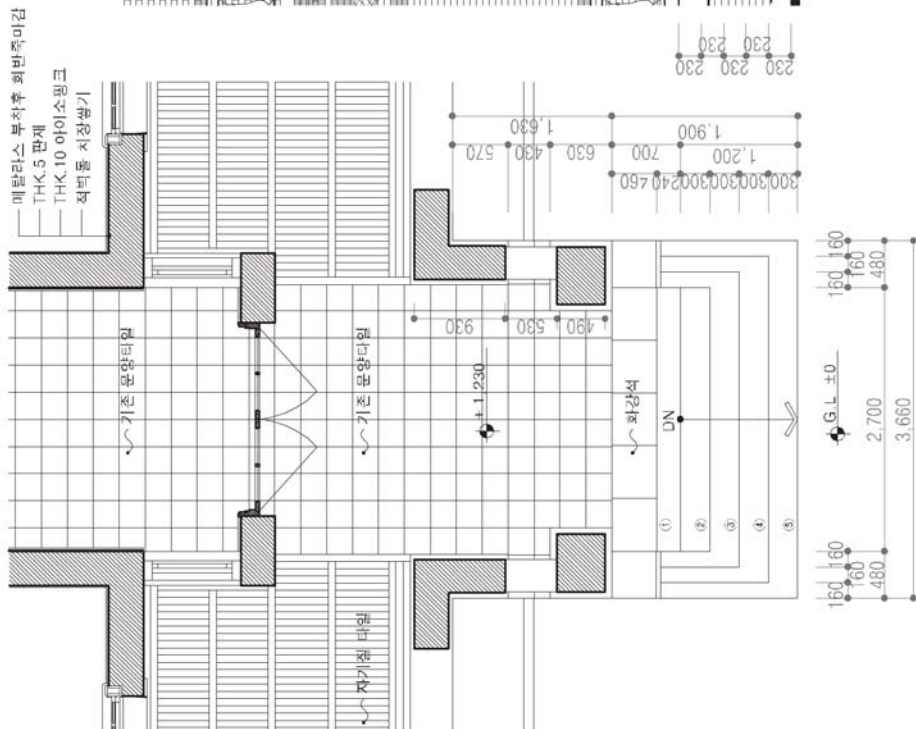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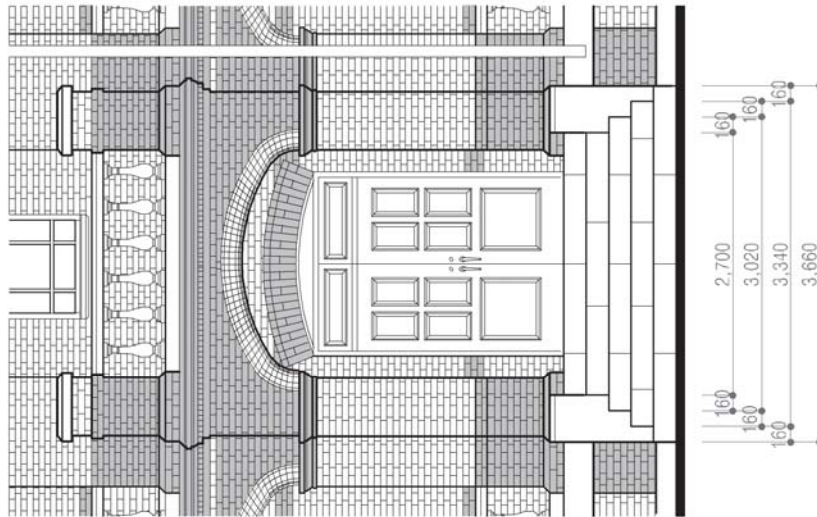
정면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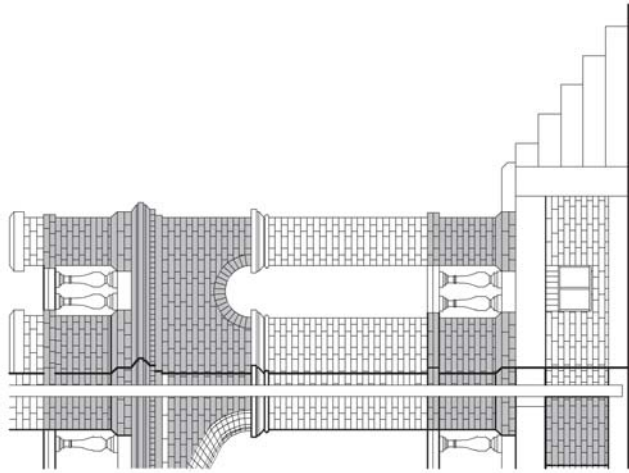
현관 상세도 (현황)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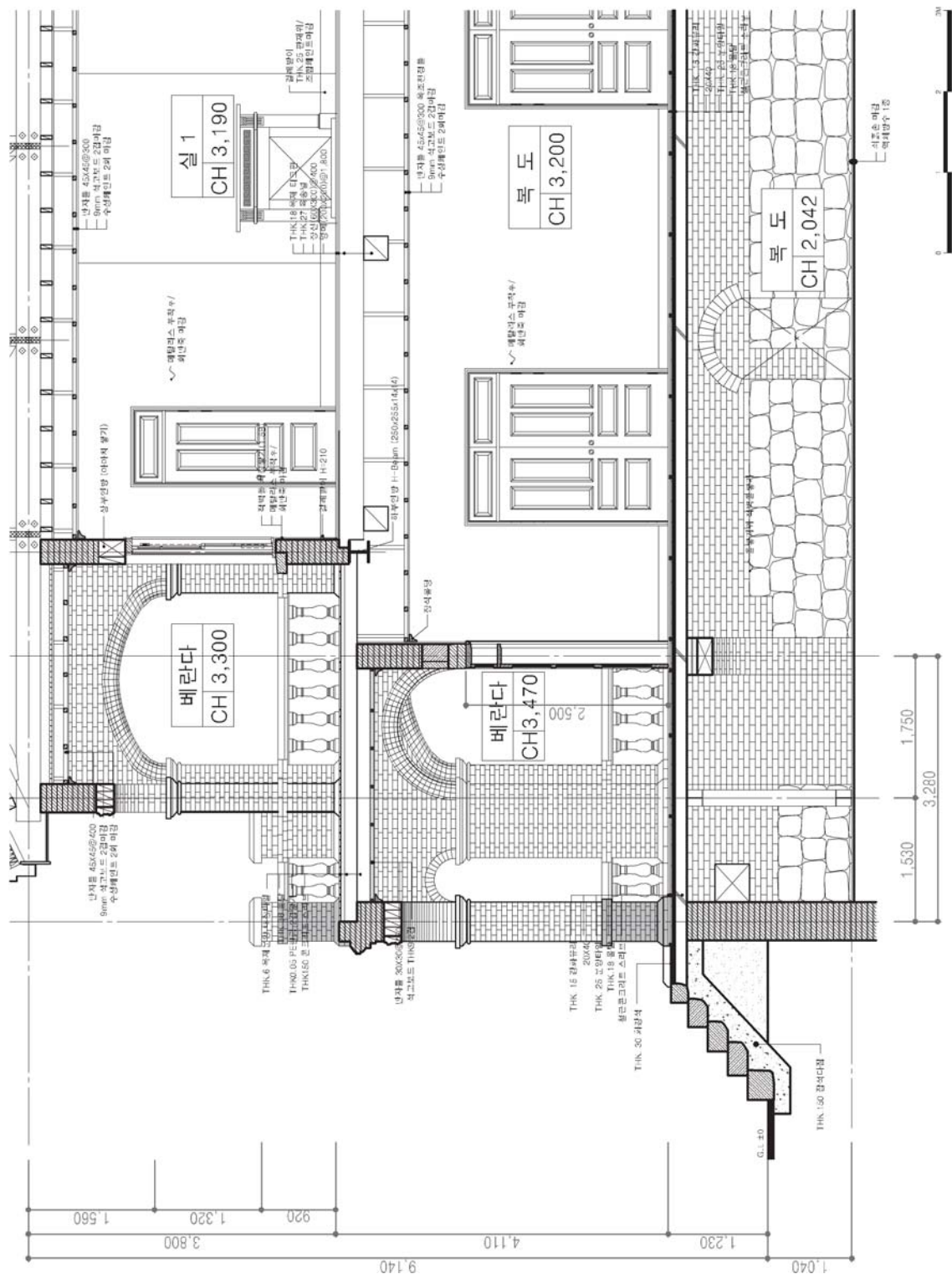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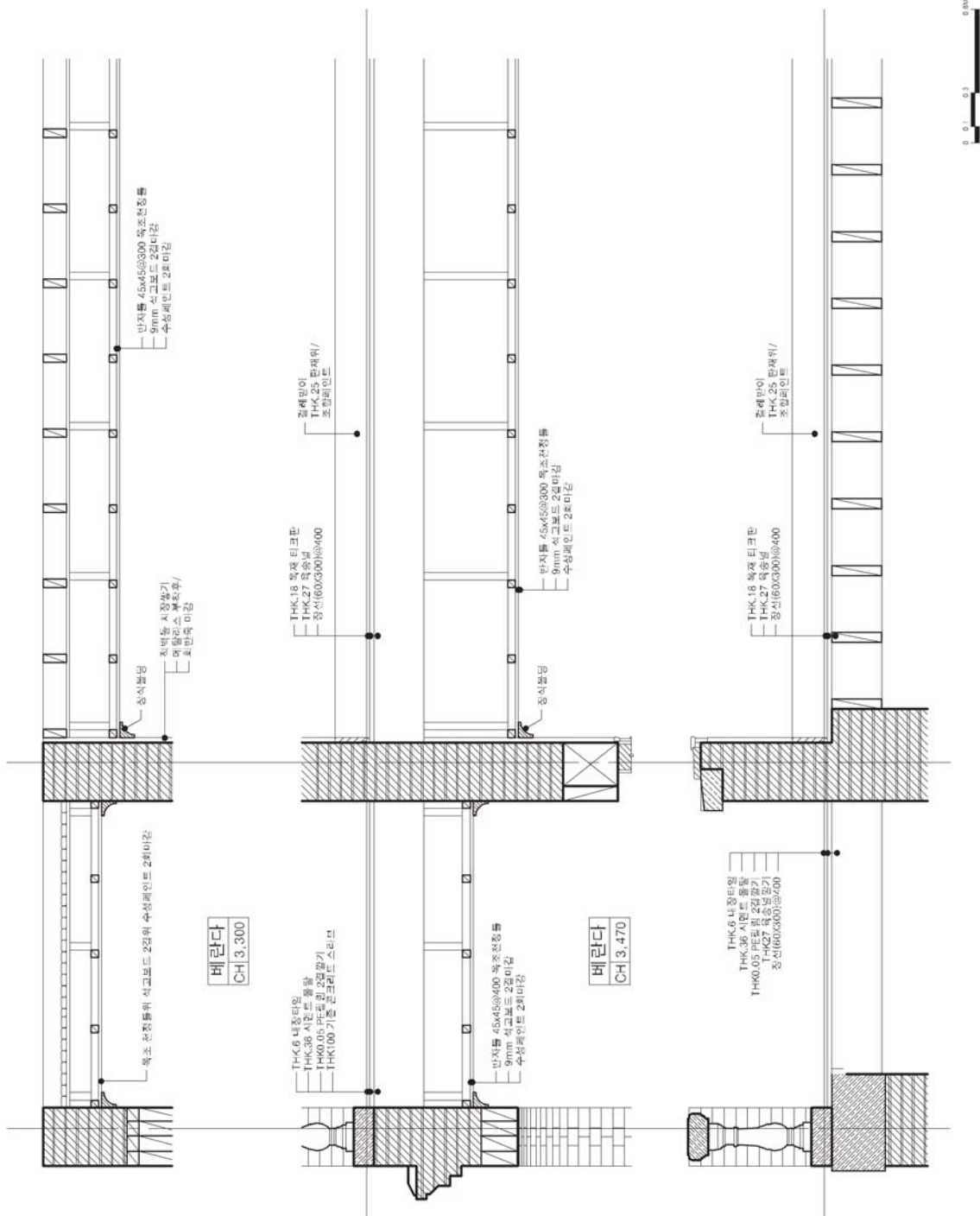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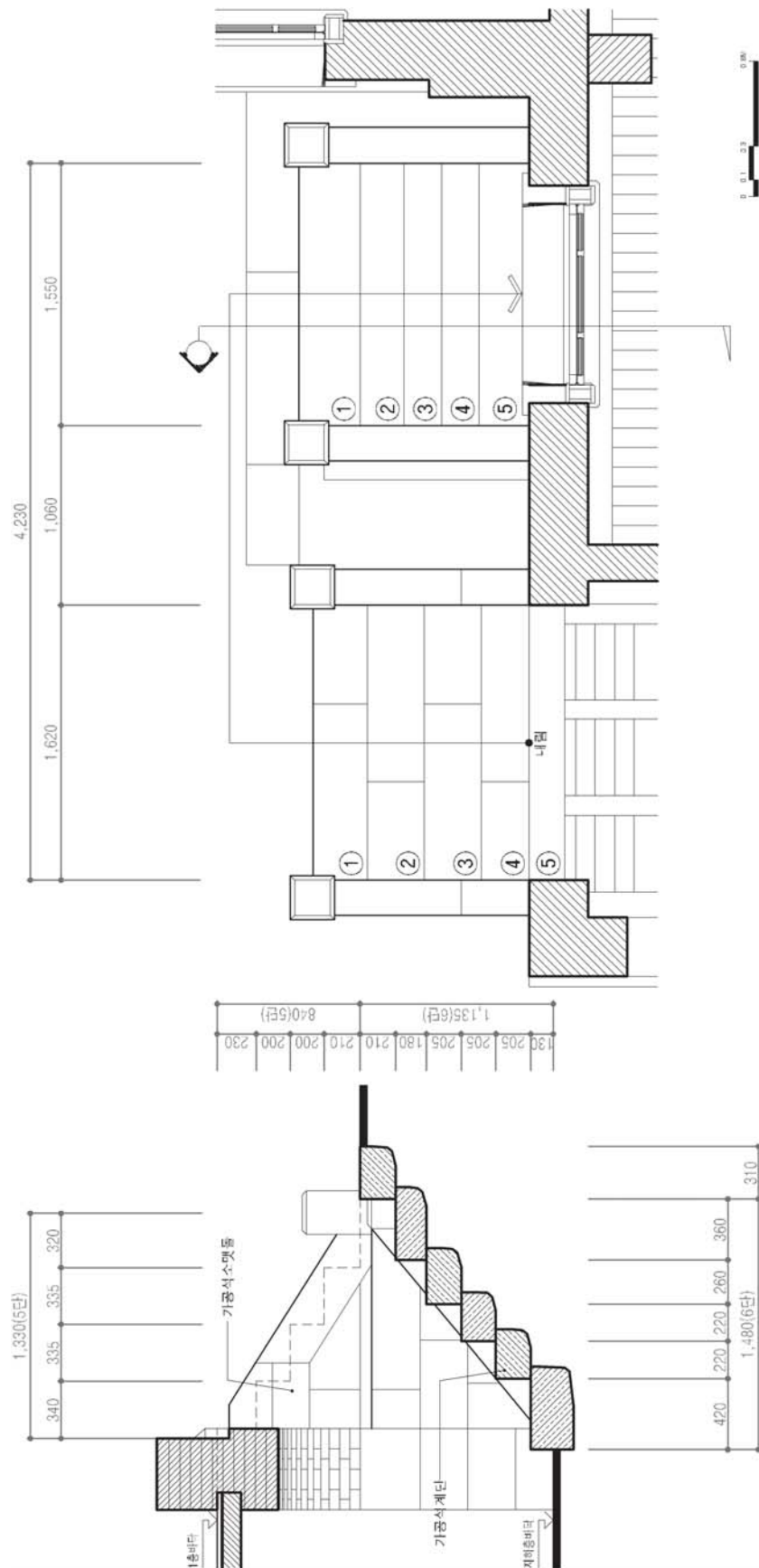
현관 상세도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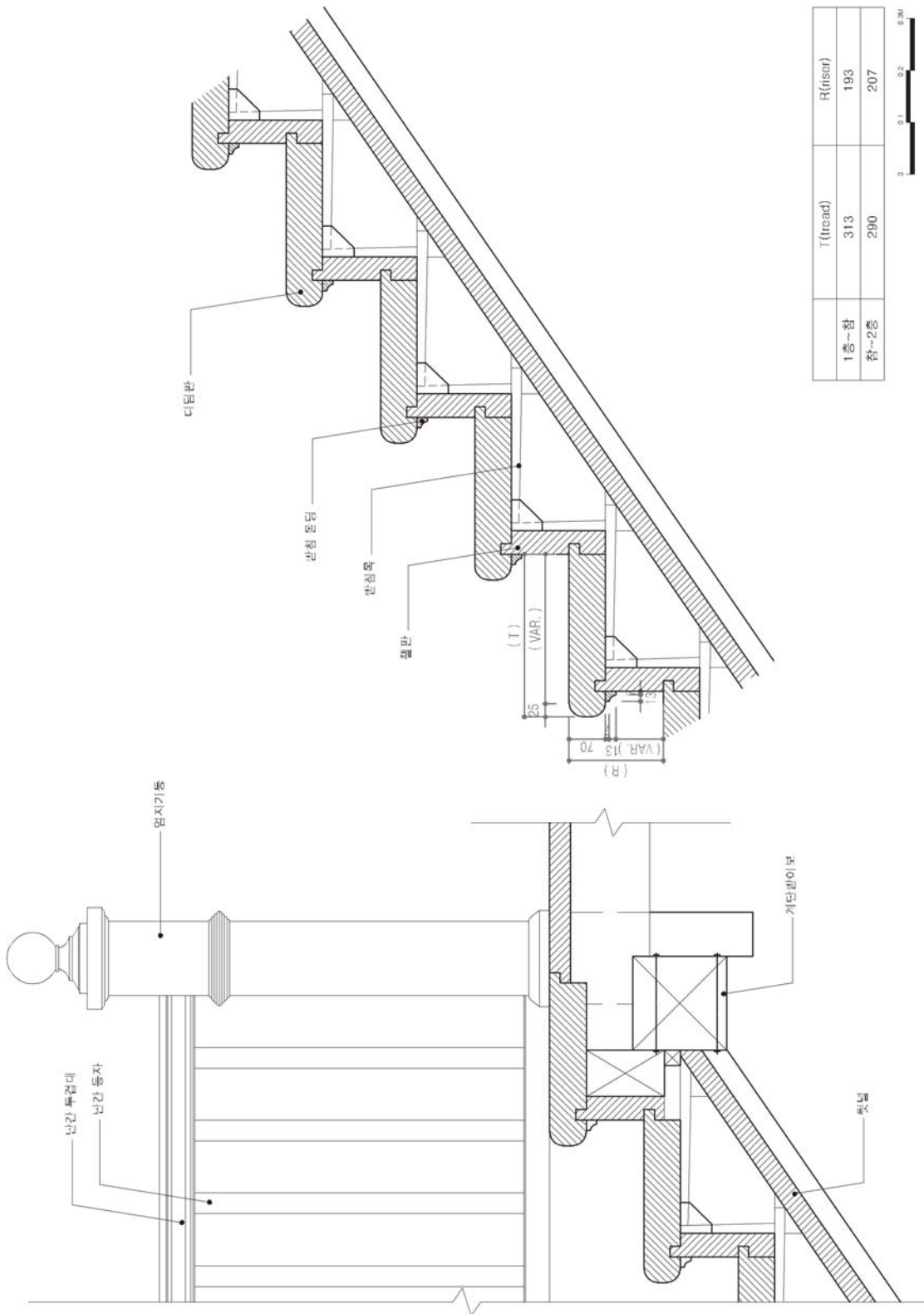
영원한 만남의 세상 (퍼펙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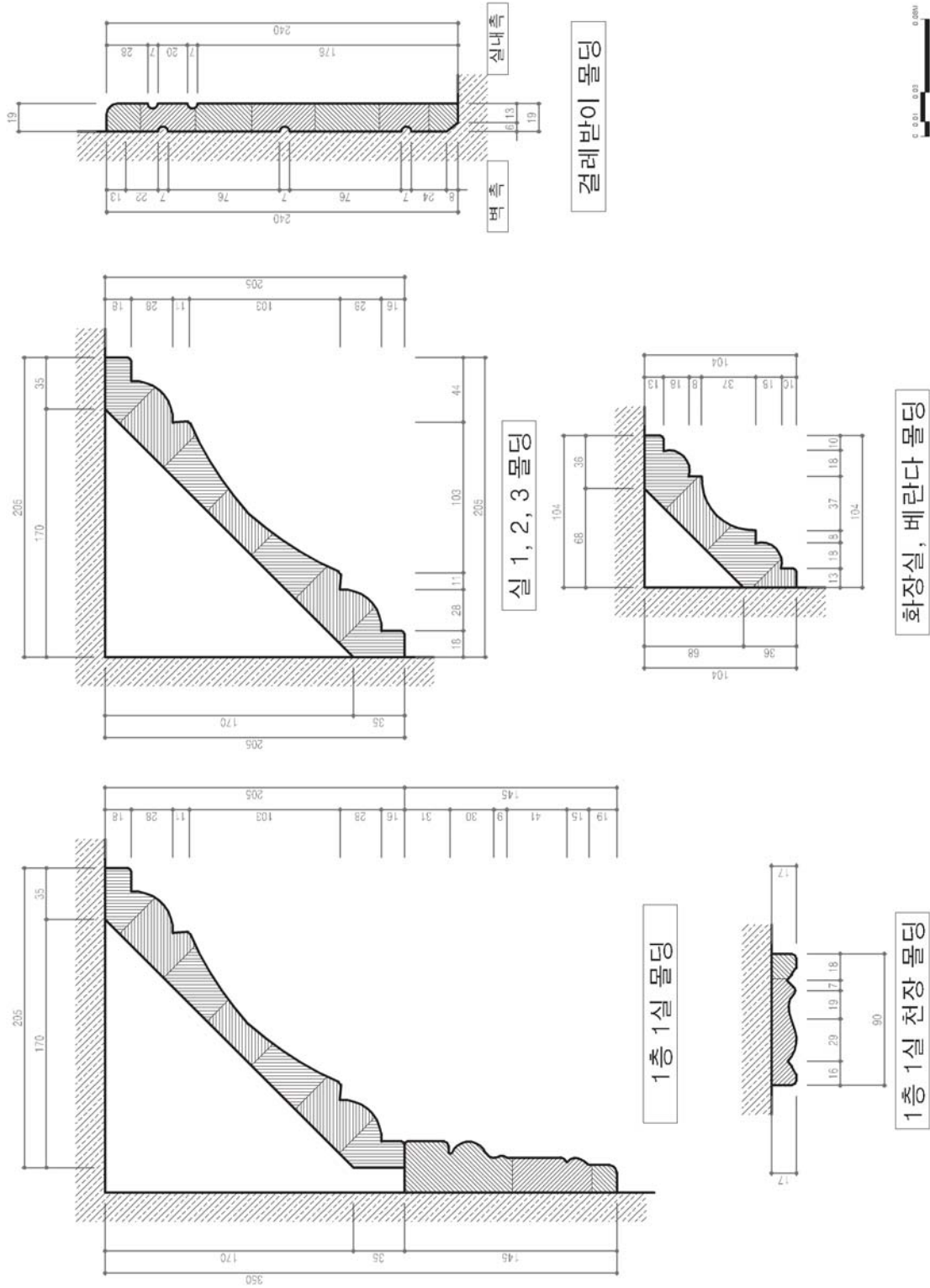
외벽 단면 상세도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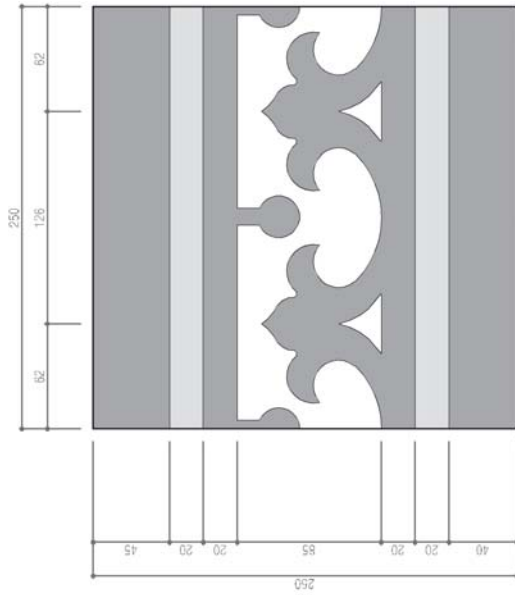
지하계단 상세도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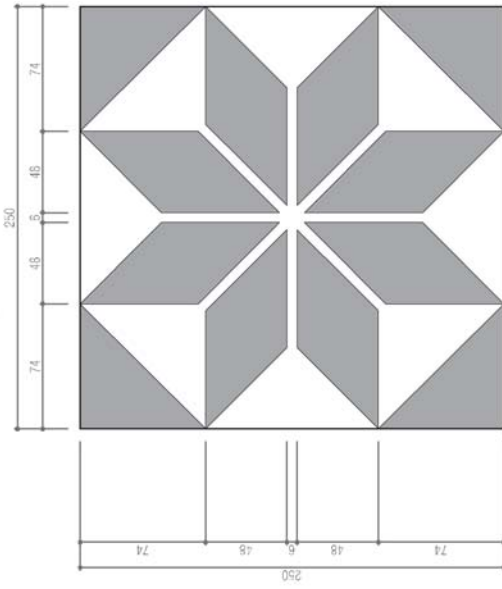
2층 계단 단면 상세도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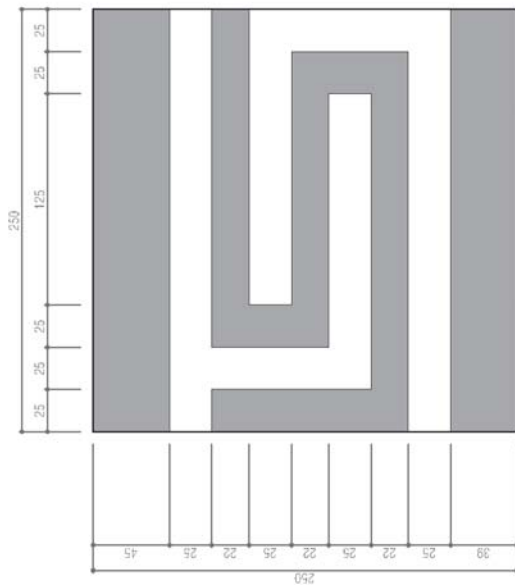
내부 물딩 상세도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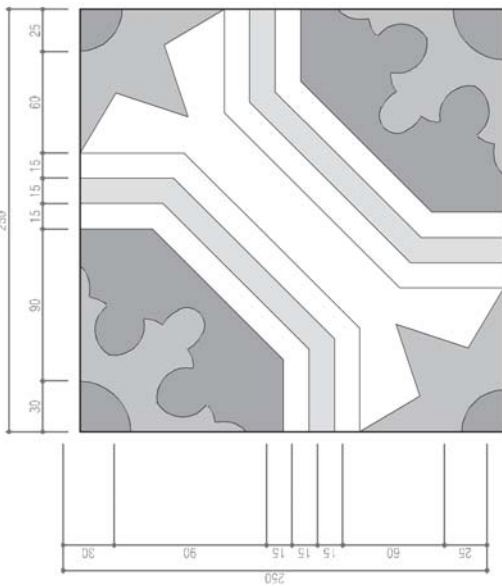
영문꽃문양



영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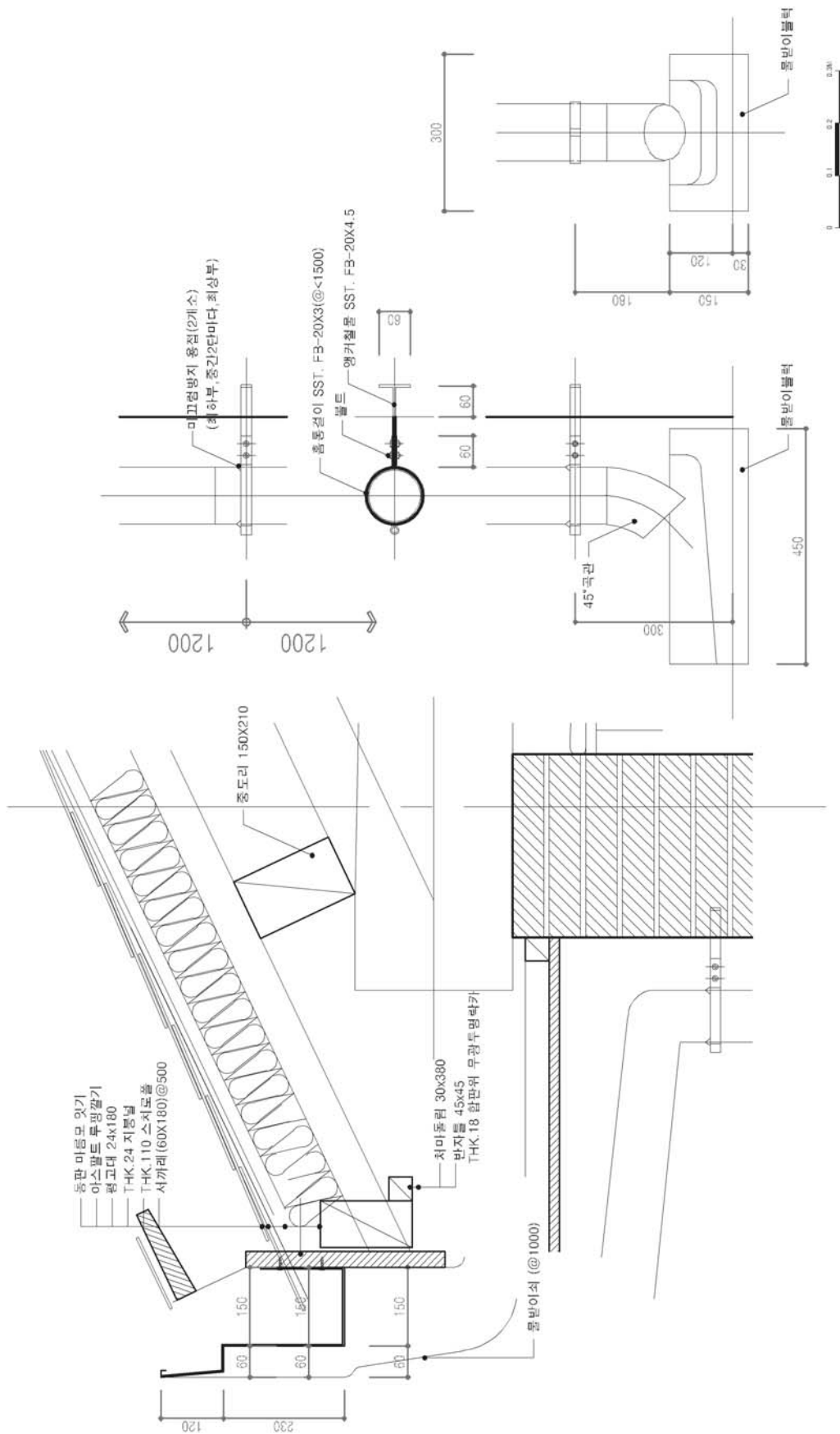
영문중선



영문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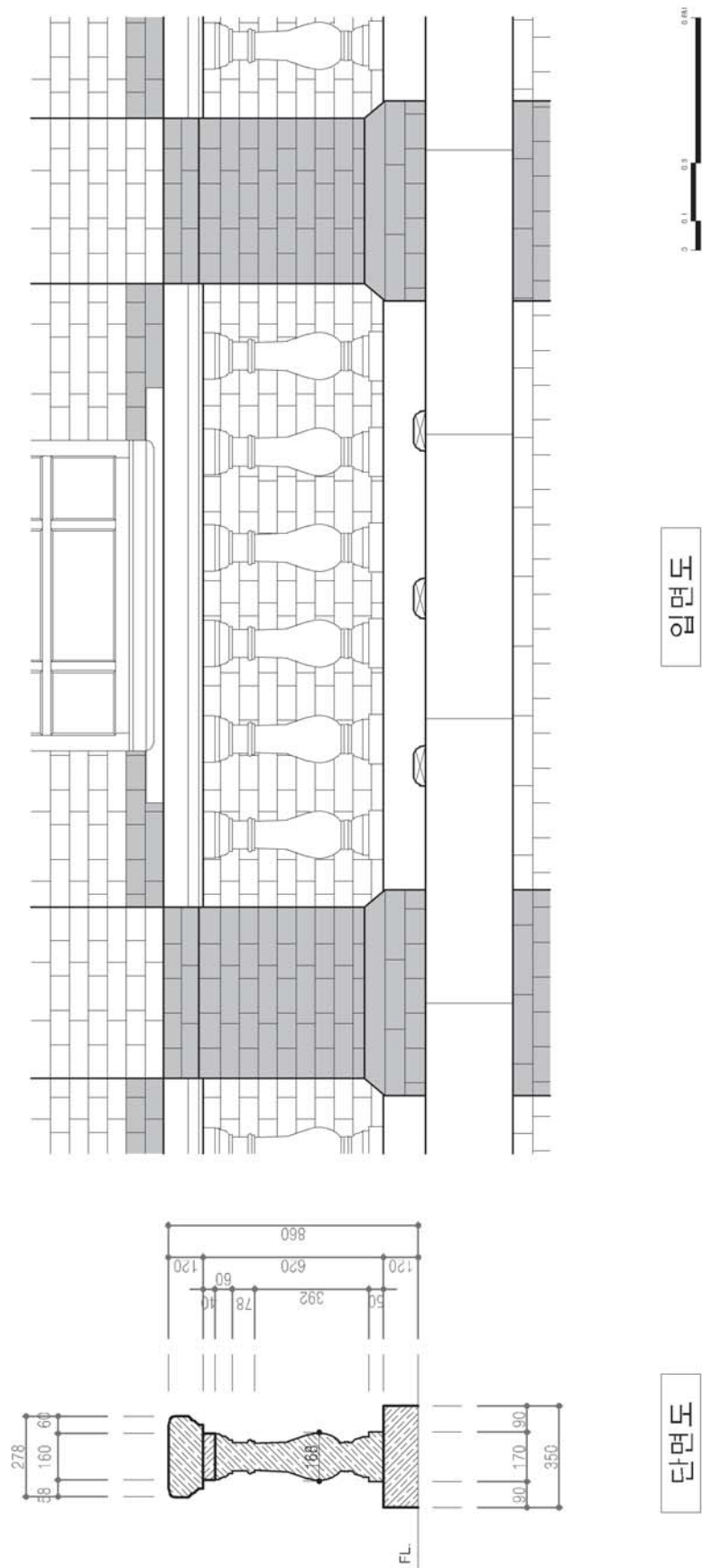


영문
바닥타일 상세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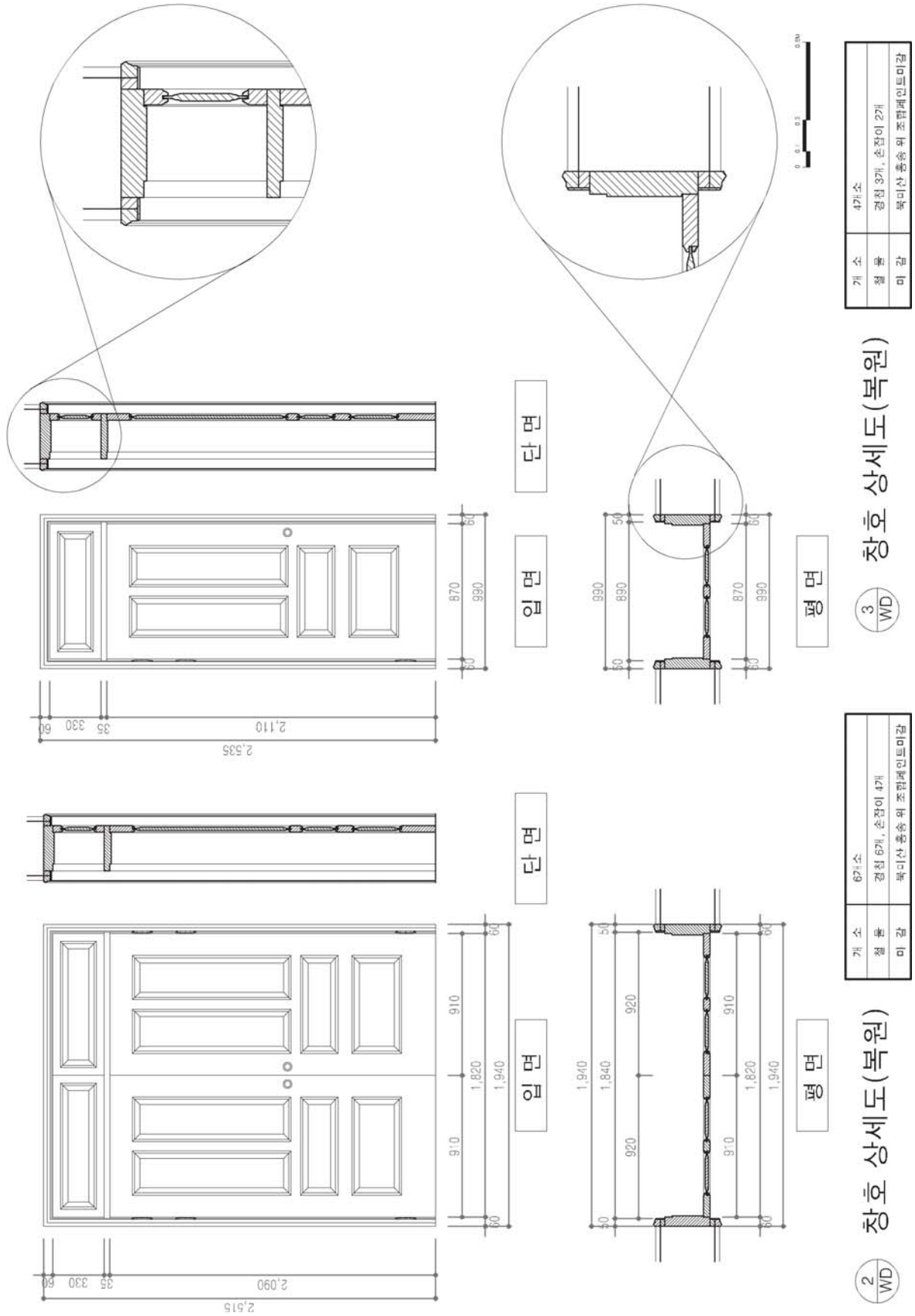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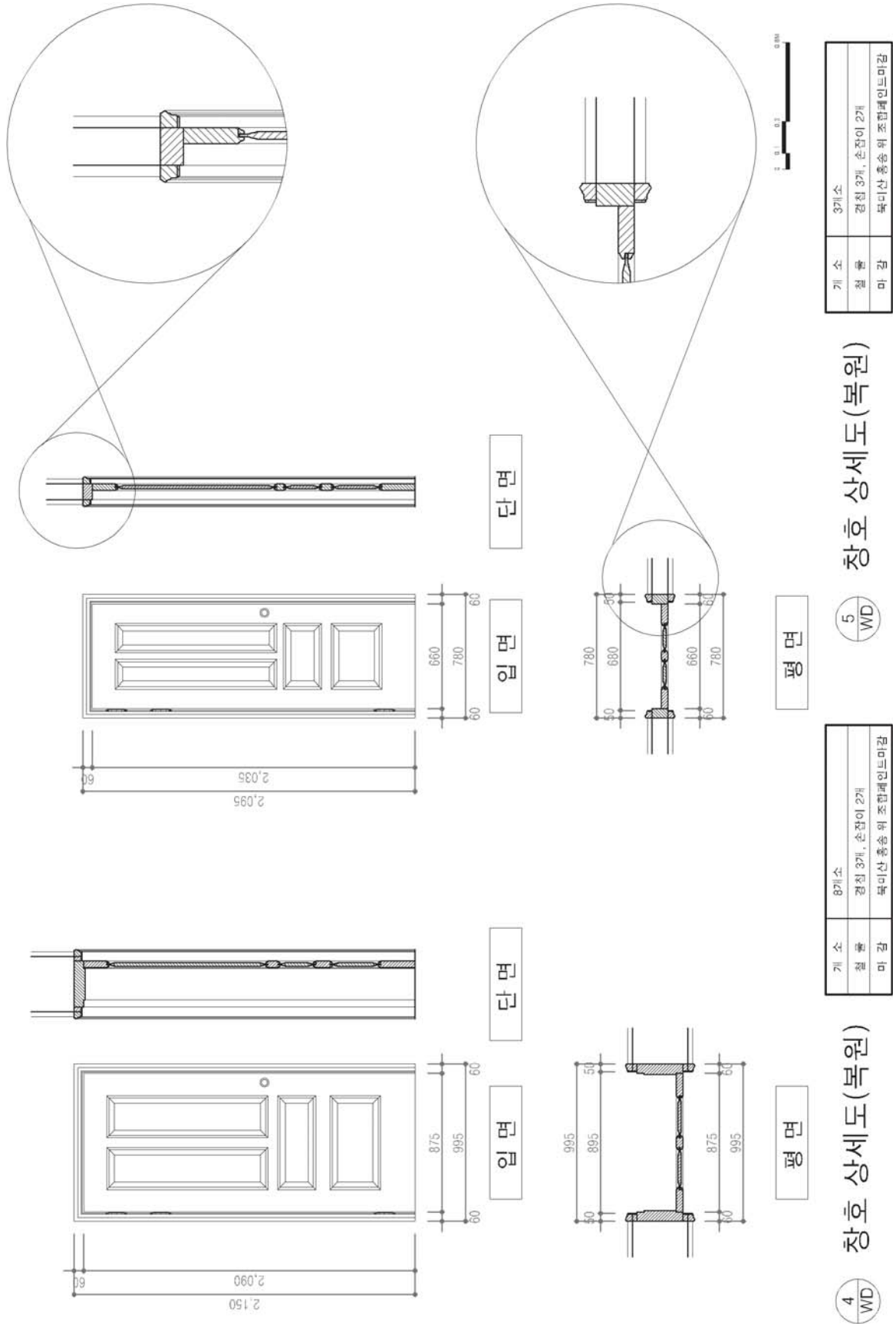
「新學通」(李商) (李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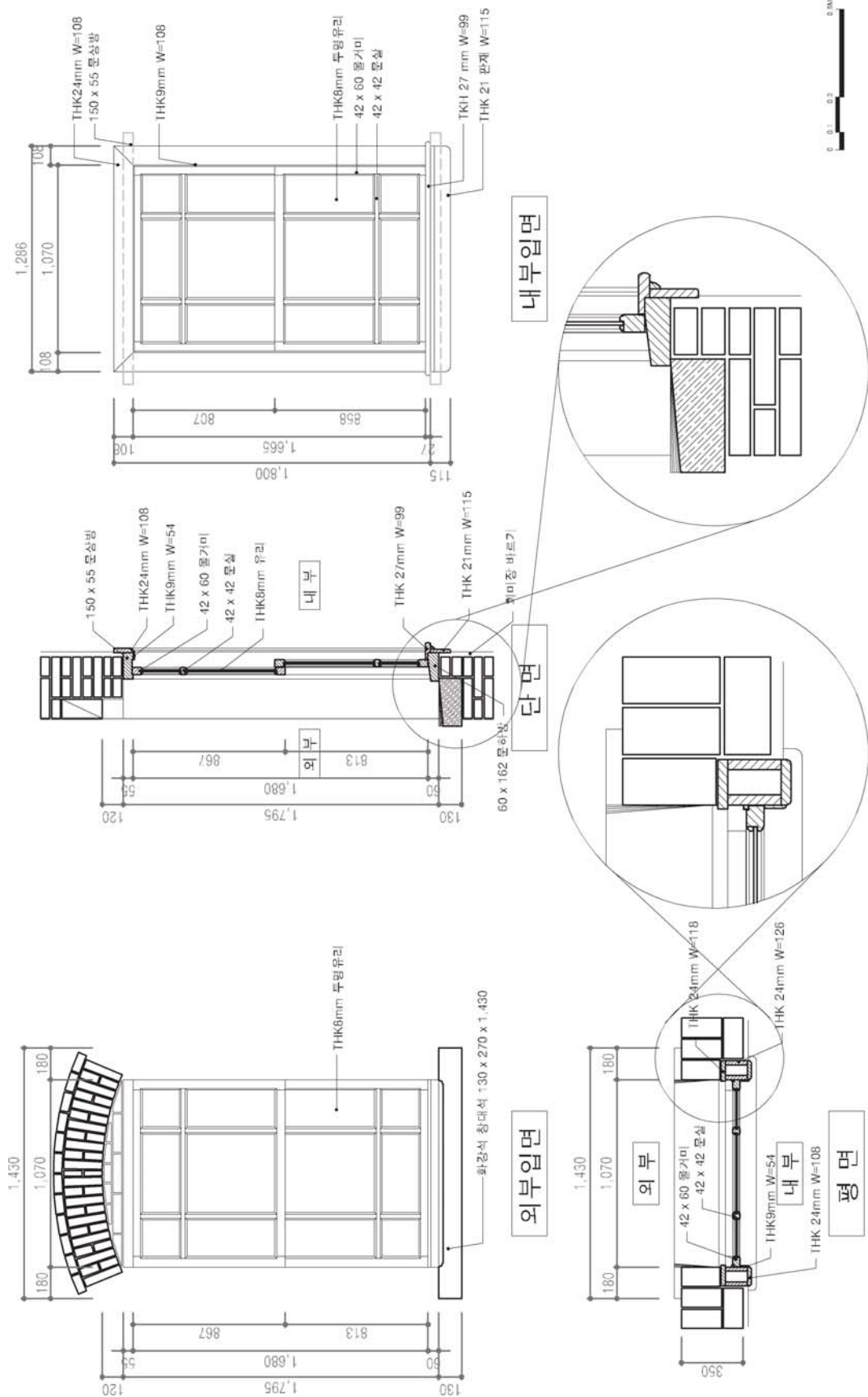
처마부분 상세도 (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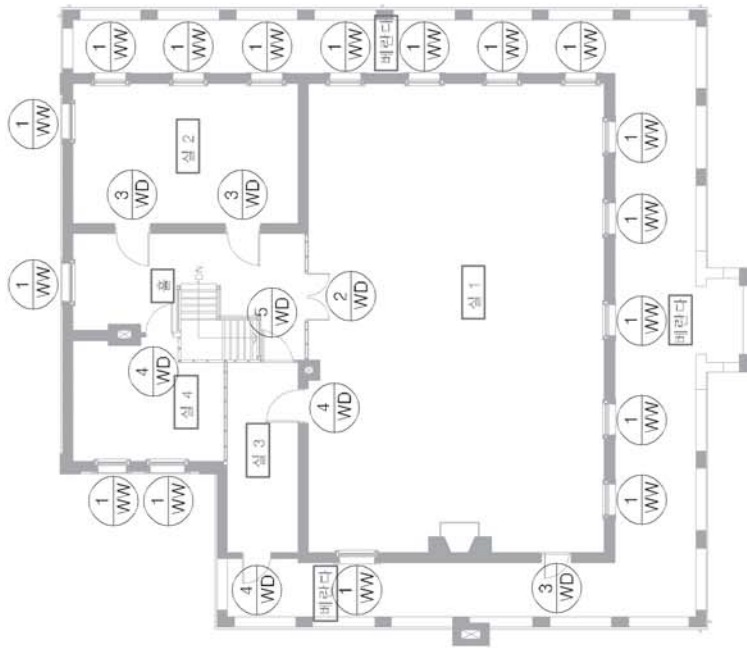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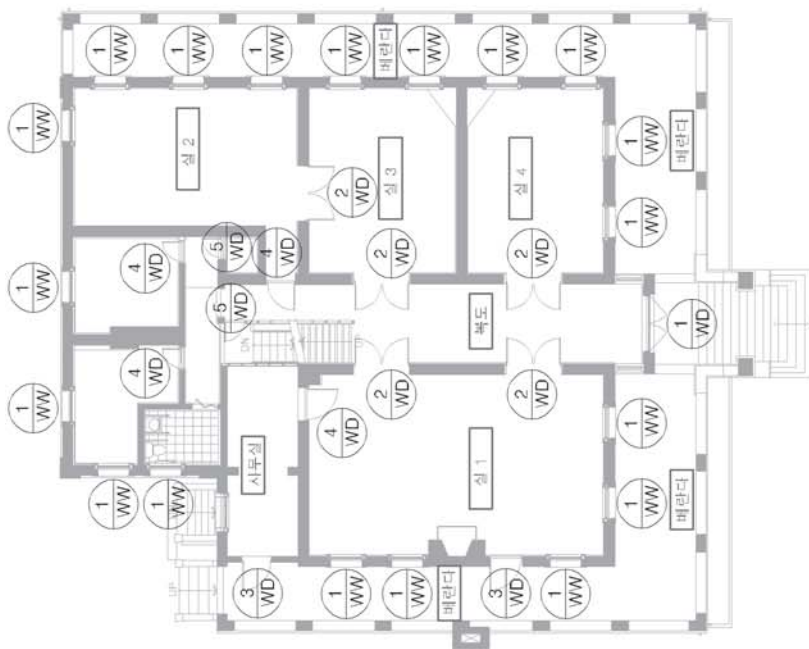
창호 상세도(복원)

1/WW

개 소	36개 소
설 물	오르너리호차 4개, 오르너리후 4개, 창호철물 임질
마 감	THK8mm 투명유리, 복미산 홍송 위 조판페인트마감



2층



1층

창호안내도 (복원)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 보고서

초판발행 : 2009년 12월

초판 1쇄 : 2009년 12월

발행처 : 문화재청

☎ 042-481-4650(www.cha.go.kr)

기획편집 : (주)아름터 건축사사무소

☎ 041-567-8570

인쇄 : 두리그래픽

☎ 02-2268-5536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